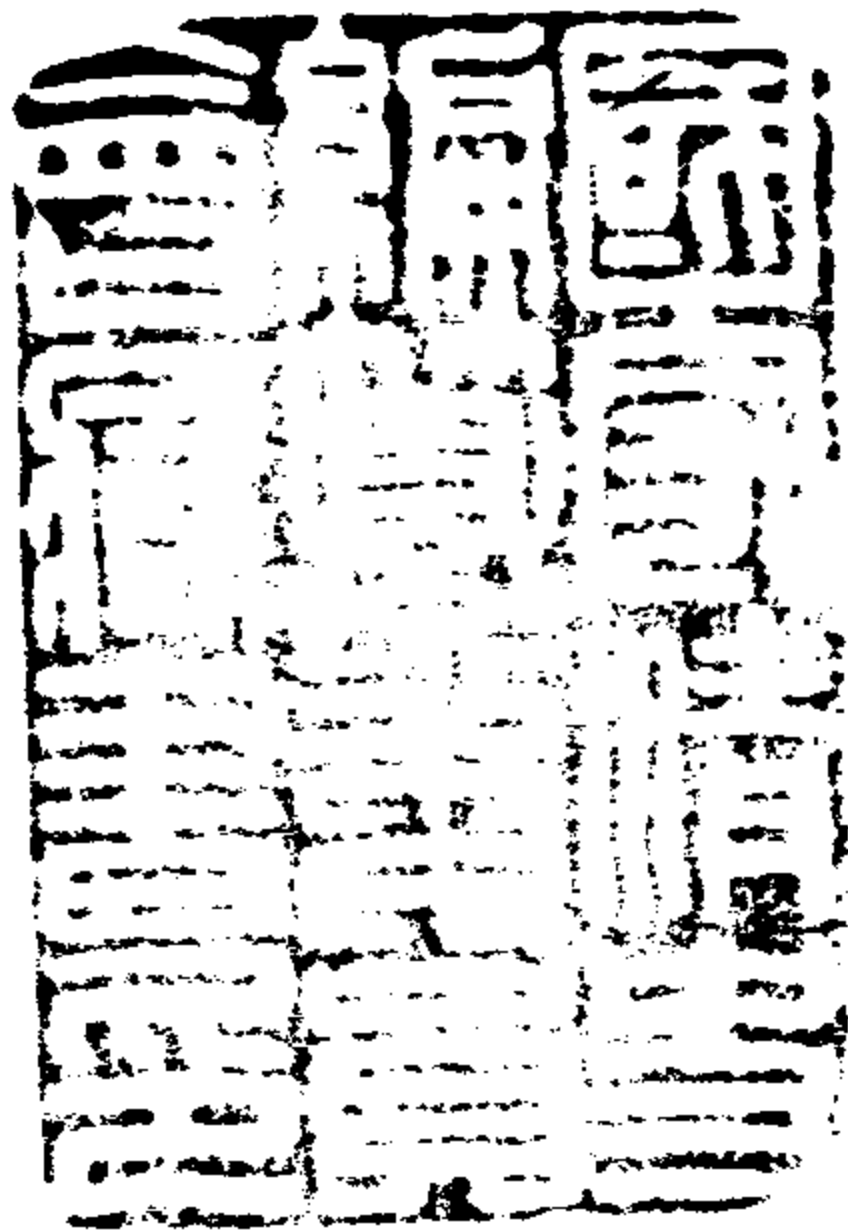


008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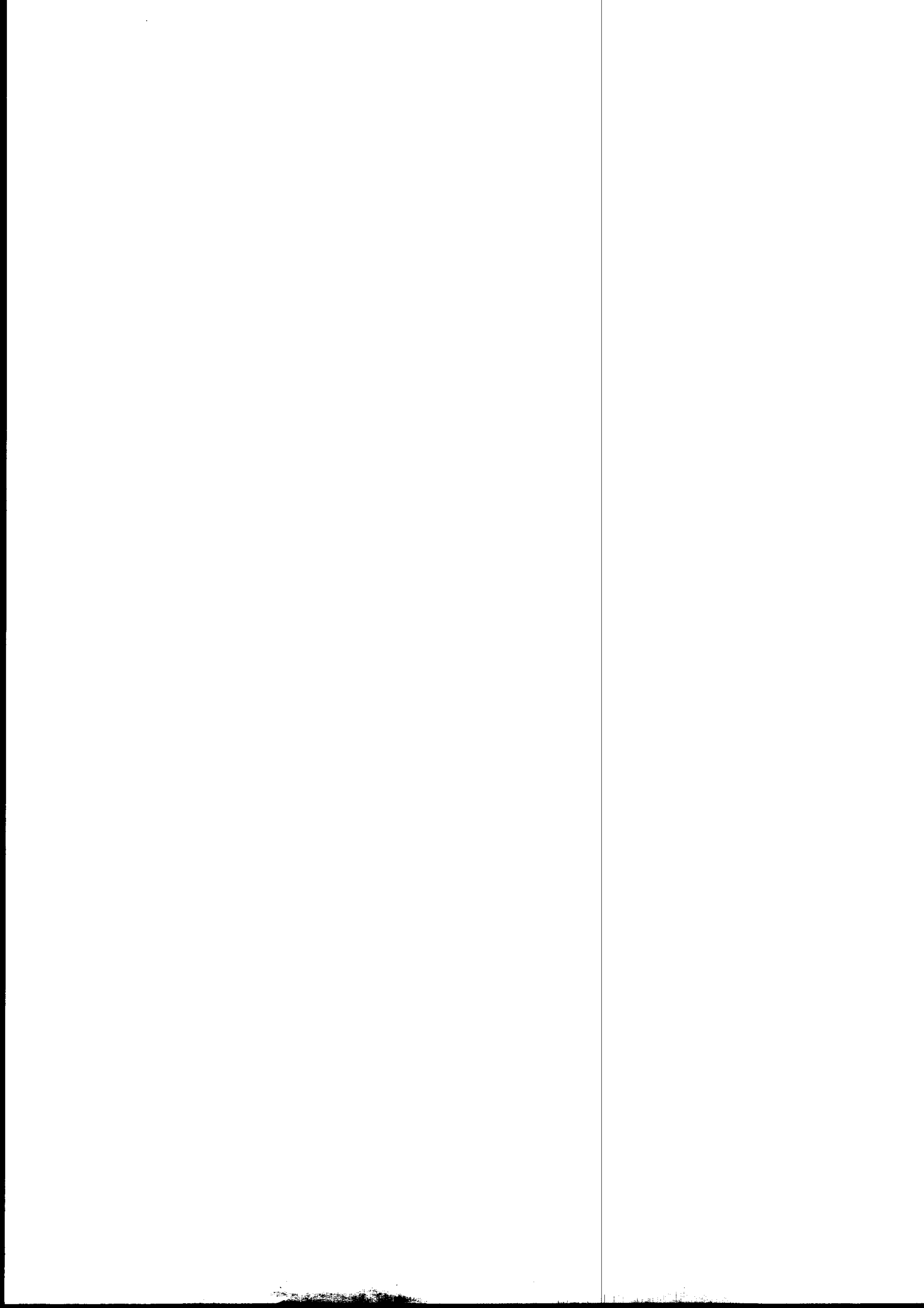
林基中編

燕行錄全集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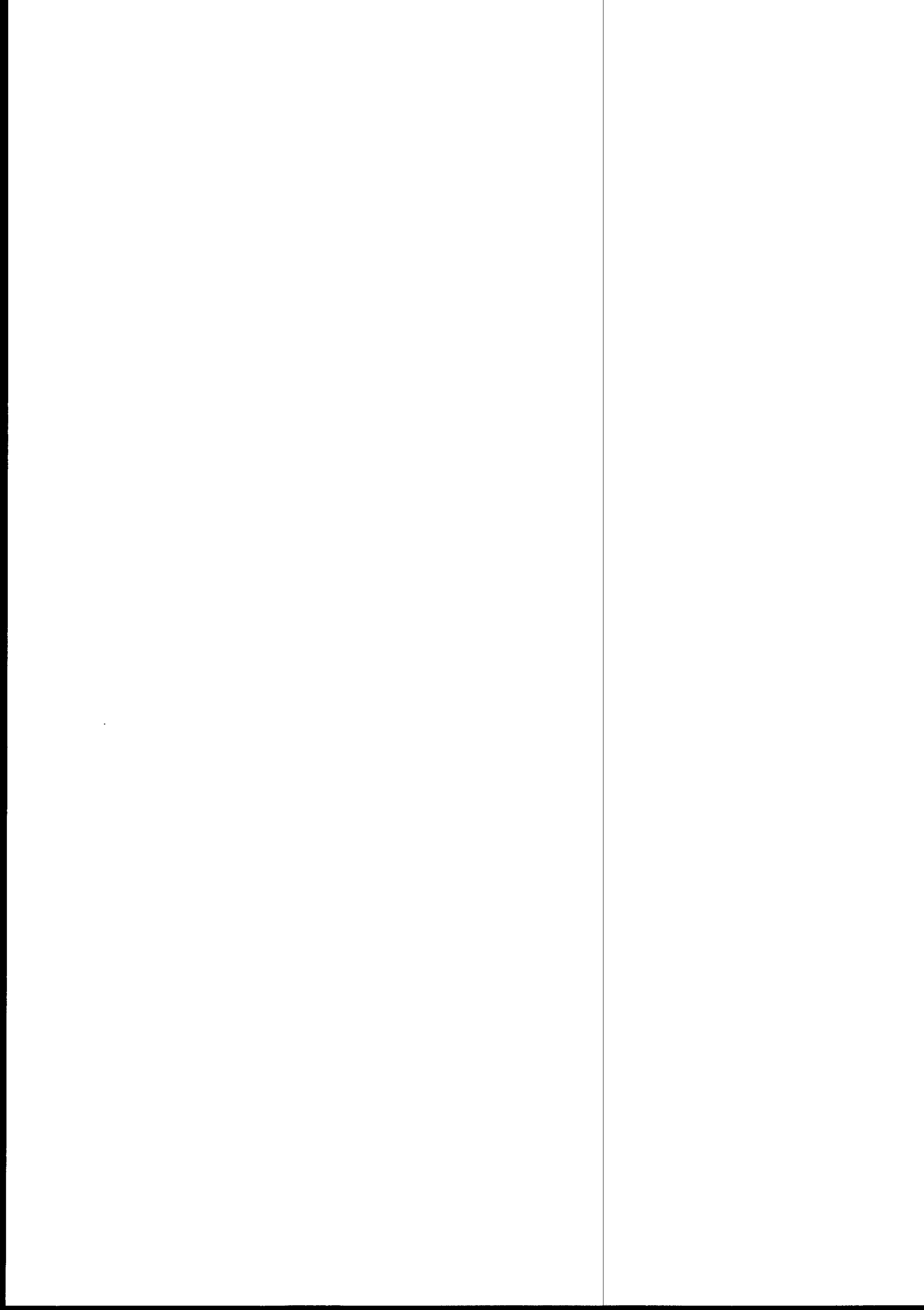
東國大學校出版部



燕行錄은 韓國의 외교사절들이 明나라와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았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記錄遺産이다.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기록은 朝天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고,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것은 燕行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다. 그래서 흔히들 朝天錄과 燕行錄이란 用語를 그렇게 辨別하여 使用하려고 하는 傾向도 있다. 그러나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記錄에도 燕行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있어서 이 책의 이름을 『燕行錄全集』이라 붙였다고 들었다. 따라서 이 책은 韓國人이 元과 明과 淸朝에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은 中國使行錄全集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 붙인다면 가령 이전 王朝의 記錄도 이 全集의 수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中國使行錄은 中國人의 使行錄으로 誤認될 素地도 있어서 燕行錄이란 이름이 無難할 것으로 여겨진다.

燕行錄은 高麗末부터 朝鮮末까지 五百餘年 동안 韓國人들이 外交的인 通路로 中國에 나가서 보고들은 見聞과 先進文物에 대한 體驗들을 自由롭고 創意性 있게 記錄한 것이다. 여기에는 韓國과 東亞細亞, 東亞細亞와 世界外 交의 力學關係, 公式 非公式의 國際貿易과 經濟的 狀況, 多様な 文化交流와 尖端 學術交流 등 아주 多樣하고 많은 情報의 양이 生생한 모습으로 알알이 박혀 있다. 따라서 東亞細亞 어느 分野의 研究에서도 參考하지 않을 수 없는 彪大한 記錄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

이 全集의 編者인 林基中 教授는 우리 대학 國語國文學科에서 梁柱東 教授님의 指導로 鄉歌를 研究한 분이다. 이 분은 母校의 教授로 있으면서 이미 몇 가지 學界가 注目할만한 일을 해낸 바 있다. 우리 대학의 支援으로 中國 北京大學에 專家教授로 가서 實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廣開土王碑 原石拓本 1種을 찾아내어, 그 碑文을 새롭게 읽어냄으로써 一百餘年 동안의 昏迷를 거듭해온 東亞細亞 學界에 새로운 研究地平을 열었으며, 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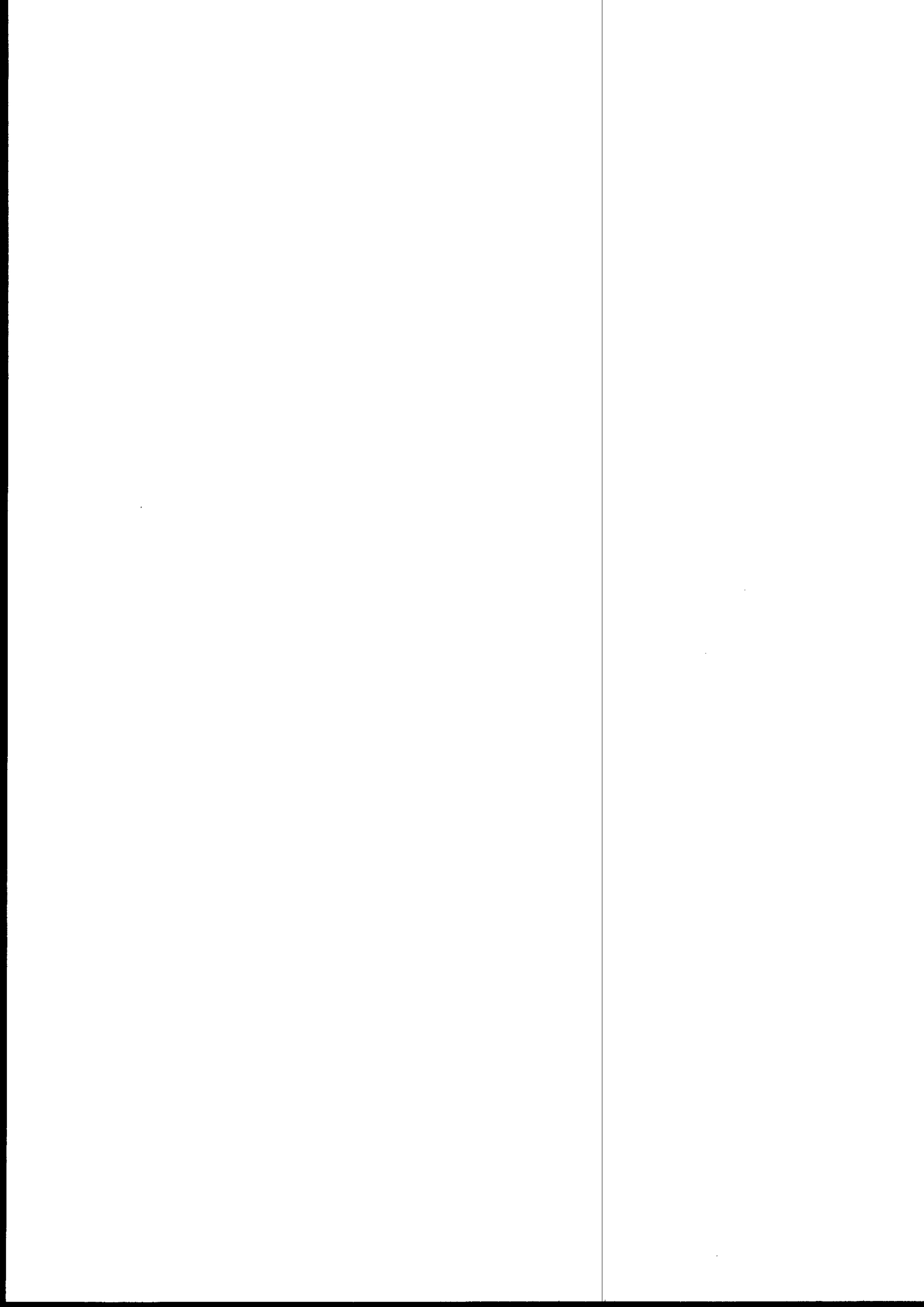


전에는 韓國의 歌辭文學原典을 모두 모아 『歷代歌辭文學全集』 全 50卷을 펴낸 바 있다. 이 作業은 우리 대학과 韓國政府의 支援을 받아 韓國歌辭文學 註釋研究로 계속 進行되고 있어 머지않아 學界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의 『燕行錄全集』은 國內外에 散漫하게 흩어져 있어 그 全貌나 實體把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資料들을 林教授께서 근 30年 가까이 執拗하게 蒐集하여, 이를 整理해낸 東亞細亞關係史料의 全集大成이다. 이 全集은 그 編輯期間만해도 一年六個月이나 所要된 巨帙이다. 이것을 우리 대학이 開校 百周年을 앞에 두고, 全 100卷의 全集으로 出版하여 東亞細亞 學界에 내놓게 된 것은 참으로 榮光된 일이며, 東國學統의 底力을 새삼스럽게 確認할 수 있는 快舉가 아닐 수 없다. 이 全集에 漏落된 것은 林教授께서 私費出版으로도 續編을 펴내 마무리할 意志를 가지고 準備를 繼續하고 있으므로 不遠 그 뜻이 成就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現在 世界는 人文學의 危機라는 또 다른 도전에 直面해 있다. 이런 狀況論理 속에서 韓國人文學이 世界的인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그 든실한 土臺 마련을 하면서 새롭게 出發할 必要가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그러한 側面에서도 世界 學界에 여러 모로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면서, 여러 經濟的인 負擔을 무릅쓰고 韓國과 東亞細亞 學界를 위해서 이 全集을 세상에 내놓기로 勇斷을 내린 것이다. 아무쪼록 이 全集이 韓國은 물론이고 東亞細亞와 世界 學界에 크게 寄與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2001年 8月 10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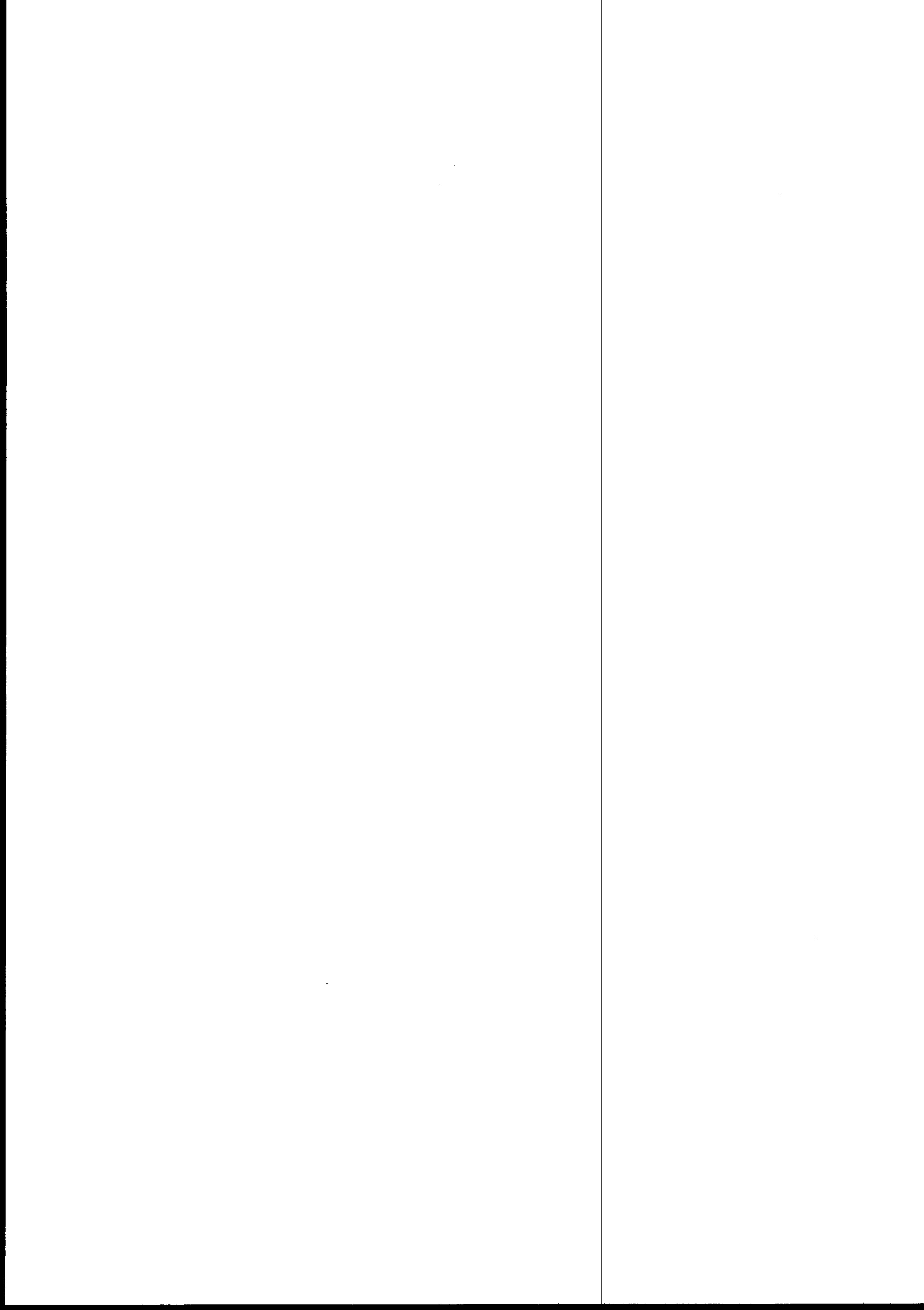
東國大學校總長 宋錫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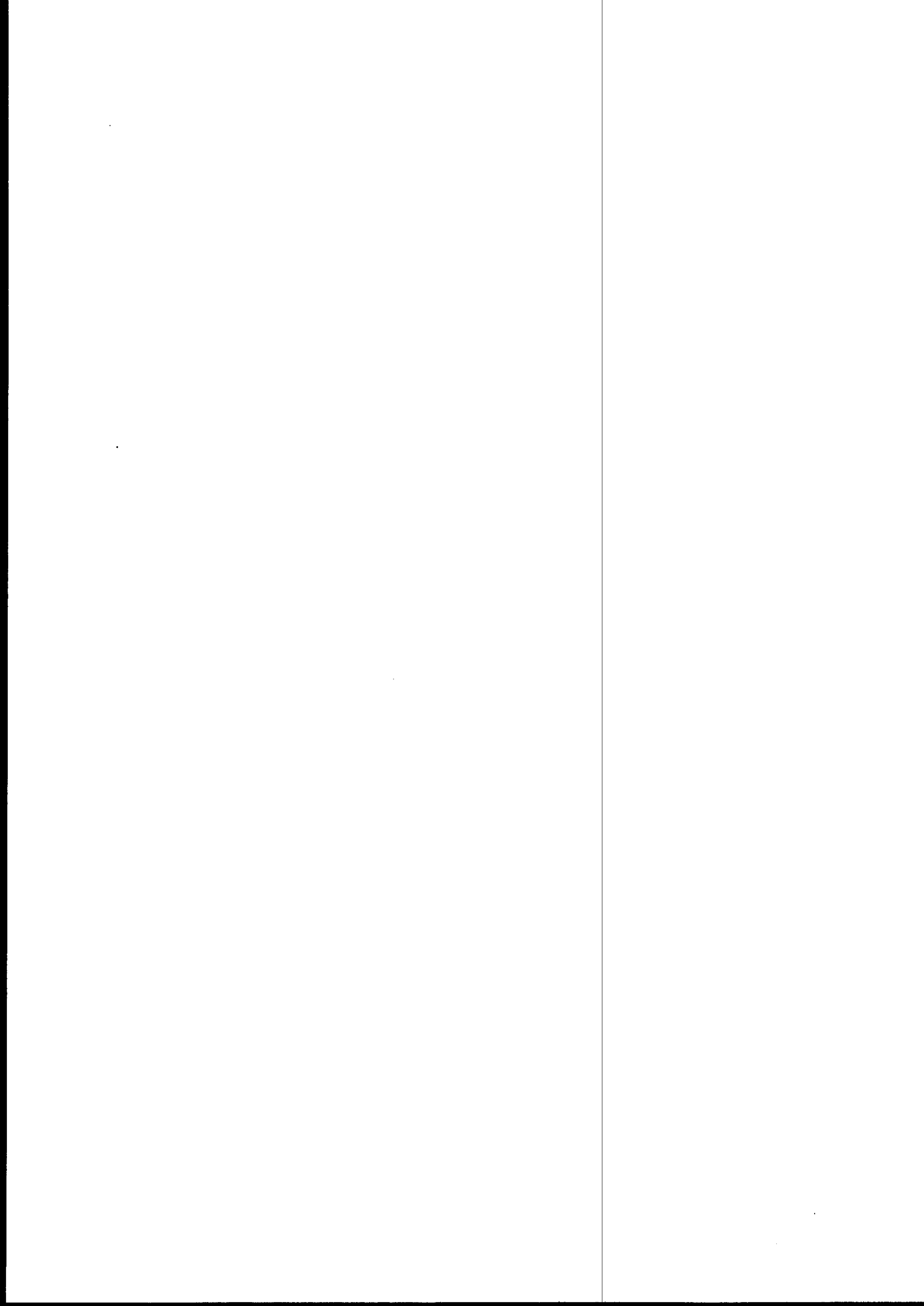
人文學은 探究의 對象이 自由롭고 廣範하다. 人文學은 知識을 삶의 直接的 手段으로 應用하려는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과는 달리 知識이 그런 實用性에서 無限히 自由로 워질 수 있게 하려는 學問이다. 人文學은 豊富한 對象을 통해서 생각하기, 말하기, 글 쓰기, 行動하기를 重視하는 學問이다. 생각하기의 靈感性과 多樣性, 말하기와 글 쓰기의 體系性,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行動하기는 삶의 質을 높이고 人間 社會를 圓滑히 돌아가게 하는 原動力이 된다. 따라서 人文學은 人間의 삶을 支撐하는 土臺라는 側面에서 볼 때 恒常 基礎學問이라는 本質的 屬性을 가지고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韓國 人文學의 土臺가 되기에 充分한 資料의 하나이다.

燕行錄은 朝鮮王朝 5百年 동안 韓國과 中國 사이의 交涉關係를 自由롭게 記錄한 우리 民族의 記錄遺産이며, 당시 韓國과 東亞細亞, 韓國과 世界 여러 나라와의 交流에 關한 가장 彪大한 記錄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文學과 哲學, 文化와 歷史, 外交와 交易, 學問과 批評 등에 關한 실로 廣範하고 多樣한 記錄의 寶庫이다.

나는 한글보다 漢文을 먼저 배운 世代이다. 내가 처음 文字를 接한 것은 한글이 아니라 漢字였다. 내가 할아버님께 推句를 배울 무렵에 나는 할아버님께 유충렬전을 읽어 드렸다. 推句는 謹嚴한 音聲으로 統制되었으나 유충렬전은 재미있는 想像의 날개를 달아 주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점점 繼續되는 中國文化의 餘震 속에 彷徨하면서 正작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 混亂에 빠져들 때가 많았다. 내가 韓國文學을 專攻하게 된 것은 中國學이 아닌 韓國學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기 위함이었다. 韓國人의 생각을 韓國式의 글자와 韓國式의 글 쓰기 方式으로 쓴 文學은 西紀 42年頃の 龜旨歌라는 노래가 처음이다. 그 뒤에 漢字를 빌어서 鄉札이라는 韓國式 글자로 쓴 鄉歌文學이 나타나며, 이어서 우리 글자로 쓴 한글문학이 나타나 오늘에 이르렀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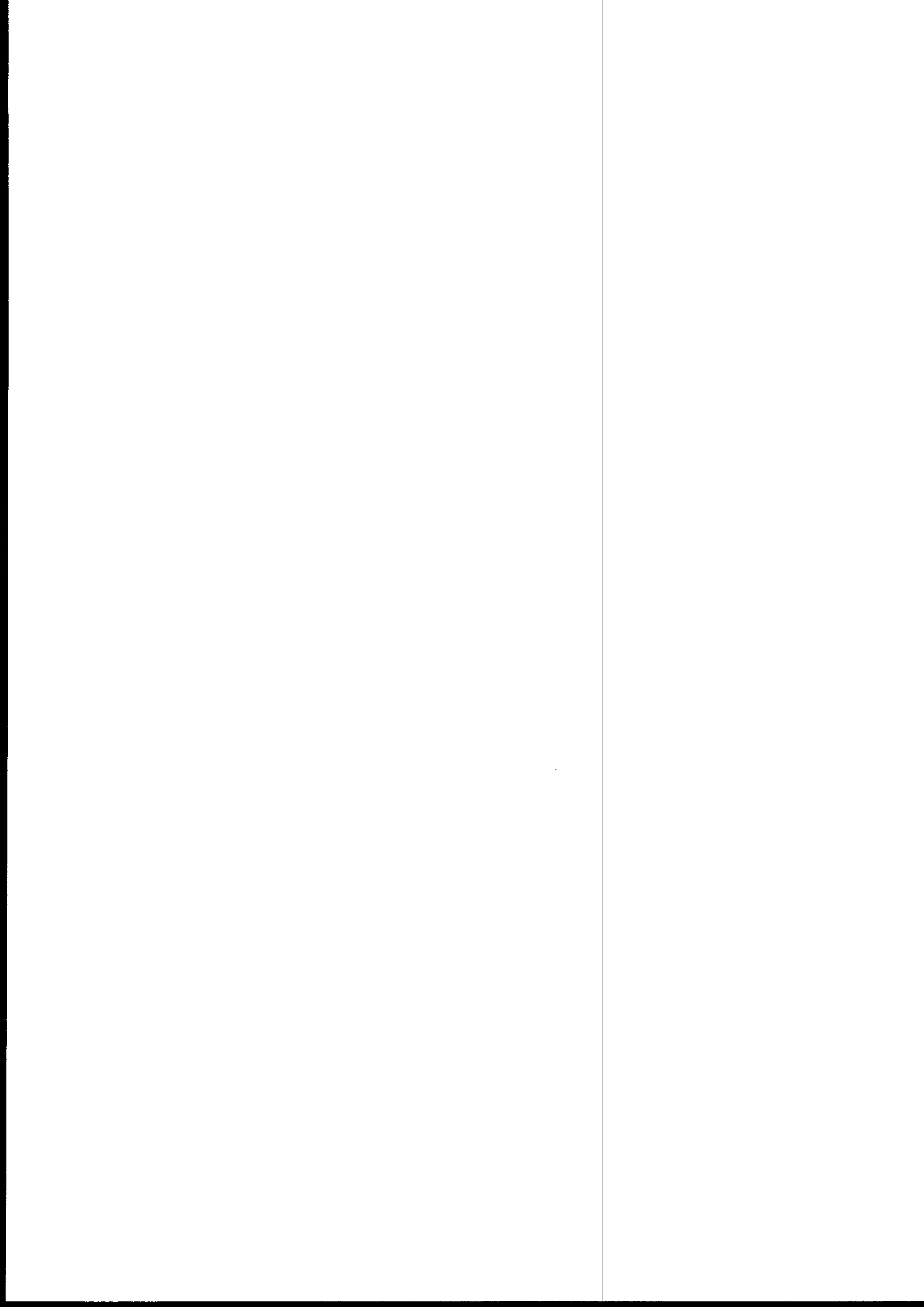
큰 한편으로는 紀元前 17年 韓國人の 생각을 中國式의 漢字와 中國式의 글 쓰기 方法으로 쓴 黃鳥歌라는 作品이 있다. 이러한 傳統을 잇는 文學이 三國과 高麗를 거쳐서 朝鮮王朝 末까지 韓國人の 생각하기와 글 쓰기 方式의 主流를 形成하여 왔다. 이와 같은 韓國文學의 두 갈래의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갈래 모두 中國文化와 軋수 없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韓國文學의 中國影響 問題를 綿密하게 살펴보고자 않고서는 韓國文學의 獨創性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韓·中文學의 影響의 授受關係를 살펴보고 하였다. 文獻記錄을 根據로 論據를 提示할 수 있는 影響의 通路를 찾다보니 燕行錄이라는 큰 鑛脈이 發見된 것이다. 그래서 燕行錄을 調査하기 始作한 것이 1970年代 中반이다. 틈틈이 燕行錄을 調査하여 目錄을 만들고 資料를 모으는 일을 1978年 말까지 繼續하였다. 그 結果 豫想 밖으로 그 量이 尙大하고 몇 년 안에 다 찾아내서 整理할 수 있는 作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찾아낸 資料마다 대체로 前人未踏의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읽는 時間 또한 몇 년 안으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 무렵 恩師님 몇 분께서 學位論文을 提出하지 않고 燕行錄의 世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고 強力하게 方向轉換을 要請하였다. 燕行錄으로 韓·中文學의 影響 授受關係를 밝혀 學位論文으로 提出하려던 꿈을 不可避 점을 수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게 된 것이 다. 나는 처음 構想하였던 順序를 바꾸어 鄉歌研究로 學位論文을 쓰고, 燕行錄研究는 다음 차례의 研究課題로 삼기로 하였다. 未練을 버리지 못하고 그 후 繼續 資料를 蒐集하여 오던 터에 1980年代 母校의 부름을 받고 研究室을 東國大學校로 옮기게 되었다. 木覓山이 바라보이는 研究室에 들어가던 첫날 나는 三希堂이라는 堂號를 만 들어 걸었다. 大學時節부터 構想하였던 세 가지 學問의 바람을 이루어 보려고 發願을 담아서 걸어본 것이다. 세 가지의 發願이란 첫째 새로운 方法의 鄉歌 研究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鄉歌의 正確한 現代語譯, 둘째 歌辭文學의 原典全集 編纂과 그 註釋全集 出刊과 그 研究, 셋째 燕行錄 原典全集 編纂과 重要한 燕行錄의 翻譯全集 出刊과 그 研究였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成就된 것이 별로 없다. 첫째 것은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와 『우리 의 옛 노래』로 출간되었고, 둘째 것은 『歷代歌辭文學全集』으로 出刊된 바 있으며 進行中인 歌辭註釋作業이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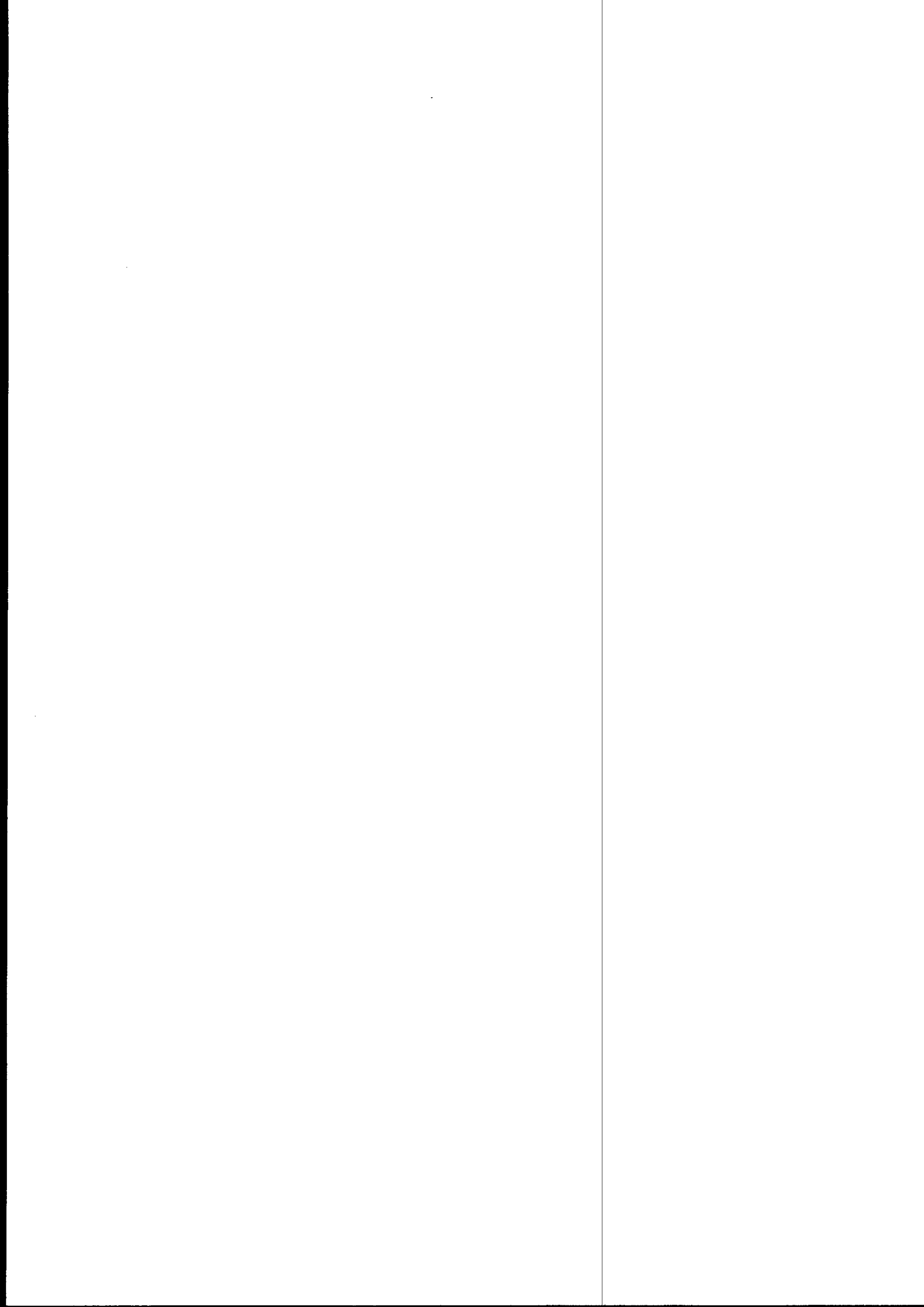
이다. 그중 燕行錄의 研究는 평 대신 담으로 끝날 공산이 가장 커서 이 全集이라도 서둘러 펴내 學界에 多少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出版을 決心하였다. 그 동안 枝葉적으로 接近하여 보았던 『燕行歌辭原典 研究』와 『燕行錄研究』는 校訂 중에 있으므로 早晚間 出刊 될 것이다.

燕行錄은 大略 5百餘種이 存在할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내가 確認한 것은 400餘種이다. 앞으로 繼續하여 追跡調査를 해볼 計劃이다. 그중 380餘種을 모으는데 걸린 時間과 努力, 經濟的인 負擔과 발 품의 苦痛은 後日譚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나는 몇 년 전에 民族文化推進會에 韓國文集의 影印本 出版을 提案한 일이 있다. 그때 國庫로 影印本을 出版한다고 하여 學界에 否定的인 見解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 作業이 韓國 人文學界에 얼마나 많은 寄與를 하고 있는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燕行錄全集』도 이번 出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障壁들이 隨時로 이 일의 推進을 가로막아 왔다. 그런 고비 고비마다 성균관대학에서 출간한 『燕行錄選集』 두 권과 民族文化推進會에서 翻譯 出刊한 『國譯 燕行錄選集』 몇 권이 많은 慰勞를 하여주었다. 그리고 中國과 日本에서 이 全集의 出版이 궁급하여 일부러 찾아와 激勵하여 준 學者들과 國內의 뜻있는 學者 몇 분의 激勵가 큰 慰勞가 되었다. 특히 韓國의 高柄翊 교수, 李佑成 교수의 指導助言과 黃元九 교수, 朴泰根 교수의 激勵가 많은 힘이 되었다. 中國 北京大學의 樂黛雲 교수, 浙江大學의 金健人 교수, 日本 京都大學의 夫馬 進 교수의 激勵도 큰 힘이 되었다. 나와 이분들의 생각은 이번에 出版하는 『燕行錄全集』이 15世紀부터 20世紀까지 東亞細亞의 一級史料라는데 認識을 같이 하고 있었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政治·經濟·外交·學術·文化에 관한 가장 自由로운 記錄이며 가장 彪大한 記錄遺産이다. 그리고 燕行錄의 擔當階層은 東亞細亞를 이끌어간 最上層部에 속하는 特殊集團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뿐 아니라 世界에 하나밖에 없는 特殊한 類型的인 記錄遺産이다.

이 책이 東國大學校 出版部에서 나오게 된 데는 特別한 因緣이 있다. 1999年 가을 中國 北京大學에서 文學·史學·哲學 分野 韓·中 學術 세미나가 있었다.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께서 첫날 主題發表를 하고 이어서



이들간 두 나라學者들의 個別發表가 있었다. 宋總長께서는 異例적으로 다른 日程을 뒤로 돌리고 開會式에서부터 閉會式 때까지 이 세미나에 參與하였다. 그때 내 發表는 19世紀 燕行錄에 關한 것이었다. 發表가 끝나자 中國側의 여러 學者들이 이 問題에 많은 關心을 보였다. 中國 여러 地域의 몇 大學에서 燕行錄에 關心을 가진 研究者들이 資料 때문에 여러 번 韓國訪問을 하였으며, 그때마다 東國大學校의 어느 教授가 『燕行錄全集』을 編纂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出刊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進行되어 가고 있는지는 質問이 쏟아져 나왔다. 質疑應答을 통해서 딱한 出版事情을 들은 宋總長께서 韓國과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해서 東國大學校가 『燕行錄全集』 出版하는 問題를 積極 檢討하여 보겠다는 趣旨의 말씀을 하였다. 그 다음날 宋總長께서 歸國할 때 金浦空港에 迎接 나온 東國大學校 關係者들에게 곧바로 『燕行錄全集』 出版檢討를 指示함으로써 여러 차례 번거로운 節次를 거쳐 이번 出刊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全五十卷의 全集을 만들기로 하였으나, 옛날 複寫하여 編輯해 두었던 資料들이 狀態가 좋지 않고 編輯 또한 問題가 있어서 再作業을 하는 한편 資料를 補完하다 보니 全五十卷으로 消化할 分量을 훨씬 超過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처음 編輯이 한 쪽 한 면으로 된 것이어서 한 쪽을 네 면으로 編輯하여 全五十卷으로 줄일 形便도 못 되었다. 一次 複寫한 原稿를 確認節次를 거친 다음에 다시 크기를 一定하게 複寫하고, 그것을 오려 臺紙에 붙여서 쪽 차례를 確認하고, 燕行時期를 찾아 그것을 燕行의 時期別로 整理·配列하고, 燕行錄 作者의 出生年代를 찾아 그것을 다시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配列하여 全一百卷으로 分冊한 뒤 卷別로 쪽을 매겨서 印刷所에 넘기는 아주 지루한 作業을 하였다. 이름 잡아 總 7萬餘張을 複寫하였으므로 重複된 資料를 골라내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編輯期間이 1年 3個月이나 걸렸으며 編輯 마무리 段階의 몇 달간은 編輯空間이 좁아서 講義室 크기의 房을 別途로 마련하여 編輯作業을 進行하였다. 이 全集의 차례를 처음에는 燕行年代順으로 配列하려고 모든 燕行錄의 作者와 燕行年代를 確認하였다. 그렇게 配列을 하여 살펴본 結果 한 作者가 여러 차례 燕行을 한 경우 한 곳에 모여 있던 作品들이 여러 곳으로 散漫하게 흩어지는 問題가 發生하였다. 이 問題를 克服하려고 한 것이 이 全集에서 택한 燕行錄 作者가 태어난 時代順 配列方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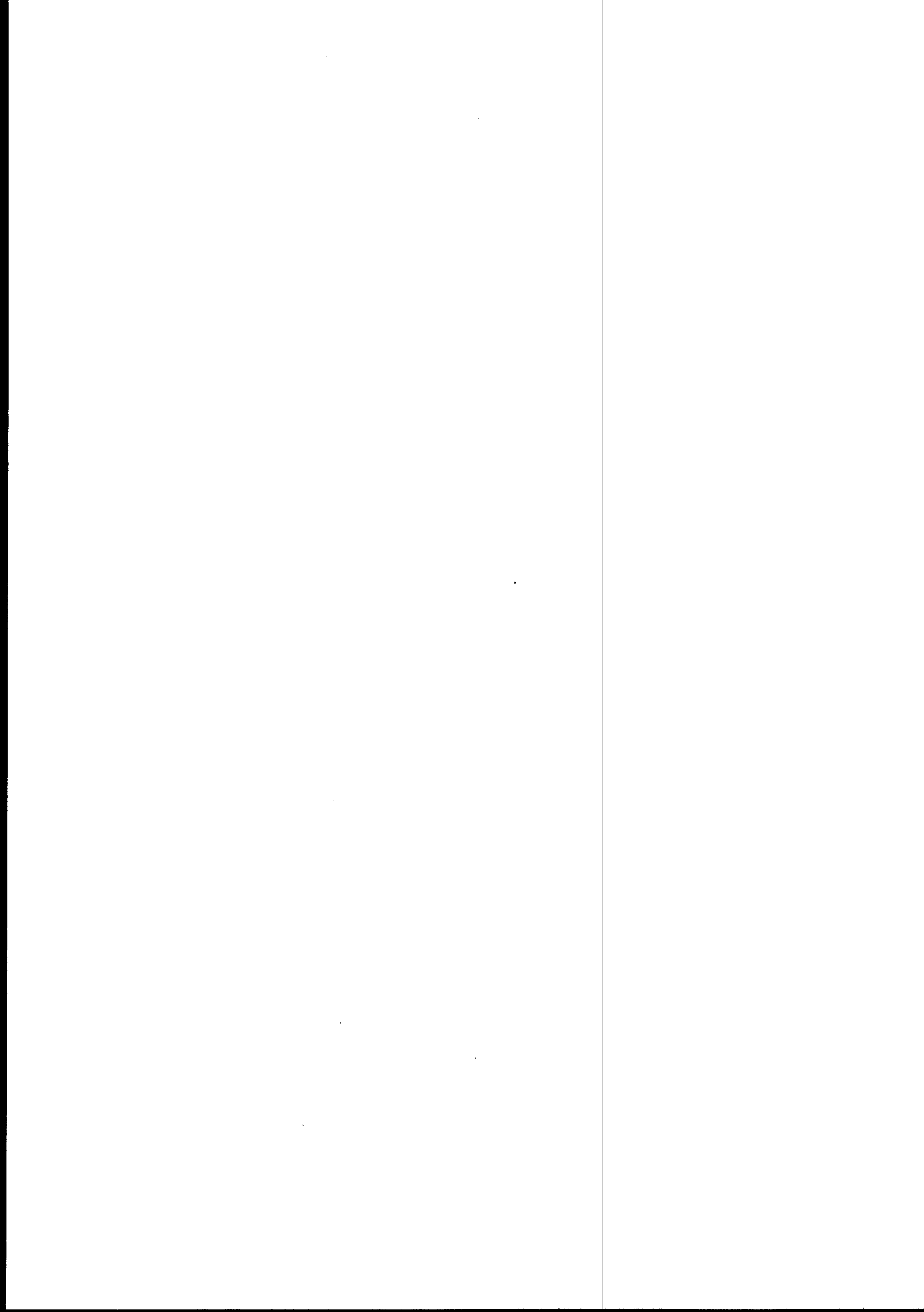
이 『燕行錄全集』은 單純하지 않은 編纂作業을 한 사람이 單獨으로 遂行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특히 많았으며, 이로 인한 得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資料가 하나밖에 없는 行草書로 된 筆寫本 古書이거나 이런저런 資料들 속에 깊숙이 끼어 들어 있는 것을 찾아내 모은 것들이어서 冊 體制의 均齊性이나 印刷의 鮮明性에 多少 滿足치 못한 部分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흠어져 가려지고, 헤쳐 消滅되어 가는 東亞細亞의 貴重한 文獻資料 燕行錄을 이렇게 한곳에 모아 책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에 관한 그 어떠한 作業도 圓滿하게 遂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全集 刊行의 가장 큰 意味이다. 이제 이 全集으로 現代活字化가 可能하고 翻譯과 註釋 作業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번이 이 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作品들은 續集으로 補完하여 마무리 할 豫定이다. 續集의 마무리 段階에서 解題集을 別冊으로 出版할 豫定이다.

이 全集을 펴내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님의 東亞細亞 學界를 위한 出版決斷에 感謝를 드린다. 그리고 貴重한 資料를 使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明지학원 俞榮九 理事長님, 연세대 黃元九 名譽教授님, 창영성씨 이현공과 成長慶 宗會長님, 동국대학교 鄭用吉 企劃人事處長님, 尹鐘燮 辯護士님과 일일이 舉名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과 여러 關係機關에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일년 넘게 編輯室에서 默言으로 苦痛을 같이한 용지인쇄주식회사 金章燮 전무님의 勞苦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感謝에 앞서 그 분께 먼저 慰勞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東國大學校 出版部 家族들도 어려운 일을 맡아서 進行하느라고 勞苦가 많았다. 이 모든 분들에게 깊은 感謝를 드린다.

2001년 7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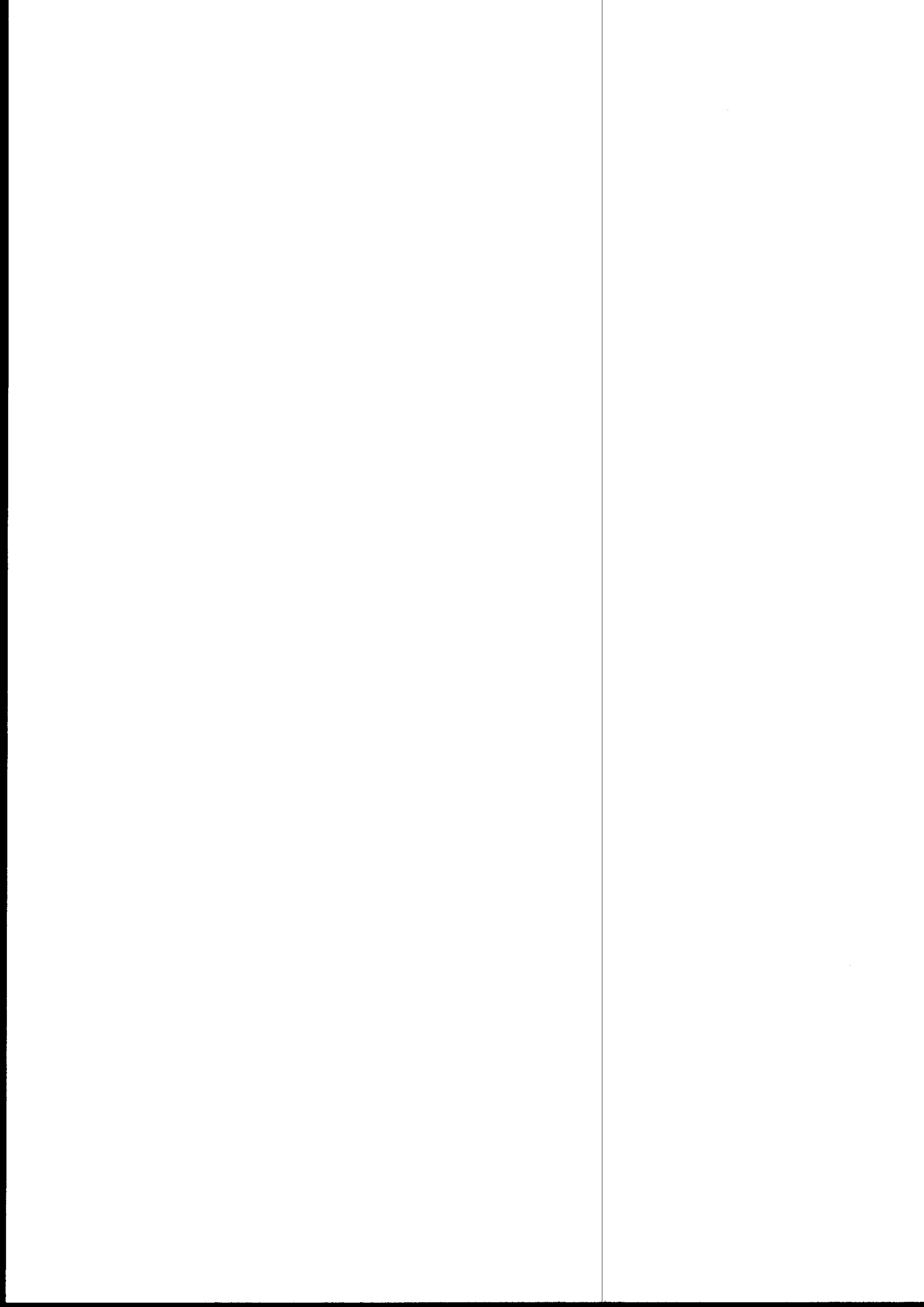
東峰涼月之室에서

林基中 씀



— 일러두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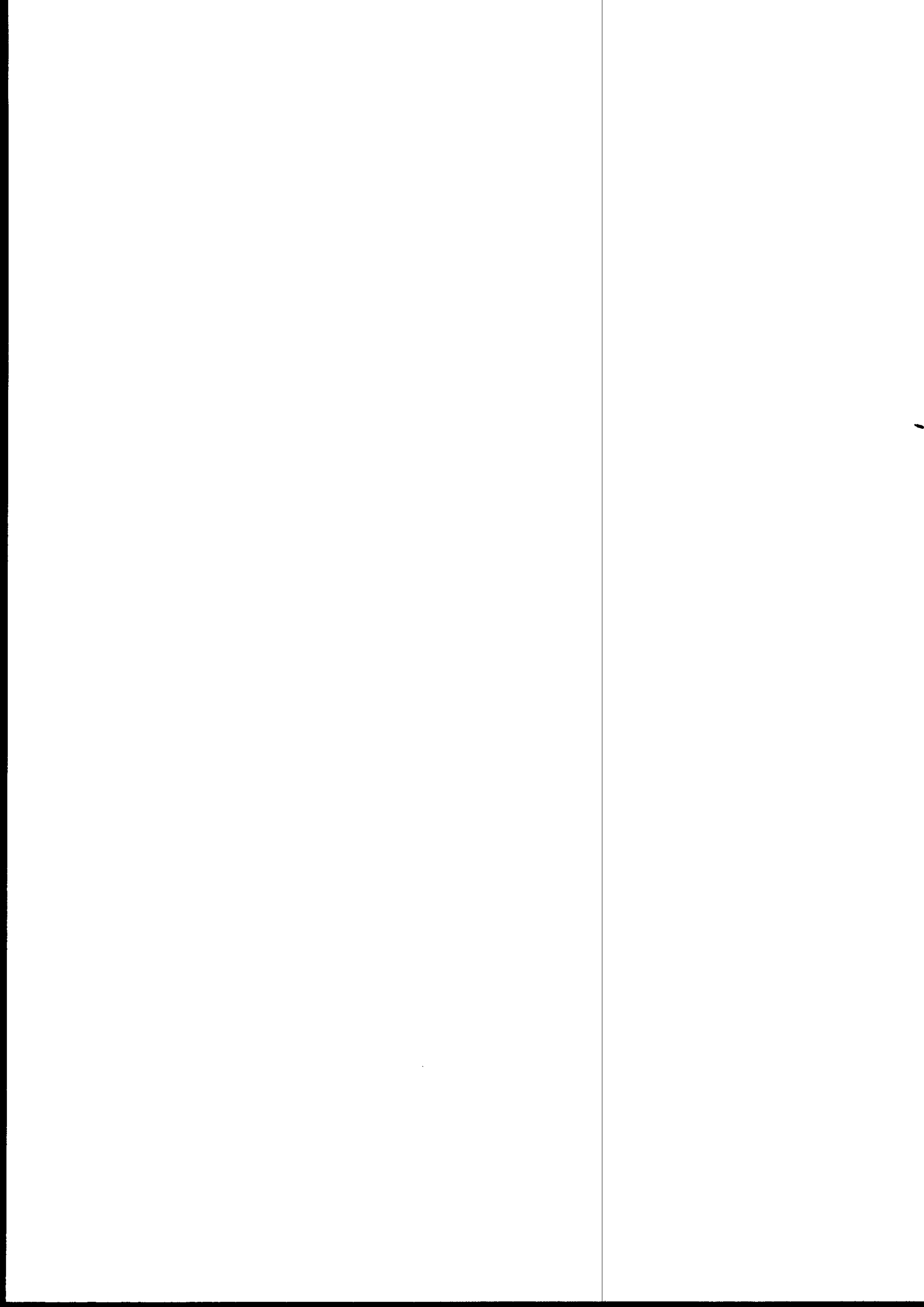
- 이 全集의 이름에 쓰인 燕行錄이라는 表現은 朝天錄類 燕行錄類 瀋陽日記類 漂海錄類를 모두 總括하는 用語로 쓴 것이다.
- 이 全集에 수록한 燕行錄은 寫本과 刊本, 單行本과 文集本, 國內本과 國外本을 蒐集하여 體系的으로 整理한 것이다.
- 이 全集에 수록한 몇 種類의 燕行錄은 研究에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重要 異本을 같이 수록하였다.
- 이 全集에는 이 分野 研究에 꼭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몇 種類의 燕行路程記, 燕行別章帖, 燕行地圖를 수록하였다.
- 이 全集에 수록한 燕行詩, 赴燕詩 등은 一定한 體系를 갖추고 있어서 이 分野 研究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것만 選別하여 수록하였다.
- 이 全集의 燕行錄은 原典의 狀態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主眼點을 두었으나 原典을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不得已 現代活字로 바꾸어서 수록하였다.
- 이 全集의 燕行錄 配列은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하였으며, 出生年代가 未詳일 때는 燕行年代順으로 하고, 둘 다 未詳일 때는 맨 뒤로 配列하였다.
- 이 全集의 燕行錄 配列順序를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한 까닭은 燕行錄을 作者別로 한 곳에 모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全集의 別冊 目錄集에는 作者出生年度順 目錄, 燕行年代順 目錄, 燕行錄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 作者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을 別途로 作成하여 누구나 찾아보기 쉽도록 配慮하였다.
- 이 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國內本과 國外本은 곧 이어서 燕行錄全集 續集으로 續刊할 豫定이다.
- 이 全集의 編輯이 마무리 될 때까지 編者가 入手하지 못한 燕行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하여 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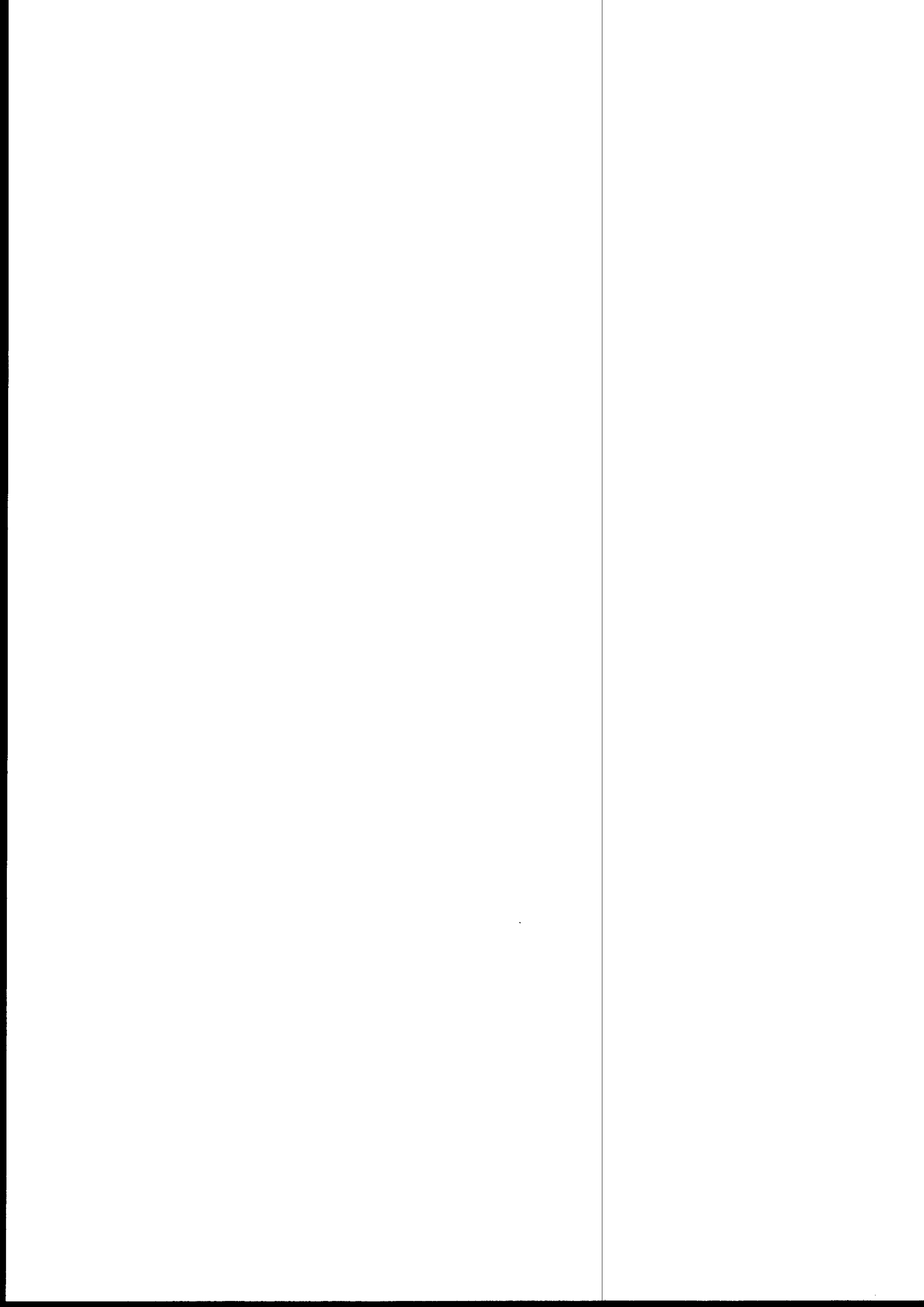
集에는 꼭 들이 갈 수 있도록 아래 資料의 所藏者들께서는 積極 協助하여 주시기를 懇曲하게 付託드린다.

(정답처 : 02-543-5415° 02-2260-3146° FAX 02-543-5485° 02-2263-7093° e-mail: limkz@dongguk.edu)

- 갑인연행록(甲寅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10雍正12甲寅 1734
- 경오연행록(庚午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26乾隆15庚午 1750
- 경오유연일록(鏡泊遊燕日錄), 임백연(任百淵, 1802-1866), 경오유연일록(鏡泊遊燕日錄) 2册, 憲宗2道光16丙申 1836
-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미상(조선말),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1책?
- 북연기행(北燕紀行), 이노춘(李魯春, 1752-?), 북연기행(北燕紀行) 한글본, 正祖乾隆48癸卯 1783
- 북원록(北輓錄), 이사봉(李商鳳, ?-?), 북원록(北輓錄) 5册?
- 북유만록(北遊漫錄), 이호민(李好敏, 1762-?), 간산북유록(簡山北遊錄), 純祖21道光26辛巳 1821
- 북행일기(北行日記), 나덕헌(羅德憲, 1573-1640), 장암집(莊巖集), 卷2, 仁祖14崇德1丙子 1636
- 사양재외집사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최호부(崔浩溥, ?-?), 사양재외집사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6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상봉록(桑蓬錄), 최호부(崔浩溥, ?-?), 상봉록(桑蓬錄) 2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록(隨槎錄), 한필교(韓弼敎, 1807-1878), 수사록(隨槎錄) 3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한필(隨槎閑筆), 권복인(權復仁, 純祖때), 수사한필(隨槎閑筆) 1册, 純祖22道光2壬午 1822
- 슈로도천록, 미상(??), 슈로도천록 사본 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남이웅(南以雄, 1575-1648),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1册, 仁祖4天啓6丙寅 1626
- 심행록(瀟行錄), 윤홍금(尹弘禽, 1641-?), 심행록(瀟行錄) 1册, 廟宗24康熙37戊寅 1698
- 연사록(燕槎錄), 정원용(鄭元容, 1783-1873), 연사록(燕槎錄) 1册, 純祖31道光11辛卯 1831
- 연사수록(燕槎隨錄), 이삼익(李三隱, ?-?), 연사수록(燕槎隨錄) 1册(卷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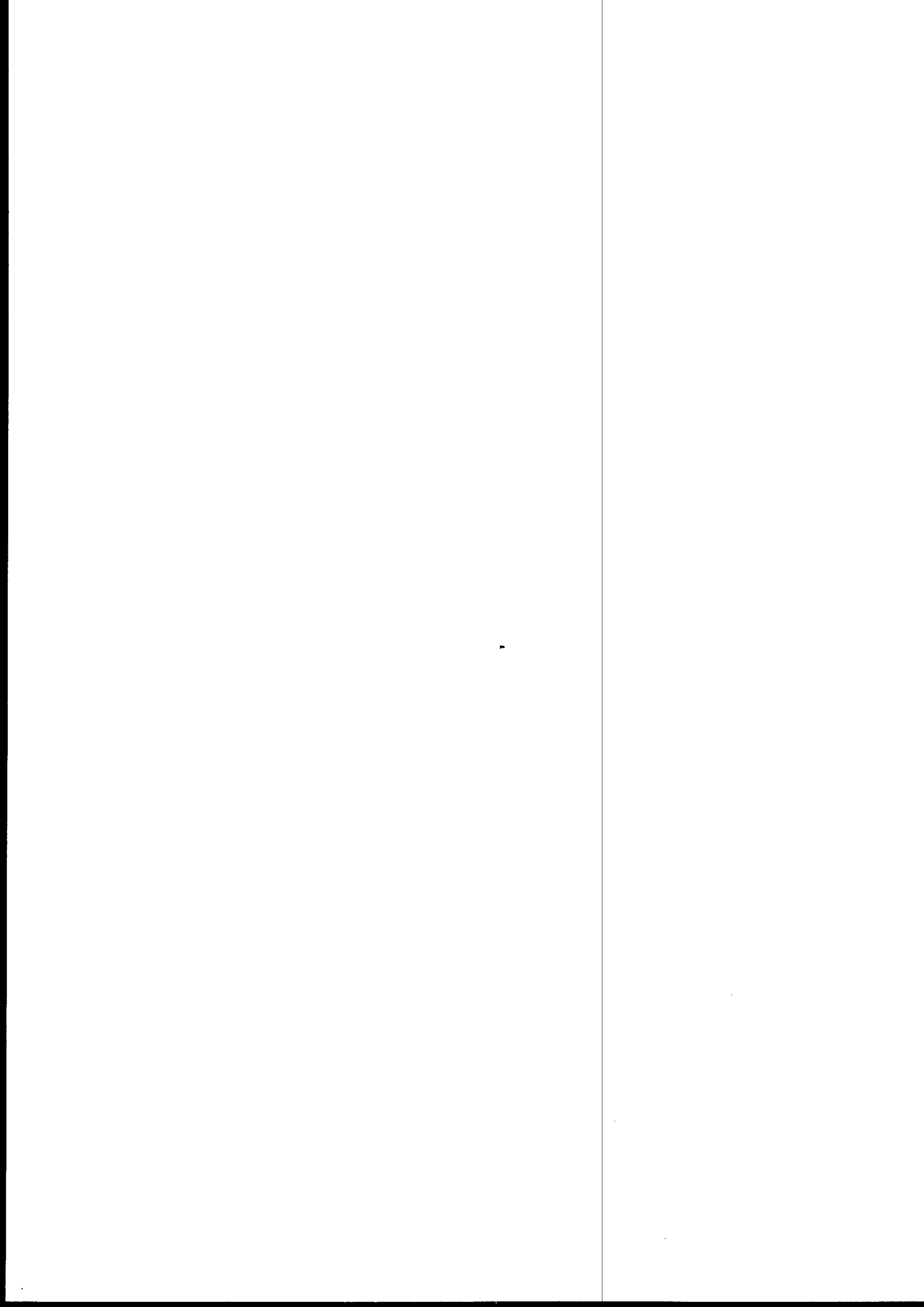


- 연사일기(燕槎日記), 정희영(鄭羲永), 哲宗 때, 연사일기(燕槎日記) 1册, 哲宗 14 同治 2 癸亥 1863
- 연사필기(燕槎筆記), 정○○(鄭○○), 朝鮮, 東亞大, 연사필기(燕槎筆記) 2册
- 연행록(燕行錄), 김노경(金魯敬), 1766-1840, 연행록(燕行錄), 16册, 純祖 22 道光 2 壬午 1822
- 연행록(燕行錄), 이정운(李鼎運), 1743?, 연행록(燕行錄) 1册, 正祖 8 乾隆 49 甲辰 1784
- 조천록(朝天錄), 이석형(李石亨), 1415-1477, 저천유고(樗軒遺稿), 世祖 5 天順 3 己卯 1459
- 연행시(燕行詩), 조석명(趙錫命), 1674-1753, 묵소집(墨沼集) 卷 1, 景宗 2 康熙 61 壬寅 1722
- 연행일기(燕行日記), 박재인(朴齊寅), 哲宗 때, 연행일기(燕行日記) 3册, 哲宗 11 咸豐 1 庚申 1860
- 연행일록(燕行日錄), 미상(??), 연행일록(燕行日錄) 1册, 純祖 31 道光 11 辛卯 1831
- 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孝宗 8 順治 14 丁酉 1657
- 연행잡기(燕行雜記), 홍대용(洪大容), 1731-1783, 연행잡기(燕行雜記) 2册, 英祖 42 乾隆 31 丙戌 1766
- 연행록, 미상(??), 연행록(燕行錄) 1册?
- 일암연기(一庵燕記), 이기지(李器之), 1690-1722, 일암연기(一庵燕記) 5册, 肅宗 46 康熙 59 庚子 1720
- 정유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卷 3, 孝宗 8 順治 14 丁酉 1657
- 조천일기(朝天日記), 최기(崔沂), 1553-1616, 조천일기(朝天日記) 1册, 宣祖 40 萬曆 35 丁未 1607
- 조천행록(朝天行錄), 황진(黃進), 1542-1606, 서담집(西潭集), 宣祖 20 萬曆 15 丁亥 1587
- 조천록(朝天錄), 이덕형(李德炯), 1566-1645, 죽천유고(竹泉遺稿) 1册, 仁祖 2 天啓 4 甲子 1624
- 천행록, 이덕형(李德炯), 1566-1645, 천행록, 坤, 1册, 仁祖 2 天啓 4 甲子 1624
- 지정연기(芝汀燕記), 원재명(元在明), 1763-1817, 지정연기(芝汀燕記) 1册, 純祖 4 嘉慶 9 甲子 1804
-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이건명(李健命), 1663-1722,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1册, 肅宗 24 康熙 37 戊寅 1698
- 해사조천일록(海槎朝天日錄), 오윤겸(吳允謙), 1559-1636, 추탄유집(楸灘遺集), 光海 14 天啓 2 壬戌 1622 (p. 37)



— 차례 —

• 연계기략(燕薊紀略)	미	상(未	詳?	?)	98	1	11	
• 연행신장(燕行嚮章)	학	산(鶴	山?	?)	98	1	135	
• 연기정(燕紀程)	天·地·人	미	상(未	詳?	?)	98	1	209



燕林劍紀畧
第

燕薊紀畧

丙子閏五月二十六日北壇祈雨 親禱時文蔭武三品以上不參人
卒二人因政府草記捧現告并施刑削之典而余適以暑滯不
得參 班滿心惶惶不知措躬之所與任大將商準任台孝準
偕往東大門外永道寺轉移于東寧尉身于月餘餘執事伏乃於
六月二十八日 傳曰劄已施矣刑削之人并令揀聞 命卽還
于帽洞七月十六日都故長銓李埒致謝恩燕歲幣使差出
正使沈承澤書狀官尹升求余充副使行中任官一堂上李尚
健二堂上高鎮衡三堂上李在聲四堂上洪德憲周五堂上李
承謨一上判事李春植二上判事李一溶公幹金始漢堂

務洪儒成一從事金頤準二從事李用俊三從事朴載銑四

從事李敬智五從事鄭淳初上房乳六從事李肇炯本房乳

七從事吳致祥八從事崔性默九從事玄韻十從事李應完

三房乳十一從事韓教學十二從事安載健十三從事李根培

十四從事洪勉祖十五從事崔性學本房乳十六本房乳督負朴鍾圭救

療官玄 鍵侍 表官彭翰周西負李益善日官金弘錫成

帶領去官洪教錫正使軍官李昇鼎錫安光植金箕斗伴倘

沈 本房軍官白和鏞慶潤穆李在聲三三房軍官

趙熙明伴倘蔡 正使廳直無乳朴信根奴子

籠馬二匹座馬一匹驕軍十名書者 馬頭 籠馬

頭 轎馬頭奴 日傘奴 左障奴 引路奴

軍穿馬夫 放料軍官 上判事馬頭金允興鄭寅興

都卜馬頭張鎮邦下處庫直李麒麟本房乾糧馬頭

本房乾糧庫直崔岡柱廳直崔鎮奎乾糧馬頭金箕瑞

馬頭朴奎元奴子萬石書者張景順轎馬頭奴元突籠馬頭

奴基弘日傘奴若鎡左障奴昌鎡籠馬頭使喚秀山軍穿馬

夫六名三房乾糧庫直黃 書者安德源馬頭張益祿

籠馬頭 左障奴 日傘奴 引路奴○十月二十

七日陰與正使書狀官同詣 闕下直留待入 侍 上曰

三使臣進前又曰遠路善為往返可也又曰三使臣中有再

行者乎臣等曰皆是初行也 上曰當此日寒之時往返尤難於他使臣矣臣等曰知識淺短年紀衰邁未知何以往返也 上曰上使年今幾何上使對曰年今六十六歲矣 上曰今年則斂荒也沿路弊端各別申飭可也且人馬濫祀各別探束此三使臣外首譯亦有探束之道當自內別飭矣臣等對曰兩西馬致專為各行之往來而設始今當斂年不可不另可探束而 下教如此臣等謹當一一對揚矣 上曰彼有所聞則一一詳探歸奏可也臣等對曰當隨所聞 啓聞矣 上曰近聞中國新有洋夷和親云亦為探束可也臣等對曰當依 下教歸奏矣 上曰三使臣中書狀特異善為探束可也書狀對曰謹當對

揚矣。上曰：由馬為槃，不可不各別甲飭期於無槃可也。臣等對曰：
惟依下教申飭矣。上曰：今當遠離仰瞻可也。臣等仰瞻還
為俯伏訖。上曰：今行當於何日抵義州？何日抵皇城？何日回遠
發何時復。命乎臣等對曰：十六日抵義州，一行治裝則將
留十餘日後渡江。膺月二十五日抵皇城，明年二月初六日離
發。則三月晦前當復。命矣。上曰：何以期於二十五日抵皇城
乎？臣等對曰：為恭正朝賀班也。上曰：然則留館當為四十
日乎？臣等對曰：然矣。遂說訖，仍下直詣勤政殿拜表。由
崇禮門到慕華館查對夕陽，踰慕華峴至弘濟院門內
外卿宰及長少來別日已昏矣。舉火踰白石時，轉到碑石峴。

忽見女巫玄冠紅衣蓋蔽鈴如辟舞影婆娑為曰天使行利涉
請祝云事涉不經還覺一笑三更今抵高陽四十里止宿本
伴鄭晉來見家兒及侄婿任昌宰借來外也無從北車不可
盡記其靈巖巖燕亦為來見

二十八日晴飯後離發推別家兒及許多來別者臨故增帳中
時量至坡州四十里止宿本牧燕來見

二十九日晴早發至臨津江蓋臨津即古縣也 世宗朝屬於長
湍置直別將以鎮之築城設門薛日鎮西門此為關西第一關防
也源自淮陽鐵嶺而來至坡州文山浦入海果是天塹長江所以限
南北也昔在壬辰遂使倭匪投鞭渡江至今為烈士之歎也

任其闕防者不得辭其責矣乘艇午時量抵臨滿館長四十
 里中大本倅李應來見薄暮抵松都四十里止宿留相憶洪承來見
 夕飯後入見留相行期促迫滿月甚望籍竹橋未得歷覽可恨
 三十日早霜晚晴出西門踰彌勒峴即松岳後麓而洞在青石自彌
 勒至洞口三十里山之左右蒼壁削立一洞流水曲紫迴緣溪路出
 籠通一線編木等戶有如棧路蜀之鳥道齊之馬陵何以加此蓋
 為西關第一要衝地內往在丙丁年遂使龍胡如入無人之地
 理之不足恃者如是即自是以後等石為門截流等城遂置
 別備以鎮之節曰青石關秣馬少憩行出洞口山盡水散野色
 稍開乃是金川初界也午時量至金川中大本倅朴齊來見晚

渡楮灘踰於峴望峴二夏今舉火抵平山三十里止宿本倅

尹永夏來見

十月初一日晴早發行五里許山腰忽見城堞周遭云是太白

山城東臨楮灘西接金郊置別將以鎮之蓋聞自丙丁以後

設城闕防云踰嶂峴抵葱秀三十里中火比是使价迎接出

站所也遂安信川龜山出站行出關外一道長川迤迤北來十何蒼岩壁

削出芙蓉截流徒杠橫抵壁下有泉自石間出味甚甘

而冽節曰玉溜泉或云烏啄泉昔華使過此刻名題品

揭板于館中又有一人持胡孫出來及到葱秀忽聞啼月

泣烟之聲俗傳水勢山形恰似正峽故云也兔山郡守幸定植

出站未見行過車踰巔乃瑞興初界也到屏風崖下少
憩暮抵瑞興五十里止宿本倅洪銜來見三從康翎倅
來見一場情話五夏今還發去
初二日晴寒是日即我生日也上使備畫物三床與書狀
偕來亦有妓樂等物稍慰客懷晚發從南門橋歷花浪
沼至與水院乃鳳山初界也抵鈞水館四里中火西行過松亭龍
橋麒麟驛山勢遠闊野色濛濛西望山色出沒隱映於雲霧
杳茫之間云是文化九月山也迤迤北行未及洞仙館五里許
別構一館於洞口外云是支初所也蓋華使曾於往時留宿而
初行中人物故其後別立館文站云暮抵鳳山三十里止宿

本倅李世適有重病故人見

初三日晴早發北行十里許有一巖、在黃鳳西界間蓋西路

諸巖之最髙者比諸北關之摩天東美之大關不過一培樓

以其橫截兩路故名著關西耳行到巖上、有洞仙亭扁額

倚題曰八歲兒書而不書其姓名其東有城隍堂、有堂

直無論官行與私行並祈行李之利涉身數之平穩得致

以資生云行七里許設闕為門扁曰洞仙門下馬少憩行數

里踰小洞仙巖即黃州初境也午時量渡南川橋川之北岸

有月波樓蓋取王禹偁竹樓記而依樣西胡也入鎮安中

齊安門四十里止宿本倅俞致兵使李教俱為來見虞候

李龍
亦未見

初四日晴午後與上使書狀率正官往運分寄軒查對因該撥
便付家書仍為留宿

初五日晴晚發至駒現乃中和初界也未時量抵中和五十里止
宿本伴^{元度}未見此是我前日謫居之所也邑村知向人一齊填
門一邊悲張一邊快濶矣

初六日晴晚發自黃岡以北大原平陸一望無際但見西北諸山
尖、貼地列如屏障微如舞臺四無名山大川村落依稀往、見葦
屋千數依隴成樣而已身自檀^{其相}龍定都歷年皆于餘歲
亦可見在德不在險也北渡汗川乃平壤初界也歷柳標橋踰紫

芝現黑橋踰并墓現見土阜往，如大塚累，於原田野蕪之間
俗傳是古戰場其年遠邈不知的在何時而塚骨成塚足以現
存并墓也至我松院衛有小閣云是新舊印伯交龜處也及到永
濟橋十里長林夾岸竹族立自此昏乘藍輿緩出大同江干漁艇
商舶往來中流雖七山鵲浦殆不如也望見江之北岸幾千萬戶
背郭成村連橋接郭院紗之女汲水之雇橫且十里泝泝之
聲號籟之鄉嘗誠一奇觀也蓋自檀竹其以來于今五千餘歲
山川之媚麗尚矣勿論民物之富庶俗尚之華麗世傳以其城
謂我東之江南者儘非虛語也由大同門登鍊光亭小憩楮上
書第一江山四字以乃明使宋之善番之筆也自古使价牧伯騷人

墨客之登斯者輒吟哦揭板門楹柱榭之間殆無虛處其中長城

一面濬水大野東頭點山一句包括無遺而若其左右山川之勝城郭

人物之繁與夫草木雲烟之狀出沒於江濤浩渺之間者書不盡

言函不盡意且前人之述備矣此不復論月歸舍次五十里止宿監司

金由 庶尹 俞致 俱為未見

初七日午陰乍晴軒後八見監司及庶尹仍往鍊光亭 查對即歸

舍次戚從弟甌山倅南德來見是夜大雪設小酌與此倅淺斟而

妓翠蓮淡古菊香最善琴善琵琶夜半以罷亦足為客館消寂

焉 查對撥便什家書

初八日晴仍留宿濤撥便見家書聞 景福回祿之報滿心驚悸

初九日陰雲既發出七星門行五里許有箕子墓于乙亥墓西樹麓
橫臨大野松楸簇密適值雪寒未得登覽可恨申時量抵順

安五十里止宿本倅洪鍾未見

初十日早霧是日霜氣籠樹渾若梨花世界既發抵肅川六十
里止宿慈山冊室宋友來見兼有慈山倅書及物種耳本倅具夷祖
未見

十一日雨雪霏々既發至雲巖店小憩北風吹寒朔氣候凌騎步
一行呵凍作行申時量抵安州六十里止宿本倅全克兵使李奎
俱為未見

十二月晴寒 查對該撥使付家書蓋安州即清南終境清

北初界也晴川江經其北乃關西要衝之地故又設細柳營以鎮之晉城
如中字形南門曰鎮西中門曰清南北門曰鎮北城之東岑有其堂
曰望京城之北有樓曰百祥此是關西第一高樓也其翔達不知
何代而高麗時重修云間架之多不及於成川絳仙樓軒敞之
景不下於平壤練光亭其雄偉壯麗冠於一省北門外有寺
曰松林寺又云七佛寺昔在壬癸之間有七佛羅立於晴川江邊
如千兵馬結陣連營之狀賊兵不敢渡故名曰七佛寺云

十三日早雲散晴出鎮北門過七佛寺渡晴川江至珍島江上小憩
暮抵嘉山五十里止宿本倅吳有善未見

十四日清和晚發抵定山六十里止宿本倅李應夏未見蓋此州古稱

雄府倉庫完實閭閻富庶自西匪以來邑樣凋殘人物蕭條無
一點豐潤之氣于今六十餘年尚未蘓完兵燹之毒乃至於此乎府

東十里有桂川碑又五里許有聖績碑閣即 宣廟駐驛處

十五日晴和早發自南門西行午抵郭山三十里中大本倅李鍾來

見西望海中有假島此是皇明時毛文龍所居之地橫亘幾十里尖

三角如漢北之三角中有牧場馬甚壯健年貢大條赤云午許

後發行暮抵宣川四十里止宿本倅白南 未見東軒白細柳軒有

脚筆書心符二字以絳紗籠之其側題曰乙未仲夏以年代計

之則無乃 宣廟西巡時殿軒之北有舞鶴且里軒之東有倚

劬亭倘有觀德澄清等樓其經紀梁是雄府也

十六日晴早發抵鐵山館五十里中火此是使价支站所而西距
本府為三十里故設閔出站云本倅鄭愚來見暮抵龍川館三
十里止宿北亦出站所內滑流堂東楹刻第一溪山四字天洞
亭三字是天使朱之蕃之筆也本倅李敏來見
十七日陰冷且雪抵所車館五十里中火是義州出站所也灣
府兵幕吳先達起善來見行到葛現、在灣府南十餘里
山上開路、雖坦蕩勢甚峻急西望江色橫作襟帶此是
鴨綠江、之西北羣山從身翠閣齋僕夫則云是彼界金屈
橫臨海上綿亘西南但見雲霧藹杳茫茫天水不分似是燕齊
渤碣之間風景不殊舉目有山河之異而西行十里頓生異域

之愁回首家山如隔天涯客懷漸覺惘然晴時抵義州三十里

止宿府尹南廷來見益

十八日陰霽後 查對該撥使付家書

十九日晴留

二十日晴留

二十一日晴留

二十二日晴留

二十三日晴留

二十四日晴留是日即上使之生日也同入東軒一場消暢後三使

偕歸舍次以晝物饋之

二十五日晴留

二十六日朝陰午晴留

二十七日晴留

二十八日晴留

二十九日晴自灣府早發至勞喜亭，在鴨綠江頭即使
行迎送之所也前者只設祖帳而已近者李侍郎達守是邦
也初達是亭扁揭雪柳觀取其雨雪楊柳之意也而今改為
勞喜亭即勞其往喜其來之義也府尹為其設別具酒饌
樂妓樂一場暢懷及其撤樂辭於本府士女及帶來驛卒
步從雜還江頭或有落後者或有辭退者唯以平安二字為

留別去留之間極為悽悵有難定情而大江冰塞冷風逼
肥殊非人世界也渡江時防禁截嚴無名色者不敢隨人改造
木牌烙印出給後點閱人馬行色比前草已時量渡中江
過方坡浦五里許有三江傳云贛河也中江東偏有人家如官舍
即彼國甲卒防守處也至九連城有石碑穿然復立此蓋响
馬賊擾于空虛地搶奪人財作梗無數故自上國發遣鐵
騎剿滅羣醜而豎此成功碑也轉到唐站地築石為城遠迤
周匝此則古有一女人作舍於其處聚石為垣牆矣到今只
有城而無人家矣午時量至溫井墟中火而無店舍故設帳於
大路傍積雪上而支站矣又即發行北望石峰崖岷嶽木蒼天

名是金石山一名松鶴山而有若我東之三角山也暮春抵恣秀石壁削
立清流環抱正如平地恣秀兩地一名良有以也過魚龍堆二更
令始抵柵門，尚開矣即入舍次而止宿一日所過處光景無非
可怖可駭而至若羣胡深視毛毳黑衣人面鳥語不可知得或
驅青騾駕小車去若飛來如電果非人類之可比也一百二十里

正月初一日晴而寒留柵，在鳳凰山下北而南峰似鈿錠
有若押天樣而西為鳳凰城南為安市城即遼以東第一名山也自
末三使臣到柵外設帳於一箭之地一行八馬屯聚川遠修送報
單人幾負馬幾匹更為點閱然後門亦隨開此是例也而今則
皆按例文報去來而已所謂柵門編木為牆高不過數丈間隙

踈濶只有內外之限而柵內人家約有數三百戶也灣枝之留柵者是柵中軍而預定三使臣次所修掃以待雖是茅蓋木籬塲

除廣濶房內有溫坑長則是一間廣則容半席而皆以蘆簞鋪地壁則塗以唐紙也軒後周覽諸刹塑像及閔帝廟或佛像或山神或古名將或女將軍馬扁揭金字皆是祈禱求福之事也修到柵狀啓

初二日晴而寒留柵見家兒書及各處書

初三日朝微雪午後晴柵門即彼我境界而物化貨交易之所也羣胡相聚無難往來雖欲接語無以解得或筆談而知其姓名年歲矣如是過數日自爾面雅要請清心丸等藥而

許施則必報以冰糖之屬，集亦知尚往來之禮乎。

初四日陰早，食發行禮房。李在穀，官李摩，烟皆落後。告辭十里，同來上朝。今張殊，極張然新差禮房。金相協，軋糧

官崔性學隨行。五里許過安市城，在朔龍山，餘耕麗至今。

有古址，蓋云高麗城也。城之中有石峰，上有將臺，傳云楊萬春

達機之所也。行十里許，有鳳凰山，即朔龍來脉。而山之北有鳳凰

城，而以捷路行役，未得閱覽，甚憤。款抵四台子中，大即發行過

麻姑嶺，至松店，舍頗有可觀。自渡江以後，始見松樹，而店之一名

薛劉店，蓋唐之薛仁貴。劉仁願駐軍於此地，故因名云。踰小長

嶺，渡甕北河，踰大長嶺，渡劉家河，九行五十里，止宿于黃家庄。

店：主人是黃姓而一村多黃姓故名云而以下范家庄郭家庄皆倣此也八十里

初五日陰早發渡八渡一水九八渡而與牛官成水馬蹄車輪駐着不得恍若琉璃世界所謂劉家河金家河是也到通遠堡四十里中大堡即古之鎮夷堡而清天聰中設鎮今移置鳳城者也過石陽踰高家嶺俞家嶺道路險阻人家零落至三十里草河橋此即我國之孝廟朝入藩時以水芹本非土產取種於北地而山下往之有之云暮抵連山關而止宿此是鳳城終競遠東初界也前有迎送別甲軍點閱人馬故使行每致遲滯今則草罷云耳九十里

初六日朝陰夕晴早發行五里許路傍村有磨藥磨于水
上立閣軒之上四直磨于上復以石為之懸於樑上下復以木
為之置于軒下而懸輪受水、觸懸輪則下復轉環不息
上復礮然不動亦一奇觀也行到會寧嶺高大峻險石角
露路處冰雪凝結馬蹄車輪駐足不得緣崖攀磴逶迤
作路艱辛抵牾水站而中火即發抵青石嶺高峻險側有甚
於會寧嶺而石色如淡藍色層巒作峰環山崎嶇有似
乎東青石關中開一路僅容一轍遠方之一大關坂也昔我
孝廟朝入滬時過嶺作歌其歌曰青石嶺過去玉河館何
處胡風寒又寒陰雨亦何故誰能画我行色獻之於君所清

人至今傳之於樂府暮抵琅子山止宿人家以民家樣作舍蓋
之以粟葉秫秫等物遠者有若柳比近視則舉皆如是也

八十里

初七日晴而極寒早發行十餘里踰摩天嶺不甚高然而山
路屈曲冰雪堅滑左右扶護坐起從便躋攀下未渡三沱河水腹
冰合有若廣布琉璃望無際涯行到王祥巖下有古墓即皇明
都督僉使王祥之墓故因名焉至四十里王賢望里甲大北是遠
陽之南界也大野茫茫無高山之限傳言遠東七百里也問關到遠
東城皆以甄甃等成方正如繩直而下廣上尖雉堞縹緲聳
出空甲有正門紅楮刻曰綏遠門即城之東門也入此門內左右

列肆堂榭層楹皆飾以金碧琉璃照輝心目眩搖精神又豎
之招牌記號書以金字表出半空又書言無二價四字或以泥青
填之或以泥金鈐之餘外楹扉不可盡記而皆表其門首也自東
門至西門恰為五里許而東馬換街者率胡盈門古所謂車轂
擊茅人肩磨之語為今日準備語也出自西門有関帝廟雄偉
壯麗不可形言而門外立檣竿高可為八九丈上冒白金頂轉入
三重門皆以青石作層階左右廊廡井對列各懸鐘磬丁
東響應及到正殿為重檐榑栴門闌深遠窈冥當中
安神魁特雄偉夾侍諸將分列左右前設珠帳寶網香
臺花燭東西分豎旗幡鎬鈿麾蓋縣之狀令人起敬門

楯揭額泥金填字前後左右不可憚記西行數里許有一
白塔屹立雲霄深象以八稜等以十三層一稜一層皆懸空唐
馬累若若聯珠最上頂有團圓金顆三個以鐵杖母貝中管
中而豎立周圍為數百步高仞為三十三丈傳云遼陽華表柱
又云唐尉遲敬德征高麗時奉勅初達又云古有佛教立
此浮屠塔未知初在何時亦未知指的名稱也城之北有太子
河史稱燕丹避秦逃走行水於此者是也暮春抵迎水寺止
宿七十里

初八日晴平明發行十里許有接官廳即瀋陽將軍巡審時
遼陽鳳城官迎接處也過防虞所至爛泥堡秣馬遼野

地勢四面平鋪所過路傍古廟叢祠往往有之至於閔廟佛
堂則可謂家之尊崇村之祈禱便不神奇也到十里河堡
止宿六十里

初九日晴而溫平明發行過板橋堡古家子火燒橋至白塔
堡中火即發到十餘里有白塔七層八面傍有寺刹入其中
有一僧年近五十顏面豐厚身着黃衣頗有道氣以筆
談問其居住則答以我本蒙古人住居一品蹄是寶瓶末
住幾年云而其文筆不比尋常矣周覽諸處到一處方祈
禱銀煙香既頗有精灑意思即入瀋陽城南門內下
處於大街東間舍李姓家其房內什物窮極奢麗不可

名焉偏視城內則雉堞閭井市廛牆屋各項物化實可謂十倍於遠東而金碧珠翠照爛心目如入波斯古市矣四街之口各設門樓下設四達虹霓門皆為十字街其富庶豐潤侷擬北京而清之豐沛云矣城之自東至西恰為十里兩城門有八南曰德盛北曰福盛東曰撫近西曰懷遠其餘不可詳記而達廟立社設為六部有侍郎又置都統官鎮守也德盛門內有朝鮮館即我孝廟朝入質之所也外攘門外有殺人場即我朝之三學士并命之所也云六十里初十日陰早發出西門行五里許有寶勝寺即崇德帝願堂也故又曰願堂寺清崇德六年太宗皇明總督洪承疇于松山香山

歸路記其功績寺內樓觀極其壯麗外設朱柵欄固鑄鎖之從四角
門正殿有海月增輝四字泥金填之殿中安金佛三座寶幃珠帳
掩翳不明香案燭臺等物之屬莊嚴珍麗真奇觀處也西有
齋室有身僧跡稱喇嘛僧以皇命自蒙古國來守此寺也行過
方士村壯元橋獲家子至大方身中火又為舟行天氣陰酸微雪
霏灑過麻刀橋神農店至孤家子止宿九十里

十日微雪終風早發行十里許至巨流河一名周流河也金遼之水皆
合于此故稱巨流而河之兩岸有城以壁瓦築方城設門樓即周流
河驛云矣過西子店五道河四方臺郭家屯午炊於新民屯其地
雖不築城而只設門欄間并市肆旗標楯額朱樓西閣之壯

麗富賤不下於遼東而西通關河東接遼瀋南抵海汭北走蒙
古蒙古亦一大都會也此距蒙境不過為四十里而常有侵掠觀
覲之慮故乾隆皇帝幸瀋時止宿於此置屯於此而初不收
稅民歸如市遂成都會處蓋為其防禦而設始云也又敘行
過小大黃旗堡石獅子古城子至白旗堡止宿而一行冒風觸
塵輿皆戰慄良亦勞止是日行八十五里
十三日晴極寒平明外行自青石嶺以後茫茫大野都無一草石一
阜山過一板門至若菲山北始有山焉名曰月峰在城眉店後
不甚高如半月形明媚可愛雖欲登覽朔風大作黃塵
滿漲不得如意亦一欠典到二道井子中大又為斧行過神

隱寺土于井到烟甚盛，高數三丈周回數十步而自此以後每數里許置一店舍若有警言則以烟火通信即如我東烽臺也一抵小黑山止宿九百里每日行必以平明後者近有响馬賊作梗於初昏時未明前有難早發暮抵三使臣與一行譯員皆會同行耳

十三日晴平明發行至羊腸河，源出於白土廠東入于海內當春夏之交沮洳難於跋涉當嚴冬之時冰雪易為顛倒故名曰羊腸到三十里中安堡中火又外抵四十里廣寧店止宿是日行七十里聞北鎮堡在廣寧店西自巫山西北桃花洞亦在其近處頗有奇觀云而歷入為五六十里地也未得往見甚憤歎回邊時期欲周覽

也

十四日晴早齋過興隆店渡河堡至此鎮堡城址宛然明時
所築云而自此以後人家與塚皆無屋脊不蓋茅葺梁塗土以
灰或言漢人思舊築室故如是無標云身到閭陽驛中火
鋪肆殷盛亦一都會也過二三四五其堡至石山站止扁野中有
石峰突起初無來脉是謂十三山衆峰競秀如攢笋結髻若
作魁特狀自柵門至此自此至燕京為路程之折半而道路遠
迤屈曲初從西北而入中復西南而來有若弓樣之背若從捷
徑則自石山站至柵門不過為四五日程矣明史言朝鮮貢
路請改試為林而兵官劉大夏穿靴不可曰朝鮮貢路自鴨

鵠關至山海關間有三四大鎮而此是祖宗微意也若取捷徑則必致他日憂患不可許也即止云、而近日先來軍官自燕京同為行至此從捷徑而去云耳八十里

十五日晴早發至大陵河北是古戰場而即皇明將劉鈺敗死之地也今為官馬放牧之場而大陵河店備有二大廟一則關帝廟一則東海龍王廟也居家數百戶距海八十里而市廛各貨板木記標在、俱全矣至海陽店中火抵杏山店止宿自大陵河至杏山堡為百餘里之程而皆明末清初之戰場明將洪承疇十三萬軍八摠督為清所敗一時沒死而豎清勝戰碑、閣以甃甃築成宏壯可觀而碑文皆磨錄不能詳者即明人憤

其敗亡有此磨跡云矣是日行一百里

十六日晴早介過高橋堡紅旗營至塔山所望見海色依微而
風頭沙塵浮漲不今天水矣過單羅店、傍有三義廟此是
關帝廟也入其中則昭烈皇帝關公張飛列坐有若桃源結
義之樣而來侍諸將皆騎馬擁衛亦一壯觀也周覽輒抵燕山
驛中大過烟臺至東頭臺有鷄鳴山三峰突起此果張子
房吹簫散楚兵之處乎參考前史未知指的此山矣至宮子遠
衛城郭以甃甃築成市廛亦以丹青模画城中大路工立牌樓
二處以大石四柱列立有若紅門樣兩柱立獅子背上檣杆榱桷
皆以玉石雕刻其上層書玉音二字其中層橫書元勳初錫四

字其下層橫刻祖鎮祖仁祖承教祖大樂四世官啣姓名柱前面
刻珠聯一獲琳琅有琳賁永譽於千秋松檟如新廣善培於
四世後面刻桓趙興歆國倚干城之重絲綸罷錫朝隆銘昇之
廣樑間橫書登壇駿烈四字第二牌樓制度刻法亦如第一樓
而其上層書玉音二字其中層橫刻廓清之烈四字其下層橫
書四世元戎少傅六字其下又書祖鎮祖仁祖承訓祖大壽官啣
姓名即表忠之旌閭也蓋大壽以四世遠將層立大功名振華夷
崇積末與表崇煥率師入衛一日忽崇煥之驟死大驚身捲衣
而走清人百計誘之竟為投降所謂元戎駿烈果安在哉至今為
隴西之耻矣仍為止宿是日行七十里

十七日晴早外至青墩望觀日出處而浮鷓鴣蔽空不能遠望矣過曹庄驛七里坡五里橋至中右所中夫一名河所自明時達官築城係是鎮堡而今則城皆頽圯只有其址而已午飯後即外過軋溝望望河店到中後所止宿中後所即明時大關防也中間頽廢今又改築新城有三門東曰仁和西曰潤澤南曰歇薰人家為一千五百戶而市肆殷富車馬駢闐不下於新民也而亦關東一大都會也毡帽馳毯便是土產而居民皆以此為業我國譯員與商賈到此交易矣天下處無以關帝廟僧房為之近則為上房所占也是日行八十里

十八日晴早外過第三望于路傍有崔崇妻節孝碑樓

制度如祖家牌樓而以甃碑築成也到滿井鋪中大又為芥
行過前北衛王家庄望江甘堡至高嶺驛南望海色連空
而相距為五十里云矣抵中前所北地有城初不入城即到西
門外止宿而市廛樓閣舉皆凋殘無足可觀矣是日行九
十里

十九日晴早外過大石橋王家庄未及八里僅數里許野中有
阜突起有姜女祠後望夫石前刻望夫石三字石間登
陟處有足跡痕深可餘即姜女望夫時上下之足痕云
石面橫刻作如是觀四字傍有小亭遺墟即皇帝入陽時所
憇之處云前有小祠安姜女塑像着素服似有愁泣之狀

而合龍上揭扁御題以芳流遠水四字左右柱書千古無心誇節
義一身有死為綱常又有柏葉一生恒苦節梅花終古不知
妍餘外懸板有七律二首絕句數三首前有姜女事蹟碑風
磨雨洗字畫皆剗削不能詳省而聞傳言則姜女姓許名孟
姜其夫范即於秦皇時長城之後年久不還故送其子探知矣
其子久不還姜女登山痛哭而死後人憐而立祠云行五里許
路傍有四方其壘世稱崇德帝所築而此乃觀兵處也以壁築
成高可數十丈四面各為二窟四角各為層階上平為其壘中虛為
塲南向有穴門鑿石一身制度似是陣法也西望長城南接于
海東則遠金界北則蒙古境也于許後入山海關以壁築危

城門內石楣刻山海關三字第二門內扁額書天下第一關而門落頽落不甚壯麗俗傳李斯書之云或云設關時有陳姓人摸朱夫子書而揭之矣門內有舍內有官負四負此乃武官云而過去時皆下馬一如入柵時第三門亦三層高樓扁額祥霽搏雲四字以金楨之即清朝御筆下懸鐘鼓過中城即古之長城云南有毀城處傳云吳三桂引入清師而毀又云祖大壽擁兵東走而毀之未詳孰是大概一毀之後不復改築以鐵網障之矣關門南五里許有澄海樓或云望海亭而樓於城堞之上城之角築入於海畔而止望見大海茫茫南望吳越之東接三韓浩無際涯此是燕之渤海而亦一壯

觀處從茲以來又有東海神廟又有北海神廟即祠神之寺刹也樓觀制度極為奢麗觸目炫燿不可形言至紅花店止宿

是日行四十八里

二十日晴早發過吳家嶺范家店鳳凰店至深河驛中火古有城無類廢千餘後即於過網子店踰馬棚山歷上下白石堡至撫寧縣古漢之平陽縣也止宿於古驥門外門是城之東門而城內有知縣多士族家而文武異處街路有牌樓二門制度恰似寧遠祖家牌樓而石柱木檐不甚壯麗門間多孝子烈婦之表旌皆如東方迎恩門樣子而立於門外矣縣之西南二十里許有韓文公墓上有文筆峰世稱昌黎鍾靈於此而其子孫世龍衣不乃

才河又有子孫世龍五經博士云矣是日行九十里

二十一日晴鷄三鳴行五千里復望堡中火三十里永平府宿所即前
例而今番則日子稍迫道路差遠故倍道而行至永平府中火抵沙
河驛止宿是日之行九一百三十里也由此不得周覽甚愠歎永平
府知府游智開即明人也每當我東使行之入站有相知之例故中
大時三使臣聯名通奇矣知府適往李私章所陣天津橋不
得相逢府內有明遠樓即漢時李飛將相坐像所安所也上府
西南十餘里有射虎石府北十餘里有夷齊廟云而回還時期
欲遍覽計矣自永平府至沙河驛為六十里而其間沙泥延亘
車沒輪馬沒蹄一行之於萬里行役如于氣力艱辛扶護到此

地頭舉皆疲困似難振作而有限使事不可安歇更又激勵期
將明日早介兩道路之間大野平鋪梨樹成林一望無際周回似近

三四十里而不知為幾千萬株矣

二十一日晴早發過紅廟至七家嶺大小生殿石皆首北有若驅去之
狀傳云秦時築長城也以神鞭驅去聞城役已畢止於此處內
有向北之形云亦可怪矣到榛子店此地亦歉荒適此脈西而
羣胡齊會不知為幾千名矣午炊即介過鐵城坎銀城堡至豐
潤縣曹姓家止宿主人年老寬厚工於書畫造其扇子為生業
即武進士之曾孫云武之有進士亦所初聞城內有文學文昌閣而
值昏不得周覽矣是日行一百里

二十三日陰微雪早發行八里許有還鄉河九水皆東而此水獨西故俗稱還鄉河又有思鄉橋宋徽宗北轅時過此橋浩然下淚曰過此漸近大漢吾安得似此水而還鄉乎去故人謂思鄉橋至高麗堡蓋丙子間被擄人居此地始有水田種獲之法宛如我東穀餅豆餅列置店肆實是東方舊例謂高麗堡抵沙流河中火行過雨水橋兩家店龍池菴至玉田縣止宿而縣之東有古孝子種玉之田故曰玉田云矣城東扁額揭以東旭城內有文昌閣又有三層牌樓上層刻景山觀海四字南柱刻一瓊珠聯四野風雲呈錦繡一天奎壁煥文章蓋豐潤玉田之間山水明媚原野綿漠園林第宅城池間闕頗有可觀西距薊州不過為幾里而有烟樹云是

日行八十里

二十四日陰寒早發渡彩亭橋。形穹起橋頭有亭翼然行五里許巔上有大枯樹山腰有小枯樹此樹不生不死無葉無花高可數丈枝柯婆娑俗云此乃靈木若葉生則必有王者興慎不折傷也山下平郊又有車東木不知為幾千株矢未及盡魚山店數里許有宋寡女後園有城堞譙樓高可數十丈世傳明末有宋姓人築墻堅守不降清人義而不加兵每歲稅銀千萬兩其家有寡旌閭復其戶以贊之登譙樓所望處皆宋寡女之田庄云矣至鱖魚山店中火抵邦均止宿北去薊州為二千里也有卧佛寺世稱李太白塑像云而路近不得往見又五里許藍山有安祿山楊貴妃塑像云而亦不

得往見是日行百五里

二十五日晴早介過白碣店潭沱河至三河縣中大又介到燕山徑林馬里門刻燕山古市四字又刻燕郊鎮三字蓋古之悲歌較乎此之所也民物殷富市肆侈奢可見為皇都之郊也過白河抵通州而止宿蓋自元時天下漕運皆集于通州運于河即東南之要衝也編結舟楫覆土為橋以渡行人矣入其城中市肆屋閣珠羽翠金碧觸目珊珊不可與遠瀋相較而其日昏後各肆燈燭皆以琉璃羊角紗籠函幃等一齊開張照耀凌亂可謂不夜之燈市未知廣陵城觀燈勝似於此乎是日行百五里

二十六日晴早明介行自通州距北京為五十里內以碑石鋪於大路俗稱

吉是壤婦執則正官田無他子女以此築路云矣過管家庄楊家園
等地而道路之間有許多大官墳塚平地無邱隴起圓墳不復復莎
草和灰塗之塚倚種以雜木塚以雕牆前由築成華屋至若眾人
墳塚則只為聚土曰冢若周匝其後裔之深枯貧富初不以
擇地桑埋為身而各因其人之勤慢與否則與我東大相不同矣
未及朝陽門十里許有東嶽廟東嶽即岱宗也自元明以來
達廟祀之康熙年間重建增飾此在碑文中而廟門前東
西寶坊對峙正南石坊皆三門二層廟門內左右鐘鼓樓皆二
簷戟門曰瞻岱之門內左右齋宿室精灑綺窓疏寮琉璃
鏤窓三使與一行皆聚一堂而通官五六人蟒袍繡襖先

到接見少憩後偏覽諸處先入正殿額曰岱宗昭貺奉安東邱
天帝仁聖帝，狀魁特仰見數丈琉璃華冕玉帶黃袍儼然
若王者像左右有兩女侍四丞相兩介士前有一大鐵缸中有燃燈
上有鐵籠罨之飾曰萬年燈自廟殿初建之初張燈而至今
不滅云左右羅植旗壽縣幢幡前面羅維刊銅咒奇玩燒流
蘇香陳設麩果高過丈餘兩傍以五色彩箋作假花以金
和土作蓮塔形高數丈面貼花苑如生花兩廡設地獄十
二月神將正統間所建各有佐侍諸臣有若按事治獄之狀陰
森可畏正殿後有曰育德之殿是即帝妃神寢最後有碧霄
峯化之殿上奉玉皇上帝像下安文昌帝君像左有銅馬右

有玉馬銅馬則俗稱人若摩手眼而洗眼則眼明若摩耳而
撫耳則耳聰若撫兩耳則生男子云矣棟樑間揭扁不可
盡記而此皆文人與予之所施又有碑文雕鏤成物形凡
樓閣不知為幾千萬間神像不知為幾千萬像而影心
縱目日不暇給而五岳之神各祀其方而獨泰山之神祀
於宇內為其最靈也此柴望秩祀自虞舜之世已然而始
焉作廟則在元道士馮道願以其地在於都城祀其位國
家因作望秩之所以尊號為帝云矣因為乘車入朝陽門
從東邊路過四胛樓又東折過長安街又西折循城根數里
許北有門扁曰四驛會同館城為玉河館東使所住處而

入門初頭西邊即上使房又過一門中間西邊即副使房又過一門西邊即書狀房而經年廢却之空間新設炕災果難堪耐矣東西簷廡聯遍相接裨將與譯員皆設炕住接餘外廚房及各下人皆設炕而寒不能堪其苦矣是日行五十里

二十七日晴留館飯後因主客司知委三使臣着漢緞冠服領率譯員詣禮部于刻呈咨文部在館北而正堂之西額曰寅清齋化以金字書之入其內則大廳當中設卓子奉咨表於其上以黃帕覆之諸通官列立引三使臣於卓子前行三拜九叩頭之禮訖通官奉咨表授上使、授副使、授書狀官後通官更奉于卓子上三使臣跪問候後復歸館

所矣

二十八日晴留館其前夕自禮部有知委大牒明日寅刻行裕祭禮於太廟而三使臣皆恭班去故雞初鳴早飯後詣闕由端門直入禮部直房待寅刻至于午門則天子乘黃屋轎率百官詣廟隨班廷臣濟、澹、整肅有威儀服色亦皆鮮明不可以我國羌仗所比也有頃天子旋即還宮三使臣率首譯與任官詣午門前祇送日氣酷寒即地退歸飯後自大鴻臚寺有演禮之文字知委此蓋正朝陳賀時三使臣恐有失禮願為習拜故也詣鴻臚寺習三拜九叩之禮旋即出來館所伊日申時量有供饋饌物之須賜生羊六死羊四猪一雞十五鵝六

餘外各種皆日用底物也至於果品則葡萄菱儉生梨大棗等物而饌物則房下人軍卒次知即渠所賴也果品則掌務官次知分播於三使臣房及譯員之有任名者矣

二十九日晴大風留館無事午時量又有供饋之饌物如昨日而間五日頒賜即前例云而今此課日頒賜實是歲隆之故也得見皇朝、報有如我東今撥朝紙而皆刻板印出即上國規謨也晚後胡人穿一胡孫而來宛如樺兒而但有毛有尾故知為猿也衣以紅色赤衫以鐵索絡項而以革為漚雖不能言語至於坐卧起居行動舉止無非如人樣也結繩於西木之端而使之乘遊則有如才人駕耒於小犬之背而使之耕田則

又如農夫隨人周旋少無差錯誠極異常矣

三十日晴而寒留館飯後自禮部有頒賞之令使上判事馬頭
賞奉以來則蟒緞二疋漳絨二疋大卷八絲緞三疋小卷五絲緞
三疋大荷包一對小荷包二對而此非例賞也即加賞也上國盛恩
迥出非尋感祝

光緒三年正月初一日晴寒留館元朝例有陳賀自禮部前
期知委故未明三使臣與諸譯員詣闕自天安門至午門前恭
班三拜九叩頭後少歇於直房出來而門樓皆以黃瓦蓋之門
路有若甬道長為三十餘間門皆然而自闕門外至闕門內
以甃石鋪地廣潤雄偉無與為此而只是堅確甚非奢麗也左

右翼翼廊前後各司不可憚記午門西邊有蓮塘周回為近數十武而池腹水合但聞瀑布之聲未知挽何水湊此塘也塘之畔築牆內有樓閣左右前後香木苑密皆成連托牆門設門堅鎖使不得出入想夏月滌暑之所也天安門外有石橋築石闌干如此者九九橋而相連像其門樓九間之數也橋底可通舟楫橋上可

數三車矢左右以兩行立敬亭天柱高為十餘丈大可數三圍而

以白玉雕刻龍狀又立獅子亦以白玉為之真壯觀也

初二日晴留館無事

初三日晴留館無事

初四日晴留館無事餘後上判事馬頭率侍諸胡之有

技者一場劇戲有一童子年方十許歲手指兩竿細如烟竹長可
二尺又持一椎子如砧杵樣長可尺餘置兩竿間左右翻覆上下
橫豎椎子緣竿回旋環轉珠跳如鐵針之懸指南石一不失
墜其手法奇妙又以一竿竹持來竿端押以白鐵尖置一磁
甕於其上以手推轉輪回不止或立之於鼻頭或立之於額上一樣
回轉欲落不落幾危不危又取三箇磁碗互相擲空隨落隨
受若將墜墮百無一失又展紅袱於階上置五箇紅玉珠於
袱上取兩箇銅甕之如酒盃者分置兩邊或一箇珠藏於左邊
銅甕底而忽焉開視則為二三箇三四箇珠藏於右邊銅甕
底而忽焉開視則只有一箇又或虛無於左右銅甕底而以手攢

之箇。跳出合而不見其合。分而不見其分。誠極恠然。又燃火於唐
吞入口中者。為數三次。頓無痕跡。更以粗糠納諸口。而不通呼吸。
旋即吐氣。則青烟出于口中。有若突底生烟。末乃吐火而墜地。
亦極恠矣。又持角箸。兩箇長可二寸。細如小錐。納諸鼻孔之左
右。而其末見於左右眼眶。及其拔出也。不知為幾十箇。又持細
針而來。無數啞吞。末吞綿絲。旋即吐出。所啞之針。箇之貫於
絲而連續出來。又持尺餘之兩箇。長釘合而納諸口。似及於
尻底。仍為類卧。揚中更為板出。釘末有涎沫滴。之尤極駭恠。
又設卓子。展紅袱於其上。取師子之通底者。大小二箇。合置於紅
袱上。以小袱覆於師子。顧瞻左右。無數翻覆。少間。捲小袱。拾

取八箇函中標列置於卓子上復取菁松菴蒜等物各盛於標
子復取酒盃及酒函、傾無酒似若佯驚更舉筭子則有一小缸
有酒盈、斟於盃敬奉於手輪回勸飲或飲或不飲更以筭子
覆酒缸而旋即開視則酒缸不在至若菜果等屬亦皆如是此
莫非以妖術眩人耳目也又以一小熊牽置於場中而以鐵索絡項
以鐵環貫鼻持團圓之餅回旋四方則熊亦如人而回旋受之
以長劍則舞劍受之以長戟則舞戟亦一杜視而上國馴物之法
大異於我東方矣又以紅袂展於場中顧視四方若有吮言開紅
袂而擊出一大磁器有水盈、五色鮓魚搖尾吸沫至若彈丸
舞劍之妙不可形言矣

初五日晴而風留館無事申時朝報出來又有主客司文報初八日
孟春時享於太廟而前期初七日寅刻天子親詣廟庭三使且祇
迎祇送事知委饌物復下

初六日晴而風留館無事

初七日晴和鷄三鳴三使臣諸譯員進參於太廟孟春時享皆
待於午門前天子始於寅刻出宮百官陪從天子使三使臣曰
仰瞻聖顏旋即仰瞻則曰爾之國王泰平乎使臣俯伏天子
更無所問天然而去天子時年七歲極為肅成實非凡人所比若有
天子氣像矣三使臣祇迎祇送後歸館午刻饌物領賜羊肉
與黃餅白餅及各色茶果而已

初八日晴留館無事，飯後使進士往見尚翰林賢而來。

初九日晴和留館無事，飯後共與三房命駕偕往丹肆及花州。

一廠一適，見過則奇文僻書，琪花瑤草，有不可訖到矣。禮記一株。

康熙字典一帙，餘外稗史教卷，買得旋即歸館。

初十日晴和留館無事。

十一日晴而風留館無事，饌物復下朝紙出來。

十二日晴和留館無事，方物今才入來耳。

十三日晴留館無事，飯後登城，以臂瓦甄等成高可十餘丈，廣亦不餘丈，俯瞰城之内外，據地樓臺，喧天車馬，不可以我東比也。宵次爽豁，心目曠大，眼不得司馬子長早年遊觀也。

十四日晴留館無事朝紙出來

十五日晴留館無事午飯後使舍任往見刑部主事彭柱高而
來而午飯之供饋勤款物種之見寄不此茶種及萬壽香良
諸等物并自見筆足銘感矣

十六日晴留館無事朝紙出來

十七日晴留館無事羣醜齊會一邊打鼓彈箏一邊以面又木
條足或坐或起或徐或疾唱歌劇戲亦一可觀而薄日本脚戲

十八日晴留館無事飯後往白雲觀自朝鮮館出宣武門城之相距

為十許里而歲初則都城士女皆出此觀為一場遊戲即例也男子衣鞋羅
乘快馬女子新打扮坐繡車駟閣連絡觸目開眼走馬馳車百端集

技誠一壯觀有難記得又有神仙云者左右列坐眼目垂手有若翔
像招之不應揮之不去羣手胡以錢百端佯戲或置之頭上或入之口中或騰
或耳無所不至而若無動靜又無聲息此果神仙乎世豈有他也誠足哂
然一處又有大神仙掘地如井四面等欄其中一邊設炕門垂小簾當中
書喜字人若擲錢得中喜字則可以生男可以生財身數且吉云羣
胡列立欄外競擲小錢如雨下神仙亦好錢而此亦聚財之道乎觀傍
小南又有天龍寺即古寺也大利也佛殿梵宮不知為幾千間而金碧珠
翠眩幻莫狀左右翠芙蓉廊前後夾舍皆藏花草和氣氤氳香臭
不散又有古塔有似牙遠陽之白塔而周圍為數百武高可為數十丈
傍有彌勒佛立地仰見高遠莫攀等而一手下垂一手附背而開掌

人如擲錢入於掌中則皆云好矣故舉手皆擲之居人之好恆亦可推知矣
周覽之後將歸館而白雲親遊觀之人一時湊合於城門之外騎不進車
難退過幾刻是春鱗次稍解真大國也

十九日晴留館無事大車今才入未見家兒書及諸益之札而竹川京人
處所幼之物歸於良貝自此經營有難容措極而憤歎也

二十日晴留館無事朝紙出來

二十日晴留館無事飯後玩瑤池鏡外樣如梅花帳而當中付之圓鏡注
目視之則一間是殿閣也皇上殿坐百官列侍威儀濟濟一間是寺刹也佛
像當中縮徒誦經有若法界一間是江海也波濤橫奔船帆未往岸邊
垂柳江上亭榭陰映如初苑一間是雪景也樹、開元境、淨潔餘外

綺忠繡戶男女之友情書圖西厨商賈之買賣春隴之駕耜耕田大道
之馳馬走車夜則星辰滿天燈燭輝煌晝則日月明朗乾坤幽僻

景狀萬千不可形容矣

二十一日晴留館無事既後往玉棟橋、在皇極殿後面以西長為七
十九間廣為四五祀皆以白石築成又以白玉作欄每間石間上押以
鐵燈籠長夜不撤此是皇上舉動時所用云引河注北流入于宮
池轉出于玉河橋河之上頭有五龍蓮萬佛寺千佛寺極樂殿并
青照耀迥臨半空望之碧巖然路由宮牆後牆垣亦以磨瓦甃牙之
其堅固有若城堞接垣而築舍宛如倉庫樣此是軍兵守直處也
四面皆如是舍外又有河水濛濛迴滄瀟可以行舟花官牆而派出皇極

殿後門扁揭神武門。外又有園林有似我東之景慕甚也。園之後有萬壽山，勢不甚高大亦無險峻有若鳳鳥之張翼此非天作也。即是人造而京都開基時四面皆平鋪故造山為鎮云。上峯等三層樓閣中峯大等樓閣下峯又等樓閣左右皆如是而前者我國使行任意登臨一自洋夷來接之後使不得往觀者恐其洋夷之出入嚴禁防禦云。山下西邊有開帝廟神佛寺亦宏壯。龍土俗之祀神崇佛自上達下在，皆然回路往于大學寺瞻謁於大成殿門外入其殿內位版書以大成孔子神位左邊有顏子，思位版右邊有曾子。孟子位版稍後左右邊有十哲位版殿門外東西廊連廊櫺比左右有鐘磬閣神道碑三門內有石鼓十枚以五枚式分置左右而右邊

所置一枚破碎只存下體已刻以石鼓文而人皆印出墨痕周匝石面
刻刻不可詳者也此是周宣王時所造者而史傳之於開元天子之家
則幾千年流未者安得不剝落也三門外有石碑左右羅立不知其
數此則科舉人姓名居住所刻者也自開國以後每式年設立立
一碑正似我宋方司馬榜目之例也外三門外西有辟雍園之碑
雍園之泮水只從文字上省未本見其典型今身視之果如前
世之規模乎石等如辟水回如環中有殿閣前後左右通開條
路矣又左右翼廊豎立石碑刻以七書及春秋左傳爾雅等文
字當初樹立遺後規模極為宏博堅確矣周覽之後又往
雍和宮此是佛舍也其樓閣之欄且皆鐘鼓之鏗鏘工函不得記

書亦難而第其沉香木刻為木假山樣以五百羅漢之鑄金塑像
列置於間。曲。或坐或起或立或行亦一奇觀。出其後門則又有
三層殿閣。當中有一大佛。高可十餘丈。圍可四五把。全身皆銅
鐵色。自下仰視。面目不可詳審。而後有層梯。故努力躋攀。艱辛
上。去則又有層梯。又復上去。則又有層梯。又復上去。則始有軒敞。潤
明朗。轉往前面。對見佛像。則面色黑而紅。眼睛圓而橫。裂頭戴
黃金寶冠。手持名花一枝。自佛像以來。未有若此之長大也。殿之左
右有翼。廊等。複道。來往而登。臨下視。兩眼生炫。兩脚如戰。不可久立
矣。仍為下來。旋即歸館矣。

二十三日晴和。夜間微雪。微雨。旋止。留館無事。

二十四日晴和留館無事

二十五日晴而風留館無事

二十六日晴留館無事

二十七日晴留館無事，既後往鴻臚侍御徐樹銘家，在宣武門外入其家主人沈欽容樓上炕視其家樣，則金碧照耀，亞宇瑣密，圖書滿壁，花葉分明，以筆談敘，懷又作詩，文少頃，一大八面盤，以俵茶塗抹，照人耳目，高可上臍，肚廣亦數三圍，管中安置左右前後羅列，胡床覆以猩毡，次第據坐，先進香茶，次進各色果品，次進各色菜蔬，次進湯酒，味清，列入屠豕，香次進羹，湯無非魚鱗之鮮，生者而盛于一大碗，置于盤中，次進白飯。

入此境米未極麤劣且又蒸出有若飛東之粟飯粒，散落吃若
陷沙而此則不然米性柔膩兼有香臭似是浙東長腰米也
美可適口次進古椒醬烈而甘，而香不下於飛東潭陽之所釀
而獲者則以真紅茶塗之先鋪唐紙於函牒是之上且置笈者於
其上允於進需之第次置筥之方位亦足可觀吁亦盛矣貽勞不
些乘暮歸館

二十日晴四風留館無事

二十九日晴留館無事

三十日晴留館無事雞三鳴發往西山，在皇城西五十里地也出自
平字門直抵西山境轉入洞口則山回水轉石迭崎嶇樹木蒼蒼蔚梵

宇佛塔高出半空乃是碧雲寺也入寺門架石為橋清流涼瑋緣
山築城雉堞周遭中有大利制度宏壯層層石礎重殿閣有若
蜂房水滿而及至最上頭曲折為欄鱗石為梯嵌穴忽開恍如登天架
甃為墩周圍數百間高可數十丈四面皆以白玉石作闌干中有一塔
高為十二層面為八角每層每面刻菩薩羅刹之像左右倚蹕
羅立四塔有似牙護侍奇巧奢麗莫可擬比憑欄俯視則去地
千尺而飛雲過身如在咫尺白松蒼檜林蔥如薺齊前臨大野雲霞
杳冥真是仙區別界自渡以來雄寺大利不為不多而未若若此之
奇且壯也周覽後仍為下山出泐于寺門外店舍而中火直向萬壽
山俗云造山玉泉在其西金山拱其後而一帶湖水平鋪在前此是疏導

衆川匯折為池東通于皇城玉棟橋每當春夏之交則駕黃龍之艦
青雀之舫自玉棟橋順流而西至萬壽而停棹是乃昆明池也池南
有丈橋下虹門為丈故名焉高起半空長過數百步左右圍干
皆以白玉石築之南額刻脩棟凌波北額刻虛靈颯愴月南有神
龍寺西有鑑遠堂北有望蟾閣又有鳳凰臺臨虛堂洞庭游賞
樓等而一自洋燹以後盡入灰燼瓦礫頽積如千古礎敗欄榭
石竒樹無非傷心處而最上額有一殿閣雖為毀敗出巋然獨
存故披荆透棘從白玉層階躋攀登去則相額書以衆香界
內楣書以智慧閣之棟樑榱桷初不以土木為工皆以黃瓦
碧瓦相間鱗次登之皆成每瓦刻以菩薩其壯麗凌亂

不可形容而以瓦甃之故不入於灰牆中矣稍下西邊又有一閣亦
以烏銅為閣下有石門通巖穴如甬道長為數百武又西邊山
下有石丹以白玉石制為巨艦係于池畔增初設始自元明世三十年
造成此基而隋之江都宋之西湖想不過若此之奢麗宏敞也雖欲
遍覽諸處而日近西山且使行之不可經宿於城外即林也即為
回程從西直門歸館

二月初一日晴留館無事但舍侄以項核症屢日委苦連試藥
餌少無差減回期不遠治具未備誠極愁悶

初二日晴留館無事

初三日晴留館無事

初四日晴留館無事

初五日晴而風夜雨洽為一鋤留館無事

初六日朝陰而午晴進貢方物納于內務府而擇物官領納行中興各從人隨祭者之

初七日晴留館無事

初八日晴留館無事

初九日晴是日頒賞而三使臣着朝服列詣闕至午門前行三拜九叩頭之禮辰刻自禮部領下賞典而黑宮稍二尺通海緞一疋小卷五絲緞一疋藍緞桂袖一疋紅袖二尺銀子五十兩而緞屬舉皆透色此是每年使臣受出而還賣則復入於公庫留置

而又為頒賞由是而色渝生毛銀子則雖曰五十兩不滿其數至於行中賞典緞疋亦如是銀子則或為十三四兩或為十五六兩頒賞

之只以一紀前所未有皆擬厚賜到此失望無非成君貽誠發一笑也

初十日晴自上特上馬宴于館所此是勞使且還歸之意也餅屬也而種也果品也皆盛於筭大接匙列置于卓于前進於炕下不足下匙尺為省色而退出則前後左右乞之諸胡填門於旋立未及言訖一齊驟入兩手攫取此亦可觀可笑矣

十一日晴明將外行而如干物種之裝束先來便各處所去之書封俱足紛踏手脚未展眼鼻莫莫開也廳直孫仲敏即義州人也自幼穉時未留於角亭自角亭有所托故世亦未入此之日既無錢兩

之持來而九於興成有若大賈樣忽地携乃棄而逃去各鋪各屋之諸
胡盈門來覓將推物價而既無其人以不似之言語有如鳥獸而
烏噪當場顏樣之昌投姑捨外國之見悔極為痛憤也

十二日晴飯後行至通州五十里中大到燕郊堡二十里止宿而終
日大風沙塵彌天不介咫尺行亦勞止云

十三日晴平明行東林庄四十里中大至邦均店三十里止宿

十四日晴平明行將往薊州而神氣不便且道路遠迤故直趨山

店五十里中大過宋寡居庄有一高樓登臨觀望則此一面有山如橫帶

樣三面皆平野茫然漠然眼力難窮亦一壯觀也古有宋寡居

勢鉅富登樓所望處皆其田庄而寡居守節人不敢棄志故稱

曰宋寡產而其子孫尚保其家云。庚又於到玉田縣四里止宿。

十五日晴而風平明於行至沙流河四里中大即於微雨霏灑陰全

酸寒艱辛到豐潤縣五十里止宿

十六日陰寒平明發行至榛子店五十里中大又於抵沙河驛二十里止宿

十七日晴平明發行至野鷄屯二十里中大過赤紅舖抵安河店數十里有山突立即首陽山也山勢盤陀如覆鼻蓋有河如帶自北抱山而南即涿水也其間粉澤周遭城門如虹楣揭於竹城其下又揭賢人舊里入城百餘武有廟門、以甄從等之虹其宮員工達樓門楣內外以金字書清節祠、門外西傍有碑

刻忠臣孝子又牆面刻百代清風左偏天地綱常右偏古今
師範餘外碑文楮額不可殫記祠宇內有夷齊塑像儼
然清肅令人欽敬廟後絕壁下有河之中流有坐殿盤陀
巖曰姜太公釣臺之東有廟巋然或云太公廟或云孤竹廟
自此南距十五里有飛將軍射虎石而風沙晚漲日勢將暮
不得往見直到永平府三十里止宿

宿
十八日晴平明行至獲鹿堡四十里中火又行至撫寧縣四十里止

宿
十九日晴平明行至深河驛四十里中火又行抵紅花店四十里止

二十日晴晚後發行至八里堡二十里秣馬又奔抵中前所二十五里止宿

二十一日晴平明奔行至亮水河四十二里中火又發抵中後所四十里止宿終日風沙彌天不分咫尺寒氣逼人若有若嚴冬暮春天氣亦甚乖當

二十二日晴平明奔行至沙河所五十里中火又奔抵寧遠衛三十里止宿今日即寒食也思家之心有倍於他時矣

二十三日晴早發至連山驛四十里中火又奔抵杏山堡五十里止宿內連日風勢不順沙塵撲面衣襟盡汚良亦苦矣

二十四日陰冷早奔至獲橋店三十里中火又奔抵大陵河二十里兩

勢驟漲觸冒到石山站三十里止宿下人輩衣服盡濕對火焚
衣誠晒然而此處石色五彩玲瓏居人以此等牆等階所見極為
奇麗矣

二十五日陰而風早發至閭陽驛四十里中大又并抵廣寧店三十八
里止宿

二十六日陰而風早發至中安堡三十八里中大又并抵小黑山三十里止
宿東有十三山北巒自巫山、甘燒巖屈截特著於平遠之野而昨
冬過去時為風塵所蔽不見典型到今始覺為名山矣

二十七日晴而風早發至二道井于五十里中大又發抵白旗堡五十里
止宿帶乘軍中一名自此先送即例也付書於濤尹及柳第耳

二十八日陰而風平明發行至新民七
四十里中大又發抵孤家子五十里
止宿

二十九日晴而風平明發行至大方身四
十五里中大又發抵潘陽四十
五里止宿

三十日晴而風平明發行至白塔堡三十
里中大又發抵十里河四十
里止宿

三月初一日晴平明發行至爛泥堡三十
七里中大又發抵迎水寺三十
里止宿

初二日晴而風平明發行至王寶其堡三十
里中大又發抵狼子山五十
里止宿夕間大風捲沙土兩滿天日氣之
平虛誠可怖矣

初三日晴平明外行至甜水站三十里中火又外抵連山關四十里止
宿去夜風雪大伴今日泥濘如海車輪馬蹄沒眉難進况三月
之雪早非時也已播之穀種不無凍死之慮未教之花叢難免
朽傷之歎言念年事誠為悶然

初四日晴而寒平明外行至通遠堡五十五里中火又外抵黃家庄三
十五里止宿

初五日晴平明外行至四台子四十五里中火又外抵柵門五十里止宿幾千
里驅馳之餘後到此處始覺快潤耳

初六日晴留柵無事首望與大車尚不未到誠為悶然
初七日晴留柵無事

初八日微雨留柵無事

初九日陰留柵無事首塗未到大車亦到

初十日陰留柵無事

十一日晴留柵無事見家書

十二日晴早外至溫井六十里設帳於平野雨中火又奔渡中江過三江飛境

山川漸、慣眼行到數里統軍亭宛然露路出城郭依然儘覺快潤

到鴨綠江頭船隻塞江人馬簇擁知者欣迎不知者玩賞人會日如林不

可指數而本伴先未定坐妓隊顛倒二樂迭奏亦一杜觀至甚喜

亭下橋小憩喫茶畢後即入于義州舍處所

十三日晴留灣渡江 陸撥便付家書

十四日晴留灣登統軍亭周覽山川之秀麗綿邈前人之揭板記
述仍作詩使灣尹為之飭造楫楫

十五日晴留灣

十六日晴留灣切破外行而舍任之項核三房之病勢不得登程耳

十七日雨留灣

十八日陰平明外行灣府親知人告別業京陪行馬蹄等亦為下直天
至所事館三十里中大而守廳故王仙隨來于此地欲為作別其德愛之

情不可形言又發抵所良館龍川地五十里止宿

十九日晴平明外行至車鞏館鐵山地三十里中大又於抵豈川邑五十里止

宿夜視項莊舞有若鴻門宴而可謂依樣西廬亦為奇觀

二十日雨平明發行至郭山五十里中火又行抵定州三十里止宿終日雨
下沈薄如海人馬俱困衣服盡濕見甚悶然

二十一日陰晚行至嘉山五十里單站止宿

二十二日晴平明發行至定州五十里單站止宿登百祥樓閣之
壯山川之秀麗不下於義州統軍亭矣一傍有過妓梁心青使
覺快濶矣

二十三日晴平明發行至肅川六十里單站止宿

二十四日晴平明發行至順安六十里中火又發抵平壤五十里止宿而
與其伯有所相聞書物與朝夕支供舉皆退却其伯即為出來無
限分明故仍為破面耳

二十五日陰飯後往于上使次所練光亭并駕巨艦出大同門迄於
中流溯流而上到于浮碧樓，望江山可謂我境之第一奇觀處也
仍為下舟上觀浮碧樓下坐永明寺喫茶畢而少憩書狀官
則以前日之適觀和不同舟然而實以身恙之不健未能伴行亦不
無少一之歎也妓樂雖為帶來以國忌相值不得唱和樂暮
歸來滿江大色亦一壯觀即歸于次所

二十六日晴平明行至中和五十里中火又行抵黃州五十里止宿

二十七日陰晚發至鳳山五十里單站止宿

二十八日陰平明行至劔水三十里中火又行抵瑞興四十里止宿自

午後雨下終夕不止新溪倅朴世以三房支站事未見

二十九日雨終日暴注不得行仍為留宿。

四月初一日陰早外至蒼松五十里中大又外抵平山三十里止宿。

初二日晴早外至金川三十里中大青石關三十五里秣馬又發抵松原
三十里止宿。

初三日晴早外至長碛四十里中大坡州四十里再中大又外暮抵高陽
境陪行人吏奴令炬火燈籠初不待今故投入公兄及將杖決棍放
出。

初四日晴早發至弘濟院四十里知舊間皆為素見而念擾未得攬
轅往于所營執事廳改服後三使臣同為詣。闕復命。

上曰遠路老人無事往還而一行無煩乎。使曰。王聖坐攸既無事。

往還而一行亦皆無頃矣。臣於昨冬在平壤欲外之際，目京奇聞，景福宮回祿之災，滿心驚悚，行盡我境，不地幢，今未復。命移御萬安回眺，為笑萬慶祝矣。上曰：歷路被火，人心何如？而無樓寔之歎乎？上使曰：閑外多有流丐，亦有設粥賑拯之處，扶老携幼，樓寔之民種，有之矣。上曰：聞見錄外有何所聞？即上使曰：其所聞見，蓋是塗聽塗說，不可準信，不可的傳於我國。大抵主少國疑，人心渙散，朝廷未有主張，民業只趨末利，已具於書狀。官聞見事件，而以臣所聞見亦多慨歎之事矣。上曰：皇上見之否？上使曰：太廟勤駕時，再次祇迎仰瞻矣。上曰：皇帝體長，威儀九節，何如？上使曰：坐於黃屋，八人轎中，俯視於夫忠而體長，則以其七歲，頻儼然。

矣。上曰：聞皇上讀尚書云果然，即上使曰：非但皇帝之才德夙就中國，教人之法先習句讀，次訓釋義，故無論尚書周易先誦字音者多矣。恐未必新奇。上曰：回匪每年興，抗何如？越匪亦然，即上使曰：回匪越匪之分別，且未得詳聞。而今年正月李鴻章軍中之亂，亦因此輩之不服尚令，惟慮未已云。不可釋慮，大抵以中國之微弱，所恃維持者，惟法令之嚴酷也。行路之際，賊匪之懸首樹柯者，種一見之，而李鴻章軍中叛卒之作亂也，片殺其軍卒，未聞將帥之得罪，是因鴻章之有勢，而然法令不可謂得正。且漢州越境柵門百二十里之間，自古樹木參天，虎豹橫行，故使行每露宿，而得達今則設置官長，許民耕生，雞犬相聞，山川廣潤，林木稀小，使行亦不露宿。

我民之貧寒者舉皆逃入其中或築室居生或為人雇役無
難雜處實無彼我之別是乃中國法令不能制亂民而毀劃我
百年所守之法豈不慨歎由是觀之法今亦不可謂嚴酷也公行大路
猶尚如此沿江幾百里七邑越境聚可知其尤甚誠非細憂且曾經
滬尹今於二十九年之後復到此地所見如是駭異邑弊難以支保
矣 上曰邑弊何以至此使行之所恃而往還者專在滬府而滬
府則專資商賈之力以為奉公而近日商賈都無入北賣買以今
春回還門言之以平民勒定商估者僅為三人不肯入柵而行回觀
望使行何以往來第每年貢使則已有二百餘年定規而今舊臣等
之行苟艱昌投不可憚陳况後有別使則其良貝難送明若視火

臣既自見其狀故茲敢仰達伏願分付廟堂爛熳商榷必大夏張然後
漢府可支使行可通矣。上曰是誠不劣之嘆也。上曰倭洋耗費甚多

有內應耶上使曰洋人則彌滿城內倭人則日冒着洋人服色雜行市肆
云而倭人則三使臣皆不見矣。上曰如是而無內難乎上使曰雖有內

難一時外國使臣無以盡知矣。上曰然則洋倭通好而然耶上使曰
渠北軍必通好故如是雜處也。上曰慈禧皇太后癖心庶政中國賴此

為安云耶上使臣聞西宮皇太后勤於聽政每於子時召見執政大臣
或末明而罷云此非所聞之矣實正陽門外多有朝士之家而前則

正陽門必暮閉而朝開近日子刻必開者為朝臣之出入達曙
不閉云由此觀之所傳果然太后雖勤政于時視事太過矣

上曰關外多雪關內少雪云果然耶上使曰關內則大抵少寒關外則甚
寒故雪之多少亦然矣 上曰副使亦有所聞耶上使曰所聞皆同副
使亦無異矣 上曰中國何不逐出洋人乎上使曰洋人之入處中國專為
通商而若通商則外固似是和好而又以屢萬名之兵戡嚴於天津以為
防禦其每負中國力弱不能制彼之故也安實非和好矣我國之不與
洋人通貨中國人莫不稱快可以誇張於天下矣今日中國之不能制
漢人莫不憤懣爾滿人則或多扶護之論云 上曰滿漢不為相從
乎上使曰豈不相從而朝廷清議漢人尚主矣 上曰書狀或有加聞
耶升永奏曰別無加聞而出來時乍聞倭人為三品官云未知實
然 上曰倭人尚在皇城乎上使曰其多少則雖不可知常留於

洋人館中去矣 上曰馴象見之乎上使臣等兩次祇迎之時每見午門
外設黃屋轎五坐皇上還宮後罷歸而馴象伊時入來駕去故
再次詳見矣 上曰文廟何如內雍和宮勝於文廟云甚可慨耳
上使曰雍和宮果侈麗無節故勝於文廟云則自有定制故不及
雍和而自古中國之規止儒佛兩尊矣 上曰同治比如今皇帝
何如而中國晏然思皇帝幼冲而然耶上使曰皇上今為七歲則與
同治優劣不可論而國中豈無所事皇上幼冲故執政諸臣皆視
望無自任者紀綱解弛九事延拖不決云 上曰然則朝廷區
別滿漢而漢人或多有之否上使曰多有之亦衆故云矣 上曰間已
屢月矣仰瞻東宮可也三使并起而仰瞻 上曰沿路物價何如

上使日到處物價翔貴銀貨極艱云矣 上曰大國如是不知至於何境耶上使曰聞見果多駭然矣 上曰俄羅斯何如上使曰臣獲見上國申報以謂俄國設炮臺高麗北境主與美國有戰事矣恐有深入之慮云云故既言我國北境則不可不更探與書狀同為往見所言之人則別無他語而出未冊子勸修武備具冊子即我國曾所出未者云故還送矣 上曰武備我國多負而無力可為奈何冊子是 何書耶上使臣志未記其名而有見之者以為我國已出者故還送矣 上曰漢人尚思 皇明云耶上使曰尚今憤懣討云矣 上命以此退出

年貢歲幣

白苧布二百疋

紅綿細一百疋

綠綿細一百疋

白綿細一百疋

白木綿一千疋

木綿二千疋

五爪龍席二張

各樣花席二張

鹿皮一百張

懶皮三百張

好腰刀十把

好大紙二十卷

好小紙三十卷

粘末四十石

聖節方物

黃細苧布一疋

白細苧布一疋

黃細綿紬一疋

紫細綿紬一疋

白細綿紬二疋

龍紋簾席二張

黃花席二十張

滿花方席二十張

雜絲花席二十張

懶皮二十張

白綿紙一千四百卷

粘六張厚油紙二十部

聖節皇太后狀方物

紅細苧布一疋

白細苧布一疋

紫細綿紬一疋

白細綿紬一疋

黃花席一疋

滿花席一疋

雜練花席一疋

冬至方物

黃細苧布一疋

白細苧布一疋

黃細綿紬一疋

白細綿紬二疋

龍紋簾席二張

黃瓦席二張

滿花席二張

滿花方席二張

雜綵花席二張

白綿紙一千二百卷

冬至皇太后狀方物

螺鈿梳扇一事

紅細苧布一疋

白細苧布二疋

紫細綿紬二疋

白細綿紬一疋

黃花席一十張

滿花席一十張

雜花席一十張

正朝方物

黃細苧布一疋

白細苧布二疋

黃細綿紬二疋

白細綿紬三疋

龍紋簾席二張

黃花席一十五張

滿花席一十五張

雜綵花席一十五張

白綿紙一千三百卷

正朝皇太后秋方物

螺鈿梳函一事

紅細苧布一疋

白細苧布三疋

紫細綿細二十疋

白細綿細二十疋

黃花席二十張

滿花席二十張

雜彩花席二十張

玉河館雜咏

懷鄉望月夢難成
此夜羈愁一倍生
歸日商量猶有遠
心情空費燭花明

彼地道里小站

鴨綠江 五里

者音卜 四里

細浦 七里

安市城 五里

小西江 一里

碑石隅 一里

柳田 二里

榛平 二里

中江 四里

松隅 三里

湯站 九里

鳳池 四里

方波浦 五里

馬轉板 一里

慈秀站 三里

善柵門 三里

三江 五里

石隅 五里

魚龍堆 一里

鳳凰山 三里

九連城 四里

金石山 七里

東浦獐項 四里

鳳凰城 四里

恒頭河子 二里

中衙門 三里

五八石 丁里

三叉河 六里

九連城站 四里

湯池子 五里

上龍山 三里

二台子 四里

望陽 八里

乾浦 三里

柵門 十里自義州
至柵門百重

乾子浦 十里

八渡河	五里	分水嶺	五里	頭關站	八里	接官廳	十二里
黃家庄	二里	菑洞	二里	磨天嶺	八里	迎水寺	一里
劉家河	八里	草河口橋	五里	狼子山	五里	太子河	九里
大長嶺	五里	和尚庄	八里	小石嶺	五里	木墩舖	五里
瓮北河	五里	石隅	五里	青石嶺	三里	阿彌庄	五里
小長嶺	五里	通遠堡	十里	踏水河	五里	高麗巖	十里
松站	五里	三道方身	五里	會寧嶺	二里	王寶塔	六里
麻姑嶺	五里	范家堡	五里	連山關	五里	石門嶺	四里
伯顏洞	九里	林家堡	五里	俞家嶺	四里	王祥嶺	十里
四官亭	二里	樟項	二里	高家嶺	六里	三流河	四里

防虛所 六里	古家子 四里	自柵至潘晉 五里	神農店 十五里
三道把 五里	沙河堡 六里	願堂寺 五里	孤家子 十三里
爛泥堡 五里	暴咬哇 六里	塔橋塔院 七里	周流河 十里
萬寶橋 六里	毡匠舖 四里	方士村 五里	巨流河堡 五里
烟臺河堡 四里	火燒橋 二里	杜元橋 堡 五里	西店子 二里
山腰舖 五里	白塔堡 八里	永安橋 八里	五道河 三里
五里臺 五里	一所臺 五里	鄭家子 五里	四方臺 七里
十里河堡 七里	渾河堡 五里	大方身 十里	郭家屯 四里
板橋堡 五里	混河 一里	磨刀橋 五里	新民屯 四里
長盛店 五里	潘陽 五里	白邊 站 十里	小苗放堡 四里

奉天府感京
南河北京朝

老遠城

右城巨流河

大黃旗堡 八里

神隱寺 八里

八望臺 三里

常興店 五里

柳河溝 煙河溝

新店 柳家窩補 二里

舊店里 三里

三望子 二里

石獅子 十五里

土子井 二里

二望子 六里

二望子 六里

燈房 古城子 十里

于里杠子 八里

古家子 三里

閻陽驛 無想危 十二里

白旗堡 五里

烟臺 五里

大古家子 五里

二望子 十里

小白旗堡 十里

小蓮山 五里

焦家店 五里

三望子 五里

新方 五里

羊腸河 十里

廣寧店 五里

四望子 五里

一板門 半拉門 十里

中安堡 十里

興隆店 五里

五望子 五里

靠山屯 王家庄 八里

于家堡 五里

雙河堡 五里

望仙堡 五里

二道井子 十里

朝陽堡 三里

杜鎮堡 有城 五里

后山站 自義州至此 十里

三台子 四里	官馬山 十三里 <small>有官馬梅</small>	二臺子 四里	寧遠街 五里 <small>有城曹套</small>
虎老漢店 八里	杏山堡 五里	連山驛 六里	青墩臺 六里 <small>觀日</small>
大凌河 十三里	十里河 八里	烟臺河 五里	曹庄驛 六里
大凌河堡 五里 <small>古戰場</small>	高橋堡 十里	長春橋 五里	七甲坂 五里
四回碑 五里 <small>明將李平文前文之碑</small>	朱家店 二里	雙樹堡 一里	五甲橋 七里
雙陽店 八里	紅旗塔 五里	雙石城 一里	中右門 五里 <small>有城</small>
小凌河橋 五里	塔山所 五里 <small>天晴日朗望鳴呼</small>	乾山殿 二里	乾溝臺 三里
小凌河橋 三里	朱沙河 五里	東堡 三里 <small>有城</small>	烟臺河 五里
西店子 一里	旱羅店 二里 <small>三義廟</small>	東頭臺 二里	半拉店 五里
松山堡 十四里 <small>蒙古土城</small>	旱羅山 一里	永寧寺 一里	空河店 二里

曲尺河 五里

沙河站 六里

空江臺 三里

王家庄 二里

三里橋 七里

雙墩臺 四里

王濟溝 四里

八里堡 有美女廟

東湖驛 有閘 三里

坂橋 四里

頭封河 五里

四方城子 將息 五里

二直臺子 五里

葉家墳 四里

高炭驛 五里

二里店 一里

三直臺子 五里

口魚河屯 二里

小松原溝 三里

山海關 關前寺 二里

六渡河橋 五里

口魚河橋 三里

大松原溝 五里

自瑞至關 七百里

中後兩 三里

亮水河 七里

中前兩 有城 三里

淡河 一里

一直臺子 五里

滿井鋪 四里

大石橋 七里

五里臺 四里

二直臺子 四里

前屯街 有城 四里

兩水湖 三里

紅花店 三里

三直臺子 三里

王家臺 五里

老軍屯 五里

德安家 二里

吳家嶺 四里	細子店 <small>王家店</small> 二里	五里堡 四里	部落嶺 二里
于堡堡 五里	馬棚山 六里	盧家庄 二里	二十里堡 三里
范家庄 十里	石子河 一里	十重堡 三里	十重堡 <small>古盧執</small> 三里
湯河漫 三里	榆關 三里	蓋峰口 五里	白沙河 七里
大理塔 <small>琅河</small> 七里	宋家庄 三里	荃柵菴 六里	驢子槽 一里
王家嶺 二里	白石堡 二里	飲馬河 三里	馮洋園 三里
鳳凰店 三里	下白石堡 三里	背陰堡 三里	永平府 <small>有城在崇</small> 二里
望海店 十里	吳家嶺 四里	雙堡 一里	青龍河 <small>大河</small> 一里
漢河驛 <small>有城</small> 五里	撫寧縣 <small>有城在崇</small> 一里	吳健子店 三里	南垣店 四里
高臺嶺堡 一里	羊河 一里	腰站 二里	灤河 <small>有廟</small> 一里

鴨子河 四里

范家店 六里

望夫臺 四里

安河店 八里

赤紅舖 六里

野鷄屯 六里

沙河屯 八里

張家庄 六里

沙河驛 四里

紅廟 三官廟 五里

馬舖營 五里

七家嶺 五里

新店子 五里

乾河草 五里 新到相樹

王家店 四里

新平店 四里

張家店 二里

扛牛橋 四里

蓮花池 一里

青龍橋 九里

榛子店 一里

烟墩臺 十里

白草窪 十里

鐵城坎 三里

牛欄山 五里

小鈴河 四里 在沙河

板橋 一里

銀城舖 五里

五里臺 十里

豐潤縣 五里 有城

趙家店 五里

張家店 一里

遷鄉河 二里

魯家店 二里

高鹿店 五里 有舖

沙子河 五里

軟鷄舖 五里

新坊 三里

李家庄 五里

沙流河 七里

西水橋	十里	小枯樹店	十里	翠屏山	三里	段家嶺	三里
西家庄	五里	大松樹店	十里	八里堡	二里	石碑鋪	十里
二十里堡	五里	峰山店	十里	漁陽橋	三里	濬沱河	五里
十五里屯	五里	螺山店	三里	贊日庄	一里	三河縣	五里
東八里堡	七里	梯子山	七里	蘇州	三里	康林庄	六里
龍池菴	三里	盤山店	五里	五里橋	五里	白浮園	六里
玉田縣	五里	二里店	二里	徐家店	十里	新店	六里
西八里堡	八里	現渠	八里	邦均店	十五里	皇親店	六里
黃家店	七里	三家店	三里	白潤店	十里	夏店	六里
彩亭橋	五里	雲田寺	四里	公樂店	五里	柳河屯	六里

馬起鋪 六里

楊家園 二里

朝陽白 齊平白 二里

燕郊堡 八里

三間房 三里

玉河館 十里

方家庄 三里

定州庄 三里

自山海關至北京六百七十七里

滕家庄 五里

大王庄 二里

自我至京至北京三千七十九里

胡家庄 四里

太平庄 二里

習家庄 二里

十里堡 三里

白河 大江即通州 二里

八里堡 二里

通州 石路水 一里

紅門 三里

八里堡 亦通堡 八里

彌勒院 三里

管家庄 二里

東岳廟 五里

燕行時錄

慕華館

金判書 壽典洞 領議政李

金判書 顯京橋 右議政金

李待教 穢泥洞 金判書 穢

韓判書 源絡洞 金判書 輔尾

鄭判書 朝會洞 南承旨 祿寺洞

金直閣 飛尾洞 鄭判書 基會洞

金判書 鑿尾洞

趙承旨 東水橋

私濟院

沈判書 舜明洞

任大將 清筆洞 金判書 珪松峴

李參判 玄梨橋 金輔國 楸齋洞

沈表判 灑羅洞 閔判書 致貞洞

朴參判 齊竹洞 鄭板理 元尾洞

鄭承旨 始蘭洞 族大父 校理正末氏

李參判 五京橋 族大父 正言秉氏

李參判 教 南注書 肅尾洞

金判書 炳勳洞 徐判書 承駱洞

尹判書滋貞洞 趙參判敬夏洞

嚴承旨壯洞 趙參判康夏洞

姜判書贊會洞 南參判龍庭洞

李直閣統平洞 趙參判慶鏡洞

南判書南亭 洪參判統龍洞

徐判書濟玉洞 鄭參判朝規洞

洪判書祐安洞 趙參判熙長洞

李判書埤南洞 成參判鏡南洞

趙判書成齋洞 韓參判源長洞

趙判書寧碑洞 李判書鏡安洞

金待教奎蓮洞 洪參判植車洞

朴承旨容明洞 李參判世蓮洞

洪待教澤安洞 洪校理穆安洞

姜直閣贊洞 趙參判熙倉洞

閔承旨種長洞 金參判權安洞

趙承旨謙校洞 李判書實里門洞

尹校理祖冷洞 鄭參判海安洞

趙校理龍慶洞 金承旨翊齋洞

李承旨載元洞 沈承旨疎倉洞

洪承旨欽長洞 任參判準筆洞

李校理元倉洞 韓承旨誌里門洞

李永煊 海州日新坊

李士克 海州五平坊

李就汝 瑞興南面

李漢周 平懷

李伊圖 大月坊

李伊達

李儀鳳 平懷龍湖坊

李進士 益福安州城南

李亨健 宣川邑

李亨燾 宣川產首

李信文 宣川

李進士 意在鐵山鷹降

李道植

李碩洪

李允寬

李視奎

李獨奎

李明學

李善用

李悅景

李五衛 將復直義州城南

李萬亨 義州別將

李世芳 義州執事

李熙泰 義州前甲軍古郎面

李曾點 義州王尚面

李廷蘭

李廷彩

李寅甲

李雲洙

李昌燮

定

京下定

惠慶上下三千五百兩三錢四分

銀五百兩每文三年四十五兩除

實上下五百兩七錢四分

湖西上下二千六百三錢四分

各稱 十二兩六錢

戶曹 一千七十二兩三錢四分

兵曹 二十兩

訓局 十兩

御營 五兩

禁禁四兩

搖管五兩

入合一千七百二兩五錢二分

禮單盤纏紙扇每五百四十四箇

環刀月乃清心丸每十箇二錢

行中京路馬六百九兩一錢五分

掌務官公事紙每四兩五錢二分

寫字官路程記紙每三錢

肅拜并子紙每二兩二錢

路文紙每六錢

饌物雜費結下兩三百兩

官俸例給三千兩

用合一千四百零五兩

實余治行銀二百三十二兩五錢六分

西路下定

開城府上十五兩九錢

海西六百四十二兩九錢九分

閩西一千二十三兩二錢五分

箕營七十五兩

安營七十五兩

入合一千八百三十五兩一錢四分

盤纏紙扇俸五百四十四兩

行中路需三百五十四兩

毛浮毛襪代錢二百七十五兩

鞋革代錢三百兩二錢

留濟雜費二百兩

三房饌需兩入果兩

用金一千四百七兩二錢

安貝余治行系四百二十三兩三錢四分

京西路治行系合文六百五十五兩二錢

鶴山臆行所

以燕行臆章

燈子

金溝之塔行

萬里晨昏奉

策衣護漢程

百手中後恥

清風籟訕首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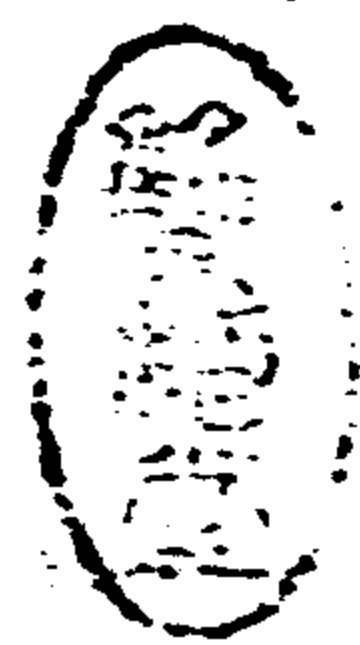
府酒曾督處郎

重老部輝經携

在素攬冲毫山

河

戊子初秋福書法在流



贈家

戒之

詩事

堂松

未聞琴書為靜好

晴水松田若天江

處野鐘台華鼓

相
 天
 鄰
 濟
 身
 燕
 趙
 守
 海
 隨
 網
 僕
 安
 危
 奉
 滴
 息
 胸
 清
 河
 燈

李一深



送金誠之陪

相公赴燕

風有觀風志
今非上漢

樵山川鯉
趨遠天地

鳳表歌
慈母懷游

子鄰民望
老翁

其遠返家國腥垢隳

療行

戊午七月下泮蒙谷病

老萃

眼鏡輪蓋老人所急事

當考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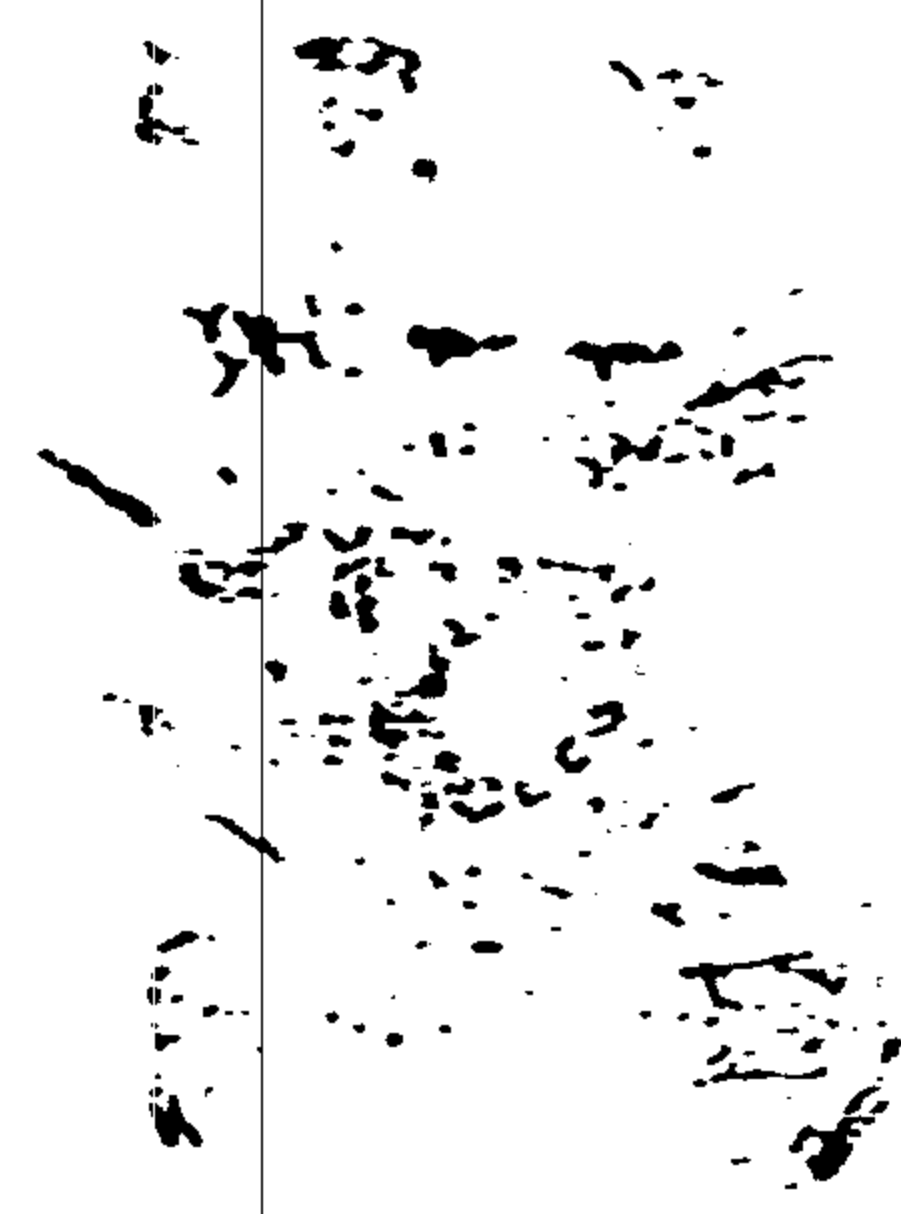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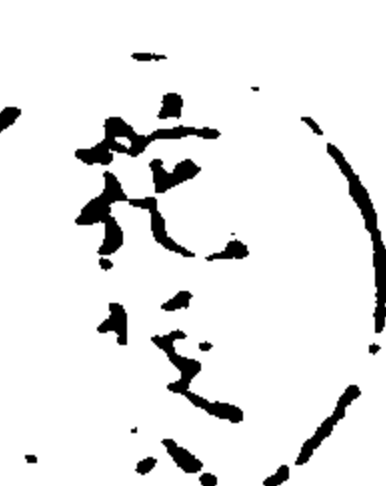
全相錄

次韻贍別

金誠之燕

行道今樽梓篇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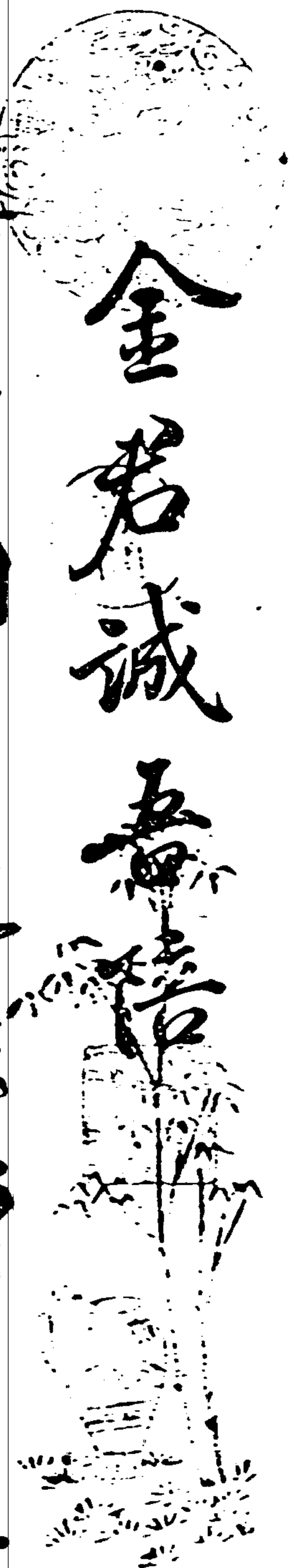
已稻槎周庠收今



譽燕市同也歌寒
暑殊邦客晨昏
老相爺無由觀禮樂
祇得拜灤河

戊午夏季 金士修

金士修



金君誠齋
尊府相公赴燕贈以短

律

尊府星輶動
賢郎

眼隨謝庭真有子張

幕便為禪去亦晨

昏奉歸將歲月期

送君多感慨天地

此何恃

戊午初秋

送金誠吾陪

大率相國赴燕之行

彩帙遠隨尊節行
松雲朔

雪剡遼遼程
飲冰
相緣

多事溫被黃香
在
包
懷

灤河靚潔
桃溪遠
角音
雀

寃
生
海
寬
欲
試
田
力
况
心
目
壯

金遼千里接孔端

英道燕京占地偏如州都

會靈塔然城沈喜觀市朝

威靈美不駭胡一百年

仁國依然萬歲山彩舟穩樂

龍灣傷心士口日東攻字規

平康少年石鼓還

局位井能鴨功東茲游善居可
 慰柔蓬蓬素高獨卧穩癡夢
 前在停松山獄二廟中
 後句紀實
 徐水談山記者年年一樽相對
 兩聲然歸來把袂無他語歷
 歷幽州路甲午

壯遊不須憶苦辛
遠別終年憶
開親在知待到
清江日看
得陽關見故人

庚子仲秋上旬五日

吳伯玉日稿

三絕隨
病後會一

誠吾善行一日徑仰報

奚可秋名映班衣

方里君君存却不違

惟有人、濟世騰

欽定四庫全書
欽定四庫全書
欽定四庫全書
欽定四庫全書
欽定四庫全書

執蓋保教行路難
贈言之物題如管
筆之好到店坑子母
此言安民鐵心好

秦 荆
會 誠
之 燕
仍
遠 道
溪 老
跡 崎

是稼翁行禮未

殊今古忱誠衛

父先是晨昏萬里

奉溫清一季更

禪蓋應非少彌

光

相國名

六年秋孟宗甫

石翁東

奉贖

金典牲誠之白衣

赴燕

暴多扇枕者萬里秦

孤遊官即牛羊豕

路經鞞鷄秋今行

頂根會瓦事也陰

求瑞秀西郊送涼

憚勞別無

俞良甫
福

贈別金友誠之

奉

庭園赴燕

子羊何來佐祿伸

以蘇韋平祿倚天柱

萬壑先聲帶射雉

萬里晨夢近午

羊年慨少就下寧

法別託以肆一買

喜歸

貴馬落格址山友

稿

李元達

贈金誠之燕行乞購
錢牧齋集

人歸易水寒秋風寂

實堪南漢廣定錢氏

文章如擊斨沉顧園條

繼者百年中

戊午初秋

宜叔等

金珠玉陪其

大爺相國公起燕方

廣額外之官古握

出詩者 志之病不

能持思惟使羊心一

休學呈 聊如語面之

征衣身色五年秋

風葛里奉

蘇閣異拜亭對水

閣翕出造山川鎮

略降

戊午秋秋亭出劉州

李東健

送別

金誠吾陪奉真

春府相國赴燕

相國寄綸啓
途程問君

今去之何若
扶將萬里晨

昏樂淫古誰人有此行

菊製柑科視以無書生

腦下插表孤悲歌一曲盡

都飲何似槐黃舉子

趨

塞爲初飛塞草秋掃鞭

西出沮江頭樓臺迢迢

遼天闊碣石風雲滿目

然

使乎專對國事深幕客

處趨不費心知子獨能
無局東翔雲閣月動高
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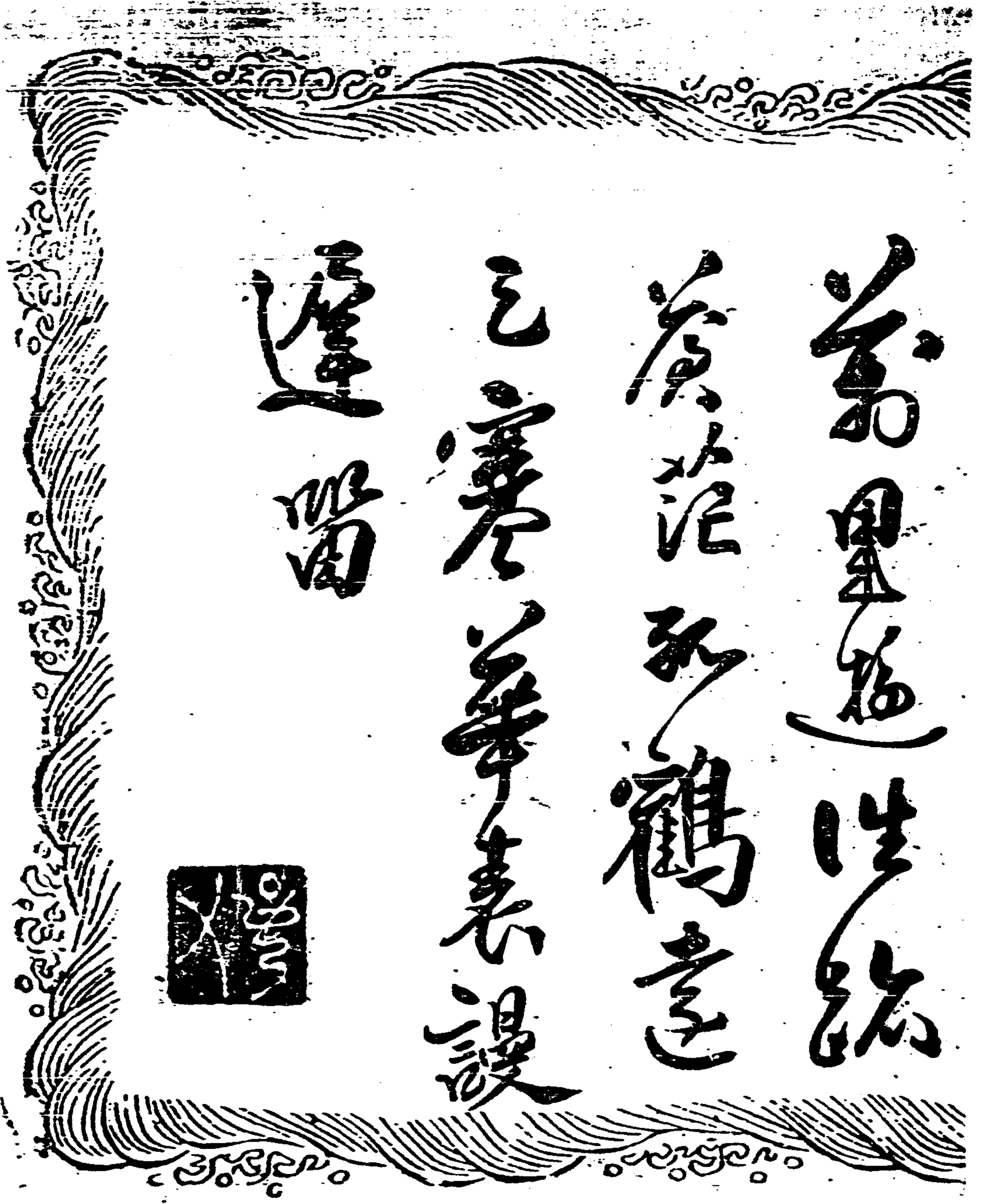
戊午孟秋上浣洪雲章稿

贈劉

遠遊

山河秋色已涵遠

州南暮色昏



前因是道法

資以泥水鶴意

已寒之華表護

遲留



金誠之隨其

家大人相公老爺將赴燕東

隣崔儀之贈以言曰天下慷慨
烈心出言之盡矣域外離
別詩人語已窮矣吾所言

但願誠之護

老親益加餐食早竣事而好繼
返而之孫之以詩曰

相國會倫今出疆誠之棘鞞
屬禪行福者君子具三樂志

大男兒射四方
望海亭通萬里
遠朝天籬入
百年傷東郊
更隔西郊路
無限離愁
一 鱣章

戊午年
七月
上
際
崔儀之橋

曷別 金誠之陪

老翁相公赴燕

子弟偏裨老稼同書生聊
復赴燕中一朝烏帽辭郎
署萬里班衣奉相公可

但膏襟經宇宙也應囊篋

撮華戎壯遊此日猶太

渥聞說君行已徹聰

離筵昨赴友生期贈冢王

孫奈我衰從古波斯論手

櫻至今正
跌宕情馳
習芳
方鍊風霜
骨節食能
勝水
玉解穠奪
天籟臨頽
重都
門慚買餞
行時

戊子之首秋下濬金子文

八

送

金誠之陪

相公赴燕之

麟
空隱素衣肩
遼碣秋風

秦
短軟囊
逆周旋
任子第

未離沈痛舊山川一身忠
孝非今日萬里遙素尚難
平盡濯虜塵千百斛深
知在鴨江之前

戊午七月六日
濟寧李士常



奉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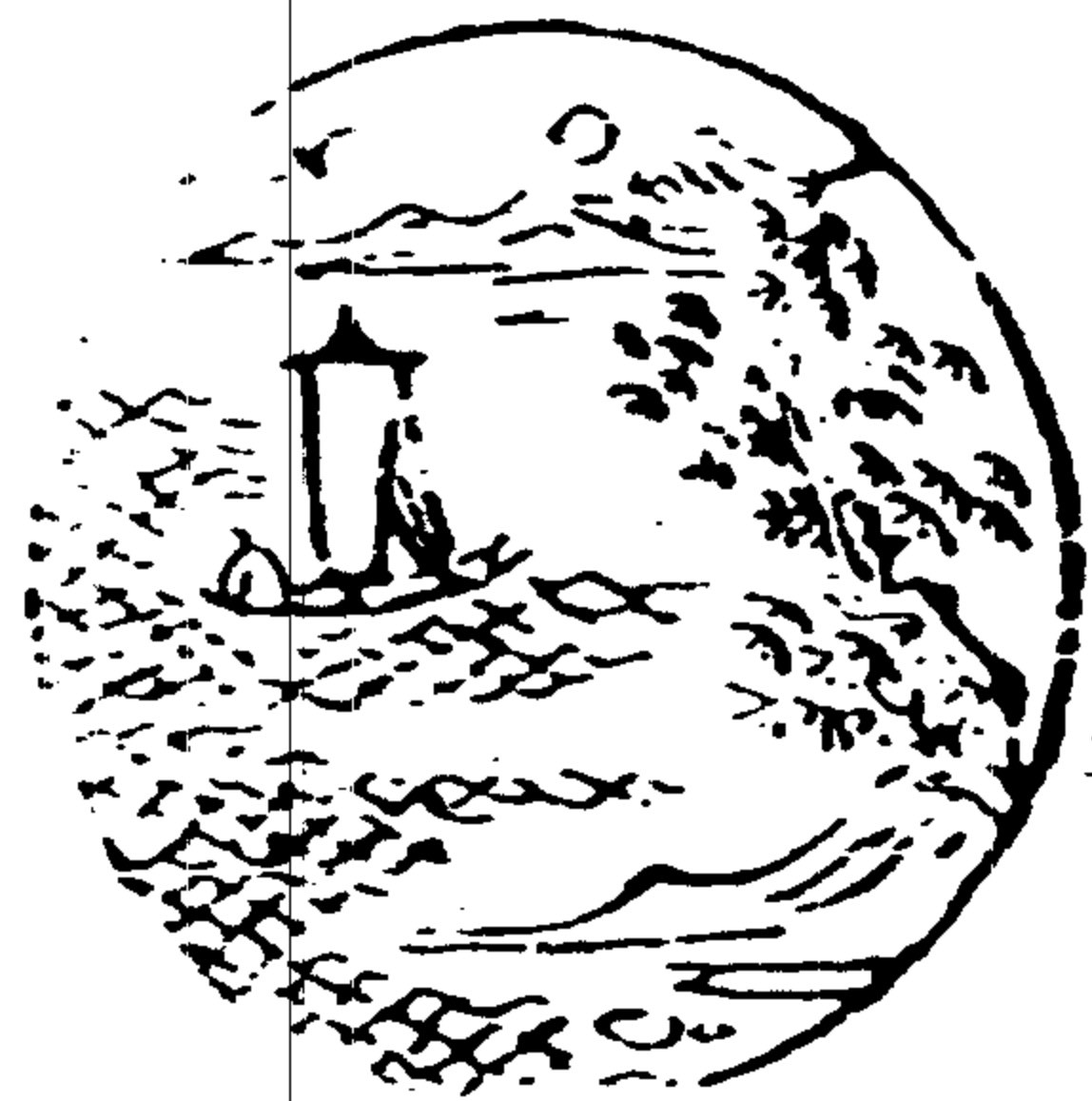
吳洲見月

金誠之尊元赴燕

大爺持使鄴賢胤

護征轅

赤鳥勞原



際班衣奉清溫水息

周禮畫東士漢儀存

異俗爭瞻仰風標士

相門

戊午孟秋



在分

今之心情

表府相公赴燕

诗丁马豫风碣声秋气

言书初书首记山河

发市莫雄首原恒

帝鼓 父子然 得成 亦
 冠 唇 未 空 暮 时 堪 闻
 淡 烟 收 玉 步 空 越 水 悠悠
 去 事 翩 跹 得 得 在 何 处

范 山 集 教 之 舞 者

塙屋瘦神汽可休

蔭塗糜跡心堪甚

何如儼賤身邊思

仕途花下杜梅

深服源生鳥及遺

晨昏禮懺
船珠方圓任承歡
父子匠山何萬里
幸有名曾信使歸行
每人尚須稼穡名

詩文 一部 梅 蕊 綠

心 靜 生 風 吹 念 物 情

佳 鏡 閣 西 景 錄 完

筆 勢 擁 倚 綺 羅 翠

頃物眉芥存溪城
是任極中樞流子婦
少子夏子目從子孫
燕人鄭事僑閩地
德化

送金司檄總行序

晴沙金相國之赴燕也請於朝而以其長流司檄史
元幕府以送將行司檄公責余以一言為贖哉不敢辭
遂執爵而言曰昔張忠獻浚當南渡孝宗之世都督諸
軍事奏以其于南軒公置之幕府時南軒年甫三十
而內資密謀外參機務直以君父之責為己任其所綜
畫人月所不能及時翁所增汲予幹父之勞者政謂汝
也恭維我

相國魏然有一石柱石之望而既不得安於朝克乎其
彌綸之功願乃驅馳忽忽專對虜庭以効其往役
義而已則視諸張忠獻當日之所擔行者不啻有同

矣况公之所以自动者亦非有密謀機務可以贊畫果
如南軒之所為者而蓋不越乎道途扶護一節於席濕
清一宜而回得以有補於聰明身自之所不遠而已夫以
公之懷濟慈憐固已服習於階庭之內則願何患其未
然於斯後哉噫凡天下之事必自近而及遠自小而推大
是以古之賢人君子固不由乎近且小者而推而至於遠且
大者以其卒末之勢然也由其勢有潤穰事有巨細而
人之一心初無分畧之可言故於其所在而盡其道焉則
可以措諸萬事萬物而無有不準焉為者矣苟能先審
於事為卒末之合而思有以馴致乎遠者大者而後已

則其所以基他日立揚之本而終無愧於南軒幹父之
烈者重在於是其矣吾於公之行而遂以是為說而以
瑣語數条別錄下方以備行憲中 一覽之會

稼齋公燕行錄詳備真近世燕錄中所未有者而今以
欲効其纖悉如此則竊恐其碎難為也曾見致翁入蜀
元首尾行役幾二百日其所錄不過一編蓋或累日而全
無所記者有一回於可喜可驚之事略以點綴模寫如無以
宗 是下今行一可法

是下雖不喜為詩然今行何可無也其於山川壯大下視
古今俯仰之感豈無動於中而發於言耶若一日微
了二首詩日以為深則感味漸生竊恐其效罷不勝也

頃年聞一宰相之赴燕也其說隨送一行之人殆不知其為
誰及詳其友人問燕中事皆漠然不知蓋同行者莫不稱
察而其友則笑之察者為其無弊於人也笑了者以真
無所見聞也凡入燕者有其察而先其笑則大略得之
探齊公之行在今為二十七年雖其後人物之感慕風氣之
聚散淫俗之厚薄必有按節而可知者矣幸而履覽燕
以告天下之大勢亦不為無益也

古言名畫彼人輩多假名售價蓋其善於模倣易致
眩真至於綠色印藏一逼古苟非具眼者莫能辨
近見人家所蓄大半多此類 天下今行若欲索取
幾種書画必毋其名惟其二雅近時之作善斯取

若書之米南宮趙子曰个西之劉松年馬遠之屬皆未可
知也降而黃子久董方史唐白虎文衡山沈周吳偉倪
雲林張子山之類亦多入贗本不可不審也

沈子石山吳号小仙

稼齋公所錄中程洪三豆秀才之可語者也曾見稼齋所
藏有其所画花草一軸頗生新可喜趙豐陵入燕時
邀見并語程聞稼齋公下世之報寄誄文華人信義而
可尚也行過榆關試問其存沒

陸桴亭為近世淳儒之最頃見其所著思辨錄蓋出於節
約彙分者也聞其全集甚浩多試取覽之如不合買錄
其中出處事行而求

程家收藏耐久不散未知有何術曾聞有一冊吳載其法

購米為善

金澤洙曾於場屋屢債其年故以此情懇今聞初
赴燕行為任且不輕殊可慮款視一時饋酒食以
示德意幸也其為人醇宗無偽亦多可取進而言可知
也

之下每過好觀幸煩一憶買取荊州一壺東向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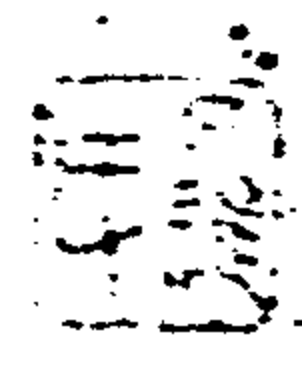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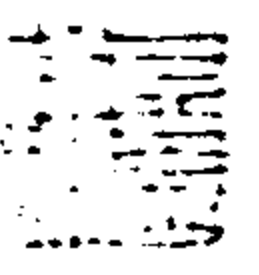
僕於斯時嘗在深山禪榻上夢舟足下或相遇於

庭前廣漠一處也方其夢豈知夢為非真遂及夫寤覺

夢者而歸乎夢而覺都屬一場幻界以何有真夢度

實之之論乎耶此而自寬白談 足下一笑命

丙午秋孟下濟無名子書



南谷饒章乞次老杜叙別

別筵生遠思天末身雲陰
守舊三秋雪飛騰萬里心
却鞋情話久休怕西堂
課一話君名晒北游
或為吟

去日方流火歸時可
以勝冷此个真白
立一別筵関心
為駭途秋卧
新鴻度積深
餘

君遠遊市冠沉和長吟

君遠遊星槎去身留紫閣陰
華夷驚玉貌

書劍照冰心
劍樹新霜重
漂河為少深
在

今日一揮胡色石平以

子進十

全五錄

金友赴燕
將別口占

城山翳
報遠傳
官

柳
依
惜
別
離
空

異哉。唯願努力。歸
程。將赴。臆。梅。時。

朱付

徐命聖

用軸中韻送

袖之隨

大爺燕行

素放三辨土行隨八

月槎那無義士耻且

作壯遊秋雅操為結
 子清名有是
 帝往來寒候值珍重
 度關河
 以予之秋
 揚子年

送

金誠之西縣

發自閩遊罷看香殿深

水歸來見渭江夷夏

江山若眼污燕行心

後宜其邦

莫龍故國經其代身

浪分州自漢廷鬱鬱
 風雲千古意為舞
 鶴一高亭
 身仁德物風雷
 域大宏風
 李一源

奉贖

伯氏起鶴山志



秋聲身似別意符
徒說徒論喬木百年
蔭朱門雲子身傳
志以行禮臨事自經
輪山色猶夏黃
子星付以友

墨洞闌行眼秋
程行如春
轉蟬友初晚
三馬沙棠
影心已瘦
百得治應
管易緒

地時賢 國手定故一州民

吏隱傳佳話，於公可此堂。蒲韞回淑慝，
琴瑟倒橫床。却是巖屋靜，行曾郡事

北環洲。多翠峯，田深生看雲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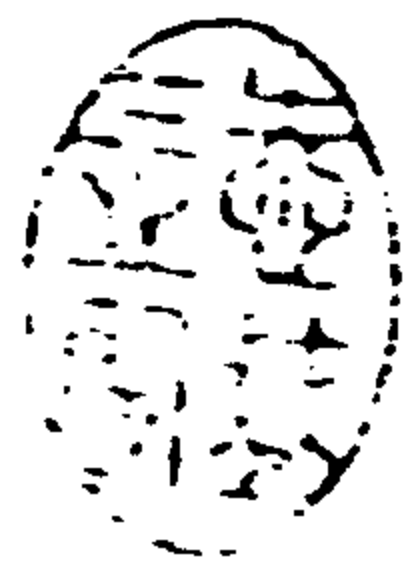
五甲有吏隱堂首
句云

海天秋夏，瀾仙尉意如行。鶴睡晨圓樓
竟齋夜，殿虛空。教滯簿牒，於自讀詩
書。讀以新條，樓：因直廡

北望及汝直難任此躬
 轉病鶴守齋夜
 孤鴻度塞秋
 多處梅院會
 誰伴菊難遊
 松長看生
 意色應
 得郡樓

黃羊返火月上
 漸舍

碑評法華



體

江西軍人金元

彈瘁瘳瘳長送征輪東路切
名臺一布一牙百里存存猶
社稷八條觀俗更入民心間
吏道修德倦工遠王念有
未拘但是激早了思報答同
天而所歸孰非仁

鶴山秋氣繞閑新
泗水之西滄海涯
俠士調弓何教以
佳人錦瑟亦繁華
年一桂棹影射倉
山屋日盡幽其能
香浮滿沼蒼
夜守吟吟流故
傲兀却忘
雁下有青緗
去年詩興憶江西
自定踏天

高時杖藜見折河後隨院
女鶴梅池角雞飛鷺心博書
未可妨清事一盃酒須催
我海內後山今寄一約
送高君美院書

昔年一杖之句
牙牙
牙伯納
牙牙
牙牙

三秋著者名号是深
志类似付付地相
好海面的约及早凉
生其首得如疾信
我白自发筑躬

方卷志真純學
 元德
 漢書賈誼鄭
 問

燕紀程
天

燕薊紀程卷之一

尚書洪公為冬至正使，辟余從事。時余在東營，僕
府請暇入洛，束裝啓程。凡往還一百五十八日，行
六千二百餘里，畧有記咏以備日後之觀。

戊子十月二十五日晴，高陽四十里，碧蹄館宿。郡守
李海
存。

三使臣奉表出慕華館，行查對仍發。余與劉金知
光祐、玄察訪雲瑞、朴斯文、載宏同為陪行家兒來
錫，辭退隔年異域，殊可恨也。到弘濟院店，親友話
別，錢以酒盃，釀然一醉。洪翰林在結，與具胤兒原

鍾、拜辭於使家榻前、余亦極刑登道、雖魚鱗微色、
不覺惘然、家僮致書、願從行計之、然耳纒二十餘、
未經險艱、萬里遠程、或慮我僕之痛、不無屢顧之
色、而渠則揚揚自得、踴躍登途、遂可笑也。

二十六日晴、坡州四十里、坡平館宿、收使事
源祖

堂姪稱受甫來別、記昔從兄之夜、是色也、余年十
五、稱受纒三歲、轉所之間、閱歷三十、星霜、老大叔
姪、相對於此、身解圍場、觸目驚舊。

二十七日晴、長湍四十里、臨湍館、午炊、府使徐
致輔 松京

四十里、太平館宿、留守金炳朝
經歷成龍甲

栗谷先生花石亭、在臨津江上、蒼檜傲然、猶為人
愛惜、而身上揭先生詩、詩曰、林亭秋已晚、騷客意
無窮、遠水連天碧、霜楓向日紅、山吐孤輪月、江含
萬壑風、塞鴻何處去、聲斷暮雲中、余於壬戌秋七
月既望、與金士集、續赤壁之遊、舟中載酒壺、下涓
簫一、琴一、詩軸一、放舟於夢鷗亭下、夜泊花石之
間、沿江上下、跌宕終宵、士集乘醉鼓琴、放歌、弄簫
賦詩、白髮蕭颯、宛是風騷人也、予今復過此地、泉
壑難作、滄桑易感、松京故都也、登滿月臺、見石礎
橋欄、狼藉於荒烟野草之間、儘是五百年氣數所

致、而善竹橋上、血痕沁石、鄭圃隱精忠大節、尚令人起敬、於予載之下矣、權草接詩曰、雪月前朝色、冥鍾故國聲、南樓愁獨立、殘郭暮烟生、真懷古絕唱也、夕間往拜留相、金友聖八、申友德卿、未留聲、術、仍叙話而還、

二十八日晴、青石洞四十里、秣馬、金川三十里、金陵

館、午炊、郡守閣、平山三十里、東陽館宿、府使尹致文、知縣、尹

青石洞、夾山托溪、旁多險阻、逶迤數十里、只通一線路、古之馬陵、井陘、何足以喻其險也、足可以館穀西關、而丙子之亂、胡騎豕突、如踏平地、未聞一

夫之帝閔、今於昇平之後、築城設閔、不然、迄於止
羊補柵、豈且人烟湊集、樹木童濯、昔之險者、今爲
夷、國家之浪費、夫計、孰甚於此、映水屏、在全陵之
南川、川是杜洲之派也、石壁嶙峋、聳出水面、環若
展屏、屏面隸書刻映水屏、屏前有龜趺石碑、皇明
天使許國魏時亮題詩處、而碑陰又大書迴瀾石
三字、許國筆也、猪灘亦一險、津、峽道盤轉、水勢悍
駛、築長橋以濟人、潦水汎漲、則非船莫渡、丁卯之
亂、都元帥全命元、夾灘拒虜兵、敗於此、咸係鍾鼎
來見、是全陵人也、余在順天府、興熙三年、共一室

見其為人辭謹寡默未嘗論人長短終日如愚人然扣其中則汪渭了然愛具人情自滿每呼之以默夫默者無限受用處也夷攷其行表裏無間意默乎視世人喋喋利口而忘其實者倘作何意

二十九日晴夜雨葱秀三十里寶山館午炊瑞興五

十里龍泉館宿

府使中
常賦

太白山城在平地邑南五里譙堞周遭壓臨大路城中設麗朝壯節公中崇謙之祠葱秀川西石壁巍立叢篠可愛一道泉流細滴凹嵌之石珠迸露綴味甚清冽泉傍鑿石作塔可容數人之坐刻聽

泉仙榻、又刻玉乳靈巖、側刻宋之蕃題、又刻靈岩
玉溜、此長白劉鴻訓題、其餘珍珠泉、懸珠等字、不
知何人筆也、仙榻東壁、刻宋天使塑像、大半磨泐、
地若本足脞秀、而天使董越、以其岬密之蒼翠如
青葱、改聽為葱、因作記云、

三十日晴、鈞水四十里、鳳陽館午炊、鳳山四十里、洞

仙館宿、

郡守尹
新銘

鈞水即鳳山巨店也、漢山平衍、土沃人富、勝於邑
甚、鳳有邑弱村強之若、良有以也、

十一月初一日晴、黃州四十里、齊安館宿、
兵使李恒
權、詳遊李恒

賢者虞侯
甲在良

洞仙嶺在黃鳳交界，因密迴抱，樹木叢鬱，逶迤行
十里餘，設城於西山中，坵之間，門樓揭扁曰洞仙
關，亦一西路隘喉也。關內往往有奇巖，小溪，岩有
舍人之名，未知何意，而石勢最立，嶙峋可愛，正方
山城在其西，屹然為保障之地，而城之北有立石
洞，開野於山谷中，西通沙院坪，東臨洞仙關，天作
之險，可容數三萬衆，昔有移建兵營之議，而未果
云。按高麗高宗十八年，蒙古撒札塔舉兵來侵，李
子晟屯兵洞仙驛，殊死拒戰，卽此地也。嶺盡而野

開黃園珍珠、縹緲入望、漸見長林夾道、大川繞城、
月波樓陔^陔起於城南之瓊、營屬紛紛來見、往在乙
酉、從兄遠節於此營、翌年捐館、余有三宿之戀、進
念疇昔不覺懷神^{（清）}、

初二日晴、留、

三使臣查對於齋、密堂、仍修、終、撥便付家書、觀
妓樂於體仁閣、使行諸人、始得休憊、醉娛終日、稍
慰遠行之勞、衙園之東、有太古亭、亭之左有竹樓、
蕭灑幽靜、蓋月波竹樓、皆取黃園之名、出於東人
之好、侔古也、年前余與李友仲、善諸人、共辦月波

之游仍欲泛舟於棹前、時秋雨新晴、夕月未上、將
省靜影、沉璧浮光、躍金、玉、俾李丈義玄氏、貽書諸
人曰、老夫於此、興復不淺、而却讓頭於少年輩、甚
可茲恨、書緩來、烏雲一片、從東嶺浮來、頃刻之間、
而脚如麻、棹與川盡入於混沌世界、諸人在棹中、
茫然敗興、李丈又作短歌一闕、嘲之、歌曰、問南月
波棹、細雨聲、何意麼、月沉沉、夜三更、桂棹蘭槳、尤
堪麼、吾輩東閣觀梅、秉燭夜遊麼、余即席答送一
闕曰、赤壁清江上、細雨聲、尤好麼、紅闌干、盡闌般、
碧紗籠、照耀麼、胡為乎、壬戌景、只取月色麼、李丈

感設歌、使厨傳送之曰、此是少留龍門賞雪之意、
仍設酌張樂、鷄鳴而止、相顧而罷、

初三日晴、中和五十里、生陽館宿、府使李煥庚

駒縣以外關西地也、適騎大同驛馬、其馬眼若垂
鈴、步如流星、良種也、但體太小、騎而馳、搖搖如踉
驢、半寸長程、何以致速、余噴驛吏、使之換騎、吏曰
三十正官、凌晨登程、揮騎先登、馬羣遙空、咄咄無
奈、

初四日晴、平壕五十里、大同館宿、監司金魯敬、府使李祖榮、中軍金全善

平壤第一江山也、檀箕以來至今五十年繁華之
場、國內各勝、魚與相搏、自永濟橋向大同江、江之
南十里長林、沿江夾路、風帆沙鳥、隱映於其中、林
盡而彩閣粉堞、臨江突起、映帶縹緲、宛開一幅活
畫、令人已覺神氣爽然、指顧之頃、適爾登船、船之
制、朱欄彩檐、有扁楣、左綾羅泛舸、右曰碧漢浮槎、
下船由大同門、入任練先亭、沈學官彝顯成斯文、
永述、俱以崇幕來謁、

初五日晴、留、

三使臣查對於澄清閣、仍修、終、撥便付家書、練

先亭揭第一江山四字、金陵朱之蕃筆、又揭長城
一面溶溶水、大野東頭點點山、一眺高麗壯元金
黃元詩也、黃元登亭賦詩得此聯句、終日苦吟、更
難得句、遂痛哭而下樓、李尚書晚秀、洪尚書義浩
洪尚書爽、周使行時、共登此樓、足成全篇、萬元樓
始天半起、四時歌吹月中還、巖雲烟不盡、江湖上
詩句長留宇宙間、國源黃鶴千年人已遠、夕陽回棹
白雲灣、懋全三洞詩、雪嶽幽樓客、關河又海遊、隨
身有清月、十夜在高樓、鉤犀魚龍靜、杯行星漢流、
鷓鴣相顧起、留與木蘭舟、鄭知常詩、紫陌春風細

而過、輕塵不動、柳絲斜、綠意未平、笙歌咽、盡是梨
園弟子家、又、兩畝長堤、草色多、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別淚年年添綠波、此是古今詩
板中、最是贈矣者也、任疎菴叔美記、文長篇、揭於
中樑之上、體格高古、音調瀏亮、令人可誦、身在城
頭、前有樓台、帆檣野色、江流、點綴於平沙、遠樹之
間、後有城府、市肆色、塵之高、一舉目而兼有之、可
比於杭州有美堂矣、但城內魚井、堪輿家謂此色
基是折舟之形、大忌鑿井故也、邑人汲江水而飲
之、又立兩石柱於城外、以鎮之、浮碧樓在長慶門

內、繹、紗、窈、窕、與、練、光、相、伯、仲、而、備、有、牧、丹、峰、前、對、
凌、羅、島、城、市、稍、遠、故、清、爽、過、之、兩、極、揭、靜、影、沉、壁、
浮、光、滌、金、一、聯、句、永、明、寺、在、浮、碧、之、傍、而、有、得、月、
樓、最、爽、豁、顧、麟、窟、朝、天、石、乙、亥、始、皆在牧、丹、峰、下、有、
東、明、王、舊、蹟、而、年、代、杳、茫、不、可、盡、攷、清、流、壁、在、浮、
碧、下、流、翠、壁、削、立、搖、漾、水、中、右、面、大、書、清、流、壁、三、
字、載、拓、亭、越、然、始、皆、在、相、望、之、地、由、朱、雀、舍、毬、門、
出、有、箕、子、井、田、遺、址、平、原、曠、野、溝、洫、定、界、九、區、百、
畝、之、制、井、井、有、條、理、夫、隅、各、立、一、小、石、以、標、之、橫、
渠、所、謂、可、試、一、挪、者、非、耶、有、井、田、環、洫、園、田、畔、有、

箕子宮殿宇碑閣巍然獨存、洞壑仁賢之碑、門揭
八教之篇、門內有石萊九疇壇、近地有箕子井、該
石井欄以護之、由九三門入其殿、偏其北曰三益
齋、南曰養正齋、左右曰依仁房、忠道室、使姪義生
居之、仁賢書院在外城之內、奉安箕子畫像、眉目
粹然、頰着鬚冠、千載之下、令人肅敬、愛慕之心、油
然而生、環東土數千里、能有衣冠禮讓之俗、豈沐
先聖八條之教耶、昔徐夔峰得中國人所模寫箕
子陳洪範圍一本、匣藏于院中、左有御書閣、奉
孝廟潛邸時、昇院舊蹟、紅霞書鳳林大君、某月某

日字、忠武祠乙亥文德及全良產安享之所也、文
德值唐太宗東征高句麗時、奮起獨戰、使唐家百
萬之師、攢身奔北、良產倡義效勞於甲子、迺愛香
火之設、有以也、武烈祠在靜海門內、奉石尚書吳
李提督如柏畫像、我東壬辰之亂、被耳造之恩於
皇明、而兩人皆有功於援兵救也、聞似亭在外城
井田東門之外、臨江隄起、蕭灑德藉、蓋取盪山谷
綺江南水色碧於天、中有白鷗閒似我之義歎、其
亭墓在七星門外、招搖蔚然、有紅箭門、墓前五碑
刻箕子墓三字、墓制方而不圓、上頭稍尖、尖然高

可敷丈丁字閣中、鼓鍾簾於左右、茶亭器用也、婢
妍洞在路邊、自古邑岐所葬處也、累累冢塚、埋沒
於野草荒烟落花疎雨之際、魂兮魂兮、生長於歌
榭舞臺之中、安知異日得見騷人韻士、酌酒記咏
於斷雨殘雲之間乎、甲先漢詩云、願作蟬始洞裏
魂、有買死馬骨之意、故得請淫之嘲也、布政門內
亦有五旬身多景樓、諸勝蓋錦繡江山、無處不佳
麗也、夕間、咸子承談琴歌酒饌、邀余餞行也、沈文
多送漿脯、鹽脯雖魚良醬之屬、往返燕路、饌需極
艱、自家曾經此患、故為余道之、有此賤、可感可感、

初六日晴、留

初七日晴、順安五十里安定館宿

縣監金有善

林、細亭在邑南一里許、方塘環欄、島嶼點綴、栽花種樹、極有佳趣、每當春夏之節、正暢幽情、身在丁未、先君子以楊牧時、船艙奉被、息、徒居、禱於此邑、其時主人之子金吏元顯尚在、招見饋以茶、味相對、愴舊

初八日晴、肅川六十里、肅靈館宿

府使李圭徽

關西一道、政堂之傑構者、以寧遠為最、此邑前倅李載弘、摸得寧遠之制、改建政堂、其大小間架、毫

魚參差

初九日晴、安州六十里、安興館宿、兵使李鐵求、使尹秉烈、兵虞候朴敬息、

百祥樓在城東、宏壯軒豁、過北練光亭、而清川江平鋪於野外、逶迤羣山羅立如兒孫、其東北峯標縹突起於雲間者、藥山東台也、眼界爽豁、已覺翔氣逼人、兩極揭一熱日、野潤江流、細樓高翔、氣負金周點筆也、典副三房同行諸人、設妓樂於樓上、趙友存恭、在兵營幙中、備送酒饌、迫曠始罷、

初十日晴、留、

三使臣查對於貳衙軒仍修 餘撥便付家書七
佛寺在玄武門外、按隋煬帝使宇文述東征高句
麗、師到清川江、江水漲流、未量其淺深、觀望未渡、
忽有七僧、擗衣從下流渡去、宇文軍隨而中流漸
沒、盡為漂死、水為之壅流、僧因忽不見、化為石彌
勒、故在清川江邊、因其所立之處、建彌勒院以庇
之、又鑄大梵鐘、懸於佛樓上、西軒刻記七佛事、顛
末云、相公桑在清川之野、梧里李相公元翼之所
植也、屢年株叢鬱成林、勸民蚕織之意、藹然尚存、
故名曰相公桑、望京樓在城南之頂、俯瞰內外重

城、閭闔撲地、舸艦迷津、保障形勝、亦一大都會也。忠愍祠在內城東北、宜春君南、以興、富丁卯虜亂、以兵使立殪、因地建院、以祀、遠近、按南公之挺節、以雄、以奏、使入皇京、一日、以紅錦大書南、以興、戰死安州、揭之通衢、是時、皇明陵夷、建虜招撫、公以偏邦一帥、臣倡大義於天下、豈不誠壯哉、節度營昔在鐵瓦城、甲子、逆變後、移置於此、清川江水、源、自寧遠、隔德壽山、郡來、繞出、百祥樓城下、入于海、古稱安州城為天塹之地者、以此故也、今江水、退流、城外、便成野田、魚足恃也、正廟朝、為疏鑿、

計、擇遣武將之有幹畧者、屢興役而未成功、其後
設坑鑿倉、置監色、年年董役、水道今有可回之勢
稍得人、則事半功倍、而年久懈弛、徒作糜費之
資、一帶天塹、可勝嘆惜、安州城、蓋與慈山慈母山
城、寧遠鎮、瓮山城、為鼎足之勢、按全清陰嘗奏、

國家安危、係於安州一戰之勝敗、豈不以安州之
勝敗、在於清川江之險阻、而此乎、觀岐樂於節度
營、其補羅環珮、不如平壤而技藝則頗勝、曾聞朴
譯、進行到安州、岐王娘年纔十六、勸酒之際、談翻
酒於紅蒙、朴拂拭之有歎色、娘曰、魚妨也、血色羅

裾翻酒洒、相笑而奇之、贈五百青銅而去、有是岐
有是風流、百祥樓下有趙侯鍾永守城碑、身未西賊、弄
兵演池、清北瓦解、安陵朝暮且陷、人魚圖志、趙公
以守土之臣、慨然以城亡俱亡之義、自處埋安祠
守、治送家眷、着我衣、仗劍坐政事堂、招諭衆人、激
以忠義、臨機決策、治兵繕堞、誡訓城中人之興賊
和魔者、立斬數人於前、當是時、相檄交馳、杯酒從
容、談笑而處之、兵既募城且完、賊之據松林者、不
過相望之地、而山諜遼沮、清川一帶、賴以不潰、帥
臣始乃出兵擊之、焚蕩松林之巢穴、追至博川、津

頭而逐、國家安危、專賴安後之捷、江淮保障、是誰
之功也。

十一日、雪博川、大定江四十里、越洋、郡有張嘉山三

十里、嘉牙館、郡有民

清川江在安州城外、關西之稱、清南清北者、以此
也、江值平水、透回數十里、從上流渡、洋船設閣、扁
揭、泛星閣、時雪花亂飛、朔風怒舞、鼓角颺聲、人喧
馬嘶、余褱褶跨鞍、指顧北曠、漢之野、隱然有出塞
之意、顧謂雲老曰、意想何如、雲老有慷慨之色、而
強應曰、哇、大定江即博川、嘉山交界、而清北諸邑

商賈積峙物貨於津頭、亦一都會也、博川倂具舟楫、設小酌來迎、李基榮者、博川知印也、當西賊之變、賊據色拘倂、倂任聖舉也、色屬望風投降之際、基榮潛出見任倂、受請援之書、置之衣縫間、跳出重圍、夜赴節度營、細書、俱道其任倂被執不屈之狀、願得精砲五十名、遂復博色、節度使壯而許之、遂成其計、遂賊而復其邑、出其倂於拘械之中、噫、任倂之在邑也、視基榮不識何狀、而臨亂效忠、辨得奇功、如彼具身榮、誠可異也、余招見其人、眇然而貌且癯、以貌取人、失之^者、羽者^之、非耶、嘉山峻遠

知、鄭忠烈善所時也、忠烈罵賊不屈而死、其第臺
被剗將死、知泣請於賊乞收屍、賊義而許之、遂殯
殮於家、被治其第、賴而復生、及其返觀也、隨至河
江、痛哭而還、上聞之、命給復、厚賜以彰其節、夫
蓮知以避鄉一婦、名徹九重、宋人過客、皆求見其
一面、不惜贈遺、豈非秉彝之天、使人起感而然耶、
被降倭之屈膝、視顏於賊庭者、抑獨何心、鄭忠烈
公養、星州泉坪人也、年未賊起、嘉山公以色倂、彼
執不屈罵賊而死、其父魯見其子被執、昂以巨幣、
從容就義、同日并命、朝廷并施贈諡之典、賢哉侯

也、公以寒風後商、提筆從官、一麾西州、不幸值凶
鋒、蹈白刃如赴樂地、若昨素謀義理於家庭之間、
則豈有父子死義如彼、其烈烈哉、余過泉坪、求問
其遺廬、又訪其季、往聞墓所、歸此於崇山巨川之
間、可以想見其人、

十二日晴、定州六十里、新安館宿、收使柳相兩

曉星嶺在嘉山邑後、峻岌榮迴、樹木成林、亦一關
隘也、初清身定州初境也、天使唐皋若其身、蓋初
涼之意、而丙子胡騎猝至、蹂躪場市、今人猶物之
拉破、無餘者、為初清塲者、出於此、身若適符於初

清兵之義、吁可異也、亭廢但有址、村居櫛比而已、
近邑五里、有五龍浦、石橋長亘、林藪挾道、林盡而
有院、院豎聖蹟碑、碑紀太祖隨州戰蹟、奉安御
墨、隨州卽定州古稱也、新岷書院在東門之內、新
安定州古稱也、以邑稱之相符、邑人議建朱子院
宇、鳳鳴書院在甲岩之左、奉仙源清陰兩先生位
板、蓋仙源有甘棠之遺愛、清陰以雪窖之節、路過
此地、邑人建院、并亭院中、揭仙源影幘、粹面皓髮、
峩冠博帶、三淵作贊曰、挹且色藹然、可掬、竊其際
穆、前有定云云、千載之下可以想見其氣像、就蹟

碑在東門內、即太祖宣祖兩聖之蹟、而正宗
朝所豎也、高麗恭愍王十三年、崔儒塔思帖木兒
謀反、太祖戰捷于撻川、川在五龍浦南、尚有戰
塲坪元帥塔、壬辰倭亂、宣祖西狩、駐蹕于州人
卓龍家、碑紀此蹟也、凌漢山城遠、遠入望、聞於邑
人、高麗所築、而地窄泉少、難以容衆、本邑防禦也、
城堞之雄壯、邑里之繁富、何適不若安陵、而山川
秀麗、率循文明、邑有登科者六七十云、國內諸邑
無比也、率未賊入、據此城、經歲乃下、時邑之士無
一從賊、韓浩遂罵賊之殘、玄仁福倡義募兵、因以

激閼西忠義之士、朝家贈恤收用、不亦宜乎
柳相弼、莅官未幾日、迎接使呈厨傳之供、主
待、蔽明有條理、境內肅然、吏民畏而愛之、可
豫收之材、而剗擇之後、尚未蘇槩、致方營作
解、登羊痲瘼、愛國奉公之意、溢於辭表、亦可
十三日晴、郭山三十里、雲興、館午炊、郡守鄭六
十里、林畔館宿、府使李
郭山介於定、宣之間、邑小而吏稀、接待粗惡
然矣、然地沃饒、人民富、穀品甚好、故燕京直
取宣郭之米也、主俸贈銀石硯一枚、行者有

義歎、安陵人杜宰點、關西偉人也、為余道郭山戰
蹟、令人可聽、當西賊之起、郭倖李永植、棄色圍、命
請於節度、若願借輕騎、為松林之援、將以贖深、及
其捷也、請於諸將曰、吾以守土之臣、棄色圍、命微
功、不足以贖大深、願以乘勝之鋒、合力身進、克復
郭色、仍返下、咸從倖尹郁烈、順川倖吳敬壽、慷慨
許之、率安州壯士、軍官全終點、諸人、自博川津、類
直走郭山、勦蕩賊窟、賊望風而走、諸將方欲下馬
之際、乍候、忽報賊兵大至、諸將遂上馬、馳到色之
後、覘見賊陣、猶滿前坪、相距五里、前面達清北、刮

先帥旗幟有十餘賊騎兜胃輝煌劍戟森列繞陣
而折諸將立馬於纒上一字擺開先以精礮爭分
隊迭進連放之賊不敢迫都烈顧諸人曰彼衆我
寡難以久持我軍一踰纒則賊必掩之一旋踵則
賊必逃之等死耳不如先發制人諸將努力前進
若有退避不進者爾斬我我斬爾言訖一聲發喊
躍馬先登揮大刀馳突如飛諸軍實勇爭先無不
一當百賊大潰斬其酋長十餘人賊魁李壽初勇
力絕倫而莫敢櫻其鋒拔馬望蜀城大路而走壯
士軍官四人馳騎逃之生擒而還云宣川防營也

地在要衝、邑且雄富、但無城堞、嶺隘之險、街內有
禦牧軒、軒之東有倚鈞亭、掛弓樓、安剌閣、步虛閣、
衙垣西北隅、又有成就亭、而倚鈞亭宏傑、軒敞闊、
於西路、東林城在清江坪之北、依山築城、城外大
路、橫走、松杉參天、不見日影、松林盡處、設城於西
山之口、扁其門口、鎮西關、烟台、烽堞、往往出山頂、
鎮將具素糲、祇迎於南門外、邑之北、有鈞山之城、
亦足以備陰雨也。

十四日晴、鐵山五十里、車翠館午炊、府使尹龍川三
十里、良策館宿、府使蔡文永

西林城在鐵山初界、與東林相上下、城中置僧寺、
由東門出西門、鎮將具秦鞬并路左、車鞶籠距邑、
治三十里、良策距邑治二十里、俱以使行、透路別、
設關所、出站交待也、良策之南崖、有天淵亭、芳岩、
臨溪、林木翳然、石壁刻第一溪山、又刻聽流岩亭、
之北有溪堂三處、三使分處為、到灣、隔夜、懷思、情、
然、與同行諸人、酌酒於亭上、聊以遣懷、

十五日晴、義州五十里、所申、羅午炊、三十里、龍灣、籠

窺
府尹徐
洪佳

箭門嶺在義州西十里、登嶺而望、鴨江以北、胡山

悵憶朔漢之氣、凜然逼人、見一山雄岸特立於遠
近之際、閉其若則金石也、渡江後繞過此山而入
柵云、到灣府外城、以巨石作虹霓門、內城南門前
以東海第一關、城內市肆閉關、公廨樓閣、鱗錯累
布、井井有規模、儘是遼門鎖鑰之地也、入處未宣
關、

十六日雪留

三使臣查對於鎮邊軒、修 終撥使付家書、冬暖
如春、毛具不敢看、遠山若此、都下可知、今日雪下
始、有微寒之意、撥回見家書、可謂千里咫尺、

十七日雨霽

赴燕馬、照關於龍灣館下、蓋以嶺南、湖南、湖西、關東、關北五道驛馬、前期未待於灣上、先擇使臣、輜馬、次把裨譯所騎、自前使行、以馬劣之致、稱以蹇足、違法狀聞、把上兩西驛馬、西驛凋弊、殆難支、今行痛禁前禁、而但積雪冰程、往返四千餘里、以若果下馬、安能致遠、余亦不能無動於心、而具於執公之言、亦無奈何、余把公忠道、利仁驛、張於仁老味馬、其馬溜眼如垂鈴、脰細而鬃高、蹄啞吃、喙儘是良駒、但形如小驢、人皆不顧也、余幸過而有

之萬里前程賴此一鬣、觀其骨相、果能以小敵大
耶、魚川督部趙渡、順川人也、聞其人居家孝友、有
卓異之行、而捷語也、諄諄然言若不出口、夷考其
行、卓身難及、价川之玄心穆、中和之李鳳集、俱以
窮經篤行、被朝家褒揚之典、斯人也、亦足以匹美
於玄孝也、余乃款迎、不覺起敬、

十八日晴報

灣上人白畫、榮得存、開札於京中、付去、蒙訪雲瑞、
玄與白、酌酌淋漓、余吟一絕曰、洛下玄雲瑞、灣中
白畫榮、情誼因地得、名姓自天成、以其姓名之韵

對也、旁觀大笑、劉念知先祐字君實、以兵禪掌馬
政、故余呼以司馬君實、又或有拘執之事、更呼以
司馬牛劉、亦不以介意、崔雲素宣川馬頭也、赴燕
凡四十七次、彼中游覽、靡及風謠物情、貨寇利竇、
洞悉無餘、雖老驛、莫能及焉、前後使臣、百事必問、
應口輒對、以其叨勞、年、前使臣、是、素、陞、賢、至、除、邊
將、今、見、其、人、老、而、益、壯、指、示、遊、燕、之、跡、山、川、道、里、
樓、台、城、闕、市、肆、苑、囿、花、卉、禽、獸、寶、貨、珍、怪、之、物、如
誦、宿、文、初、行、諸、人、環、坐、而、聽、之、皆、目、矐、口、呿、久、滯
遠、城、好、得、消、遣、之、資、也、林、景、岳、灣、上、大、寶、也、為、人

雖小精悍出入燕薊二十餘年積著至累萬萬人
持景岳一丈圍署則燕人雖千萬金不惜出給其
見重於異域之人可知豈其博陶朱之術而然邪

十九日晴留

邊門迢遠塞月照亮不耐家國之戀耿耿孤燈仍
不成眠欲與同行諸人登統軍亭諸人或作紙牌
骨牌或携妓設酌或歌笛自娛與之謀皆不諧余
乃呼小童俾一壺酒獨上統軍亭身在城北最高
阜胡天寥廓大江平流金石控鷓鴣諸山縹緲入眼
時雪月峰煤銀河晃漾朔漠之氣惹起悲壯之懷

遂痛飲數椀、見壁上多揭詩板、鄭東漢詩曰、統軍
亭前江作池、統軍亭上角聲悲、使君五馬青絲絡、
都督千兵赤羽旗、塞垣兒童盡華語、遠 山川非
昔時、自是竿子亭游獵、城頭夜火不須疑、李東岳
詩一聯曰、宇宙千年人似蟻、山河萬里國如枰、鄭
柘江詩曰、我欲過江去、直登松鶴山、西招華表鶴、
相與戲雲間、皆清亮可誦、夜久風壯、不得久坐、遂
下亭、諸人已齁齁睡矣、

二十日晴後

聚勝堂在客舍東、宣廟生辰駐蹕處也、英廟

柳華高顯、從日涉門、入門內、有小園、滿栽花木、粉
牆下築小台、臺上而俯瞰、城中瞭然在眼、在昔龍
蛇之愛、大駕去邠、一片孤城、翠華淒涼、幸賴

皇朝再造之恩、李提督提兵東渡、掃蕩島寇、復我
八路、如破之國勢、復奠繫恭、於身不忘、先皇之
恩、而皮幣之後、年年歲歲、經過此堂之前、匪風下
泉之思、爲身不油然起哉、宣廟御製詩曰、痛哭
關山月、傷心鴨水風、朝臣今日後、穿復更西東、時
東西黨論、莫可調停、國事以至板蕩、聖心有所
感發而然也、聚勝之左、有延春堂、鎮遠之北、有二

宜亭、遠足可觀、惟九龍洞、在統軍城外東北八里、許石壁、臨江、松樹掛壁、頗有幽趣可賞、

二十一日晴、報

清陰先生遺蹟碑、在統軍西南岸、先生被拘瀋陽也、留一年於瀋上、與徐晚沙景兩李尚書顯英同任一村、相與酬唱、名其村曰壽星、清陰詩曰、天涯邂逅接柴門、歡會依然似故園、他日龍灣與地誌、定知編入壽星村、

二十二日晴、留

均包之法、并例也、裨譯有八包之例、堂上白銀三

千兩堂下減一千、使交貨燕貨、而取其剩餘、迨歲
銀貨不贖、此法遂廢、遂令諸商之貨于燕者、不許
私帶貨物、就包名帶入、皆稱其輕重折價、價滿銀
百兩、則折稅銀十二兩、均分分屬於各員、謂之均
包、每多潛售、照標丈且、則灣尹典書狀、按同補行
解不見欺、莫可抹弊、

二十三日晴電

皇曆賈咨官先來夜渡江、其間見事件槩云、一、關
內關外年事七八分、登德、一、水原大青島入、率男
女家眷乘舟移寓海西、中洋遇風、漂到荊杭間、順

付賚皆便出來。一、軍機大臣英和以權寵之臣、因
山陵事、遂配黑龍江、失勢故也。二、皇太后上尊號、
頒詔之初、以順付不直使回便之意、禮部已奏定、
二十四日晴、雷

入燕禁物即金、蔘、貂、麝、而紅蔘為尤甚、蓋家初蔘
包不過四十斤、年加歲增、今至五千、而燕人買紅
蔘十倍其價、故我國人抵死潛商、莫之禁、過益五
千斤、包蔘之外、雖一斤禁物也、今行 朝家令飭
截嚴、使行入灣之夜、灣尹遍搜行中、正官高景斌
李廷植、金性淳、李好基被捉、云察訪雲瑞亦見捉

告歸、使行賂、為非所暇論、而行色悽然、塞上去留、
令人黯然、明將渡江、先修家書於燈下、懷袖萬端、
而洛中親知之札、一一修答、又付書於東窗、今行
未見統軍亭之烽火、威化島之馳檄、將以回還時
為期、而亦可恨也、灣板朴麟碩、為人詳敏、勤幹、治
裝之節、皆令周旋、又付置衣箱於其家、

二十五日晴、渡江、九連城三十里、午炊、溫井三十里
宿、

晨起、裝米、頭戴圍巾、小竹涼笠、笠懸銀頂子、孔雀羽
身、着軟紅綾緋圍衣、上掛紫芝色短袖快子、腰繫

藍布細纒帶、手拊染色藤鞭、跨馬而出、隱然有鉄
衣挺征之意、諸人相顧而笑曰、此何類、孫、抵鴨、綠
江、遠、灣、尹、設、祖、帳、典、使、臣、搜、檢、入、馬、修、付、狀、啓、飲
錢、而、發、一、渡、江、東、國、地、盡、矣、出、塞、之、心、安、得、無、幾
獄、色、而、多、日、淹、滯、之、餘、遂、覺、狀、爽、鴨、綠、江、水、渡、中
江、三、江、則、以、越、川、軍、渡、涉、江、後、蘆、葦、一、望、無、際、余
蓋、翩翩、漸、沒、其、影、江、遠、送、行、者、莫、不、黯、然、銷、魂、云
人、情、然、也、九、連、城、皇、明、時、鎮、江、府、也、又、曰、錢、湯
城、金、麗、相、持、金、將、軍、幹、魯、并、有、也、自、鴨、江、至、柵、門、
一、百、二、十、里、空、其、地、使、不、得、耕、種、清、初、定、界、也、年

站始設乾糧、廚房以松木作平盤、薄饌吟餽而諸
人之甘喫、反復勝於沿路方丈之食、此所謂饑者
易為食耶、抵溫升、舉火行十餘里、古木蒼藤、斷橋
深澗之中、冥行通地、闔眼據鞍、只信兩蹄、甚可危
怕、夜抵溫升坪、灣校先期入來、設幕數十處、幕底
掘地燃火、鋪板於其上、三使一行、分處而下、屬皆
露處、燭楮朮聚首圍坐、炬火蔽野、又多虎患、灣所
槍軍、持槍吹角、連夜巡警、夜深星河熒熒、燈火錯
落、遂吟李黃庭、佛燈大野行人宿、初雪長河獺騎
迴、一句、適真境也、金石山與松鶻山對峙、峭峻雄

特
雄山下多有可居之地、而可惜胡風水等作閒田
矣、湯山城在柳田十里、皇明所築、而置指揮使
地也、城根埋沒、林木叢密、昔日人民所居之地、礎
礎之屬、磨泐於風雨、在在入現、而鴨江以後、每見
川原成局、阡陌有址、彷彿如聞鷄犬之聲。

二十六日晴、柵門六十里宿。

葱秀水石、酷似平山、葱秀猝然遇之、如逢舊友、於
他鄉渡江後始見、請人沿江成卒、作幕屯居、而路
中一無現形、蓋人迹所不到也、路益險、艱辛抵柵
外、柵在鳳凰山餘麓、蓋北自塔刺地方、南至海門

二千餘里、設七十所、此其一也、邊備也、定界也、然折柳樊圍、在夫瞿瞿、此之謂歟、先送入柵報單、人共發馬共發、詳載報單中、少憩入柵門、奉表咨文一行次第隨入、鳳城將及通官單、設橋於門右之室、列坐而觀之、甲軍皆環柵而如堵、遂入、處民人家、炕上、整頓行李、見路西有關帝廟、丹墀雕刻、耀人眼目、傍設佛殿、自此至皇城一樣、其制無處不設、云崇奉神佛、國俗可觀也、三使臣往見廟中、余亦隨往、有一宦負請入炕上、與使臣等談、設卓供茶、頗有升階禮讓之風、姓名關扎哈、滿人也、居塞

外六品文職云、皇曆貴吹官季直教、回路入見、入
柵狀、絡便付家書、

二十七日晴、留、

一行諸人、買出太平車、裝束行具、有若初發程者、
然、終日紛運、繞入柵門、見彼人言語不通、對面便
作啞聲之人、劉愈知屢作燕行、善漢語、余聽騎牀
枕、晝夜不相離、每與彼人酬酢之際、徒仰對口、余
呼店小二、請洗手水、答語頗未肯、問諸劉、復之辭
釋、則云、是一日兩番洗臉、磨字同音不同、而實則
文字語也、中國人千言萬語、徒從文字上出來、若

早解其音，則吾亦可以為懸河之辯，而相對脈脈，不敢開口，豈不誠悶哉！心生一計，請彼人坐一坐，又請劉念知使之酬酢，而旁聽之。又自頭至足，衣服帽佩，肴物，隨見隨問，使劉仍以解釋其音，稍稍解漢語，日以為常。安市城在柵門五里許，昔唐太宗勦天下之衆，東征高句麗，安市城主楊萬春，堅城固守，終不能下，仍以回軍，萬春於城上，拜送太宗，賜繒以褒之。時李靖尉遼，敬德臨海，王道宗養百計攻城，又得遼東薛仁貴，席捲遼野，而一片孤城，能擢其鋒，使中原戎馬，不得蹂躪於鴨江以東。

一步之地、豈不壯哉、世傳太宗於安市之後、箭中
一目、因此回軍、而中國史諱之云、

二十八日晴、鳳凰城三十里小憩、四臺子二十一里
宿、

一饒地、鳳凰城本濼地、入渤海為東京龍原府、遼
曰開州、元屬東寧路、蓋自瀋陽東北、至瓦喇船廠、
其間為數千里、鳳城作綰轂都會之地、城郭樓台
市肆、牌街之盛、令人心目眩耀、應接不暇、旁人笑
余曰、遠東瀋陽、山海關、皇城、漸入佳境、愈往愈壯、
則今見初入遼城、何必乃爾、然則前路壯觀、惟可

知也、

二十九日晴、黃家庄五十里、午炊、通遠堡三十五里、
宿、

行未至麻姑嶺、有伯顏洞、俗稱元伯顏駐軍處、又
過薛劉站、唐太宗渡遼時、薛仁貴、劉仁願、用兵於
此、故得此名、皇明時、稱鎮東堡、野中有七聖祠、路
傍有毀松、亦名松站、

十二月初一日、風雪、草河口二十五里、午炊、連山關
三十里、宿、

連山關、唐時稱鴉鶻關、自此有捷路、不由瀋陽、直

達山海關、而前迎大海、後有青石、會寧兩嶺、雖魚
城郭人民之盛、亦一東路之閑隘形勝也、有山梨
紅、比我國山查、其大數倍、皇明成化十六年、請
改黃道、兵部尚書劉大夏、以高朝鮮直路、白鴉鵲
關、透回三四大鎮、始抵山海關、此祖宗微意、遂不
訐

初二日晴、甜水站四十里、午炊、狼牙山三十里宿、

是日、逾西大嶺、會寧嶺上下二十里、巖壁削立、林
樹交結、山腰險路、曲折如盤、蛇之勢、及其下山回
望、則山在雲天之中、此是遠東大閑隘也、青石嶺

之路、峻急而滑、石色皆青碧如染色者然、層岩疊石、成削危倒、恰如我國青石洞險路、又有小石嶺、爲昔孝廟以鳳林大君、入質于藩、登此嶺作胡風陰雨之歌、東土士女至今傳而唱之、細想當日不覺臨風和淚也、甜水河在兩嶺之間、蓋東八站之水、味甚苦鹹、而此站則水獨甜冽、遠望白塔在山腰、由白塔一路中分、卽稱狼谷、自此抵狼子山、迺行二十里、而路則平易、車馬之避青石險峻者、皆從此路云、狼子山不過野中一小山、而崔簡易作狼山山記、頗稱佳處、或曰、唐文皇東征也、兵敗

失道夜聞鷄聲出林尋到其處有一娘子炊飯指
路天明睡起不見其處但有石鷄心異之命達寺
祠之山曰娘子寺曰鷄鳴今娘子乃是娘子未知孰
是

初三日晴王寶塔四十里午炊迎水寺四十里宿

早發路逢我國漂人之回還者明是水原大青島
人將移家於般粟船載家眷十三人海洋遇大風
漂到山東地歷皇城今方回還凡漂人之官車替
送中國之例也萬死一生雖幸乘車彈膏齋歸而
異域寒程景色矜惻出藥果茶屬分饋慰撫而送

之路中有尋常一丘垤，名曰摩天嶺。嶺西有駐蹕山，馬蹄山。唐太宗征遼時所過處也。又有王祥嶺。晉大夫王祥所任，而嶺下之水，卽剖冰得鯉云。又有小嶺，石壁呀然中拆，若門扇之洞開者，名曰石門嶺。登頂而望，山盡野圻，廓然曠濶，乾端坤倪，軒豁呈露。此是遠野八百里，真平生壯觀。朴燕岩日記云：到此如孩兒之脫胎出腹，不得不一哭。蓋燕岩之文，到處善形容，而天下壯觀之遠野，以一哭字，句當善之善矣。按錄齋記：嶺下有冷井，冬溫夏冷，井傍多野芹，使行春逸時，可以採食云。高麗叢

俗傳高麗被擄人相聚居生自成一村或云蓋是
塚字書訛見纍纍塚前碑石壚石宛是東人之制
蓋遼是朝鮮古地也秦曰遼東漢曰襄平唐曰安
東都護府遼曰東平元曰遼陽明曰定遼衛清屬
盛宗崇德間移設遼城在太子河之東是為新遼
城或曰東京或曰馬上傳執一夜成城故謂之馬
上城乾隆甲辰以民物不蕃復移于舊遼城城堞
齊整蕪穢縹緲望之如蓋城上作路可馳五兩城
外引太子河水注之壕中具築執之制未可以歲
月破也從東門入出西門大路左右宮室市肆全

碧輝映、百貨堆積、各立金字旗標榜之、亦一大都會也、東門內有永安寺、制度宏侈、西門外有關帝廟、其層樓遠閣、鍍鍾石屏、雕刻丹青、極具壯麗、不可殫記、折而北行數里許、白塔聳立雲霄間、凡八級十三層、高三十六丈、圍十七八間、塔面舊嵌銅碑、所記如此、而蓋下方築石、四隅均整、高於平地丈餘、下設七層、安塔身於其上者十三層也、塔面皆刻神將羅漢、又各懸鐵磬、風搖之聲徹雲外、最上頸植以銅柱、絡以鉄絲、塔上大書碧漢流光四字、雄鎮遠野、一壯蹟也、世傳尉遲恭所築、或云李

成樑所築皆未可知而華表柱云者尤安也古人
以華表柱為城門柱而舊有城在中民家今則竟失
其所云前行十餘里有太子河一名析水史稱燕
太子丹避秦入析水即此水也天山亦一遠左名
山距此七十里而奇拔天際停車悵望而已夕抵
迎水寺自柵至此橋東八站迎水寺一名永壽或
曰慈航屋瓦覆以青甃殿前鋪以青潤文石中安
大佛三座雕刻蓮花芭蕉使百十洋屠四面高捧
而羅立前殿設冕帶劍戟之衛西龕奉閔帝小像
剎極侈麗壁上畫彭祖右崇郭汾陽於一幅若合

席對坐、祈其三人壽富福而然耶、

初四日晴、爛泥堡二十八里、午炊、十里河堡二十七
里宿、

自此野闊天低、如泛葉舟於萬頃滄海、茫無向方、
永樂中、種河柳於沿路、至康熙時、為行人之病、
且大野潦水、易失路程、故申其植木之政、自通州
至瀋陽一千五百里之間、交路種柳、今見十里五
里之間、尚有禿柳一兩株、扶疎著根、中國障塞之
政、可知其衰矣、昔曹阿瞞、征遼時、值潦水迷失路、
縱老馬先導之、僅得回軍、蓋天下沮洳之地、遼左

最甚而爛泥堡尤甚、每使行回還之際、香泥解凍、
驟馬沒腹、終日行一二十里、或經夜在泥海中云、
未知明春能免此苦否、自此西北行十餘里有興
京、即明之達州衛、奴哈赤肇基之所、有聲祖、興祖
景祖、顯祖、四陵皆在開遼山下、清初設城守護、置
摠管云、

初五日陰微雪、白塔舖四十里、午炊、瀋陽二十里宿、
白塔在村隅、築甃為七層、層皆重簷、下為四達之
門、高十餘丈、渾河在瀋陽九里、世傳 孝廟在瀋
時、作亭於其上、而胡人以野坂曰、授 世子種菜、

載在侍講院日記、廣慈寺在土城外一里許、林木
中、白塔、縹緲梵宇、隱映、寺中多設青琉璃龕、中安
金佛、最可珍玩者、烏銅小鐘、蓋金為柄、藏在木匣
中、而槓卓、碑、爐、等物、極其巧麗、行過牛羊廠、廠中
牛羊猪、无物成羣、皆整齊、首無一極逸、誠可異
也、入關、帝廟少、想三使改服騎馬、陪表成班而行、
裨譯分東西兩行、入白德威門、即潘之南門也、觀
者如堵、指我國、貼裏者曰文的、挾袖者曰武的、云
入城、撒蓋、停勒馬聲、蓋孝廟留館之地、故東使
敬慕之心、年久而不弛也、潘陽古肅慎挾婁之地、

渤海大氏始置瀋州漢曰樂浪郡遠曰興遼軍明
曰瀋陽中衛清屬奉天府亦曰盛京清人首葉之
地其北蒙古界東距寧古塔一千三百里西抵燕
京一千四百餘里東抵我境五百餘里城有八門
宮闕市肆之盛亞北燕京亦有六部衙門壯麗宏
侈比遼城十倍大街東西南北皆達十字牌樓關
門覆以青琉璃瓦旁設紅馬木左右牌樓南曰文
德坊武曰坊正門曰大清內有鳳凰樓崇政殿又
有大鐘閣二層八楹迤北有六角樓卽大政殿也
清太宗興諸將議事于此殿若係軍國機務則輒

極大鐘城上八門一時鳴鐘應之門外有八鏡石柱上有石蓋乃日影塔也朝鮮館在東邊小棚棚憲樞房闕荒頽一半時草樹夕陽惹人悲憤徘徊想像不覺凝涕門前舊有朝鮮館三字今無之入木等外門前曰儒學大殿又曰先覺斯民乾隆筆也殿中安至聖先師孔子神位左右配四聖十哲以下位板殿中最上額揭曰萬歲師表曰生民未有曰與天地參曰聖集大成康熙雍正乾隆嘉慶四世御筆也文昌閣在太學之側外門前瀋陽書院內門前萃升書院左右柱聯書曰教亦多術矣頌

其詩讀其書深已以進。文不在茲。身立於禮成於
樂。惟士為能。三韓菊溪百齡題。內門扁文昌閣。左
右柱聯曰。聖治肇休祥。取士應崇首善地。文衡司
教化。明倫正賴讀書人。有明倫堂歲書室。中有文
昌神位塑像。左右有侍者。東龕魁星像。西龕朱衣
像。似是星官之像。魁星把筆握頭。朱衣身執一軸。
題其軸曰。文章司命。扁其龕曰。輝映宮牆。太學教
授劉承謙。江南人也。余訪於別院。與之筆談。其人
端重有識。見壁上有。一簇障題曰。林真士工於山
水。與高棟友善。棟題真士畫云。楚雲天外數峰青。

春水桃花滿洞庭、落日樓台明鏡裏、歌傳瑤瑟候
湘靈、詩興筆絕品、

初六日雪、大方身四十五里午炊、孤家子三十五里

宿、

早發瀋陽、十里許有崇德明陵、太宗福陵、望見樹
木蒼蔚、實勝寺崇德願堂、萬壽寺康熙願堂、堂係
寺雍正願堂、歷見萬壽寺、金家廟、門曰萬壽、旣驢、
其中制度窮極侈麗、丹碧之榭、琉璃之龕、錦繡之
帳、孔雀之扇、鐘鼓之樓、茶飯榻、匣之佛經、寶幢彩
幡之儀仗、^(仗)龍鳳飛騰之蓋、棟梁、鬼隱映之鏡、綉、玉

缸懸空白日燃火長明之燈也、錦墩鋪地清畫焚
香大師之榻也、炫輝駭眼不可殫記、喇嘛大師居
黃金屋中、衣魚衣、築鷲起居皆是蒙古僧也、寶貝
花卉錯陳於橋卓之際、令人賞玩無暇、中國之崇
佛於此可知、而實勝靈保、雖未見之、可以舉一隅
三反矣、過永安橋、入路、傍酒樓、酒有葡萄、春竹、菜
青、梨花、白、等、名、而味亦香、別、橋、凡、三、虹、門、以、青、石
築之、四隅、蹲、石、獅、廣、可、三、丈、長、可、二、十、丈、蓋、清、祖
陵、寢、不、遠、而、地、本、沮、洳、故、設、此、橋、使、之、永、安、無、恙
也、

初七日風寒、新民屯三十五里午炊、白旗堡五十八里宿、

周流河、一名巨流河、又曰三叉河、古之遼水也、昔箕子受封於周、蓋野為界、公孫淵屯兵自固、司馬懿潛師渡其北、即此河、而唐太宗東征也、鋪土成橋、今成坦道、或曰自此分遼之東西云、新民亦一都會也、聞闔撲地、市鋪錯^基、近高瀋陽之亞也、清太宗初起、駐兵之地、而老蒙古部落不遠、貨商輻湊、四通五達、多有偷竊之志、故設柵欄、立更房、巡夜防竊、自此多有無柵屋、或曰大明遺民、尚有黍

離之思、作此以示無上之意、或曰地近大海、故為
防穽風、上不起脊、板蓋而灰塗、未知孰是。

初八日風寒、二道并五十里、午炊、小黑山五十里宿。
自一板門以後、遠見點點山勢、出沒隱映於野色。
迷茫之際、暨巫閼支派也、遂極亘千餘里、為北方
之鎮、一出遼野、風沙撲人、眯目噤口、殆不可想、而
此地尤甚、唐太宗征遼時、馬尾成紫、攀援以過云。
築路自永安橋、至胡家窩棚而止。

初九日晴、中安堡三十里、午炊、廣寧店三十八里、宿。
烟塔皇明討遼州時所築也、關外則十里一塔、關

內則五里一塔、其剎觀石夾灰而築、塚塚穿砲矢之穴、四圍有濠、整有警、則放砲相應、敵至則嬰城固守、北接盤正間、東南至海口、塔三百六十餘塔、

每塔以百人守之、各有領將、世傳戚繼先袁崇煥之所築、而當時費財防胡、竟無益焉、為天下一吁也、中安堡一路、由蕙盧亭往北、鎮廟桃花洞、洞中景致頗可賞云、自蕙店里北行十里、即盧亭縣城、內有李成標蕙第牌樓云、

初十日晴、聞陽驛四十里、午炊石山堡四十里宿、

石山或稱十三山、蓋遼野後初見也、山下產花草

石、片片成紋、如淡鋪水墨、盡出百種花草、芭蕉松
檜、蘭、蕙、梅、柳、依稀於烟雨中、或有山川之形、呈露
絢異、亦一奇觀也、三台子有遼東捷路、可縮三四
日程、而慮有間道、遂敗、不許此路之往來、開陽亦
一都會也、

十一日晴、大凌河堡三十里、午炊、松山堡四十里、宿
大小凌河、松山、杏山、明清間百戰場也、崇禎末、劉
提督艇、勒教萬衆、距敵於大凌河、一日風起、曠野
飛沙走石、天地晦冥、不意虜騎已迫陣頭、部曲未
整、提督戰亡、累萬精兵、盡為蹂躪、無一生還、一戰

勝敗而國機閉也、東使過此、種種遇大風雪、亦有
陰雲冷雨、鬼火煩冤、殺牛祈祭、乃得晴、故云、河水
甚廣、距海八十里、三面皆大野也、堡距河五里、店
人進魚、醃瓜、以甘同鹽汁、清如油者、沉小瓜之色
青如新、摘蔓者及紅蘿、蒿、清爽開胃、可補別味也、
路傍有明井、五平父子而烈碑、謂之四同碑、娘娘
廟在路傍、中安花冠二神塑像、扁其明曰神德濟
衆、廟前設六臂神將、形貌猙獰、自鎗陽站西距錦
州二十里云、

十二日晴、高橋堡三十六里、午炊、連山驛二十九里

宿

松山高橋富盛如新民屯而反復勝島自此以後
南見渤海水光如雲島嶼杳茫而海之南即山東
等地古之齊魯也東與我國海西沿海相通崇禎
後水路朝天之路也丙申使行宿于高橋堡王姓
人家夫不虞費銀千兩護送官走告寧遠府自瀋
陽毅王姓一家人口僅盡酷刑王妻不勝痛冤招
曰實不敢竊銀但室女時奸一男子罪不敢辭乾
隆帝嘉其無隱賜衣乘車而還之每使行過此堡
人睥睨不欲接待作為口實塔山所濱海魚鹽之

地、村閤、柳、比、而、天、晴、日、朗、登、山、望、見、嗚、呀、島、云、三、
義、廟、在、單、羅、山、下、奉、溪、昭、烈、聖、像、左、閉、右、張、而、大、
身、重、棗、環、眼、魚、一、分、近、似、之、肖、像、前、有、一、人、被、髮、
繫、柱、一、人、以、釘、刺、之、血、淋、滿、漉、頭、是、乃、竊、弄、兇、馬、
者、云、而、未、能、詳、知、

十二日晴、穿遠街三十里、牛炊、仍宿、

穿遠城外有鷓鴣山、山頂有嘔血塔、明末袁經異、
崇煥、寄此城、用紅夷砲、破清兵十萬於城外、清太、
宗、登、此、塔、嘔、血、痛、哭、而、去、祖、家、西、石、牌、接、在、城、中、
三層門、接、全、用、白、石、黃、赤、石、高、可、數、十、丈、砌、上、磚、

石獅石面刻畫雲龍極其奇巧第一層刻玉音二字第二層刻元戎初錫登壇駿烈第三層刻誥贈宦卿姓名乃祖鎮祖仁祖承教祖大樂四世恩賜也此柱聯刻二句曰松檟如新慶善培于四世琳瑯有赫賁永譽于千秋又曰桓趙興歌國倚干城之重、姝倫錫寵朝隆、彝鼎之夜、又一牌樓第一層刻玉音二字第二層刻忠貞、瞻智、廓清之列、第三層刻四世元戎少傅、下層刻四世官職、祖大壽四世恩賜也、大壽承訓子也、與大樂同祖從兄弟、而承訓壬辰倭亂、提兵救朝鮮者也、回想當時一門

思業曠絕千古、皇明倚若長城、而終貽隴西之恥、
可惜可歎、永寧寺在東頭、塔之南、寺之南、有溫井
二所、深冬水熱如沸、誠可異也、遠望西北一山、特
高、是紅羅山、世傳元順帝遁死處也、

十四日晴、沙河所三十里、午炊、中後所四十八里、宿
青墩、塔去海最近、水路朝天時、舟必來泊於此云、
而可觀日出、海色漸露、決濤接天、野外羣兒、遮路
賣鹽、執形如大藥果、甚精白、中後所明時、關防之
地、而吳三桂家曾在此地云、

十五日晴、涼水河四十里、午炊、中前所四十五里、宿、

中前所據櫓城堞之壯麗、與中後所相峙、有佐領
巡檢二衛、

十六日晴八里堡二十七里午炊紅花店十六里宿
是日入山海關、關外訪姜女廟姜女者、秦時范七
郎婦也、范死於長城之後、姜女登山頭石上、望夫
之遠、唐詩云山頭日日風和雨、行人歸來石應語
者此也、後人設祠奉塑像、立碑於望夫之所、碑曰
望夫石、碑面刻止此石三字、乾隆帝刻詩柱聯曰
千古無心誇節義、一身有死為綱常、門額題芳流
遼水、庭中豎姜女貞節之碑、又有振衣亭亭下石

刻作如是觀四字有重修貞節祠畧曰貞女姓許
名孟姜秦築長城役天下丁男數百萬潼關范七
郎死暴骸六驛下其妻孟姜走數千里出關負其
骨將投海以身殉之云云望夫石遠有乾隆御製
詩刻曰凄風先柳吼斜陽尚作悲聲助乃郎千古
無心誇節義一身有死為綱常由來此日猶羞女
盡道當年哭杞梁長見秦秦公懿好訛傳是處也
何妨廟中有王致中同蕭韻亭都護出塞詩又有
皇三子藤琴居士題詩四方城在關外二里許俗
稱清太宗引兵至長城下一夜築起俯瞰城中名

曰威遠塔、或曰吳三桂所築、亦曰吳王城、皆非也。
皇明萬曆間、經畧熊廷弼、楊應昌、費財鉅萬、厯數
年而就、與關內為犄角之勢、穿地道以通內外、今
則堙塞不可用、塔之高可十餘丈、廣可四五十間、
方隅井井、如口字形、自外望之、不見有出入之門、
及抵塔下、鑿城趾為竈、設紅霓小石門於竈城之
內、劣容一人之身、入其中、如井地之均整、城下鑿
穴為二十八所、似是藏兵之處、四隅築碑為塔、凡
歷六十七級、始抵塔上、則上方中空、塔上可容四
五百人、其北面則鋪軌稍廣、似是將塔也、上設睥

晚如城制、又置砲夫穴、四面共三十二竇、俯瞰四面、纖悉可覩、正閘露其全體、大海環其南、而長城一曲、宛在眼前、其東則遼野千里、皆几案物也、格外又以土城、四面環之、山海關大排鋪也、角山拂雲、渤海接天、介於其間、即古之榆關也、隋開皇間始築、唐曰五花城、明時中山王徐達增修之、而第一門題額山海關三字、世傳李斯筆、而朴燕岩詩曰、山海關門三大字、秦時已有漢時楷、詩史明證也、第二門扁曰天下第一關、重城層接、四達如寬、而扁曰祥霜博桑、凡七重門也、市肆牌樓、城堞崇

府之壯麗、大勝於瀋陽也、鉄鋼城在關南五里、城
缺不築、以鉄鋼遮之、外環紅柵、明末汎賊李自成
陷皇城時、吳三桂守山海關、內有李賊、外距清兵
而天下無主、徒擁虛器、遂貽書請救於睿親王、多
爾袞、睿親王許之、而恐見欺、請毀城一隅、然後入
關、蓋懲於寧遠、紅夷砲也、三桂亦許之、其後康熙
遺教不葺、皇駕幸關外、必由此路、以示安不忘危
之意、溪河、遼東、伯金、應河、鏖戰、殉節之地也、其植
立柳樹下、擊弓罵賊之狀、千載之下、可想其英風
義氣、令人起敬、

十七日晴、鳳凰站三十七里、午炊、榆關三十五里宿、
墩台自紅花店始設、至于皇城、范家庄是范文正
後裔所居之地、扁其門曰范文義、榆關即秦將
蒙恬種榆為塞處、居民極繁富、市中多斲木、木皆
拱抱、屋椽車材皆出於市、店舍極宏傑、塗以丹、墻
附以琉璃、三使一行、人共四百餘、馬共三百餘、太
平車六十餘、車各駕兩騾、又有中國商旅乘車者、
死數混入、皆恢恢容入於一店、其店中僮丁、應接
如流、騾馬解糧、散亂於廣庭、有大石槽三四十座、
屋後臨川、又新起一大第、云是四屋、主人劉翁年

八十餘、身長八尺、鬚白而面黑、多子孫、夫妻偕老、
聞其貨產不過七十萬銀、比之我國之茅舍煤店、
錢酒冷飯之貨、可謂大鋪叙也、沿路店舍蓋多、
澗而此處為最、

十八日風背陰、堡四十七里、午炊、永平府四十六里、
窳

文筆峰在撫寧縣、遠望突然而尖、峰下有昌黎舊
治、韓文公先塋、後裔尚多存者、山右文筆故撫寧
之士、最多文藝、西北之山、西峰相對尖起、名曰兔
耳山、山上有石柱、屹然特立、世傳韓文公讀書處、

後人立石紀之云、撫寧城中大街上、有三牌樓、一曰總督六鎮兵部尚書翟鵬、一曰兵部給事中王純、一曰青瑣名臣刑部給事中王印祥、制頒宏麗、人家門楣、文科進士等字、照耀人眼、貞烈程表、比屋相連、有兩家鎖鑰之門、扁似足知縣衙門也、書畫舖在路側、滿壁度床、盡是名畫、法書、各種書冊、一行諸人、賞玩、賣買、而真贋、終難辨也、皆陰堡背山臨溪、亦有松林、如我國慈秀店、沿路初見、溪山之趣、亦足以暢叙幽情也、十八里堡、即古之盧龍塞也、昔曹操北征、烏桓軍次無終、時方下雨、澇滯不

通、操患之以開田疇、疇曰、舊右北平治、在平剛道、
出盧龍、達于柳城、今尚有微逕、遂回軍、從盧龍口、
越白檀之險、出空虛之地、操以疇為鄉導、上徐無
山、登白龍堆、去柳城二百餘里、虜乃驚覺云、按永
平府、遼置遼興軍、金為南京、元曰興平、商之孤竹、
秦之遼西、漢之右北平、魏之盧龍塞也、城中有姜
太公廟、祀身古、今名將九十六人、庭有丁桂、蓋所
撰碑、乾隆時所立也、射帛石在灤河上、山下有溪、
飛將軍射帛處、七字碑、凶奴語曰、飛將軍不敢入
右北平、何等英勇、灤河西北二十里、有孤竹城、城

中有夷齊廟、日暮未往。

十九日晴、野鷄坨四十里、午炊、沙河驛二十里宿。

沙河以後地饒、桑棗栗在在成林、民以為業、古稱
燕秦千樹栗、與千戶侯者良以此也、有地桑種田
畔、年年刈葉以飼蚕、皮以造紙、枝則標作筐籠、張
家庄或曰棗庄、棗大如小兒拳、并皆宜土而然、歟
沙河之地、風沙漫天、人不得閉眼、年年使行、免此
患者鮮矣。

二十日晴、榛子店五十里、午炊、豐潤縣五十里宿。

紅廟者、四壁塗以紅粉、云是三官之廟、青龍橋高

數十丈設三水門於橋下虹霓連亘河水洄湧過
者凜然悚慄標子店和李文蘭詩蓋文蘭江南女
子也為瀋陽王章京所掠過此題詩壁上椎髻空
憐昔日粧征裙換着越羅裳爺孃生死知何處痛
殺春風上瀋陽詩下有小序曰奴江右虞尚卿秀
才妻也夫被戮奴被擄今為王章京所買戊午正
月二十一日灑淚掛壁書此惟望天下有心人見
而憐之又尾題李文蘭書全清城入燕見而傳之
余家齋過此和之曰江南女子洗紅粧遠向燕雲
淚滿裳一落殊方何日返定憐征雁每隨陽余亦

黯然懷古和之曰、寒天漠漠晚啼粧、尚憶阿娘作
嫁裳、夢裏江南春草綠、芳心應羨鴈隨陽、足可為
燕桂詩話也、店市多雜果、榛梨棗栗葡萄沙果之
類、味如新橘亦可異也、豐潤古右北平地、而縣之
南城、趙武靈王所築也、繁富御比、與撫寧相上下、
牌樓旌表亦多、街耀其中、都察御史谷嶠、浙江學
正谷應泰、乃是豐潤之巨族也、城外有四聖廟、王
皇廟、南門內有文昌閣、稍近有太學、制度不如瀋
陽、而有商時古鼎、在教諭所居之所、按朱異尊日
下、舊聞云、縣治內古鼎一、弘治間土人鑿井得之、

重五百斤、圓腹、鼻口四足、足上為牛首、下為牛蹄、
款識甚古、或以為商時物、云鼎腹刻古篆、不可盡
辨、與教諭諸生筆談而罷、

二十一日晴、沙沅河四十里、午炊、玉田縣四十里、宿
還鄉、河水頗濶、經豐潤、玉田、由還河入海、凡水皆
自西而東、此水獨西、故稱還鄉河、昔宋徽宗過河
橋、駐馬四顧、凄然曰、過此漸近大漠、吾安得似此
水、還鄉乎、不食而去、後人仍名其橋曰思鄉、高麗
僅蓋、丙子被擄、人所任、而子孫仍家焉、曾於此地
有村、殆百餘戶、每我國使行時、多有詰問其根派、

則輒相部然、雞犬剛答、故今皆移居于數椽地、此
村則此前甚蕭條云、自漢江至此數千里之間、始
有水田數百畝、非但地多沮洳、可以水耕、而亦是
我國人遺俗也、市有粟切餅、松餅之屬、俗謂之高
麗餅、此亦賣餅者、依樣我國之餅故也、自前我國
人多買食、故每使行之過此、村人擁路、扶杖而出、
爭先賣之、龍池蓋以隸書扁其門口、昆虛真如、又
曰迷津寶筏、庭有兩火樹、竦然直挺、三四十丈、大
二圍餘、即白楊樹也、僧龕掛山水圖、書其對聯一
句曰、天上碧桃和露種、日邊紅杏倚雲栽、于殿中

筆也、書法畫格俱極精妙、又有黑緞織出金剛、般
若、波羅真如經、字畫無刺紋、稍厚之痕、誠一寶玩
也、玉田古無終子國也、漢人楊翁伯者、虛龍人也、
事親以孝、葬父母於無終山、山高八十里、其上無
水、翁伯廬于墓側、晝夜號痛、神明感之、出泉于其
墓側、因引水就官道、以濟行人、嘗有飲焉者、以白
石一斗與之、令翁伯種之、當生美玉、果生白璧、長
二尺者數雙、徐氏有女、翁伯欲求婚、徐謂媒者曰、
得白璧一雙可成、翁伯以白璧五雙、遂婚徐氏、數
年、雲龍下迎、夫婦俱昇天、今謂其所為玉田坊、後

孫立大石柱于田中以紀其事。玉田之石以此也。
二十二日晴。鰲山店五十里。午炊。邦均店五十里。宿。
彩亭橋。在玉田西二十里。金學士楊繪所建。彩亭
繪碑也。橋面遠設石欄干。下設虹霓。大枯樹店路
北西山間。有枯樹高纔數丈。枝條不長。世傳此樹
枯先不花。不葉。若有真人起。則枯樹復花云。蜂山
驛山。椰子山。鰲山。皆隨形作名也。野中有宋家城。
宋之先豪富甲一鄉。財累鉅萬。僮指數千。明季清
人猾夏也。築城自保。累攻不下。及入主中國。然後
始降。請人怒之。使之歲貢葛草萬束。今于孫尚家

于此、荊州城古之漁陽也、路有漁陽橋、昔彭寵安
祿山之版、皆在此地、蓋漁陽之突騎勁兵、天下無
敵、故恃此而叛也、翠屏山石壁刻楊雄潘巧雲畫
像、此在水滸傳、楊雄殺潘巧雲、時說得痛快、
罵得痛快、一釘明鑿、斷送殘縷、胡為身刻石而紀
之、非潘女之遺醜、抑為楊家好漢一快事而傳之
後世耶、未可知也、荊門烟樹、皇都八景之一也、望
之恍惚、誠一奇觀、蓋烟樹空濛、野天一色、精氣成
彩、如烟非烟、如樹非樹、樓閣澹澹於空中、帆檣蕩
漾於海上、烟波浩渺、島嶼出沒、芥馬棗人來往於

其間頃刻變幻千態萬象、補翠之際、致此何氣而
然也、取其近似則壓接也、壓接猶可以海氣成也
此則強名之曰烟樹、非但薊門然也、一出遠野、往
往有之、候忽之間、明滅忽常、統稱曰薊門烟樹、呼
亦異矣哉、

二十三日晴、棗林庄四十里、午炊、燕郊堡四十五里
宿、

白澗店邊有尼姑菴、牆內多種白榦松、榦與澗音
同、故以此名之、隨家顧外有滹沱河、世稱光武水
渡處、而今之薊州、非古之薊州、則河亦非古之河

也。

二十四日晴、曉發、大五庄三十七里、午炊、東嶽廟十
八里小憩、入皇城、抵南小籠、十二里。

昨夕到燕郊堡、不脫衣假寐、聽鷄旋發、今日啟早
入皇城故也、車中和睡、矇眊之際、一行車轍轟轟
如雷聲、驚問之、已到通州、而石路自此築至皇城
五十里、而石戴車轍、故有轟轟之聲、時天尚未曙、
但聞雷聲而行、不知車外有何物也、聞皇城四門
外抵五十里、皆有石路、康熙築也、八里橋一名永
通橋、潞河、榆河、漳河、三河水、合于通州河、橋名連

河、元郭守敬所鑿，以通東南漕路，舟楫自此橋下
溯流入皇城，東嶽廟窮極壯麗，在朝陽門外，門是
皇城東門，而一名齊華門也。三使陪表，成班而入，
人看磨車穀聲，市肆城闕之繁華宏侈，非瀋陽山
海之比也。果是京師大都會也。唐詩云：不觀皇居
壯，安知天子尊。古之長安洛陽想一般也。玉河源
出玉泉山，經大內南流，出城外，河之南有玉河館，
一名南小館，使行入處，島瀋州，漢人慎恒，查等十
二人，羅拜於前，渠輩涉險萬里，風濤喫苦，兩年寒
暑，尤死一生，見我國人，如見家人，情景殆惻，將順

付回使姓留館中、使臣仍詣禮部呈表咨文、禮部
侍郎汪守化照受云、

二十五日晴留館、

余與朴雲、席劉念知同炕、皇帝賜使臣果饌、凡沿
路留館皆有日供饌物、而丙子後以不食周粟之
義使行受而給之、於行中軍、安州、義州兩軍、牢
之爭、策專以此也、蓋賞銀受之、供饌則不受之、恐
未免傷廉之政也、燕京屬順天府、本堯時幽都、遼
時曰南京、幽都府、宋宣和中、改名燕山府、尋復入
金、稱燕京、已而改稱中都、元初為燕京大興府、至

至元初、建中都、後改為大都路。皇明洪武初、為北平府、永樂初、改為順天府、自南遷都、號曰北京。十八年、庚子、宮殿成、廟社郊祀壇場宮城闕、悉倣南京、而壯麗過之。其地北枕居庸、西峙太行、東連山海、南俯中原、沃野千里、山川形勝、足以拱制天下。然北距遼塞、不過數百里、異乎居中而應四方矣。城周四十三里、高三丈五寸、城門凡九、南曰正陽、南之東曰崇文、南之西曰宣武、東曰朝陽、內廟曰辟雍、東之北曰東直、西之南曰阜城、內廟曰平則、西之北曰西直、北之東曰安定、北之西曰德勝。

從城南又築重城、自東北抱西南、北短而東西長、城
周二十里、牆袤三千二百二十五丈、有七門、南
曰永定、南之東曰壇、內稱曰左安、南之西曰草
橋、內稱曰右安、東曰廣渠、內稱曰沙窩、西曰廣寧
內、內稱曰彰義、東北曰東便、西北曰西便、統稱都城
曰皇都、稱宮城曰皇城、亦曰紫金城、皆築以甃甍
和灰石作心、外設睥睨、內障七垣、置城郭於其上、
間可二十步、城起平地、因山制險之道、城內起
土漸高、如階砌之級、其最高處、義興城相著、而設
門於其下、登降開閉、必由其門、而就其級、其制極

嚴祕、且置戍軍於城廊、日夜輪直、合為屢千名之
多矣。

二十六日晴、留館、

提督來館、中用視安、接與否、禁飭雜人而去、因禮
部知委、使臣詣鴻臚寺、行演禮、

二十七日風、留館、

見禮部知委、則朝鮮琉球使臣、皆祇迎恭宴而朝
鮮使臣、則瞻仰天顏、帶領人員、分扇攔阻、奉知委
各門、蓋異教也、

二十八日風、留館、

與副三房伴備朴松溪、朴夢暉、柳斯文諸人會話。
二十九日晴、留館。

曉頰、皇帝幸宗廟、使臣祖迎于午門外、仍進恭重
華宮宴、有賜物。

三十日晴、留館。

使臣曉進、恭保和殿、年終宴、有賜物、是日除夕也。
旅燈耿耿、家園杳漠、與同行諸人、討論懷抱、各陳
游賞之奇、四面但聞紙砲之聲、終夜聒耳。

己丑正月初一日晴、留館。

曉頰、使臣進恭正朝賀禮、於太和殿、是乃天子大

朝會也、列有太和會同記。

初二日晴、留館、

往見太學辟雍、歸路入雍和宮、列有太學辟雍記、

雍和宮記、

初三日晴、留館、

往見鄂羅斯館、列有鄂羅斯記、

初四日晴、留館、

方物車卜入奏、

初五日晴、留館、

皇帝幸天壇、使臣祇迎午門外、

初六日晴留館、

訪丁卯橋於春樹齋、別有春樹清譚、

初七日晴留館、

濟州潭人金光顯等、又到館、別有溧海錄、

初八日晴留館、

遊賞琉璃廠及演戲、

初九日雪留館、

觀幻術雜戲、別有幻戲演說、

初十日晴留館、

使臣恭崇光閣宴、皇帝賜酒賜物、御製詩七律一

首廣進

十一日晴、留館、

訪蕪小泉于榆西館、

十二日晴、留館、

興靈庫偕往太學、見平西金川碑文、

十三日晴、留館、

方物進貢、領綉於太和中和保和三殿庭庫中、而
照數入庫之時、見木色則外面者品數正稍細、裡
面則色黑而展、紙色則皆諭色、若昨新件者然、領
綉官大有嘖言、蓋是貢物屋人之弄奸、該司者品

時泛然受來者也、年貢事大之物、殊忽如此、異日
生梗、寧不憂歎、

十四日晴、西山三十里宿、

隨使臣早往西山圓明園宴、入虛大樹菴、午後進
園、看燈戲於山高水長閣、別有圓明園記、

十五日晴、西山宿、

使臣進祭圓明園宴、飯後往看虎園、午後進祭看
燈戲、昏後退宿庵中、

十六日微雪、玉河館三十里宿、

回館後、訪丁卯橋諸人、

十七日大雪留館、

十八日晴留館、

往看五龍亭諸勝、別有五龍亭記、

十九日晴、圍明園三十里宿、

隨使臣更往圍明園、入處大樹庵、午後進園看燈
戲、退宿庵中、

二十日晴、玉河館三十里宿、

往見西山諸勝、回路入萬壽寺、妙應寺、歷代帝王
廟、各有別記、

二十一日晴、留館、

訪蔣小泉、別有梅西館記、

二十二日晴、留館、

訪熊雲峯、

二十三日晴、留館、

訪吳蘭雪、有蘭雪詩龕、

二十四日晴、留館、

訪厲茶心、

二十五日晴、留館、

往見演戲、

二十六日晴、留館、

往見天壇冊拜、

二十七日晴、留館、

往見隆福市、

二十八日晴、留館、

使臣頌下馬宴、仍領上馬宴於先祿寺、又領賞於
午門外、祇受詔勅、

二十九日晴、留館、

往太學辟雍、回路入雍和宮、

二月初一日晴、留館、

往刑丁卯橋諸人

初二日晴留館

往見岳王廟別有岳王廟記

初三日晴留館

點檢行裝、受出回咨文、

初四日晴通州五十里宿

發送先來軍官譯官全載庫上房牌將朴有堂副
房牌將朴鎮煥房牌皆代送也、修封回還狀、及
勅書、賸草、廣進詩草、又付家書、仍即發行、出朝陽
門、人皆雨旆生翼、馬亦四蹄出火、有一凝千里之
意、甚矣懷土之思也、通州西門扁曰、神宗左輔、繁

麗富瞻亞於皇城而沿河上下、帆檣簇立、皆江南
船舶也、船制上設板屋、塗以丹雘、四面設窓、楹欄
楹貼琉璃、屋內有書、盡床、几、簞、等物、甚精緻、德藉船
上、距岸太高、設杉板、長可四五間者、橫亘而步上、
人皆艱辛、上下、雲序、逐下之際、戰戰兢兢、未及岸、
半間許、忽大言曰、何難之有、騰身躍出、跣足墮水、
船上船下一齊哄笑、余曰、為山九物、功虧一篑、渡
水百步、足跌半間、君之戰兢之心、有始無終、故江
神罰此一跌、雲序曰、魯速蹈海、今余蹈河、一樣者
也、何恨之有、余曰、何難變作何恨、是所謂哭不得

我國人入是菴、尼致意態、慈呈媚、獻態其人、惡其
太過、厲聲呵之、尼面發驛、愴然、靚然、聚其徒、亂嚷
云、獨樂寺在荊州城中、有二層閣、高曰觀音閣、題
太白二字、中安丈六金佛、被以黃金袈裟、下設蓮
花榻、開佛座、古有十圍大槐樹、僧徒卽其樹而刻
像、設殿云、後閣設長龕、有卧佛、長過二丈、以手加
額、眼矇眊、俗稱青蓮醉倒像、丈六佛乃青蓮細
君云、訛說也、瀛陽橋路邊有二石人、並肩而立、若
面縛者、然行人指點曰、穉山貴妃、昔為唐家亂階、
故刻石像、從而縛之、立於瀛陽之地、以謝千古云、

蓋中國人憤尚未泯故致有此說也、近地山上有
楊貴妃廟、又有安祿山廟、好事者假引為名、眩人
眼目、夫竹可罄也、石可罅也、青史炳炳、遺醜萬年
則又何立廟之理哉、煎酒味甲、關東、與諸人沽飲
而醉、獨樂寺禪室有眼藥、人稱神效、故買少許、副
房一行、昨日歷覽盤山來、聞其言曰、盤山有上中
下三盤、盤之一名盤龍山、即李愿所居盤谷也、山
中有行宮、白塔挺立於山腰、樞蹇如人、袁中郎盤
山記、此山八景、即紫蓋峰、騰雲峰、投閒橋、仙石嶺、
狼甲石、帳房石、菱角石、紅龍池、而外皆而中庸云、

云、一統志、山頂有一大石、搖之輒動、上有二龍潭、
下有潮井、鐸鉢泉、士商要覽言、呂純陽飛劍斬黃
龍、祥師處、仙鈕、猶挿山頂、有亭、單之、世傳盤山有
佛燈之靈、每除夕山之雲照寺、定光佛舍利塔、薊
州獨樂寺、觀音閣、通州孤山破塔、皆有燈出、互相
往來、滿盡各返、原處好事者、裹糧候之云、余於昔
年於秋陽書室、見一茶鍾、青絲色、細刻盤山小林
寺五字、感福山中光景、願一見之、今烏當西錯過、
可恨可恨、

初七日晴、盤山店三十里、午炊、至田縣五十里宿、

玉田小城也、然市肆撲地、樓閣如畫、後藉高麗、似
勝於荊州、文昌閣宏傑、扁其門額曰彪蔚燕南、
初八日晴、沙流河四十里、午炊、豐潤縣四十里宿、

自柵門至燕京、往返朝夕之供、未嘗喫沈菜、只喫
乾魚、酸漿、且遠野水濁、口胃真正難開、到豐潤、別
供一大碗沈菜、土產風味也、爽快殊絕、苳菜大如
芭蕉、汁如清油、諸人齊聲叫奇、一攫而喫盡、

初九日晴、榛子店五十里、午炊、沙河驛五十里宿、
春風霽然、向暖、游絲燼眼、細柳垂絲、永日長程、益
覺鄉園催歸之思、與朴雲序、劉念知、替相古談、以

逐睡魔

初十日靈野鷄坨二十里午炊永平府三十里宿

孤竹城門楹刻賢人舊里四字中有夷齊廟廟前

牌樓扁曰勅賜清節廟牆面大書清風百代四字

碑面刻獻聖遺墟即隸體也門左右各立一碑左

曰忠臣孝子右曰到今猶聖東牌門曰天地綱常

西牌門曰古今師範又有一門題清風可挹殿中

安伯夷叔齊兩塑像題其龜曰古之賢人乾隆筆

也其外題額詩章不可殫記廟北臨江之岸石窟

小如螺殼王弼州世貞吊伯夷賦刻在窟中云行

宮在廟左、簷楹忘樵、雕鏤奇巧、皆用玃檀木、適成
竹樹、庭有太湖石、從閣道上、清風坱圞、坱下松翠陰
映可愛、玃竹君廟、在灤河越岸、廟貌荒涼、可謂父
因子、賁流芳百世也、南望一山、陡起、世稱首陽山、
夫夷齊不食周粟、以餓死為自靖之道、奉身逃隱、
猶恐不深、則胡為乎隱於近園之山耶、凡使行入
此廟、必薇蕨作羹、例也、年前提行、以厨房之闕、羹
杖具乾糧、馬頭馬頭出門、哭曰、伯夷叔齊(林)呵死則
死矣、何必採薇、使我受杖、言雖總理、亦極絕例、射
虎石、漢李飛將軍壯績也、到堅碑處、轉眄之間、見

山腰有一白額大虎、擡頭努目、直視向人、若將吃
時、一行肅然、定睛視之、石也、想當時將軍以格數
之勇、乘其醉、斫之時、月色荒涼、林藪素微、猝然過
之、黃間大箭一發而鏃沒、石虎令人氣奪、如山、聞
五臺山、亦有射虎川、康熙皇帝二十年游覽、有虎
躍出林莽中、帝自射、立斃之、留虎皮於文殊院、又
親發三十天、獲兔二十九、松亭打圍、園又射獐、三大
虎、皆有圍畫、民間相賣買、誠神射也、
十一日晴、背陰堡四十六里、午炊、榆關四十七里、宿
唐人講春風昨夜到榆關、即此地也、距海三十里、

有蓮峰海市、鑿樓奇觀、一年數次、而花樹車馬、神仙樓閣、瞬息變幻、居人傳為異談、

十二日風、鳳凰店三十五里、午炊、紅花店三十七里、

宿、

角山寺在角山絕頂、俯視山海關、城大如斗、城府
閣井星羅棋錯、東南海水接天、西北峯壑奇壯磊
落、暨巫閼山來脈也、姜女廟、昌黎、棘、鞞、蒙古等地、
如蜂房蟻垤、自絕頂東遠、是蒙恬所築城也、望海
亭一名澄海樓、在長城城盡處、下臨滄漠、水天一
色、城入海水、城頭大石陡起、風濤擊石、聲振天地、

此隅有兩碑一曰天開海一曰一勺之多、大書特
書、字畫如椽、今日盡得山海壯觀也、又過永佑素
登樓觀碣石、時烟波浩渺、石峰嵯峨、俄而夕陽橫
射、碧波萬頃、變作一通銀汞、恍惚空明、膏襟灑落、
滿引一大白、醉詠而歸、

十三日晴八里堡十六里午炊中前所二十七里宿
使行人馬私商車上、同時出關、山海關將都統來
坐點檢而出之首譯金在、誅懇余曰、山海關將要
我國善書、願行中、無以應副、不副其願、利害不火
忘勞一場、揮灑如何、余辭以筆拙、全國懇不已、不

得已興首譯偕往、關將所與之筆談、寒暄後進茶、
酒果饌之屬、紙筆橋卓已滿一炕、遂揀筆蘸墨、縱
橫揮灑、關將連聲稱快、書未訖而紙愈添、蓋關中
人乞書者漸多故也、日已未刻、欲罷不能、首譯謂
余曰、使行已出關、只有吾兩人在、吾亦不得不先
行、有分辦使當使一將留待、關門外書畢、與上列
事馬頭王君一同為出關、店如何、余強應曰、讓
一行已遠、獨留關中、膽氣忽覺鞦韆、遂開懷暢飲、
隨意作大小字、疾書古文奇文警句、後時而畢、日
已中、牌辭輝、關將多贈紙筆墨、忙出關外、馬夫於

仁老味、牽鞍苦待之餘、喜色可掬、遂上馬疾馳、夜
深、進前站一行亦苦待、望眼欲穿、求乃慮無所不
到、云、來時見路邊石碣上、大書、先來初六日申時
過、三日七百里、果是飛撥也、

十四日晴、凉水河四十五里、午炊、中後所四十二里
宿、

昨日夜深、進站困憊、忒甚、且春晷舒長、楊柳有嫩
黃之色、餘睡未醒、如醉人乘馬、眼閉復闔、眉後重
於千斤、繞茅丹家之內、視忽作禪床之頓悟、霎時
間、復駸駸然入黑甜鄉、於斯之際、一身飛揚、悠悠

蕩蕩或還入皇城、或渡鴨綠水、或到金陵錢塘之
間、候忽雞狀、忽聞傷人一聲、叫墮馬、驚覺、據鞍、矍
然、開眼、不知行幾許里、而俄者、醉裏乾坤、夢中山
河、便成島有、

十五日晴、沙河所四十八里、午炊、寧遠衛三十里、宿
朝見一行人、質帽質襪、賤行紗、還蓋中、後所土產
也、羊毛染以各色、細而白、且柔者為上、皇城所賣
氈氍毹、氈氍毹亦然、

十六日晴、連山驛三十里、午炊、朱家庄二十七里、宿
路傍店肆、食品中、多炒鵝鴨卵、名曰炒卵、雲庫賒

酒而又嗜炒卵，余曰：君不見燕岩記乎？行中有盧
主簿者，嗜炒卵，站站買喫，行中婦曰：盧炒卵，今婦
子以朴炒卵，則奈何？傍人莫不捧腹。

十七日晴，松山堡三十八里，午炊，大凌河堡四十三
里宿。

曾見唐畫美人圖，皆眼白而斜視者，余甚怪之。今
見沿路婦女，聞軍卒喇叭聲，則纏足搖搖走出門，
前觀望，皆斜視，每門魚虜十餘人，皆一樣，果非傳
神之談也。

十八日風寒，大凌河宿。

風寒猝劇、冰漸塞河而下、領送官來言不可來險
渡河、余馳到河邊、觀其虛實、則河廣浩漫、冰漸亂
流、船不可行也、遂入店告舟使、且遂留宿、

十九日、風雪大作、大凌河宿、

大雪漫天、罩地、大風折木、揚沙、晝日晦冥、咫尺不
辨、唐詩云、燕山雪花大如席、果非誇張、而昨水大
風、想不過如是、人馬皆蜩縮、不敢出門一步地、此
地古戰場也、揮風恠雨、往往發作、誠非異事、余則
入坐深炕、終日焚香看書、

二十日晴、禿老婆店十八里宿、

午炊後自上流渡河，只有一小船，許多人馬卜物，次第登船，未往如梭，日色向晚，猶未半渡，見越岸河邊，有大車一二乘，一官負坐在門簾內，時時出頭遠望，後車載婢女，想必家眷也。聞其從人則潘陽人，部侍郎逆歸之行也。白朝至午，停車河邊，亦不競渡，午後其將從兩胡，年可三十許，帽子上懸翠翎，身掛扶袖短襖子，手執藤鞭，一躍登船，左衝右突，駭出我國人馬，使不得登船，刷馬驅人，草草不辟易，其豪健驍勇，亦足可怕。時北南車卜，并一時到河，兩岸車馬雲集，人皆隔水相望，彼兩胡恃

其驍勇、駘打人馬、全無懼意、上判車馬、頭王君一
宣川人也、身長八尺、有膽勇、挺身而出、手舉長板
三四丈者、攔置船頭、大呼一躍而上、手執短鞭、揮
打兩胡、氣勢堂堂、兩胡亦以鞭打三鞭、并舉船上
塵戟一場、一胡翻倒、一胡起打、兩岸人齊聲喝采、便
作戰陣、君一之笠子、隨手先破、兩胡之帽子、亦扯
去、只有光光頭相撞、一胡氣憤憤、高聲罵曰、我們
的老爺、如此寒風、停車終日、若待爾們的一行畢
渡、我們的老爺、夜深渡不得、君一瞑目曰、爾們的
老爺、誰知、萬歲爺、訪地方各官、護送我國使行、又

有領送官、爾們的不識萬歲爺法意、打人馬爭
船、競渡、今當告訴領送官、轉奏萬歲爺、爾們的老
爺、縱人行惡、罪宦何如一、胡搥腕口、萬歲爺誰知
萬歲爺誰知、君一言必猶萬歲爺、欲憑藉皇靈、嚇
喝、兩胡之計、而以誰知二字、怎難磨勘、計無奈何、
吃喝漸衰、全方替濟人馬、立於高阜上、見三個不
顧性命、混開一艘、慮急所不到、急使首譯、送報捉
來三漢、先竿跪君一、持棍欲打、大唱教罪口、汝不
知法意、與上國人、聞關、若至傷命之境、則將君之
何、又竿跪兩胡、溫言論之曰、汝輩開船、打之罪、

猶屬薄罪、俄聞汝言萬歲爺、誰知汝輩是上國官
司之人、果不知皇上之尊乎、焉有如許道理、兩胡
回嗔作笑、僕僕權謝、余即令君一、停止人馬、先渡
工部侍郎之行、兩胡魚數叩頭而去、駟車登船、瞽
眼渡河、侍郎又送兩胡、以口紙致謝、蓋我國人言
必稱萬歲爺、護行、而店肆津關之際、倚勢作梗、被
人莫敢誰何、亦一弊也、不有探來、安知無難言之
慮耶、夫楚國爭桑、而女子爭身、而國起釁、戰爭不
息、方其君一、蓄地見兩胡之鬧、萬丈業火勃然而
起、拳毆脚踢、不分要害、兩胡並力、不敢當一君一

若使西胡眼珠突出、腦漿迸流、潸然而斃、今日之
事、誰當其咎、且西胡持鞭躍船、氣岸豪雄、忽被君
一之斬打、性氣如火、及余據理責之、光明正大、則
當下叩頭稱謝、此乃中國人見理自屈、本性然也、
二十一日晴、開陽驛五十二里、午炊、廣寧站四十里
宿、

關光英和、權寵當朝第一、而以陵後事、遭彈竄配
黑龍江、今將信道而往云、曾聞英和奉勅我國也、
我國適值有事、不得不趁期入京、故信道在斯、翌
日見館壁題曰、日馳三百里、今日可謂日馳三

百里嘯也、豈非言識也、

二十二日晴、風中安堡三十八里、午炊、小黑山三十里宿、

上房幹事的劉哥、狼子山人也、身軀長大、為人淳厚、馬頭輩皆善待之、坐車頭善唱歌、又善我國言語、或效喇卡軍字聽令、使臣亦任其戲謔、長程消日、亦無妨也、今日路上、蒙古一騎、駝馬數百匹、皆脫羈自行、蒙古以一鞭駝之一、馬談抵上房車前、劉哥以鞭打之、蒙古忽馳騎、遮車、大吃唱曰、我的馬打也、我的馬打也、爾知這誰的馬也、這是萬歲

爺賞馬也、狀貌如鍾馗、道士吃唱之勢、若非人類、甚危怕、而使臣坐車中自如、無可施、余出馬急向前、以溫言致謝、復回頭唱責劉哥、劉哥垂頭無語、蒙古始乃解思、回騎而去、口中嘖嘖有說、余謂同行曰、彼之氣勢、若不可以仁義說也、一言便解去、言忠信、行篤敬、雖蠻貊之邦、可行、聖人豈欺我哉、二十三日、風二道、升五十里、午炊、白旗堡三十八里、宿。

夜與諸譯、共說游覽之勝、有一人說通、昨春入桃花洞、時奉山水絕勝、令人健羨、余癖於游覽、而今

行虛過、不堪悵恨、遂擬拾談餘作桃花洞記、以備
日後之覽。

二十四日晴、新民屯五十里、午炊、孤家子三十五里
宿。

周流河、柳河、溝、素稱沮洳、際津而春冰未解、坦路
駭車而過、挽逆罕有、行過一溝、有涉水軍、看皮講
立水中、濟人索錢、負余入溝、冰滑、跌在、因負而坐。
水、雖有孟賁之勇、孔明之知、到此地頭、無計可施。
其坐水之際、徐徐而下、余隨其坐、勢而連呼、此漢
此漢、涉水之胡、不知此漢之為何、樣、語、嗟然驚起。

仍負而登岸、下衣全濕、兩岸人皆哄笑曰、此漢此漢云誰、此漢被胡安知、此漢設或知之、伊時此漢奈何、靈犀拍掌曰、此漢此漢、通州墮水之嘲、今日狀報、蓋此漢二字、朝鮮兩班之口氣也、今日忽當危急之時、率口而發、慙愧且嘔、

二十五日晴、大方身五十里、午炊、瀋陽四十五里、初八瀋陽、自謂天下壯觀、無輸於此、及見皇城而遠、更不欲游覽、由奢八儉、儘乎難矣、今日先送軍、年一居于柵門、預通到柵日字、北留柵灣、校例也、
付家書、

二十六日晴、白塔堡二十里、午炊、十里河舖四十里
宿。

長盛店路傍有大石碑、折而棄之、聞是乾隆時車
載致折云、非但石品可惜、浪費想不貲也、十里河
舖有夜合樹甚奇、

二十七日晴、爛泥堡二十七里、午炊、迎水寺二十八
里宿。

自潘以後、春冰漸解、泥濘而爛、泥堡尤甚、路多透
行、車輪粘地、馬腹浸泥、移動不得、鞭策亂下、然後
驟馬竦身跳出、終日泥海中、有若泥中之闕數、上

房雙轎馬、經冬骨立之餘、顛仆泥中、氣盡不能起、
余下馬、以其馬代駕雙轎、此馬體太小而駭骨也、
嘶風而走、泥濘之中、如踏平地、甚快意也、余步行、
數馬場、路側有行中空馬、奪騎馳走、又晚其傍、有
胡兒善馬、聽騎接話、先結清心丸一箇、胡大喜之、
余曰、爾們的馬很好、我們的欲換騎一馳、何如、胡
即刻下馬、換給、遂按轡而走、平原廣野、馳驟如意、
馳馬遠野、亦一快事也、

二十八日晴、王寶塔三十里、午炊、狼山_子山四十里、宿
渡太子河、過木廠、居民頗盛、鉅斲棟樑之材、時積

如塵曾聞此處人、沿江上流、偷斫於我國廢四郡
地、待水成、作筏而下、或誤從鴨江而流下、則濟人
獲其利、

二十九日晴、甜水站三十里、午炊、連山關四十里宿、
是日踰小石、青石、會寧三險嶺、而到會寧嶺上、遇
義州饌、物色更近鄉情、更恟不敢問來人、果是古
人之寫真境也、聞洪翰林出寧般山、今方迎候於
灣上、而其胤原鍾甫、聞經重宦、國家太平、經年喜
消息、而家書未及見、研菀不可理也、夕站灣、吏屠
一隻牛、分饋上下、又有紅露沈菹之饋、飢腸敗胃

之人、饒口梁措、亦可觀也、

三十日晴、草河口三十五里午炊、通遠堡二十五里
宿

今日午站、一行相問家鄉安信、兼得灣府饋物、可
謂故國風味、酌酒相勸、曠然一醉、

三月初一日晴、黃家庄三十五里午炊、薛劉站二十
五里宿、

像人安貞赫、金英而西人、各得上房、賞馬一匹、安
馬則健大善步、金馬則纔出朝陽門、息甚、蕭然死、
百穀行一步、金像憂歎成病、復曰、鷄肋、安像頭戴

竹絲笠懸翠羽、身着紫袖、縷緋袂、袖短襖子、腰繫
藍禾袖、纏帶、手執紫藤鞭、挺身跨馬、意氣揚揚、馳
出遠野、路傍觀者、嘖嘖稱美、少年及到黃家庄、馬
忽顛斃、黃車而行、回見金像之馬、病已瘳、嘶風疾
走、余謂西像曰、今行汝輩、倍增閱歷、凡天下事、得
失、付之塞翁、馬豈可妄想經營乎、

初二日晴、回塔子二十九里、午炊、柵門五十一里、宿
到柵時、灣府官屬、具迎、初彩輿、儀仗、葦物、未迎、灣
高、輦彌滿柵內、開市、故也、

初三日雨、雪、留柵、

我國又隔一帶鴨江矣、歸心涓涓、如矢在弦、如水
奔流、而積德之餘、好作休息、遂可幸也。

初四日而留柵、

一行轎馬、籠馬蹇馬、并先送灣上、濟州漂人亦先
出送、渠輩万死餘生、特蒙上房慈悲之思、得病垂
危之人、皆以參劑救之、行李物件之見、尊拉領來
^者杖之、喝之一、一推給、或慮侵索之弊、站站招見、慰
諭周至、有若衆子之依慈母、得保至此、今當拜別、
涕淚汎濶、不忍去、噫、仁人之德、決人骨髓、而被押
領諸人、百計謀奪、既迫、特甚、萬里殊方、抑獨何心、

初五日晴留柵、

車卜不到、沮洳之路、而後便成泥海、日行不過三五里、云、悶、竟不可狀、別遣譯官、連加督促、

初六日晴留柵、

漁獐前川、又登鳳凰山、嫩柳早花、景致頗好、足暢羈愁也、

初七日晴留柵、

憶蕭頰蘇終日修正日記、

初八日晴留柵、

往關廟、與閑教授筆談、別有留柵錄、

初九日晴、留柙、

車十齋到大車六七十、連巨柙內、有若帆檣之簇
五、每年使行銀券入燕之數、不知幾千、而中國雜
貨之東輸者、若緞、綉、藥材、針、帽、書、籍、可用之外、珠
璣、扇、香、驢、騾、鷓、鴒、毡、毯、鏡、帶、紙、硯、筆、墨、等、珠、恆、之
物、非、國、之、寶、也、徒、陪、小、邦、奢、侈、之、漸、誠、非、細、慮、也、
我國禁物、金、琴、茄、榧、而、被、人、禁、物、兵、書、兵、器、駝、馬、
金、鐵、象、毛、黑、角、等、物、而、皆、搜、驗、出、柙、潛、商、輩、睚、眦、
謀、免、之、狀、可、憎、可、笑、

初十日晴、留柙、

一行束裝有投鞭渡江之意、首驛往請鳳城將使
之明早開柵、

十一日晴、溫井坪五十二里宿、

書狀落留柵外、點檢貨色例也、一行遂馳出柵外、
意如脫籠之鳥、真所謂青春作伴好還鄉也、泥路
經雨、魚異爛泥堡、艱辛抵站、少憩、步出川遠、野色
開朗、羣山平遠、映帶溫井園、以石籠泉、脈湧如蟹
眼、暖氣騰騰、下隸、草腥腥、沐浴者、遍滿川中、

十二日晴、九連城三十八里、午炊、義州三十里宿、

半日泥海中、備嘗艱苦、到九連城、轉趨七山角、忽

見灣堞周遭，統軍身擐出城頭，一行上下齊聲叫。
喜如見家鄉，昔龍蛇之亂，李提督提兵到此，見朝
鮮山川出沒，雲海中，擊師鼓勇，語甚慷慨，畢竟裝
齒羣醜，掃蕩而還，至今想像其風威，令人氣壯，渡
三江，灣尹設幕來待，於江邊我國人毋論，知與不
知，皆來賀太平好，遂入情然也。旣山倅，控手江頭，
其喜可知，見家中安信，子婦順婉生女。

十三日雨留灣、

換看一副春衣，輕體如飛，對喫滿桌珍饌，腥胃自
開，回想經冬戎衣，馳逐胡塵中，風餐露宿，宛若一

夢古人從事塞外凱歌還鄉并復此是耶

十四日風留灣

登統軍亭觀妓樂回館修留灣錄

十五日晴所事館三十五里午炊龍川四十里宿

箭門嶺以後天氣向暖林花爛發樹葉方濃頓無

邊塞風氣

十六日晴鐵山館三十里午炊宣川四十五里宿

天淵亭設樂置酒檻外細柳垂垂嫩綠惹人離思

昔我往矣雨雪霏霏今我來思楊柳依依始知古

人之模寫逼真東林城路左右拱抱之松黛色叅

天陰陰森森白日行人、指自慄慄亦一閑隘也、

十七日晴、宣川留、

倚釧亭設妓樂、有項莊舞者、排鋪鴻門宴、項羽、沛公范增、張良、項伯、樊噲、儼然列坐、玉斗危酒、捧盾直入之狀、無不畢具、其中一健妓、著假面、帶釧、請舞、翩然起舞、釧勢閃閃、睥睨進退、其意在沛公、項伯又起舞、遮之、一妓為沛公像、無限受困、舞罷、斂然作色曰、從今以往、寧死不願為沛公、有若此事者、然、舉坐莫不捧腹、

十八日晴、郭山五十里、午炊、定州三十里宿、

馬頭張亨得告別定州是渠家鄉也萬里日行之
餘不勝悵然亨得屢次燕行善溪語善古談且竭
力護行勤意可尚蓬蒿之野有一農夫販獨輪車
兩身執雙杠若捨一杠之手則車必傾仆車中載
糞灰亨得以杖粘糞塗農人之鼻農人擺頭搖搖
不敢捨杠路人皆絕倒余責其不良亨得荅曰若
不如是永日長程何以消遣開口笑乎渠之善戲
謔皆此類也

十九日晴嘉山六十里午炊博川大定江三十里林
西安州四十里宿

路中見西南諸峰、松翠蒼蔚、雲烟縹緲、令人神造。
是寧遠藥山也、登百祥樓、趙經旣款迎、趙是五入
燕京者也、各叙游覽詩話之勝、旣問吳蘭雪、縹
梅澗消息、趙之至交也、留贈後村集兩頁、

二十日晴、在州留、

八連籌軒觀妓樂、與趙友存、恭叙話昔、歸館所劉
會、知獨留、終日與營妓錦香、綉綉、不忍捨、蓋昨冬
初、教程也、與雲序、劉念、知、柯、遠、行、往、返、相、勉、慎、攝、
至于今、睽、枕、一、室、劉、念、知、今、見、錦、香、之、嬌、艷、真、情、
難、捨、余、謂、雲、序、曰、花、田、不、可、榭、火、吾、謹、避、之、身、遂、

設洞房花燭、行鸞杯禮、鎖窓而出、與雲屏擁衾、
宿於隔壁之房、想其久阻之餘、雲雨狼籍、無所不
至、可一噓也、

二十一日晴、肅川六十里、午炊、順安六十里、宿、

肅川路傍、有李侯儒秀善政碑、蓋李侯在四賊時、
莅此邑、而適以歉年、請糴事上京、翌日聞變、即辭、
廟堂信道、遂官、慰旅邑民、一遺名募兵馬、即赴安、
陵、又出戰、定州城下、累達奇功、其御衆收民之材、
臨亂赴敵之忠、今世罕有、當其未及還官也、邑居、
賊路要衝、故吏民將欲漢敵、皆荷櫜而立、其夫人

邊氏獨與一子二女在街，街屬皆泣請避山谷中。
邊氏曰：吾何往？干戈攘攘之時，婦人顛仆道路，非
禮也。令豎不出數日，必還官。若未及還官而賊至，
則死於街中，此其所也。與兩女各佩一小刀，以自
警。招鄉將吏，以於簾席門外，嚴明戒飭曰：此邑是
西路要衝之地，賊起隣境，萬一不守，關係不小。且
邑民觀望，官家去就，今將漢敵云，急為曉諭一境。
曰：官家內衙尚不避亂，官家今明將還官，汝輩情
此忌惡，皆安堵如故。又使庶首急募兵，先赴兵營，
以待指揮。凡邑事之太者，官家還官前皆來稟報。

簾席門外一出令吏民有時一境賴而完李公還
官後區處邑事即發赴戰之行回語臺中曰何不
問家事夫人曰家事唯余在無阻心掛戰功報國
恩好好凱還了無難色李侯余素親切間而嘗語
及此事曰此烈丈夫之所難而婦人能辦之當時
保肅色夫人之功也余結髮三十年但知其孝友
淑德而已至其臨亂處事始服其識量云後李侯
沒夫人不解衣帶關月救病仍服藥罔日下挺而
李公屢與聞邑夫人衣無餘什蓋常時盡散於親
戚之貧窮者故也洛下多士發文至蒙旌褒今余

過甬邑邑之吏民咸適其時事或有出涕者噫事
侯之忠、遶氏之節、可謂並美於國家而其庶胤一
人、亦以夫人之命承嫡者零落湖右、無人收郵、今
見一瓦貞珉、咨嗟歎歎之心、烏可禁乎、

二十二日晴、平壤五十里宿、

箕城之繁華、盛於麗朝西京時、而屢經兵燹、依舊
自如、人或比之江南銷金巷、蓋其士女之都、冶物
貨、峙積、江山樓台之秀麗、可謂國中第一、

二十三日晴、平壤宿、

趙愈、使楊州人也、生長峽邑、為人淳慤、初見沮城、

歆羨不已乃言曰、吾年將七十、鬢髮雙玉、有子有孫、此外更何求也、但不知天壤間、有此別世界、若使我携美妓三四、設笙歌、排酒肴、泛酒(舟)於綾羅浮碧清流之下、則死無餘恨、余嗟安在、係辦洋濟勝之具、偕往遨遊、竟夕而還、頃城少年亦多從之、余在亭上、望見一片畫舫、繞以青布、蕭然白髮、當中而坐、左扶美娥、右接少年、杯盤狼籍、管絃迭奏、未幾、於烟波浩渺之中、渠非神仙、誰是神仙、及大醉下船、余問樂手、醉眼矇眊、答曰、死無恨矣、但家有老妻、若聞此行樂、則必大喚笑、曰、何謂也、曰、結

髮偕老尚今不返房外女色素有些盟約身自籍
屏風裡設頭設脚大破我矣座中大笑今日君果
是青旗下人也曰青旗何謂也曰古有一大將聞
武場中立紅旗青旗於面傷出令曰軍中畏妻者
立青旗下諸軍皆走立紅旗下獨一人立青旗下
大將招其人以不畏妻賜酒獎誦之曰此剛腸之
人也問汝以何術獨不畏妻乎其人曰小人之妻
妬甚嘗謂小人曰男子三人會坐則必作色談平
生慎勿往細坐中示人寧犯將令難違妻言故不
敢往紅旗下云以此觀之君非青旗人乎從今以

後必呼君曰趙青嶺，舉坐又哄笑一場。

二十四日晴，中和五十里宿。

乘碧溪浮槎，渡大同江，江頭有錦沙，繡衣善政碑。其時繡衣別單，刀陳各色，立碑之弊，使之痛禁，而不禁日後自己之碑，民情終不可遏耶。長林春色，大勝於昨冬入去之時。古人詩云：却嫌林盡綠，驅驢者，實際語也。中和新倂，鄭寅基迎接頗勤。

二十五日雨，黃州五十里宿。

塔屬皆未見，款迎而到此，倍覺愴焉。因塔西路關防重鎮也，數十年來，凋弊太甚，餉穀日罄，勅錢漸

耗城堞、榑額圯不修、營屬科薄而通多、將至漢
敬之境、往在乙酉、從先令監莅茲營、深軫蘇弊、狀
請武學錢定為歲入之資、繕修城廨、添設庫料、組
練防軍、講習武技、吏校奴令饋通、勸捧、幾成完局、
而翌年捐館、渠輩皆賴而保存、至今泣誦遺愛、

二十六日晴、黃州留、

三使齋會、程仁閣、設樂、大樂府名色、有獅子舞、鶴
舞、身白舞、錦江舞、拋毬、落釘舞、鼓舞、獻蟠桃、虛容
舞、關東舞、鴻門宴、其中又有排打羅其曲、方言如
云、蝦籠也、始出於水路、朝天時、置畫船於道上、選

童妓一雙、扮作小校、朱笠、貝纓、插虎鬚、紅天翼、白
羽箭、左執弓、弭、右握鞭、鞘、前作軍、後唱、初吹、出立
軒頭、唱、喝、金、二、下、大、吹、打、庭、中、動、鼓、角、羣、妓、皆、羅
衫、繡、裙、繞、船、齊、唱、解、纜、之、歌、又、唱、二、吹、三、吹、訖、一
童、妓、扮、作、小、校、紅、衣、羽、笠、立、船、上、唱、舉、碇、碇、庭、中
放、一、碇、仍、收、碇、舉、帆、船、作、轉、輒、徐、徐、轉、之、作、行、船
形、羣、妓、又、繞、船、齊、歌、且、祝、之、其、曲、悽、悵、令、人、斷、腸、
其、歌、曰、碇、舉、兮、船、離、此、時、去、兮、何、時、來、萬、頃、滄、波
兮、平、盪、野、水、去、似、迴、昔、李、洗、馬、吳、蓮、作、水、路、朝、天
歌、詞、皆、悽、惋、香、詞、瀏、亮、李、丈、義、云、宰、此、色、時、新、翻

此詞教習諸妓、故令黃罔解纜之曲、獨異於他處、
蓋水路朝天之行、生離遠別、人間墮淚處、而又添
以斷腸之詞、想得伊時先景、不覺傷心、空竹樓使

小妓編竹樓記

二十七日晴、鳳山四十里宿、

昔麟坪大君奉使入燕、以供億之草率、狀聞、梟鳳
山郡守、馬頭輩、若見支供之慢忽、輒循此事、此豈
係前例、遵行之事乎、遂發一笑、長調、俾洪友應變、
支站到此、洪是竹馬友也、三十年後、邂逅殊鄉、各
叙幼時戲嬉之事、到今、白紵如始、歎人世轉瞬、開

也

二十八日晴、鈿水三十里、午炊、瑞興四十里宿。

瑞興街軒之北、有新榭一小、身六、後軒、乘月而
上、聽琴歌、有眇然一小、岐、年、鏡、十五、唱黃鸝詞、白
鷓鴣詞、竹枝詞、勸酒歌、路軍樂、歸去來辭、襄陽歌、岳
陽樓記、赤壁賦、關東別曲、春眠曲、梧桐秋夜歌、初
若鶯語之間、閑、忽似鶴唳之、濛亮、櫻唇、咕、囁、津、津
流出、可謂姑娘中博識也。

二十九日晴、慈秀五十里、午炊、平山三十里宿。

慈秀蒼壁上、有天使朱之蕃、筆、玉、溜、泉、三字、又刻

天使畫像、小憩其下、烹茶酌酒、水味極清冽、

四月初一日晴、金川三十里、午炊、青石洞三十里、

馬松京四十里宿、

訪雙瀑紫霞之洞、見山谷之間、桃花爛開、數三村
庄、往往依山而居、隱映於花木之中、是惟李草堂
金草堂也、幽閒可愛、余三過松京而不入大興山
城、朴淵壯觀、耿耿在心、願語雲庠曰、今行還家、休
憊幾日、與會心人數三、更理行裝、竹杖芒鞋、翩然
出郊、轉入朴淵、跌宕而還、君能從我遊乎、雲庠曰
觀北海、難為水、無已、太康、余曰、入中國、不見廬山

瀑布一大恨也且飽喫腥塵風沙之餘蕩滌於此
淵之瀑亦豈非清淨世界耶雲屏曰好則好笑

初二日晴長湍四十里午炊坡州四十里宿

臨湍一帶花柳爛熳遂與同行諸人揀一小舟沿
迴一晌頓忘行役之勞又憩花石亭賦詩酌酒日
暮馳入坡山館

初三日晴高陽四十里宿

歷入梧柳洞壑姪家午飯田家風味疎淡可愛勝
於官俸之方丈矣畧道游覽之勝馳入碧蹄館一
行諸人已登五中塔

初四日晴、夕雨、弘濟院三十里、小憩、京城十里、還家、
自高陽至弘濟院、京中親戚知為、連續出迎、欣握
叙話、其喜可掬、到幕、華館迎詔、儀節已待候、使臣
降勅書、詣闕、余直為還家、家內太平、

燕紀程地

卷九十八

98
一三七五

一行總錄

太和殿

歷代帝王廟

入柩報單

紫光閣

雍和宮

衙官姓名

五龍亭

妙應寺

方物歲幣式

萬佛樓

東嶽廟

三使臣日供

文廟

虎園

留館時公役

太學辟雍

岳王廟

賞賜物件

石鼓辨

萬壽寺

道里

文丞堂(相照)祠堂

西山

留館雜錄

花草舖

圓明園

規圖

官貨房

太平春燈記

梅花硯記

鄂羅斯館

黃金始葛基

蒙古館

萬柳堂舊基

深源錄

蘆溝橋

江南樓船

金魚池

大樹菴記

琉璃廠

車燈漫錄

冊肆

幻術

怪物

演戲

燕薊紀程卷之二

正使資憲大夫漢城判尹洪起燮

軍官前郎廳朴思浩

折衝劉光祐

察訪玄雲瑞

伴備知學朴載宏

乾糧官前主簿卞宗龜

州陪行護軍金仁述

中房安廷赫

李春永

乾糧庫子金希信

上騎馬一匹中騎馬三匹籠馬一匹兼
濟馬二匹軍官馬三匹伴備刷馬一匹

副使嘉善大夫戶曹叅判柳鼎養

軍官前郎廳曹鍾振

前主簿崔塾

前主簿金應泰

伴備幼等柳

李

乾糧官前主簿李明曦

別陪行前主簿

中房金大成

乾糧庫子劉

上騎馬一匹中騎馬二匹兼

濟馬二匹籠馬一匹

書狀通訓大夫司憲府掌令朴宗吉

軍官前郎廳趙鎮行

伴備知學朴宗道

朴宗完

乾糧官前僉正李一連

別陪行前奉事韓相述

行教授金達鍾

中房李在成

乾糧庫子鄭殷孫

上騎馬一匹中騎馬一匹籠

馬一匹

譯官一堂上崇祿大夫金在洙

二堂上崇政大夫金相諤

三堂上折衝將軍朴明墳

四堂上折衝將軍李元榮

漢學上通事前僉正劉榮祐

清學上通事前判官趙顯瑜

公幹前僉正李 陞

掌務官前判官金信遇

一從事官前僉正李一達

二從事官前僉正洪得恭

三從事官前僉正李經修

四從事官前主簿卞鍾九

五從事官前主簿金載墜

六從事官前主簿金寅協

七從事官前主簿李明曦羲

八從事官前奉事李明五

九從事官前奉事李希綱

十從事官前奉事韓相述

十一從事官 李貞植

十二從事官前奉事金性詢

十三從事官前奉事高在暖

偶語別差前奉事朴鎮煥

醫員前奉事朴有堂

寫字官嘉善高景斌

盧貞行教授金建鍾

日官前參奉李好基

灣上軍官朴來善

枳外中軍李邦翼

執事金文道

全學初

表咨文馬頭一名、方物馬頭二名、木物馬頭五名、
歲幣米馬頭一名、尚方貿易載刷馬二匹、內局貿
易載刷馬九匹、求急藥材載刷馬一匹、北灣上馬
七匹、驛子都卜馬九匹、元盤煙載馬十八匹、刺盤

纏載馬八匹、乾糧載馬七匹、柁籠載馬五匹、帳幕
載馬四匹、咨文載馬一匹、公用銀載馬四匹、

八棚報單

三使臣 大通官三員、押物官二十四員、從人三十
名、驛卒二十七名、咨文載馬一匹、驛馬四十二匹、
帳幕載馬三匹、乾糧載馬四十匹、柁籠載馬十匹、鋪
蓋載馬七匹、私卜馬四十五匹、已上具驢人、人共
二百五十三員、馬共一百九十六匹、 歲幣一百
五十一包、方物四包、貢米六十八包、開皮十包、柁籠
十包、白木十五包、海參五十包、壯紙四十包、白紙四

十色扇子五色

柵內衙門官人姓名

鳳凰城將常安

瀋陽將軍奕穎

山海關將蘇盛穎

領送官巴克塘啊

通官德英待令吉勒通阿 英祥 安泰 英芳 那

彥布 穎勒金太 德祿 福森布

方物歲幣式

御前萬壽聖節進賀禮物

黃細苧布十疋匹 白細苧布二十疋匹 黃細綿紬三十
 疋 紫細綿紬二十疋匹 白細綿紬二十疋匹 龍文
 簾席二張 黃花席二十張 滿花方席二十張 雜
 彩花席二十張 櫬皮二十張 白綿紙一千四百
 卷 粘六張 厚油紙十部

中宮前

紅細苧布十疋匹 白細苧布二十疋匹 紫細綿紬二
 十疋匹 白細綿紬十疋匹 黃花席十張 滿花方
 席十張 雜彩花席十張

御前冬至令節進賀禮物

黃細苧布十匹、白細苧布二十匹、黃細綿紬
 二十匹、白細綿紬二十匹、龍文簾席二張、
 黃花席二十張、滿花席二十張、滿花方席二
 十張補進、雜彩花席二十張、白綿紙一千三
 百卷、

中宮前

螺鈿梳函一事奉進、紅細苧布十匹補進、白
 細苧布二十匹、紫細綿紬二十匹、白細綿紬
 十匹、黃花席十張、滿花席十張、雜彩花席
 十張、

御前正朔令節進賀禮物、

黃細苧布十疋、匹 白細苧布二十疋、匹 黃細綿袖

二十疋、匹 白細綿袖二十疋、匹 龍文簾席二張、

黃花席十五張、 滿花席十五張、 滿花方席十

五張、 雜彩花席十五張、 白綿紙一千三

百卷、

中宮前、

螺鈿梳函一事奉進、 紅細苧布十疋、匹 補進、 白

細苧布二十疋、匹 紫細綿袖二十疋、匹 白細綿袖

十疋、匹 黃花席十張、 白花席十張、 雜彩花席

十張、

御前進貢禮物、

白苧布二百匹、紅綿紬一百匹、綠綿紬一百匹、
白綿紬二百匹、白木綿一千匹、木綿二匹、
五爪龍席二張、各樣花席二十張、鹿皮一百張、
獺皮三百張、好腰刀十把、好大紙二千卷、
好小紙三千卷、粘米四十石、

盛京截留今年歲幣、

紅紬一百匹、綠紬一百匹、好大紙一百卷、
好小紙二千一百十卷、生上木三百匹、粘米

三石五斗四升、

三使臣每日應各給

凡於入京日、舊例只自先祿寺、送米一石八斗、猪

肉三十六斤、酒九十瓶、茶五斤十兩、鹽醬各九斤、

油四斤八兩、菜蓼十五斤、葶物五日一次、出荷谷

順治以後、戶部供糧料、工部供柴炭、兩草器四、先

祿寺供各樣饌飯

日供水稻米二升、鵝一隻、鷄一隻、魚一尾、

猪半斤、漢羊半隻、牛乳半錠、白麵二斤、

醬瓜四兩、清醬六兩、醃菜三斤、黃酒六盞、

豆腐二斤、醬六兩、醋十兩、香油一兩、
茶葉一兩、花椒一錢、鹽一兩、燈油二兩、
每五日共應給

蘋果七十五枚、梨七十五枚、葡萄七斤半、
棗七斤半、沙菓一百十二枚、

大通官三負、押物官二十三負、每日應各給、

白米一升、鷄一隻、猪肉二斤、白麵一斤、
醃菜一斤、黃酒一壘、鹽一兩、豆腐一斤、
清醬二兩、香油四錢、醬四兩、燈油二兩、
椒五分、茶葉五錢、

得賞從人二十九名

白米一升、猪肉一斤半、白麵半斤、醃菜八兩、鹽一兩、黃酒共壹大壺、燈油共十二兩、

總賞從人二百四十二名、

白米一升、猪肉半斤、醃菜四兩、醬二兩、鹽一兩

路費漢軍例給、正副使隔四日二隻、書狀官一隻、大通官三十斤、押物官二十斤、從人十斤、自光祿寺、路費軍肉價銀子五十兩五錢、大通官三員、各一兩九錢、押物官二十四員、各一

西二錢、從人三十名、各八錢、

馬每匹太四升、草二束、柴二斤、

留館應行公役

禮部表咨文呈納、

鴻臚寺朝賀演儀、

太廟祫祭時祇迎、

中和殿筵宴、

保和殿年終宴、

太和殿朝賀禮、

壽皇殿行禮時祇迎、

祈穀壇親祭齋宿時祇迎、

祈穀壇禮成送宮時祇迎、

紫光閣入宴、

圓明園舉行時祇迎、

山高水長閣燈戲、

正大光明殿放生宴、

午門頒賞、

禮部領宴、

賞賜物件

國王前、冬至練緞五表象、銀子二百五十兩、正朝

練緞五表裏、銀子二百五十兩、駿馬一匹、珍珠
 鞍鞋全備、并貢練緞五表裏、銀子二百五十兩、
 正副使、冬至大緞袖二表裏、銀子五十兩、黃絹二
 疋、正朝大緞袖三表裏、銀子五十兩、鞍具馬
 一匹、黃絹二匹、聖節大緞袖三表裏、銀子五
 十兩、鞍具馬一匹、黃絹二疋、并貢大緞袖
 二表裏、銀子五十兩、黃絹二疋、
 書狀官、冬至大緞袖一表裏、銀子四十兩、黃絹一
 疋、正朝大緞袖一表裏、銀子五十兩、黃絹一
 疋、聖節大緞袖一表裏、銀子三十兩、

黃絹一匹、年貢大緞袖一表裏、銀子二十兩、
黃絹一匹、匹

押物官二十四員、冬至小緞袖一表裏、銀子十五兩、

正朝小緞袖一表裏、銀子二十兩、青布四疋、

聖節小緞袖一表裏、銀子二十兩、青布四疋、

年貢小緞袖一表裏、銀子十五兩、

從人三十名、冬至正朝、聖節、年貢、各銀子四兩、

道里

自京、歷高陽、坡州、長湍、松都、金川、平山、慈秀、瑞興、鉤
水、鳳山、黃州、中智、平壤、順安、肅川、安州、嘉山、定州、郭

山宣川鐵山之車輦龍川之良策義州之所車至灣
府凡二十五站共為一千五十里

鴨綠江五里、小西江一里、中江四里、方波浦

五里、三江五里、九連城四里、二十里恒頰河子

二里、九連城站四里、望隅八里、者看卜四里

碑石隅二里、松隅三里、馬轉板一里、石隅

五里、金石山七里、三十里中街門三里、湯池子

五里、乾浦三里、六十里細浦七里、柳田二里、湯站

九里、慈水站三里、三十里魚龍堆一里、車嶺獐

項二里、王八石十里、上龍山三里、相門十里

二十里 自義州至柞門一百二十里 安市城五里

榛平二里 鳳池四里 舊柞門三里 鳳凰山十

二里 鳳凰城四里 三十里 三叉河六里 二台牙

四里 乾子浦十里 四台子一里 伯顏洞九里

麻姑嶺十里 柞站十里 五十里 少長嶺五里

寬北河五里 大長嶺五里 劉家河八里 薑家

庄二里 二十里 八渡河五里 棒項一里 林家台

九里 范家台五里 二道方身五里 通遠堡十

里 三十里 石隅五里 和尚庄八里 草河口橋十

里 雷洞二里 二十里 分水嶺十五里 高家嶺六

里 俞家嶺四里 連山關五里三十 會寧嶺二
 十里 甜水河十七里 甜水站三里四十 青石
 嶺十里 小石嶺五里 狼子山十五里三十 摩
 天嶺八里 頭關站八里 三流河四里 王祥嶺
 十里 石門嶺四里 王寶塄六里四十 高麗巖
 十里 阿彌庄五里 木廠五里 太子河九里
 迎水寺一里三十 接官廳十二里 防虛所六里
 三道把五里 爛泥堡五里八十 萬寶橋六里
 烟台河堡四里 山腰館五里 五里塄五里
 十里河堡七里七十 板橋堡五里 長盛店五里

古家子四里 沙河堡六里 暴文哇六里 毡
 匠舖四里 火燒橋二里 白塔堡八里 四十
 所臺五里 漳河堡五里 漳河一里 瀋陽九里
 二十自柵門至瀋陽四百四十五里
 願堂寺五里 塔橋七里 方士村五里 壯元橋
 五里 永世橋八里 三十 鑊家子五里 大方身
 十里 磨刀橋五里 白蓮站十里 三十 神農店
 十二里 孤家子十三里 二十 周沅河十里 巨
 沅河堡五里 十五 西店子二里 五道河三里
 四方臺七里 郭家屯四里 新民屯四里 小黃

蘇堡四里 大魚旗堡八里 三里 柳河溝八里

石獅子十五里 營房十里 白旗堡五里 三里

小白旗堡十二里 新房五里 一板門十三里 三里

黑 靠山屯八里 二道井子十二里 二十里 神隱

寺八里 新店二十二里 三十里 土子井二里 十

里杠子八里 烟台五里 小黑山五里 二十里 羊

賜河十二里 中安堡十八里 三十里 于家台五里

朝陽鋪三里 八望台三里 舊店里三里 三里 蘇

家店五里 廣寧站五里 三里 興隆店五里 雙

河堡五里 壯鎮堡五里 常興店五里 三臺子

三臺子六里、古家子三里、大古家子五里

二里、二臺子六里、關陽驛十二里、四十、二臺
 子十里、三臺子五里、四臺子五里、五臺子五
 里、望山堡五里、右山站十里、四十、三臺子四
 里、先老漢店八里、大陵河十三里、大陵河堡
 五里、三十、四同碑十二里、鎮陽店八里、二十
 小陵河堡五里、小陵河橋三里、西店子一里、
 松山堡十四里、官馬山十三里、杏山堡五里、
 十里河八里、高橋堡十里、九里、朱家店二里、
 紅旗營五里、塔山所五里、單羅店二里、單羅山
 一里、二臺子四里、連山驛六里、三十、烟臺河

五里、長春河五里、雙樹堡一里、雙石嶺一里、
乾柴嶺二里、東八里堡八里、東頭台二里、
永安寺一里、寧遠衛五里三十里、青墩台六里、
曹庄驛六里、七里陂六里、五里橋七里、中右
所五里三十里、乾溝臺三里、烟臺河五里、半拉
店五里、望海店二里、曲尺河五里、三里橋七
里、東關驛三里三十里、二臺子五里、三臺子五
里、六渡河橋五里、中後所三里十八里、一臺子
五里、二臺子四里、三臺子三里、沙河站六里、
雙墩臺四里、板橋四里、葉家墳四里、口魚

河屯二里、口魚河橋三里、亮水河七里、二十四里

滿井舖四里、前屯衛四里、王家臺五里、望江

臺三里、王濟溝四里、顏封河五里、高嶺驛五

里、小松嶺溝三里、大松嶺溝五里、中前所七

里、四里、大石橋七里、西水湖三里、老軍屯五

里、王家庄二里、八里堡十里、四方城子五里、

二里店一里、山海關二里、三十五里

自瀋陽至山海關七百八十七里

深河一里、五里臺四里、紅花店三里、八里、桑家

嶺二里、吳家臺四里、二十里堡六里、范家

庄十里、湯河堤三里、大理營七里、王家嶺二
里、鳳凰店三里、三對望海店十里、深河驛五
里、高臺嶺堡八里、細子店二里、馬棚山六里、
石子河一里、榆關三里、三對宋家庄三里、
上白石堡二里、下白石堡三里、吳家嶺四里、
按察縣八里、羊河一里、五里堡四里、盧家店
二里、十里臺堡三里、蘆峰口五里、茶棚菴六
里、飲馬河三里、背陰堡三里、四對雙堡八
里、吳樵子店三里、腰站三里、部落嶺五里、
二十里堡二里、十八里堡三里、白沙河七里

驢子槽八里 漏驛園三里 永平府二里 四里

青龍河一里 南坨店四里 灤河一里 鴨子河

四里 范家庄六里 望夫臺四里 安河店八里

赤江堡六里 野鷄坨六里 沙河屯八里

張家庄八里 沙河驛四里 紅廟五里 馮

鋪營五里 七家嶺五里 新店子五里 乾河草

五里 王家店四里 新平店四里 張家店二里

扛牛橋四里 蓮花池一里 青龍橋九里 榛

子店一里 烟墩臺十里 白草窪七里 鐵

城坎三里 牛欄山五里 小鈴河四里 板橋十

里 銀城堡五里、五里臺十里、聖潤縣五里、十五
里 趙家店五里、張家店一里、遂鄉河二里
魯家店二里、高麗堡五里、沙子河五里、軟鵝
舖五里、新坊三里、李家店五里、沙流河七里
四十里 兩水橋十里、兩家店五里、十五里屯五
里、東八里七里、龍池菴三里、玉田縣五里、十四
里、西八里八里、黃家店七里、彩亭橋五里
大枯樹店十里、小枯樹店一里、蜂山店四里
螺山店三里、梯子山七里、鰲山店五里、五十
二里店二里、現渠八里、三家庄三里、雲田寺

四里、翠屏山三里、八里堡二里、漁陽橋三里、
 黃日庄二里、荊州三里、三十里、白礮店十二里、
 公樂店五里、既家嶺三里、石碑鋪十里、滹
 沱河五里、三河縣五里、四十里、棗林庄六里、白
 浮園六里、新店六里、皇親庄六里、夏店六里、
 柳河屯六里、馬起鋪六里、燕郊堡八里、五十里
 方家庄三里、滕家庄五里、胡家庄四里、習
 家庄二里、白河二里、通州一里、十七里、八里橋
 八里、管家庄二里、楊家關二里、三間房三里、
 定府庄三里、大五庄二里、二十里、太平店二里

十里堡三里 八里堡二里 紅門三里 彌勒
院三里 東岳廟五里 朝陽門二里 自山海關
至皇城六百六十七里 通計為三千六百九里
自義州至柵門為二站、無人露宿、自柵門至皇城
為三十一站、皆有宰院、今廢、自柵門至迎水寺是謂
東八站、

留館雜錄

使行到京、每在臘月二十四五日間、回程每在二月
二三日間、其間留館、近四十日、與各房伴備、幕府譯
官、盡夜討話、或游覽、尋訪、或探明清間事蹟、或者中
國書籍、託其所睹聞、作留館雜錄、

明史、閩人王振、專權誤國、別致土木之變、泰靖帝被
執於也先、那王即位也、先挾上皇破紫荆關、直入窺
京師、上皇登德勝門外土城、帝使左通政王復、少卿
趙榮、出見上皇於土城、兵部尚書于謙、與石亨、率副
總兵范廣武、陣德勝門外以拒之、悉閉諸城門、身自

督戰下令臨陣將不顧軍先退者、後隊斬、前隊將士
知必死、用命先設伏兵、以敵騎誘也、先萬騎也、先第
索羅中礮死也、先戰不利、遂擁上皇北去、

乾隆戊辰、漁於漳河、泗水者、輒腰斷浮出、帝發卒整
河、視河中萬弩俱張、其下有塚、掘其棺、銀酒金具、
冕服者、曹操屍也、帝親至關廟、昭烈像前、跪而新之、
快雪千古神人之憤、又破七十二塚之疑、

余與諸人入正陽門外、李膺樓、皇城有名的酒樓也、
高揭青帘、層樓上下三十餘間、雕欄畫棟、粉壁紗窗、
多張古今名畫、法書、奇石、異草、筵設、十種、椅桌器

四皆極精、鮮筆墨紙硯等物在、且中以供賞品、壁上
有一詩曰、軟紅鋪地碧雲低、庭草催春綠漸齊、窗外
忽聞鸚鵡說、風箏吹落盡、檐西、芝園田子春題詩、與
箏絕品、蓋中國名士大夫、不嫌娼樓酒肆、如禪亭、故
事、每於夕陽佳辰、車馬雲集、一觴一詠、評品書畫、留
其詩句、日復日、酒家得其奇、羨賣之、遂成侈富者、矣
如此方可有風流酒興、非如我國酒家、篩燈竹竿、書
賣酒家三定、入具中、瓦盃砂鍾、烟席土爐、無論清濁、
立飲數盃、採囊計錢而出、或連傾十餘盃、恥辱聞、既
後醉鄉入戰場、此何趣味、故名以士大夫、絕不投跡、

蓋中國人飲法、以極少之杯、細細呷下、一獻之禮、賓
主百拜亦無酒失也、見我國人大杯痛飲、皆吐舌以
余不飲亦得酒戶不少之名、還可笑也、昔楊魚咎游
娼館、作折枝梅於短壁、士大夫多往觀之、留連飲酒、
娼藉此壯門戶、其後有人竊去、從此車馬頓衰、
清太宗起自寧古塔、先討蒙古四十八部、又恐朝鮮
之逼、其後潛師襲之、斷其後、患遂雄據瀋陽南面、以
抗衡天下、夫蒙古天下、莫強之衆也、太宗先討之、部
勒其輕騎、所向無敵、自是以後、皇帝世世結婚、元舅、
國舅、駙馬、閹老、各部尚書、諸王、貝勒、多是蒙古人也、

雍和宮願堂者、黃金屋錦繡相、衣黃衣、併擬皇帝服
色、坐享富貴者、亦是蒙古僧也、余見蒙古之人、生長
中華、三百年所培養、風土稟其魁健、獲得之性、染以
清粹冲和之氣、文章學問、迥異漢人、昔劉淵居塞內、
幽冀名士多往歸之、淵之子聰、博涉經史、弱冠游京、
名士莫不與交、天下一搖、安知無淵、聰之徒乎、松筠
禱恩蒙人也、尤是傑出、此外又安知松禱幾輩人乎、
其四十八部、犬牙相制、莫敢先動、所以中國是然也、
事若有乖、則其酋長輩、其能拱手出塞、馳聘回禱而
已乎、自康熙時、皇帝幸熱河、名曰避暑山莊、其實托

蒙古咽喉而壓之也、或曰、腥塵天地、息復開霽之時、
并、余曰不然、宋起於五代之後、明起於胡元之後、此
一陰一陽、天地之大道也、若有真人起於中州、則如
太陽中天、羣陰自消、蒙古諸部、遼、薊之外、西藩
諸戎、駘之隴、陝之外、中國之典章文物、禮樂刑政、固
自在矣、復何憂乎、或曰、吾東僻在海隅、無開天下之
車、而清人以寧古塔為巢穴、壯扁鑄蓄珍寶、作不拔
之基塔、與吾接壤也、異日捲甲遁塔之時、假道於我、
豈無蹂躪之患乎、清人之恩、禮、厚、待、迥出諸國、吾恐
假道之時、接應辭拒、而難得直、余笑曰、吾東無開天

下之事、幸則幸矣、昔在踈菴病劇、親友往訣之、或有
流涕者、踈菴展越曰、元夷八蠻皆入帝中國、而我國
在白頭山後、局自古無僭稱皇帝者、偏邦寂寥、生不
如死、何泣之有、其臨死、詎亦有可觀、然假道、豈足
憂也、唐虞夏殷、周而矣、勿論、自秦漢以下、至于元明、
歷代沿革之際、必更畧一局、掃盡然後更設一局、君
曾見設局之時、有宿墓之在一隅者、以山河為一局、
以歷代為一鑑、千古之沿革、可坐而推也、但亭午以
後、治日常少亂日常多、自檀箕羅虢以來、不知有以
小事大之義、中國之治亂、亦不可謂全無關係。

王竦橋在關中、如我國禁川橋、而虹蜺欄干、石色甚
白、高廣故闊、紫光闕器、宴回路、三使一行、駐足欄干
下、是日也、廷神器歸者、並慮千百、或乘翰林車、左右
附琉璃憲、中鋪各色種種、人味車中、或者書帽、服華
鮮帽、懸紅寶石、珊瑚、水晶、等戎牖、從二十三騎、皆金
鞍駿馬、翩翩隨車而去、魚辟除、唱導、此是諸王、貝勒
云、或乘太平車、一二騎隨後、人物則皆白皙、長大、而
滿人多置碩碓、健漢人多精粹、俊雅、俄而五十餘車
連續出來、閑宮女、因皇帝幸行、圓明園、先詣者也、車
制、九華、鹿、綠、毡、為障、琉璃、為窓、車中、或兩、三、同坐、不

施門簾、爭出首面指我國人曰、高麗高麗、聲甚嫩軟、
燕燕鶯鶯、寶髻挿花、翠翹搖星、珠璣錦繡、粉飾妖冶、
蛺蝶游龍、飄若驚鴻、倏忽而過、豈非天香國色、或掬
錢擲散於橋上、幹事的策、走扮去、未知其意也、余
笑謂靈犀曰、勝於楊少游、石橋逢仙、何不拾買路錢
乎、蓋清人有古今所無之良法、美觀、每年正月上元、
選宮女入闈、必選十五歲至二十一歲、則出送任嫁、
其入宮也、爲選娉色、出宮也、優頒賞賜、所以娉嫁即
地雲集、故內無怨女、然則比之唐宗之秋、出宮女三
千人、反復勝焉。

董其昌筆法、聞於海內、其昌之孫董生者、落拓不遇、
買駿騾西游巴蜀、歸路痛飲於正陽門外、酒樓逢東
士李觀夏、慷慨論襟、及其別也、贈一詩曰、我有丈夫
淚、泣之不落三十年、今日正陽門、爲君一灑春風前、
詩意磊落、可想其人、

松筠蒙古正藍旗人也、官禮部尚書、曾經伊犁、瀋陽、
等將軍、年八十四、爲人短小、精悍、博學、能文、白髮蕭
然、行步如飛、有忠直敢諫之風、清條謹慎、朝野想望、
其風采、皇帝欲幸瀋陽者久矣、松以民國之費、屢諫
沮之、昨耳皇帝使松筠出使塞外、始出瀋幸之詔、其

見憚如此、正朝五鼓頭、我國使臣恭朝賀入闕、小憩
鴻臚直房、松來訪揖而問曰、道路辛苦、國王太平、貴
國年事幾分、言訖而去、夫松以天子之大臣、年過八
耋、而冒曉寒來見外國陪臣、辛勤備至、其縱遠憂國
之誠、推此可知、余見松奉詔撰新疆誌、山川風俗、關
隘軍兵、綜核開錄、而卷末書曰、凡物產之無關於政
教者、闕而不錄云、夫康熙以來、開拓邊疆、數萬里、
此古今史牒之所未有也、漢武帝聞張騫大宛馬、即
竹枝之說、遂率西域、窮兵黷武、中國虛耗、今物產之
不錄、恐啓皇帝侈心而然耶、

楊遇春官大將軍，昨年破回子，國封勳，本以相持，
卒有文武兼才，驟至大官，太和殿賀班，有一人年可
四十許，八尺長身，面貌豈偉，眼若流星，軒昂如鶴，羣
鶴立，諸王貝勒皆款款迎揖，問其通官，則乃楊也。
禧恩蒙古人，官吏部尚書，年未滿三十，軍機大臣中
英和夫，勢遠氣松，筠以嚴見憚，獨禧恩權寵傾朝，人
皆側目。

英和官閣老，恃恩寵，頗驕奢，皇帝殿之後，以陵寢事，
窳黑龍江，余入荊州，獨樂寺，見壁上有英和詩，詩意
則率其新恩二子，作榮掃之行，過此而感頌皇恩者。

也、詩例有一門生題小序曰、時朝紳迎候者、雲集寺中、詩未畢、爲人皆替筆、贖傳遂至、贈於皇城云、有若夸耀者、然其權勢之熏赫、於此可知、安得保終令名乎、曾聞英和奉使東國也、一日馳三百里、又求見文士而不許、以此疎東人、必曰薄情、

葉志詵、號東卿、兵部郎中、年五十、父繼燮、錦雲素、以前任刑部郎中、退休、養閒城西別墅、長子名璪、年二十二、乙酉科中乙榜、官武英殿校書官、小子名澧、年十八、筭學生、蓋東卿皇明閣臣向高之後也、文學早成、筆法典雅、與我國人酬唱頗多、余於太和殿庭、見

此飛書
卷上

之、清修雅飭人也、上使癸酉書狀時曾有編紵之誼、
今於賀班中抽身來見、握手款語、其二子亦有文學
之長、

阮雲臺新差雲貴總督、今方赴任、而有二子、長曰常
生、號小雲、官戶部郎中、次曰祐、號叔子、官刑部郎中、
余見雲臺、偉然有長者風、二子皆年少俊邁、風采動
人、異物也、

李璋煜字方赤、號月汀、山東人、官刑部主事、詩文書
畫名頗膾炙、與東人多有酬唱、其族第李中峰、與余
善、月汀每要一會、余再進其門、皆值公役、未先題鳳

之歎

陳繼昌稱蓮史官兵部侍郎文章淵雅筆法通勁余
以各種紙品請柱聯楷書又送扇扇烟始淵筆之質
一日在兵部揮灑以送其中贈余一聯對曰尋仲尼
顏淵所樂以明道希文自期尤典雅可愛歸揭金華
山房

此元之官內閣學士善篆隸余在卯橋壁上見其書
法而愛玩不已卯橋點察眉睫謂余曰此隸體有名
於筆冢當乘暇受書日後貴國使价便寄呈以副心

此隸書
在下 田愛觀之意

龍汝言亦善書、其草訣楷字、造詣雖未及於蓮史、而字體豪放、則過之、余得在懸數三對、

紀尚書昫、號曉嵐、漢人也、乾隆嘉慶之際、為文章宗匠、與東人剛唱最多、趙經晚秀、三燕行時、遇大風雨、於蓮野、吹倒驛車於林田、夜黑不辨咫尺、因經宿於田中、後見紀曉嵐、問行中勞苦、趙說及此事、紀笑而起、出一冊子示之、畧曰、余奉使五虛、睡提團、一夕見空中大車隨風而下、人十餘名、驛馬十餘匹、問車中人、則過古北口、遇大風、吹到此中、計其程途、則八百餘里、以此奏聞皇上、冊子即奏文也、紀曰、若遇如

此大風將奈何一夜秣田之苦何足提說乎仍相笑
經畹為余道之如此

翁方剛號覃溪文章筆法頗有盛名與東人酬唱亦
多而專尚蘇學又崇佛法貪財致富中國士大夫鄙
之其子若孫零替不顯

鐵保嘉慶時權寵臣也文筆有盛名官至吏部尚書
中國寺刹廟院筆蹟遍揭曾聞年前使行馬頭雀雲
恭遇鐵尚書於路中間候乞書鐵保微笑點頭使之
明朝來待翌日雲恭往見則以極品各種紙書給十
餘張夫雲恭遊方一賤隸也唐突乞書於上國權寵

之大臣、其微笑點頭、乃包容之量、而於渠何誅之意也、大抵中州士大夫、多是唐之崔盧、晉之王謝、宋之程朱、大率衣鉢、學問淵源、而我東下、隸不分漢人、滿人、統循胡人、待之以犬羊、極可笑也、

和紳、乾隆時權寵臣也、拔身紅行伍之間、越至閣老、為人傑、驚有文武才、以權謀術、數籠絡朝廷、帝言聽計、用西蜀江南珍寶之賂、先入和紳家、次品為進貢之用、及其被誅籍產也、財貨不知其幾百萬、至今琉璃廠珍珠寶貝書籍刀鏡之價、重雜買者、多是紳家物云、其貪贖可知、

伊桑阿滿洲人、康熙時文章學問相、業推為第一、以禮部尚書大拜、在相位十五年、六十六卒、諡文端、六十三、援歐陽乞休、章三十上得請、

盛舒滿洲人、乾隆時、處相位四十餘年、八十八卒、相業為首、時人比之文潞公、

李成樞、廣寧人、皇明時名將也、其子如松、如柏、如梧、如棹、如梅、壬辰倭亂、皆東援朝鮮、清史曰、成樞剗遼左之利、灌漑權門、八子七婿、皆列提兵云云、奴兒哈赤之父興祖、皆死於成樞之手、奴兒哈赤亦當斬、全無懼意、惟仰首視天、問其故、曰、天胡生此種、又盍

滅此種耶、成探身其貌、收為家僮、知其非常人而諸
子欲善之、遂以女妻之、使之逃入漠北、諸子進之不
及、後為清太祖、乃太宗汗之父也、姓愛新覺羅氏。

李如松、穿連衛、戰死時、乘白騾、疾如飛、清太宗望
見、乃下令曰、彼所乘風騾也、可擒也、繫北騾五十餘
匹於陣中、伏精兵三千於左右、誘之、如招以鐵索穿
騾之兩耳、盡力挽之、白騾見北騾、嘶風而入、兩耳裂
鐵索解、李將軍遂死於仗、兵刃戰之中。

覘國

覘國有術、古人得之、言語問答之外、如更鼓、橋梁、執

玉高卑陳詩閱樂帝價貴賤有所微矣今人一入燕
京輒曰善觀風何其易也言語相殊情意未字欲問
將相賢否明清沿革滿漢用事則語觸忌諱欲問錢
穀甲兵山川形勝關隘險夷則跡涉窺偵顧何能採
探於毫釐立談之間乎余入中國有默審具一二者
皇帝富有四海而貂裘蓋契彩仗多渝現其儉也塞
柳疎荒烟疊頽落崇文教而馳武備現其衰也盛商
蜀賈不售珠玉現其速珠寶也樂音繁促現其法令
之嚴苛也壽刺通國全彩輝煌現其崇佛也衣服車
馬無表貴賤現其無等威也宮女選入限前放出現

具無愁也、疎直諫之臣而遠幸閤外、覘具多僥倖也、黃道周諸人陞配文廟、覘具黜陟學也、寵臣失贊迹、庫塞外、覘具宰相之爭權也、黃衣禪師、處之金殿、覘具蒙古之羈縻也、賞賜多減、覘具財力之絀也、賜詩、滿臣誇張、敵伐之功、覘具耀威也、此皆覘得於耳目之所及、而又有其事之覘得於不語、不默、不問、不答、非歌、非哭、非文、非畫者、察之於眉睫之間、而照之於肝膽之際、文人韻士、酒徒筑客、相遇於金臺、碣石之間、醉氣淋漓、一觴一詠、一彈一笑、忽慷慨涕、搢腕而歎、欹衽而坐、嘒嘒不發、脈脈相看而已、手指東

人曰好衣冠好衣冠此非燕趙之習也、卽華夷之歎也、一隅三反、天下皆然、有以覘夫三百年中國人心之積憤也、

太和殿記

太和殿古之皇極殿也、入關中、內外宮城、而自太和門、午門、端門、天安門、大清門、至于正陽門、其直如矢、楹十二間、庭列大銅釜百、容百餘斛者、以白檀幕之、貯鹽水而備火災、升降處皆設石欄干、玉階九級、欄石三重、而刻作龍身、出其頸於欄外、是謂螭頭石、色皓白如雪、兩旁各立翹趺鶴立之形、皆以烏銅鑄成、

殿前對蹲玉獅子、東有體仁閣、西有弘義閣、其他廊閣皆十三省貢物及外國方物所貯之庫、皇帝坐殿上、受元朝賀禮、但見殿中隱然黃涼檟高處、知是寶座、儀仗旌幟排立東西、文武依青銅品石而立、殿前置青銅大爐如甕者十六座、焚沉香、香烟如霧、鳴鞭三聲、聲振殿宇、臚唱樂作、千官應聲叩頭、跪庭中、肅然東西班有課道官、平立斜視、親王六七人、獨起居於殿陛上、而品石外班、蒙古四十五、次朝鮮使臣、次琉球使臣、拜叩之禮、一依前班、禮畢退出、見太和門外、八象列立、黃屋車在其後、其二杠者、駕象者也。

三杠者駕六馬者也、黃屋大可一間、餘悉以朱紵、塗以黃金、飾以珠翠、覆以黃帕、垂以黃帳、引以絳繩、環以欄干、鋪以椶席、設層梯、為升降之所、動駕時必列置門外、其車輪與太平車無異、蓋車同軌也、

紫光閣記

紫光閣在玉蟬橋南、是乃試射較藝、圖畫功臣宴享外藩之所也、閣內有柱聯一對、曰：干羽兩階崇禮樂、舟車萬國集冠裳、東壁畫平西、金川戰蹟、西壁畫平回、于國戰蹟、中設寶榻、皇帝乘大宛馬、緩轡徐行、到閣門下馬、而入侍臣皆步從、使臣祇迎、路左仍隨入

班詣寶榻下皇帝親酌授之飲訖退坐殿陛千官排
班樂作進宴卓有紅衣軍數百以魚布帳遮殿庭三
面中設三間百戲競作戲子各粧假面幘頭大帶闊
袖團領手執假花羽扇雀躍蟬行低昂盤旋角觝戲
獅子舞如捧珠^遊等狀未食頃而罷皇帝還駕後頒賞
於閣庭錦緞繡囊各有差噫倡優之戲夷狄之樂胡
為乎天子之庭廷神藩竹幸而不見於夾谷之會得
免夫子之誅也

五龍亭記

玉竦橋之北有太液池池北有五龍亭蜿蜒若行龍

之勢曰浮翠身滂瑞身龍澤身澄祥身滋香亭總名
曰五龍亭金碧雲龍眩耀難狀亭之北有牌文扁以
福田姓海門前有鐵獅蹲坐門內有薦福寺中安丈
六佛千手千足足下踏住衆魔鞬梯上三層始見佛
頭前後左右合是六面其頭上又有千百頭面上層
扁曰有大威靈復下五龍亭東望池邊建百丈浮園
是瓊島也瓊島春雲太液晴波入於皇都八景若常
春夏之時花影照水荷香泛欄瓊樓綺閣滿漾於銀
波乘雲之中則金陵錢塘不獨擅其美也池北高松
垂柳蒼鬱入望彩霓粉牆隱映於其中乃行宮而宮

女內侍之所居也、瓊島頂上、環以太湖石、中建浮園、
高十餘丈、以鐵網纏之、其下有白塔寺、此卽皇明時
西苑瓊台也、左右有廣寒殿、勤政殿、知稼軒豐澤苑、
秋雲亭、蕉園、臨漪亭、水雲榭、諸勝、島中多奇岩怪石、
棟宇翠飛、望之若蓬萊仙府、禁中人稱瓊台曰南海、
蕉園中中海、五龍亭曰北海、又聞景山在神武門內、
明稱煤山、或稱萬歲山、山凡三峰、毅宗皇帝殉社稷
也、今人不敢稱煤山、諱之也、更上玉鍊橋、回望良久、
恍惚靈旻、依然若夢中、

萬佛樓記

五龍身之東有萬佛寺三層殿其下層安萬佛皆金像妙麗備設一座寶塔高二丈十餘層層各以珉香刻作鸞鷲瓦葺其上相檣具焉每層設間架障以琉璃中安小金佛亦可以千百計其雕鏤莊嚴之妙有若神造異香滿棧人云此是和紳家物而紳敗沒入于此由雲梯向上進數十餘級出第二層拓白遠眺五龍白塔斯下風矣轉上第一層望城半幅渺然在樓下矣樓中有七座大金佛左右青假山小佛像其下層無異金佛之左刻乾隆庚寅敬造六字右曰萬佛樓寺之門曰普慶門門外又有對門之樓高曰極

樂世界中以青色木假山環之高與樓齊千峰杖折
斧鑿魚痕岩壁凹處皆嵌以金龕安小金佛羣仙各
抱笙簧等樂器四面環拱及到山頂與萬佛最上樓
相伯仲而上立金閣奉金佛是玉皇云人皆疑到靈
霄寶殿

文廟

文廟在安定門內太學之左東西有成賢坊左右有
國子監門又有紅柵門內門曰持敬門正門曰大成
門設戟護衛內有正殿扁曰大成殿設龕中安先聖
位板題曰至聖先師孔子神位以黃金填字龕下設

卓列鼎彝尊壘等器龕之兩側柱聯曰氣備四時與
天地日月鬼神合其德教垂萬世繼堯舜禹湯文武
作之師又一聯曰齊家治國平天下信斯言也亦在
方冊率性循道致中和得其門者譬之宮牆又揭康
熙雍正乾隆嘉慶四帝御筆曰生民未有萬世師表
聖集大成與天地參殿內鋪棕皮席殿凡十九楹覆
以魚琉璃瓦楹柱門扉均丹雘梁棟施五彩牆垣皆
覆綠琉璃瓦飾以丹殿楹全刻雲龍外簷設鐵梁思
階設白石欄砌刻彩瓦紋大成門內石欄有用宣王
石鼓十座音訓碣一門外有乾隆新排石鼓十座殿

宇肅清庭有側柏四五十株多有御製制贊重修等
碑

太學辟雍記

太學在文廟之右正堂凡八楹扁曰彝倫堂內扁曰
涵泳聖詠曰文行忠信曰福疇攸叙柱聯曰鍾武肆
隆儀仰禮樂詩書制猶皇編觀文敷雅化勗子弟臣
友責在師儒皆乾隆筆也北壁下豎皇帝手書四經
註解石碑十六塊覆以黃帕西有一室壁上有乾隆
手畫古槐首刻古詩其聯曰初植至元歲再榮辛未
年註曰辛未即慈寧宮六旬堂前古槐枯槁昂莊倚

生者頗繁茂云云其元株則枯死以紅漆木擊之此
係許魯齋衡手植也階有石堦設石輪圍於塔上觀
日影處也中英鑿沼環以石欄形如滿月象古辟雍
之制沼之底皆布甃置石龜於石欄頭以隱溝通闊
內水道注于沼沼中建一堂棟宇遍刻雲龍中設寶
榻前置沉香床榻上有門扉雕刻玲瓏指乾隆御製
詩榻之前後左右設虹橋以作升降之階堂內扁曰
雅涵於樂柱聯曰金元明宅於茲天色萬年今大備
虞夏殷周有間周京四學古壇循左右翼廊各六十
二間左有率性堂養心堂崇志堂右有學古堂正義

堂廣業堂、修道堂、此則明朝養士之所也、藏十三經
石碑、每一間、豎三坐、橫三百七十二坐、此亦皆是乾
隆筆也、左右對建、鍾、德、聽、博、士、聽、詔、之、南、立、門、扁、其
外曰、環、橋、教、澤、內曰、學、海、節、觀、兩、傍、建、鍾、鼓、樓、又、於
翼、廊、藏、置、丹、板、積、如、邱、山、其、外、即、集、賢、門、也、

石鼓辨

石鼓、周宣王時、獵、碣、距、今、二、千、餘、年、辭、類、風、雅、字、是
籀、文、鼓、之、大、小、大、略、如、一、而、總、之、高、可、一、尺、圍、可、一
抱、有、餘、其、形、中、脹、而、兩、端、微、殺、頂、圓、如、鼓、鼓、色、淡、黑、
剝、落、巖、巖、唐、韓、愈、宋、蘇、軾、所、作、石、鼓、歌、即、此、之、謂、也、

初在陳倉野中、唐鄭餘慶遷置鳳翔縣夫子廟而亡
其一、宋皇祐四年、向傳師得之於民間、十鼓乃全、大
觀二年、自京兆徙汴京、初置辟雍、後移保和殿、以金
填字、靖康二年、金人取輝燕、剽其金、置汪宣武第、後
徙置大興府學、元大德十一年、虞集為大都教授、得
之泥土中、皇慶初、後置于此、鼓以十千次第為標、字
凡六百五十四、皆泐缺、其可辨者僅為二十五字、或
有全鼓無一字者、右邊第五鼓陷其中、為句、蓋在民
間時所鑿、或曰周宣王時、去今二千餘年、安得全之
至今云、而此昨書卷、必無燒焚破落之患、又異於金

銀珠貝亦其所用、雖萬年傳之可也、傍立協山潘迪
石鼓文音訓碑、即隸字也、門右有昌黎石鼓詩、而以
張照筆刻之、碑上面有乾隆御製詩、門左又有重刻
石鼓碑文、

文丞相祠堂記

宋丞相文天祥祠堂、在順天府學旁、即古之柴市也、
元人害文山于此、既而名曰教忠坊、以旌之、明朝立
祠祭之、有楊士奇所撰重修記、三間祠屋、庭容旋馬、
龕中坐丞相塑像、面方而豐、下眉眼清爽、額庭甚寬、
身着大袖朝袍、頭戴四角幘、垂紳、搢笏、宋制也、位

板題曰宋丞相信國公文公神位、扁其上曰古誼忠
肝、曰萬古綱常、曰浩然之氣、龜左有方石、色淡黑、亦
刻文山像、當文山就死時、人有高其節、慨然歎曰、不
可使此人無傳於後、遂拔所佩刀、急就石上傳神、因
以文山自贊詩句刻其上、曰、孔曰成仁、孟云取義、惟
其義盡、所以仁至、讀聖賢書、所學何事、而今而後、庶
幾無愧、蓋塑像摸出石上像者也、大興縣誌曰、元至
元壬午十二月初九日、公死於柴市、是日風沙晝晦、
宮中皆秉燭行、世祖悔之、贈公金紫、光祿大夫、太保
中書平章政事、廬郡公、謚忠武、使王績翁書神主、除

柴市設壇、丞相學羅祭之、大風捲起神主、雲雷隱隱、
若怒聲、盡愈、晦暗、以張天師言、乃改書神主曰、前宋
小保右丞相信國公、天乃霽、明日歐陽夫人從東宮
得令貢、叔葵公江南十義士、昇柩出都城、藁葬小南
門外五里、識其處、大德三年、繼子陞、乘北來、於順成
門外、見石橋、織綾人婦、即公之舊婢、綠荷也、指公瘞
處、尚有大小二僧塔、而一塔有小石碑、刻信公二字、
至正二十年、歸葬廬陵、柴市即此、建祠處也、洪武九
年、北平府事劉崧、始請立祠堂、永樂六年、太常博士
劉履節、奏首祭以春秋、

花草舖

花草舖在隆福寺東凡三處皆坎地窟室其背出地
數尺、疏四方而設窓八具中明晃不滅、高座象花、皆
含蕊吐芽、桃杏梅桂之屬、猶不為神異、而其中映春
水仙、千秋茉莉、皆爛熳方華、集四時之風光、但一室
之清玩、花香滿室、煖氣襲人、此可謂人工奪天造矣
其他石榴橘柚海棠柳竹樓閣仙人掌金蘭玉簪諸
草卉、亦爭秀競妍、唐帝之羯鼓催花、隋皇之剪綵為
花、何足奇哉

官貨房

花草鋪地、有一室、扁曰官貨房、入其室、異寶奇貨盈溢于中、而蓋烏玉、青銅、密花、金貝之屬、及其他樣樣色色、有萬其類、此不過文房之具、而一物之直、動不下千金、左右各懸大石鏡、其大恰與全壁齊、室中貨物皆度疊玲瓏璀璨者、已極奇玩、而其中最可觀者、有一真玉屏障、陽刻蟠桃樹、高可丈餘、而其花實枝葉皆以珍寶、各隨其色、不分其真假、且有數坐白鳩、鐘、非比凡品、而全籠玉榻、琉璃燈籠、皆屬珍玩、多是和神、福、長安、等諸巨籍產之物也、買置此處云、

雍和宮

雍和宮在太學之左、雍正額堂也、紅柵內設大門、扁
曰十方圓通、又內門曰慈隆寶樂、又其內曰昭泰門
門內庭左右、立青銅獅子、大興屋齋、又入雍和門、內
有雍和宮、宮內設大佛塑像一座、庭有烏銅爐、奉以
烏銅大圓床、雕刻龍獅、鱗鬚活動、宮後有永佑殿、設
三金佛桌、左右置六後琉璃龕、龕中安慈悲數金佛、龕
前金珠寶貝、排錯眩耀、殿後有法輪殿、二層中設寶
榻、皇帝御座、左右列紅木凳、諸臣坐處、皆鋪畫紋戎
氈、榻前設金鼎、盛白米、鼎前設一桌、奉金屋琉璃龕、
羅列金佛、燃長明燈於前、榻袖梅花、皆以銅玉金鍊

塔、去地數寸、五人齊力、旃旄、則一塔、全身、轉環、其北
又有經聖殿、旌雲梯、登上層、列金浮屠五坐、其下空
空如也、雍和宮庭、立大石碑、四面之廣如一、而三面
以滿洲蒙古、西番字譯之、後面乾隆喇嘛僧記曰、喇
者、魚也、嘛者、上也、取古上人之義也、寺中有西番僧
介名、而寂若肅清、其廣可知、僧徒皆厚給衣食、而尊
奉之、卿相不敢抗程、有錦緞障子、繡出花木、五彩照
耀、雲梯、堅鎖、乃皇帝齋室也、其傍有室、奉一僧像、椅
桌、精洒、聞乾隆時、尊奉一番僧、及其還國、懋懋不忘
作像、而身之云、東有雍正諸皇影、慎奉、安閑、不許雜

人出入其外層樓傑閣重房複壁窮日之力難以適
尋俄而寺中人皆避匿庭宇肅然余於門隙窺之一
親王携一小兒奉命行香而去也鼓樂肅導千僧皆
曳彩袈裟隨之犬抵中國寺制中當為第一壯麗

歷代帝王廟記

歷代帝王廟在阜成門內南其外門曰帝王廟其內
門曰景德門正殿凡二層而皆覆以黃瓦爲在上層
曰景德崇聖之殿殿設七龕而第一龕在中央奉伏
義神農軒轅三皇之位版左二龕奉五帝右三龕奉
夏后氏以下十四世商湯王以下二十六世左四龕

奉周武王以下三十二王、右五龜奉漢高祖以下十
世、先武帝以下八世及昭烈帝、晉元帝以下七世、宋
文帝以下三世及齊武帝與魏武帝以下八世、陳文
帝宣帝、左六龜奉唐高祖以下十六世及後唐明宗
後周世宗、宋太祖以下十四世、遼太祖以下六世、右
七龜奉金太祖以下六世、元太祖以下十一世、皇
明太祖以下十三世、而周之幽厲、漢之平桓靈、晉之
惠帝及外此止國見弑之君、皆不與焉、而大明神
宗皇帝亦不得同享焉、似由清人逞憾之計、而其可
痛恨、廟貌甚崇肅、而皆以丹堊雕刻之、蒼角缺罅、

奉周武王以下三十二王、右五龜奉漢高祖以下十
世、光武帝以下八世及昭烈帝、晉元帝以下七世、宋
文帝以下三世及肅武帝與魏武帝以下八世、陳文
帝、宣帝、左六龜奉唐高祖以下十六世及後唐明宗
後周世宗、宋太祖以下十四世、遼太祖以下六世、右
七龜奉金太祖以下六世、元太祖以下十一世、皇
明太祖以下十三世、而周之幽厲、漢之平桓靈、晉之
惠帝及外此止國見弑之君、皆不與焉、而大明神
宗皇帝亦不得同享焉、似由清人逞憾之計、而甚可
痛恨、廟貌甚崇肅、而皆以丹堊雕刻之、蒼角缺罌、

龍之殿內揭報功觀德四字、揭一對在殿曰、治統湖
欽承德我兼資、詢哉古可為監、正經崇袂祀寶、枚式
煥穆矣神其孔安、又東西兩廡奉歷代名臣、東則風
后為首、其次蒼頡、夔、伯夷、商伊尹、傳說、周公、畢公、
召穆公、師、中山甫、漢張良、曹參、周勃、魏相、鄧禹、耿弇、
諸葛亮、唐房玄齡、李靖、宋堦、郭子儀、許遠、李晟、裴度、
宋曹彬、李沆、王曾、富弼、文彥博、李綱、韓世忠、文天祥、
全宗翰、元穆呼哩布呼密明、徐達、常遇春、楊士奇、于
謙、劉大夏等四十人、西則力收為首、其次臯陶、龍伯
華、商仲虺、周周公、太公、呂侯、方叔、尹吉甫、漢蕭何、陳

平劉章、高吉、馮異、馬援、趙雲、唐杜如晦、狄仁傑、姚崇、
張巡、李泌、陸贄、遠、耶律赫、魯宗、呂蒙正、寇準、范仲淹、
韓琦、司馬光、趙鼎、岳飛、金宗望、幹魯元、巴延托、明劉
基、李文忠、楊崇、李顯等三十九人、殿設青銅爐八、坐
東西廡各二、坐又有青瓦閣對立左右、即望燎處也
又有四開穹碑、其重修文曰、世祧者迷、遷德盛者不
毀、三皇五帝九皇六十四氏、咸祀之曰、崇祀之制、肇
於唐、天寶七載云云

妙應寺記

妙應寺在帝王廟西北、瓶石作三圓門、廟曰初建、妙

應祥林殿奉大金佛三坐、手持烏玉梳、左右有五面
羅漢之像、扁曰意珠心鏡、後殿扁曰七佛寶殿、庭有
鐵層閣、其上奉香爐、萬曆間所鑄也、從後門上層梯
則白塔在層梯上、而塔身偃蹇、高可數三丈、圍凡二
十後、如屋角之有稜、築而為三層、每一層安塔身、而
皆以鐵帶之、圍若覆甍、而恰為七十把、最上層則比
下層漸殺、為以鑄青銅環、而垂下、如張蓋狀、且懸
數鐵鏡、受風則輒有鐸鐸之聲、環塔而築七牆、如欄
干之設、明燈一百八十九、此環在牆邊、而皆以鐵為
籠、四面貼石鱗、就隆聖圖鑄出者、而此處燃燈之例、

自古已然云、蓋與遼東白塔、巨剎、伯仲、而其高則雖
遜於遼、壯麗則雖謂之第一、不為過矣、且數十株花
木、列植於上中層、時當花開、則可加一層光景矣、古
循此塔中安置如來舍利、元世祖開塔而視之、則有
淨水洋洋、舍利波在水中、而兩龍亦從傍衛之云、塔
門下嵌壁而設、供佛諸榻、懸長明燈、而燃火不滅、前
有鐵鼎、鼎面刻略干字、即嘉靖年間所鑄也、僧徒所
居廬亦多精妙器玩、且佛像神龜各盡其妙、而僧徒
皆喇嘛人也、世傳元丞相耶律楚材弼萬松老人、文
章相業為元朝第一、而建此塔云

廣濟寺記

廣濟寺門曰妙明圓通殿、坐大金佛、後殿曰大藏經閣、西夾門外有一樹、名曰鐵樹、三百年茁枝、尚昂藏註軟弱、意老大意、亦異種也、有乾隆紀詩、

東嶽廟記

東嶽廟在朝陽門外、有三牌門、東曰太虛洞天、西曰靈岩崇祠、南曰永延帝祚、重門曰曠岱之門、外門曰初達東嶽廟、正殿嶽宗寶殿、殿中以黃金塑泰山神像、珠冕繡衮、儼然王者之儀、仙官侍衛、魔幢器玩、皆珍寶也、簷懸香燈、桌置銅釜、釜可容十餘斗、盛茶

汁、其中燃金跋晝夜長明、左右廊閣、繚繞深巖、人在
東西、難辨頭目、其廣可知、石砌高與眉齊、台上置一
香爐、高三尺、每廊各置一爐、皆挿香、香烟繞庭、東西
廊閣、每一間、各有塑像、具象冕據桌、按事云、是泰山
所屬冥府諸神、人鬼勸罪、寫數化生、形形色色、不可
盡記、粉牌貼楣、間識其所掌、凡世間一切生死報應
善惡、皆在其中、刀山、釘樹、福田、利海、千百不同、蓋以
福善、禍淫、勸世之意也、上碧霄、穿化樓、奉玉皇像、被
袞、垂琬、執玉圭、樓下有娘娘神像、數十孩兒、繞一女
神、謂是主生產之神、蓋廟宇之盛、甲於都下、始創於

元明中遭回祿之災、康熙改建、都下士女焚香祈禱、
四時不輟、

虎園

虎園在圓明園東、紅柵設門、中建五六間行閣、閣中
織木為箭門、其中鎖熊子三頭、色似猪、喙尖、眼青、脚
大蹄圓、此是熊園也、從柵閣後十級層階上、建平樑
大字、穿然如張傘、下為窟室、地底四方、築以甃石、廣
可十餘間、縱置合抱之木、張以鉄網、釘其羅鑿、辟為
坎障、以鉄扇上引輓轆而絡閉之、鉄扇外又有大園、
障其半為三圍、上築方垣、其高及肩、三虎各在一圍、

衆人環立鐵網、上發喊投石、席乃背目視之、亦無驚
動、忽大叱一聲、聲震屋宇、人皆辟易、問其制席之法
、高夫從後對曰、日制席五斤、因云、使馮頭輩買、因投
之、則席張口仰受、一不誤落、又以肉塊欲投、不投、觀
其動靜、則帖耳仰首、跳躍向人、後園又有新捉一豹
、虎轉睛咬牙、其容尤極、色則斑斕彪炳、體甚小、

岳王廟記

岳王廟、宋武穆王岳飛安靈之所也、神衛象設、宮殿
丹雘、亦頗宏壯、殿中奉武穆王塑像、英姿颯爽、令人
肅敬、而庭有一石人、以鍊索縛、閉有若勒、閉狀、石人

叩頭謝罪狀、聞是秦檜也、愷武穆之精忠、大節將欲
克復神州、痛飲黃龍府、後人有詩曰、南渡朝廷輕社
稷、中原父老望征旗、此當時輿情也、檜也、誤國奸謀、
東寇弄權、遂成十二金牌、雖即之恨、天下人心、尚今
痛憤、千剛萬戰、不足以質其罪、故設石人、鑿刻以彰
其惡於千古者也、

萬壽寺記

萬壽寺在西山東十里、臨水特起、石獅牌樓、象設偉
壯、梵宇僧寮、絡繹相望、扁其外門曰、新建護國萬壽
寺、門內設阿彌像於小閣、扁曰功德無邊、又其北有

大殿、安金佛三座、辟面刻青木如雲飛形、千萬盈寸
之佛、累累高懸、若樹木之垂實者、殿下建東西廊、左
安關帝像、右安金剛像、餘皆僧舍、凡百餘間、從殿後
又建一殿、北壁下安大金佛十二軀、前豎紅漆牌書
曰、皇帝萬壽、殿之北、環以石假山、圍百尋、高五六
丈餘、皆斷石為峰、峭古、恠戾、削峙、若束鋸、錯若置碁、
穴其隙而植草花、松桂之屬、雖非自然之妙、而人工
之巧、可奪天造、殿中兩峰、岌然相向、下為出入之門、
又地行十餘步、則安地藏佛一座、而其中窄窄然若
無所見、遂登石山、則山磔犖、確、縱橫、四出、於岩阿、林

茨之閣、彩石榭、柵、噓人趾、武山之東西、各立小閣、而
安一座菩薩、象設、甚禪潔、東偏曰芳草、西偏曰落
花、紉山盡而拓其北、又建二層樓、偏曰萬壽閣、入其
中、則先光、無所有、而但有柳、寫錦屏、題曰萬壽頌、循
崖梯、四折而上、上亦以柳、寫錦屏、張于壁面、即乾隆
御筆、拓其南、戶、流、所、遠、曠、大野、決、濤、不、辨、涯、埃、又、其
北、建、六、椽、閣、閣、豎、大、碑、碑、有、乾、隆、御、製、詩、又、其、後、有
一、殿、偏、曰、一、元、三、要、佛、像、神、衛、亦、整、整、有、儀、迤、東、而
由、小、門、入、佛、宇、穹、隆、偏、其、門、曰、念、佛、者、誰、曲、折、為、長
垣、而、門、如、圓、月、之、形、堂、中、安、尺、餘、金、佛、於、小、龕、設、東

西長炕而以黑三升為帳幔垂地、僧徒比肩而坐、有
和尚家風味、列椅子而灌茶、勸飲、前有白榦松五株、
杖架挺然、皓白如銀、釵之股、松身可十圍、翠陰滿庭、
燕僧皆魚戒行、便是剃髮俗人、惟此寺僧不食肉、不
畜妻、擊鐘况經、有禪家氣味、有竹園、大師善畫、請岩
大師善畫、皆聰明可與語、筆談如流、頓忘俗態、又勸
茶、茶味香冽、入其室、摘桌、壺、硯、極蕭灑、亦多珍玩、余
請書畫、清、岩、畫、竹、蘭、竹、園、畫、大小楷字、皆絕品、而僧
簡、默、清、淨、論、辯、內、外、典、頗、多、可、觀、余、亦、贈、以、扇、丸、之
贖、

西山記

西山太行餘麓也、名曰萬壽山、亦曰玉泉山、環湖數
十里、樓台掩映、橋塔輝渺、皆跨山駕海、瓊瑤錦繡、五
彩玲瓏、隱然若蓬萊仙府、儘是北京名山、天下之大
鋪叙也、元明剝開、清人資飾、漢之昆明、唐之太液、隋
之西苑、宋之良菴、無以加此、自圓明園、過闕武垣、迤
而東南行、忽見三會文昌閣、翼然臨水、少憩其下、仍
登十七橋、橋下皆設虹霓、樓船出入於其中、過橋入
龍王廟、石門呀然而開、刻其巔曰嵐翠、而傍刻長聯
曰、列岫展屏、山雲凝畫、平湖涵鏡、檻波涵空、明有

彩樓繞以石欄、湖水環之如圓月形、樓凡三層、南面曰天遊、北曰海湧、東曰流竦、西曰偃虹、正偏曰望塔、與萬壽山相對、山之上下左右、綺榭瓊樓、壁房玉塔、錯落高明、不可殫狀、石門上有四方閣、扁曰洞庭佳賞、閣下紋石青白色均鋪、雜以花斑石、玲瓏澀激、窈窕籠以鍊索、宛如紗籠、欄下嵌以石假山、中有窟路、可以環走、東西山之最高頂、有花石床、此乃御榻、人不敢上、南有碑文對立三面、東曰蕙雲、外曰浴日、西曰耕斗、外曰飛鯨、南曰耀金、淳玉、中有百丈飛樓、扁其門曰廣潤靈雨祠、湖之北有宮、嶺所居之室、樓制

極巧麗、又行西南數帳許、有繡漪橋、橋下為大虹霓
門、從石梯四五十級、然後上橋、形如鰲背、又如垂虹、
立其上、縹緲若登仙矣、橋之東北湖、水中有島、島中
建彩樓、若張鋪傘、松翠隱映、景明樓也、有短身遮入
于湖、其下藏彩船十餘艘、此乃水嬉所用、廓如亭在
十七橋東南、亭凡八椽、制甚華麗、設石塔于湖邊、範
鍊為青牛、舉頭望湖、精神活動、俗稱牛入湖則清、蓮
始訖云、泥馬渡江、鍊牛入湖、亦係蓮教耶、牛背上刻
篆字、其文曰夏禹治水、傳頌義重安瀾、後人景從、物
寓剛、戊家取厚坤、蛟龍遠避、詎教蕞藉、漢此昆明、諸

流萬頃、金鳳神牛、用鐵悠永、巴山淮水、共貫同保、人
補漢帝、我慕唐堯、瑞應之符、逮於西海、敬茲降祥、乾
隆乙亥、某與文、皆乾隆御製、御筆湖之東南、開野引
水為水田、蓋此山一做、西湖之勝、而猶玩灌溉之利
亦如之、蓋湖之周四方七八里、自西山下南流、至圍
明園、一坎東流、入西直門、設水閘而蓄泄之、湖之東
築石為大路、以防湖決者三十里、島嶼之在湖中者
周凡四方百餘步、水晶宮、皇漢虹、鸞著、棲在其中、湖
邊四方樓閣之相望者、或二層三層六後八後、或為
長廊、或為短亭、蓋聞皇帝御龍舟、船遊上下、則選宮

女教百備、但具於此、設舖市買賣之狀、使從官各得
厭飲、效頰西湖景致云、玉泉垂虹、居庸疊翠、皆入於
皇都八景、而玉泉垂虹者、玉泉山頂鑿石為螭頭、大
泉從螭口噴出、瀦而為池、池上有橋、橋下水東流入
西湖、每當春夏之時、芙蓉禽鳥、溢漾於水上、居庸疊
翠者、玉泉山後遠峰、疊見於雪色皓然之間、是居庸
關也、居庸非京城一百二十里、遠控之勢、亦一奇觀、
世傳皇明時、竭天下之財、浪費於西山土木之役、
而海內虛耗、仍而不振、嗚呼惜哉、建文皇帝陵寢
在玉泉側、遠瞻新霽、殘雨之湖、林木扶疎、海外陪臣

益覺風泉之思

圓明園記

圓明園在暢春園之北、雍正潛邸、御極後、納涼之所也。園周十里、東西長、南北短、林木葱蔚。正殿曰正大光明殿、二層殿、殿前、丹雘、璣環、皇帝宴藩臣、陳雜戲、立兩架木於庭、高搭一大鼓、燃繩於鼓底、一鼓自落、而各種羽族如鳥鵲、鳥奮之屬、忽自鼓中飛散、滿天蔽庭、謂之放生宴。翌日又設宴於山高水長閣、閣凡十二楹、二層、皆以沉香設欄、庭中亦設欄、如翠屏狀、忽聞砲響自內出、皇帝出御閣、鳴鞭齊班、設雜戲、一

人編羽於帽子上、背負遠干而舞、此云干羽舞、又立
兩架木、高可三四尺、架設橫虹、如層梯、最上層各設
兩杠、杠之兩端、又設間架之小杠、使之游移上下、如
櫃檝之旋、鞞上層設杠、凡四處、使彩服童子八人、頭
編黑絲髻、髻無鬢、各立杠頭、一上則一下、一下則一
上、懸綉浮空、是謂西洋鞞、名曰忽忽、又設戲壇、
高與閣齊、壇上、草羅絡其上、前線為花、綴珠為葉、
施錦步障、呈戲之人、皆着補服、逐本易衣、逐相出入、
者、千餘人、笙、簫、管、笛、鍾、磬、琴、瑟、無不畢、陳服、而衆人各
執一板、以金字書一字於一板、合而看之、則曰道元

萬年福壽、又假花羽扇之舞、角觥戲、獅子舞、紅棒環
逐、等諸戲、次第畢、呈末食頃、而罷、閣之上層、忘簾皆
貼、標大琉璃、紅綠、隱映于中、通官曰、皇后妃嬪自內
窺視云、天色向暝、又設燈戲、別有太平燈記、

太平春燈記

山高水長閣、天色向暝、放大砲一聲、欄邊棚前懸紅
彩燈、羊角燈、無慮千萬、庭中立紅閣二座、各懸黃色
一大積、積底忽落一燈、其大如鼓、燈懸一繩、繩端火
忽自燃、走上積底、積底又垂一圍燈、繩火燒其燈落
地、自積中又垂鐵籠、簾子、簾面宛篆壽福字、着火青

熒良久火自滅落地、又自積中、垂下懸珠燈百餘行、
一行所懸為四五十燈、燈中次第一時通明、又有百
餘美貌仙童、持丁字杖、杖兩頭懸昏小紅燈、進退回旋、
又有兩龍、蜿蜒欲闕、帝豹屏象、鸞鳳、魚鵠之形、層生
疊出、一繩燃盡、一板打開、自落、而積中紙裹焰、騰騰
破散、各燈自燃、忽變為彩閣丹楹、鰲山鯨海、戰陣戲
場、仙人燈塔、燿燿博燿、七寶燈、不可名狀、最晚百十燈、
一齊通明、如銀汞之照、綴於空中、忽變為萬年春三
字、又變為天下太平春五字、燈戲訖、又設梅花砲、別
有梅花砲記、

梅花砲記

山高水長閣燈戲纜記、設梅花砲、植紅紙筒如箭筒者、兩庭各十餘所、火燃筒口、則光焰四散、天地震動、火焰之飛空者、皆備物形、龍犀犀攫呀口、張尾、蜂蝶、啣花、梅竹、飄風、千佛出世、摩幢幡蓋、招賜碧空、羣仙升天、或乘蓮舟、或駕鶴騎鯨、或乘槎、或負寶劍、或擎葫蘆、皆赫赫火飛、至半空冉冉而銷、倏忽頓悟、目不暇視、又閣上連橫索于庭前、而架之後、懸燈之棚、又四五十處、閣前連索、虛而通火塊、疾若流星、走撲前架、又從而遍散諸棚、一時火發、見霹靂振地、虐

炳蔽天明、燈晃、渣之世界、忽作黑洞、洞地、不辨咫尺、俄而皇帝駕還、庭班退出、

黃金舊臺基

燕昭王築臺、置黃金於其上、以延天下之士、名曰黃金臺、今皇城是燕都舊地、而金臺夕照、入於八景、故余求問其所謂金臺、人有指夕照寺曰、此真舊址也、眼界通遠、夕陽滿照、風烟寥落、惹人懷古、噫、黃金如土、盡入於佛樓禪宮、天下之骸骨如山、無人敢語、悲歌慷慨之徒、應弔望諸之墓、醉酒痛哭也、蓋金臺之見於地乘者三、一在易州、二在都城、與地名勝誌云、

在府東南十六里、小金臺又在二里許云、今人指朝陽外一高阜曰、小金臺為址、好事者言也、

萬柳堂舊基

大明雪樓才子袁中郎李涪撰、王弇州諸人、無日不賞咏於萬柳堂、其詩集中多載萬柳題詠、今之拈花寺、是堂之舊基也、寺之東南、引水鑿池、一間神閣、竚然於最高岸、是乃建堂處也、四面軒敞、萬柳蔭映、詩酒風流、藹然如在、令人有曠感之懷、寺在夕照、孝教惟之地、

蘆溝橋

蘆溝橋亦一奇壯處也、自宣武門、南行四十里、有若
橋亘于東西、長過三百步、石欄一百四十一間、如霓
十二門、皆容帆檣之出入、橋上下隅、立石柱、形如擎
天柱、柱皆鐫鐵而釘其隅、東西有康熙、乾隆御製碑
記、一碑大書蘆溝曉月四字、後魏劉靖築堰防水志
謂之劉帥堰、又曰固安堰、過橋有閼廟、廟外設廊閣、
閣中有官負治文簿、收車船之稅、蓋洛陽、長安、金陵
成都、蕭賈之入燕者、皆由此路故也、按孫承澤春明
夢餘錄云、蘆溝河出太原、天記、伏流、至朔州、兩邑、從
雷山陽發為潭泉、而為桑乾河、鴈門、雲中諸水皆會、

至通州及白河、潭河、瀟水，是具冰流也。

金魚池

金魚池在天壇西，池水頻澗，魚族類萬不同，而冬色俱備。每春和景明之時，潏潏泳躍，五彩閃動，波瀾綽耀，其織如指，其大如扇，至有二三尺者，或有一魚而兼五色者。首譯炕中見琉璃水缸，盛三四尾，置之床桌之間，亦一奇觀也。時春冰未解，余未見池魚之躍，而聞首譯語，故為金魚池記。

琉璃廠記

琉璃廠在朝陽門外，市樓兩行排之，金碧玲瓏，此是

天下珍寶輻湊處也。珠璣貝鏡，眩人眼目，如初入波斯市，不可一一名狀，而其中有盤龍寶鏡，高可三四尺者，白玉障子，以青磁石畫花，紅珊瑚等物，雕刻奇巧，成花草山水形，大可一間者，自鳴鐘，其控不一，大如鼓，小如斗，皆粧以烏銅碧玉，石假山，玉假山，木假山，色皆淡黛，綴以珠貝，宛若活物。理地鏡，毋論大小，皆極技巧，取其一二而窺見，則彩閣瓊榭，奇花碧樹，人物鳥獸，皆如活，或有鴻門之宴，赤壁之戰，西園雅集，南宮大宴，隨輶自轉，如移步如影，誠可異也。其外文房之寶，簪纓之珍，橋桌之妙，雖終日端閱，無以適

也、同行一譯、執寶石二枚、問其價、則答銀八百兩、譯
目瞠口呿、不敢問他物、而走、他物猶是、故朝鮮人賣
買、甚罕、所買者、零零瑣瑣、價款而無用者、厥人指物
之賤、而歌者曰、朝鮮件、甚矣、吾東人之不識羞耻也、
今胡俗、朝衣、則頸掛念珠、故謂之朝珠、于閣先啟中
籍家、朝珠、四箇、價銀三萬七千兩云、

丹肆記

丹肆在正陽門外、非止一處、其蓄書之法、設室、教三
十間、每間四壁、設間架、層層井井、排列積峙、每套付
籤曰某丹、故充棟盈宇、不可計量、而前閣置一大桌、

桌上置十餘卷冊匣、乃冊名目錄也、人坐椅上、欲買
某冊、則一舉手抽給、抽插甚便易也、閱其目錄、則其
大秩有四庫全書、文章大成、冊府元龜、淵鑑類函、佩
文韻府、全史、十三經註疏、康熙字典、萬國會通、大藏
經、等、而其外、經史子集、百家醫藥、卜筮、種樹之流、俾
官雜記、四、大奇書、演義、等書、其數亦不億、多有不知
其名目者、蓋中國有大小字板、頃刻印出、故文人詞
客、片詞、隻句、亦皆列出、成集、書籍日富、文明之兆、昨
不幸也、異端之教、俾官之家、淫談、特說、無關於治教
者、愈往愈盛、大為聖道、榛蕪、安得火其書、而人其人

也、大抵夷狄之入主中國、右文之治、自拓跋氏以後、
未有盛於此時而抑有說焉、康熙時天下初定、人心
未服、海內豪傑之士、搢腕而談憤、開口而詆歎、無非
尊攘之義也、海可蹈也、山可隱也、雍髮左袵、投帽而
抵地曰、甚麼物也、於是乎康熙大愛之、開文淵閣、集
天下文學之士、摩以美啣、厚具餼養、聚聚書籍、晝夜
考校、尚所謂豪傑之士、埋頭蠹魚之間、不知先之將
至而憤歎之心、如雷過陽、此乃賺得英雄之術、非但
出於右文之意也、

幻術雜戲

幻術之人、世稱能見難思、其戲凡數十種、其一、手執五六銅環、環正圓、無罅、縫貫于指、旋轉良久、却交貫為連環、旋即分之、為各環、或一人持一環、相對投擲、則輒相合、其一、石彈子如鷄子大、兩人各持黑白一彈、納于口、吞下、而更或自手中出之、或自腦後吐之、或吐白于吞黑者之口、或吐黑于吞白者之口、其吞吐之狀、可謂神出而鬼沒矣、其一、鐵釘長數尺許、納其刃于口、冉冉刺喉、幾沒其刃、頭輒仆于地、闔然作悶絕狀、已而張口、而拔其刃、涎津漬濕、斑斑有血痕、其一、橫竹吸烟、浸頭吞下、或二、或三、一時弄吞、又破

竹為兩條其長數丈細諸鼻孔而用力挿入之瞬目
張口為吞下之狀而又若忍痛者然久之盡入而少
見其末已而引而出之竟其長而皆濕涎津既出唾
于地則或有涎其一一覆一空袂於地轉身回旋念
念作口中語久之去其帕則有二大盞圓樑而一盛
大棗一盛花菜雜種又覆袂如前有一大盛水盃從
其中出泱泱波瀾少不傾覆而萍草花葉泛在其中
金魚出游其一扯破白粉紙切作百十瓦細口作噀
噎狀已而挿出其一端紙條候相連無一片粘連之
痕因兩手交引之如蠶絲之出不知為幾十丈有二

禽離從紙中飛出、觀者皆驚叫、其一引一絲繩、拔刀
絕之、為三四端、旋為呪語、摩挲繩、復一半相連、仍無
重續之痕、其一立一柱木於庭、負其手而令人從後
縛之、欲堅牢不解、使之覆袂於手縛處、而瞬目間、負
手後步、則手之所縛、雖不自解、而所立柱木、便在縛
手之外矣、其一豎竿、撓探或傾、或酒之壺、酌而盡之、
復傾而復飲、空壺之酒、泔泔不已、

怪物聽

怪者異於常理之謂也、今此集天下之怪物、俱收并
蓄、亦何意也、有一男一女、身軀矮短、形容古怪、滿跣

而行口含烟竹言語喃喃其陰陽之事亦如常人云
長不過四五歲兒也又有矮人腹部膨脹頤下瘰大
如鼓抱持而行或鼠大如猫馬小如犬皆馴而畜之
如是者頗多余見朴燕岩熱河記曰道見一婦乘車
面粉白衣錦繡毛如猿眼如蜻蜓長鏡尺餘瞥視貌
似絕艷此南方山都也又聞蒙古人博明從軍出塞
失帳裡木匣皮箱有野濠盜之貌類婦人捷如飛猿
發卒圍之哀啼不肯就捕自掛樹梢而死盡得所失
箱匣箱內多藏米粉佳鏡針線刀尺等物蓋效婦人
而冶容之數也又聽戲時見極小馬載珊瑚樹自殿

中出高纜二尺，小如驢兒，嘶哮騰躍，有駿馬之體，而
珊瑚樹大於馬，而枝幹扶疎，云在記此，以識中國之
多怪物云爾。

演戲記

演戲戲也，亦聞中國之沿革，蓋清初有人聞其歷代
衣冠之無傳，誤為此戲，望人耳目云信斯言也。豈不
誠遠慮哉！演戲廳設戲台，後面設幔，幔中備置各種
戲具，每設戲台，幔出入，一戲纜罷，一戲繼出，外設一
小門，觀戲之人入門，便收錢，錢多者坐上，錢少者
坐下，層一，無爭坐之弊，坐者或起去，復還坐，虛回自

如上下層坐虛盡滿無障地則守門者不許人添入
閣中井井有序亦無喧譁紛運之弊終日觀戲坐喫
菓饌酒肴之屬中國之人雖戲場亦有規模是則可
法也其演戲名目有秦始皇阿房宮楚霸王鴻門宴
漢高祖南宮宴魏武帝銅雀宴晉武帝雲龍宴隋煬
帝西園行樂唐太宗七德舞宋太祖清流閣戰金太
祖龍王廟戰元世祖渾河戰明太祖金陵戰其外鉅
鹿大戰赤壁大戰西園雅集祖身故事王昭君出塞
行爲孫公主琵琶行若此之類不可殫記其衣冠皆
依倣歷代之制人物皆肖像各人之貌每設一戲必

先掛一牌、以示其名目、而形容當時之事蹟、又雜以
諧謔、以供玩笑、初見寶座如天、高排宴桌、釘佩趨蹌、
繖扇擁衛、擊缶而歌、忽變為青油玉帳、擁盾直入、撞
破玉斗、釘舞翩翩、忽變為拔釘擊柱、醉酒忘時、忽變
為宮粧細馬、橘鞦影從、唱清夜游曲、忽變為干羽舞
庭、猛將獻馘、酋長起舞、忽變為盡布層城、慶兵新闕、
或鐵騎突出、刀鎗齊鳴、或接船揚帆、征旗繞城、或沉
船破釜、橫槊賦詩、或文人詞客、臨水賦詩、或美人擁
樓唱玉門曲、或羌笛弄春紅、狂落淚、或馬上彈曲、音
調嗚琤、大抵演戲之妙、虛專在於馳逐回旋之際、言

語剛酌之間、觀戲之人、有時閉笑如雷、而我國人語音不通、咄如泥塑、人不識何狀、余心生一計、招所親隣、舖人張青雲、使之一一替傳其語、又使一譯、譯張也之語而聽之、一遠見其名目之牌、想像其事蹟而觀之、稍可領畧、而疑者、聞之竟久而罷。

鄂羅斯館記

鄂羅斯館在玉河橋、係八面重門、建一高閣、閣中畫一丈夫、披髮赤身、流血淋漓、瞑目垂首、奄然一死人也、見之駭愕、畫紙上貼琉璃、映透、其下設橋、桌、爐、燭、丹、履、鮮、鹿、頭、楮、上、畫、人、物、亦、以、琉、璃、貼、之、宛、若、活、動、

聞其尊奉何神、鄂羅太子被殺於中國、死而有靈、故
旌表其被殺之狀、以奉之云、或云利瑪竇被殺留像
云、未知孰是、按鄂羅斯亦名大鼻撻子國、在黑龍江
北、與中國通商、旅、不臣不貢、十歲一至、留館替易、其
人深目高鼻、天性悍悍、嘗白日殺人於街市、乾隆命
磔其教人、自是稍畏、戒石鏡出其地者、品佳入其館、
甚精、流器玩皆珍寶、有一人迎坐、頗解東語、值叙寒
暄、床有滿漢書冊、篇帙頗多、以鄂羅子(字)譯之、細字曉
書、字如梵書、桌上有自鳴鐘、制甚精妙、又有自鳴琴
大如掌者、其制一轉軸、則隨柱發絃、彈成音調、又有

一紋匝長數尺者、雕刻精妙、上有圓孔、貼琉璃懸于
壁間、其匝底有一樞機、以手轉之、則杜鵑、忽自匝中
飛上、琉璃圓孔、矯首窺外、一聲叫、二聲叫、聲聲清婉、
俄而還下、此非真禽也、聞鄂羅人、此去貴國相距幾
里、曰二萬餘里、聞地方幾里、曰三清國為一我國云、
蓋地蓋北海幅圓甚大、清國中原也、為鄂羅三分之

一云

蒙古館記

蒙古館在玉河橋側、非止一處、館中設幾榻、書廬、其
形如我國、而傘、幃、帳、地底亦鋪厚毯、南向行門上、蓋

正中開閉以受陽氣、男女混處、其人諸吏中尤悍、醜
無禮、面目可憎、善馳突、居無宮室、行則撒毳幕、載之
橐駝、日馳三四百里、陰山大漠、止宿處必設幕、吹獵
為糧、糧明時、循韃靼、其地北盡沙漠、分為四十八部
強盛難制、獨奉佛、惟勤、生死以之、唐人因其俗而誘
之、僧徒分處于各寺、賴堂、仕宦者皆男、尚皇女、女嫁
親王、寵錫高、秩而無諂貴賤、皆衣黃衣、黃者皇帝之
服、色乾隆時、黃花諾威行、皇帝益撫摩蒙古、

旣羅澤海錄

旣羅人出身全光顯、年七人、戊子九月初七日、捉魚

次乘船向楸子島、初十日遇大風簸揚、出沒於海濤
中、備嘗危苦、凡九日、始泊南海普陀山、留定海縣八
日、復乘船、歷鎮海、穿波塞谿、餘姚、上虞、山陰、蕭山、到
錢塘、留四十七日、復乘船、歷石門、嘉興、吳江、吳縣、無
錫、常州、丹陽、揚州、高郵、寶應、淮安、清江、十二月十六
日下陸、凡水路二千九百七十里、十七日復陸行、歷
山東、桃源、沂水、蘭山、蒙莊、板城、蒙陰、新泰、泰安、嶧
河、禹城、平原、德州、景州、交河、河間、新雜、雄、涿州、良鄉、正
月初七日到皇城、凡陸路二千九百七十里、諫人之言曰、九日
海中出沒、風濤不知其幾千里、而長鯨巨魚、幾不免

吞舟之患者屢矣。水陸行合五千里之間，山川棧堦，人物謠俗，無文可記，是所欠也。第撮其大者而言之。晉陀山海中名山，寺刹精麗，花卉繁華，可謂仙境。而錢塘形勝天下所無，今見北京，大不如錢塘矣。湖水如鏡，二十四橋各設虹霓錦帆，盡舫出入於其中。彩閣丹樓，一層二層三層四層，至于五層，照絡湖上，冬暖如春花，樹交映，居人皆飯稻羹魚，錦衣珠玕，聞東國深人皆競引遷家，各設酒饌，慰問勞苦，曠行頗衆。或醉於笙歌之樓，或游於珠璣之市，如是者四十七日，而烟柳畫橋，風簾翠幕，不知其幾萬家，其衣食之

足、風俗之厚、景物之美、天下之樂地云、余於祿燈之
下、問其所經歷、擬其言、作溧海錄、

江南樓船記

通州河中、概橋簇立、可十餘里、亦壯觀也、其中江南
樓船、間間連舶、望之如畫、園中、東人初見、莫不叫奇、
遂登船、船制極精緻、設二層、下層載物、上層設門扉、
入其中、四面開窓、窓皆貼琉璃、其中設椅桌、器玩、筆
床、茶爐、名畫、法書、板壁、簷楹、皆塗丹雘、映水照耀、又
有內室、廚房、饌龕、間架、井、井、婦女妍美、皆錦衣繡鞋、
拓窓窺外、見人不羞、真所謂浮家泛宅也、余曰、范蠡

泛五湖、想亦如是也。今江南商人、長居好棧、開飯稻、羹魚、衣錦、繡、畜美人、遨游湖海、以送平生、不知一片畫船外、復有功名富貴、是何等物、豈非水上仙耶、

大樹菴夜話

余往圓明園、三宿大樹菴、晝則入園觀戲、夜則與同侪諸人、酬酢古談、又與菴中證明大師、筆談、以爲大樹菴夜話錄、

昔元順帝北遁也、始放高麗、使東還、麗使出館、然後始知天下有大明無也、使臣留館、漠無聞見、每深夜鎖館、安念無所不到、余語及此事、雲、庫曰、若然、則

適見黃河清、亦何妨也、

王鵠身民、諱曰、天下有三厄、南唐時、李甯娘、倂入宋宮、宋宮人、身效其小脚、夫夫、勒帛、紫纏、遂成風俗、故元時、漢女、以小脚、彎鞋、自標異前、明時、禁他不得、鞋女之、嗤、漢女、纏脚、以為、誨、淫、則、寃、笑、這是、足、厄、洪武間、高皇帝、微行、至、神、樂觀、有一、道士、結、網、巾、便、於、鞞、髮、太祖、借、他、一、著、照、鏡、大、悅、遂、以其、制、令、天下、其、後、漸、以、髮、網、代、絲、紫、箍、根、纏、瘡、痕、狼、藉、名、曰、帛、坐、巾、謂、其、前、高、後、低、如、帛、躡、踞、這是、頭、厄、萬曆、末、烟、茶、遍、行、而、浙、間、猶、令、人、悶、骨、醉、倒、天下、之、毒、草、也、非、充、口、飽、

吐而天下良田、利田佳穀、婦人孺子莫不嗜如菽藜、
情愈茶飯、金火迫口、這是口厄、亦一世運也、出熱河
記

余聞謹明禪師曰、雍和宮齋室、倘有番僧畫像、乾隆
皇帝戀戀不能忘、立祠奉之云、是何僧也、曰西番大
寶法王班師額爾德尼、曾見朴燕岩熱河記曰、班師
有神道法術、有五色鏡、人懷奸盜、青色照、人懷貪賊
黑色照、人懷危懼、白色照、惟忠孝一心、敬佛人必紅
霞帶黃烟、鏡面有若秦始皇照、瞻鏡、班師自西番
來時、聞香薄叢中、拔一靈樹、盈栽而來、此名天子萬

并樹交柯側葉皆成天子萬年字又在熱河對皇帝
喫茶忽南向灑茶曰七百里外大火延燒纔得送而
救火云聖日部臣逆奏正陽門外琉璃廠失火火勢
浩大時方晌午天晴忽有猛雨從東北來即刻
滅火蓋灑茶送雨正值火時若樂巴喫酒蓋異僧
明萬曆時兵部尚書石星夫人即南京戶部侍郎某
之女也初家被籍逃贖自賣娼館以贖父先時朝鮮
譯官洪彥純入燕京游娼館有一娼索價千金洪許
之、女背燈而泣、問其故、荅曰、索高價、令人不敢求媒
者、本欲以免斯頓之辱也、一以望天下義氣人、贖為

箕箒妾也、公外國人、法不當將奴去、此身一染、不可
洗也、洪詰知其侍即女、殊憐之、用贖價發、何曰二千
金、洪立輸之、訣別、女百拜、猶思父、其後洪隨辨誣奏
文之使、又入燕、至通州、僕帳如雲、問洪彥純來否、乃
石公奉邀也、洪恠之、隨至石第、尚書携入內室、其夫
人感極出拜、洪惶恐、罔知所措、石公曰、(志)思文久望此
人耶、夫人泣道出、娼館歸石公為繼室之由、洪始知
之、夫人貴、猶手織錦、皆刺報恩、綴字、贈洪、歸裝、洪在
漢陽、美洞、賣報恩、綴、洞而音相似、而訛傳也、石公以
夫人之故、尤致力於我、東辨誣、請援兩事、大有功焉

立生祠於冀城、漢亦以此功封唐城、
今行余見三快事、清人立國、專用表、
陽橋立、祿山石刻之像、彰唐之亂、堦
鐵縛之狀、彰宋之誤國、漳河水新曹
漢之遊節、可減千古之興憤也、至於
王振、魏忠賢、客氏之罪、凡明季被禍
立傳旌表之、

首譯全知事在涿、年七十餘歲、筋力
隆時入燕、見白日行雨之奇、殿閣中
盛水、庭有葡萄架、一老人啜瓶水於

砌假山之際、初則細雨霏霏、少選而勢甚大、簷溜飛
跳、霖鈴亂鳴、庭中雨水沍滿、而殿閣之外、斜陽依舊
如垂水晶簾、且不需人衣服、誠甚異事云爾。

庵中左設關帝廟、右設釋王殿、皆丹雘修麗、而最下
小廊閣三間、余與書狀及朴松溪諸人入焉、見壁間
有一神位、板塵埃滿壁、烟煤滿帳、揭帳而看、則位板
書曰、文宣王孔子神位、諸人相顧愕然、遂拂拭塵土、
淨掃閣內、遮幔而宿、坑、余臥誦安禱詩一絕曰、香燭
處處皆祈佛、管絃家家盡祀神、惟有數間夫子廟、滿
庭草寂無人、今日先皇不幸、迨之、設使關帝釋王有

知亦安得是然在心乎、甚矣中國人之崇佛祀神也、
時一行多人、處廟殿之中、松溪戲曰、吾輩入此寺、謹
守聖廟於數間之屋、備嘗艱苦、當自任護聖之功、而
非吾道者、鳴鼓而攻之可也、余曰、神州陸沉、聖道榛
蕪、若秋無可讀之地、義理非可伸之時、姑且休譏、相
對一笑、

昔李益齋、齊賢、崔孤雲、致遠、皆入仕中朝、遍觀巴蜀
江南、亦東人之罕有也、今燕京北方一隅也、一有入
燕者、輒曰、吾盡觀天下之大、豈不夸哉、蘇轍蜀人也、
於水見黃河、於山見嵩岳、於人見歐公、自以為幸、况

不見河不見嵩不見歐公者乎

車燈漫錄

燕薊往還長身漫漫凡山川風物古蹟異聞盡
則經歷於車中夜則記焉於燈下俱收并蓄名
之曰車燈漫錄

中國人以吳三桂開關納清有罵之者有寃之者罵
之者之言曰三桂父勣被執於虜遺書勸降三桂答
曰為國干城之將手握重兵何忍背國降虜且志孝
不可兩全終不降清人縛其愛妾示之城下欲殺之
始乃投降是不孝也開門納賊以失天下末乃自稱
皇帝奸雄心事畢竟破綻是不忠也寃之者之言曰

三桂求救於九王、抑有深計焉、棄關則九王稱後躍
入、守關則自成席捲來關、腹背受敵、必敗乃已、於是
身託以乞援、誘入重關、以精兵蹴踏之、九王可擒、仍
又迎擊自成、回復中原、復位朱氏、則是千古之奇功、
而三桂之深計也、九王先據三桂之深計、至有毀城
之請、三桂不得已許之者、誠以君父之讐、不可一日
共戴、急於復讐也、清人入主中國也、徒死無益、冒恥
投降、亦是李陵得當以報漢之意也、天不作宋桂福
亦敗、則三桂蹈天階地、窮途所歸、可憐紅羅山河、盡
入腥塵之城、冤憤彌中、遂猶大楚皇帝、將以收名豪

傑掃蕩中原若使成功亦一快事也今不可以成敗
論人也蓋此兩說皆有依據未有斷案當俟百世之
公議也

九王與李自成大戰萬壽山時自成軍百萬整陣而
待九王以三萬鉄騎繫馬於樹以鞭亂下之馬怒氣
騰騰盡欲奔逐於是以致斷其轡而縱之馬怒奔自
成軍九王登山頂鳴鼓督戰塵埃漲天咫尺不辨自
辰至午塵埃稍定素微中見遍野紅光罩地始知火
捷蓋自成軍大敗走死清兵遍野帽子上紅綵罩地
故也

瀋陽西門外有、我東三學士殉節處、行人指點不覺
髮豎而眦裂、余見開國方畧曰、朝鮮學士洪翼漢、奉
倡義祖明、嗚呼忠肝義膽、請人亦感之、此足以永有
辭於千古也、

明誠意伯劉基、深解推教之理、太祖問以革代之事、蓋
八旗以進、太祖點頭、又問其次、蓋一人騎羊以進、太
祖未解其意、後人亦急以解、蓋八旗者、請人之國、設
八旗、驗其意、

天下有四京、三關、八旗、十三省、四京者、北京、南京、盛
京、興京也、三關者、山海關、居庸關、松平關也、十三省

者江南、江、西、福建、浙江、湖廣、河南、山東、山西、陝西、廣
東、廣西、貴州、雲南也。八旗者，滿人八旗，禁旅分駐京
城、各旗分地。正東則正白、驍白、東北則驍黃、東南則
正藍、正西則正紅、驍紅、西北正黃、西南則驍藍、各設
都統、

天下一歲賦稅所入銀穀都數，載在官階通政者地
丁鹽課關稅漕糧等各色摺銀三千四百二十六萬
八千八百七十六兩、米八百四萬五千一百石、蓋地
每畝征銀四分四厘、丁有三等九則之分、大約每
人征銀四錢二分九厘、

白河通惠河、其深不能尋丈、然萬斛之船、蝕水數丈、
魚沙礁壅、閉之急者、用水閉之功也、其制築石堤于
西涯、中河為門、其廣恰容兩船、削石為關、橫鋪于河
底、夾堤而豎、兩石柱下、闔于關、然後以大木為閘、納
于關、廣夾均、迫于兩柱之中、令承接而免躑、雖具兩
鑲、於閘之首、設輻輳堤上、而啓閉之、雖不免滲、流之
滲、減而能橫絕、混混之流、一瞬之頃、謹成四五丈、海
于舟流、無滯、不以風濤而傾、權不以旱澇而增、減、前
閘、繞減、後閘、隨高、能以一勺之多、而致之千里之遠、
禁中之太液池、西山之昆明湖、及夫玉河城壕之水、

白遊御
諱常曰
補提日

其源不過澄觴、而皆匯為巨浸、舸艦縱橫、佳良工之
埤利也、

紀曉嵐昫嘗往尋河源、撰進河源記、其畧云、崑崙即
今和闐之南山、河水出焉、元世祖遠都什尋之、僅至
星宿河而止、今乃直到發源處、目見其地云、張騫所
至乃西域三十六國、凡延袤二萬里、今全入郡縣、辨
曰新疆、幅圓之大、往暉所無、西過突厥、西南出吐蕃
以外二三千里、身毒即印度、而懸度在皮山、入版圖、
而甘肅久為內地、弱水黑水至在甘肅內地矣、
鴉鶻關、店炕、極蕭灑、壁上書長愛烟雲物外居、紅泉

白石足清娛、園林盡日無人到、千樹梧桐數卷書、蔣
收銘題、又有西聰、彩筆歌詞飛絳雪、布囊書卷勝黃
金、望陳簡題、詩興筆極佳、

深河殉節記

皇明末、遼州招撫 我朝光海時、送金應河、姜弘立、
金景瑞、率兵入援、到深河、天兵戰敗、弘立投降、景瑞
被執、金應河却立柳樹下、彎弓射賊、矢不虛發、天盡
被殺、猶蜀賊不屈而死、人稱柳樹將軍、明皇帝聞之、
贈遼東伯、遣使致祭、祭文曰、巡遠不死、仙李無臣、天
祥不死、屬耆無臣、將軍不死、寡人無臣、堂上鶴髮、望

斷倚關、關中寡妻、化石山頭、噫將軍以外國陪臣、能
知尊國之義、蜀賊狗節、倡義聲於天下、可謂海東有
人、余過深河、遂吟一絕曰、山海關頭日欲曛、長河揮
騎散如雲、東人且莫尋常過、柳樹將軍獨斷魂、

紅夷砲記

清太宗率十萬兵、攻寧遠城、袁紹畧崇煥嬰城固守、
時年二十四、東使適入城中、見袁公方焚香禱書、意
思安閒、問城中兵幾何、曰不滿三千、然則何以應敵、
曰、已有籌慮、城中寂若無事、東使進退固措、夜未半、
一將近前密奏事、公鎮之而已、俄而城上起一砲響、

響鏡歎城外雷聲塌地、相夫漲天、霎時間十萬精兵
化為灰燼、蓋從地道埋紅夷砲於土城之外、待時而
發也、清太宗跳出相矣、中登始俯視痛哭、嘔血而去、
袁公登樓望見山下燈明、滅而走曰、是汗也、命一
將齎羊酒馳往慰之曰、今行好辛苦、敢復來乎、汗恚
甚、痛飲而走、此天兵第一奇捷處也、袁公曰、吾殺人
此多、噫、其不免矣、一說清太宗以礮攻城、城多毀、明
朝將陷城、以八夜間、袁公以蓋布為堞、堞形、張棚於
城毀處、適天而且寒、一夜成冰城、汗乘曉望之、以為
神、遂解圍退走、

山海鐵網記

山海關鐵網城即明清間興止大機關也明末總兵
吳三桂出鎮山海關以拒清兵天子視若萬里長城
時清太宗汗都瀋陽率蒙古滿州鐵騎勁兵百戰松
杏間盡有關外之地寧遠之役燒兵於紅夷砲嘔血
而歸仍病死其弟睿親王多爾袞或_曰九王智勇兼備
有乃兄風衆皆屬望九王乃下令曰天下者太宗皇
帝之天下也敢有異議者斬逆立順治順治時年九
歲弼九王曰攝政王都督中外諸軍事九王受遺詔
輔小主內修國政治兵繕甲經營天下國人大悅比

之用公諸葛亮、然不敢窺山海關、以三桂在也、時中原大饑、米賊李自成、以輝、史起、煽聚羣盜、衆至百萬、進陷皇城、崇禎皇帝殉社稷、大明遂止、自成轉關向關、所過、無不殲滅、三桂獨守一關、徒擁虛器、內無援兵、外有強賊、遂求救於九王、以雪國讐、九王許之、駐兵關外、請變城而入、蓋懲寧遠紅夷砲也、三桂亦許之、九王勒精兵三萬、馳入變城、與自成戰於紅花店、大破之、耳戰於白溝河、三戰於萬壽山、遂斬自成、奉順治入燕京、棄穀宗以天子之禮、使天下禍素三日、然後皆薙髮胡服、大赦天下、望明大臣史可法、遺書

九王請以天下還明室、九王答書曰、流賊爭自成、偏
東執帝、吾戮力中原、斬自成以雪其讐、矯素天下以
明君臣之義、漢帝以天子之禮、吾所以不負不明也、
今得天下、非自成、非得之不明也、豈可還之義、於是
可法死、三桂降封楚王、後三桂叛、求明室福王、桂擁
立為帝、故更圖中原、福王、桂王、敗死、三桂乃自稱大
楚皇帝、兵敗死、清人設鉄網於毀城處、皇帝幸關外、
必由此城、以示忠不忠先之意、余過山海關、見鉄網
有感而記之、

錦州園

祖大壽寧遠衛人、皇明時三世元戎之將種也、與其
從弟大樂、智勇聞於天下、共守錦州城、清太宗率十
萬兵圍錦州、軍門洪承疇、率八總兵十五萬騎圍清
兵、清太宗患之、悉發蒙、清兵十五歲以上、復圍八總
兵陣、三軍之圍勢如缺桶、相持歷戰、畢竟大壽、大樂
被獲、承疇投降、是役也、明之精兵猛將盡為降沒、獨
吳三桂走保山海關、大樂一夜潰圍跳出、還守錦州、
清太宗招大壽、使之自往投降、請王貝勒友諫曰、大
壽勇將也、今縱帑出柙、必魚更還之理、太宗曰、此非
汝所知也、大壽安出棘門、還入秦曰、陛下知吾一去

不遷而縱使之去何也、太宗笑曰、吾應天命順人心、
非關汝也、汝欲叛、治兵更戰、獨不見孟獲之七縱七
擒、身如欲歸順、捨大樂而來、當以富貴共之、大壽心
服、往說大樂、獻城來降、大樂之跳圍也、孝廟以鳳
林大君質在清陣、設幕之地、低汙、恐有雨濕、移設於
高阜處、夜深有天崩地塌聲、驚起視之、大樂以一騎
潰陣跳出、俄者設幕處盡為礮糞之場、誠可異也、世
傳大壽之妻有智勇如祝融夫人、通作親行於寧遠、
故錦州見陷云、

太學立穹碑、有乾隆平定兩全川告成太學文、

敵敵于諱之義也、文頌健亦係史、故余與雲序
拙筆於囊、磨墨於瓶、疾書之、

太上立德、其次立功、又其次為立言、而德與功皆賴
言而傳、言之無文、行而不遠、文之時義大矣哉、知傳
德之辭、直而寡、傳功之辭、費而多、直而寡者、不因文
而德自見、二典五謨、經世立教是也、費而多者、必因
文而功乃明、周誥殷鑒、結屈聳身是也、吾嘗讀韓昌
黎平淮西碑、益悉此言之不爽、何則、彼其藩鎮、乃家
奴之類、德慧因循、以致究成敵國、削而平之、是宜引
而為愧、而不可炫、以為功、賴昌黎之文、幾與江漢帝

武功稱香定、然有識者固知其辭之多飾、而未知憲宗之愧與不愧耳、今之平定、全川之文、不有類於斯者、解之者曰、逆酋竊縻徼外、非若淮蔡之居中土、元濟之為世臣也、吾則以為、既已受職土社、則是我民、而其地近接成都、遠連衛藏、則是我土、我臣、而我橫生逆志、吞食鄰村、將欲大有所為、不勦而滅之、則西川將不能安枕、茲雖歲稔、平定淮蔡、擒吳元濟、何以異哉、且引以為愧、而不可炫、以為功者、以此、全川之始、見於記事、告功之文、茲不復記、記其復叛而復征、則以陰謀負恩、已自戊寅年始、蓋戊辰之師、實緣

其姚梁不靖而師既臨境彼即窮蹙乞降遂以赦眾
饋師甫十年而其酋郎卡即與常浦什咱構黨復四
年遂與裨斯甲布及三傑谷為敵而逆子索諾木克
恃益甚自恃地廣人衆力強與各土司構兵訖無寧
歲故各土司皆畏之如帝而以勢分力敵又莫能如
之何余以為業已受其降不宜復加兵且蟻聞蠻觸
不足以勞王師因命地方文武大吏隨宜彈壓令不
越內地界亦足以安民而示度身不虞地方大吏欲
息事而每不寬逆酋轉以不足懼日益逞其惡小金
川逆酋僧格桑者始則與索諾木水火如仇繼乃狼

袒為奸於是索諾木計殺羊布什咱土司色楞敦多
布取其印勅以歸而僧格桑亦侵佔鄂克什地界且
發兵圍其土司色達拉之官寨期於必取總督阿爾
安提督董天弼知事不可掩乃有發兵之請是役也
或咎阿爾安依違議事之過而今則以為阿爾安之
過皆余之過蓋金川因其地險衆悍久蓄異志是以
有殺至維州孺之誅有不註則其不忘內地情率可
知戊辰之後我師深入屢勝即不宜赦其罪而受其
降此一誤也爾十年即卡背思作亂以及逆子踵其
蹟皆不及發兵問罪惟令地方大吏隨宜處置屢誤

也、以至尾大不掉、終於興師、故余不咎人之議、窮兵
黷武而轉歿已之類、於姑息養奸、蓋中國之制、外域
張撻伐、則彼畏而歛迹、主和好、則彼輕而生心、漢唐
宋明之覆轍、率皆可鑑、若謂予窮兵黷武、則予賴天
恩、平伊犁、定回部、拓疆二萬餘里、豈其尚不知止足、
而欲滅蕞爾之金川、以為揚赫耀紀勳烈之圖哉、雖
然、平伊犁、定回部、其事大笑、費帑不及三千萬、成功
不及五年、茲而金川小寇、地不逾千餘里、人不滿三
萬戶、而費帑至七千萬、成功亦遲^至五年、則以蛙步皆
險、奮以致命、死守故渴、迨至今日、而我將軍阿桂、立

念堅定、決機啟明、兩副將軍及衆贊領隊諸臣同心
合力、各軍士敵愾奮勇、凡經大小數百餘戰、而後成
功、視平伊犁、定回部、費力轉不啻信筮、設非天恩助
順、衆志成城、金川未易言滅、國威或致小損矣、是不
可以不紀、觀斯文者、尚諒予懷慚悔過之、不暇、知非
循功誦德而為言、其庶幾乎察之以辭、用誌始末云
爾、

小金首禍、曰僧格桑、兵救鄂林、竟抗顏行、督臣諸臣
每率遷就、知弗勝任、將軍別受功(次)破巴朗、直取達圍、
進抵資哩、數月克之、而路夾擊、遂得美諾、單窺狼濟、

金川助惡、既平趨拉、遂討促侵、靈多境險、秦功以沈、
秦功付又以沈、賊更逸却、絲管怯懦、遇戰辟易、兵既怠能、
將復失策、豈如南路、全脚而返、重調勁旅、吉林索倫、
健銳火器、其心忠純、仍分兩路、堂堂正正、不旬日間、
美諾重定、谷噶既入、馬尼並克、秦養旗兵、允得其力、
曦三路進、一沮宜喜、及彼絨（第）遇險而止、阿桂西路則
屢達功、羅博湖看、速遜克宗、喇得山梁、日則了口、舉
點格爾以援、其後、明亮宜喜、亦據嶺梁、而復難進、徒
然望洋、遲茲乙未、累康薩爾、不思工噶、賊礮並毀、明
亮河西、亦有所據、日旁以前、五十里路、夾河兩岸、聲

息可通、並清後路、避克爾宗、沿則大海、昆色拉枯、層層破要、步步披恒、遂克勒圍、如禎飛、迅而何、四月大捷、未至、既克西里、迺建瓶、斜布索、隆不日而傾、雍中舍、齊易如拉朽、密圍噶喇、賊其棄走、是時河西、明亮亦入、富德馬房、傳檄芥、拾設、昨西路、圍噶喇、依則其西路、亦無進期、諸軍既合、火攻周、速、遂、搆、三穴、託其棄逃、然猶死守、四十餘日、計窮力竭、乞命而出、全川之功、阿桂居首、特恩異數、加之宜、身能出能入、有權有經、運長擊短、後實先聲、全川之功、尤資羣力、寸步曾峰、冰滑石仄、將軍指揮、無不奮勇、以此破敵、鹿

堦隴種、金川之功、非予所期、事不可已、久而得之、聞
猶歎困、捨德、鷄肋、念我象勞、至今心惻、金川之功、允
賴上蒼、請被滿、檄我武、維揚、勒碑太學、用遵式例、辭
言思之、文以誌愧、乾隆四十一年歲次丙申三月之
吉、御筆、

桃花洞記

桃花洞、鑿巫閭餘麓也、距廣寧站四十里、過北鎮廟、
遙迤山村、小路抵一洞、奇峰峭壁、疊現層出、黯澹如
潑墨、凝黛、鋪石作路、十餘步、輒對穿石竇、至山腰不
斷、石路盡、而有六十級層梯、上有石窟、呀然、是觀音

窟也、刻其巔曰息岩、天壁正中扁曰天然、幽谷窟中
可坐數百人、窟之北築長龕、安佛像十餘軀、西北奧
處石壁中折、竊然而深、滿壁皆東使題名也、石有扁
額曰、天空海濶、曰蓬萊仙境、山中諸勝、有曰聖水、
蝌蚪碑、桃花洞、吳公岩、道隱谷、雲巢松、曠觀亭、窟東
有亭、扁曰閨山勝境、亭之南有六椽小亭、名曰望仙
亭、之東長谷、多種桃花、洞以之得名也、洞是皇明虞
士賀欽所居、名曰潛谷、欽聞陳白沙講論、即日抗疏
辭官、執弟子禮、首白沙像、懸之剏塾、日曠企之、清修
篤行、鄉人號曰壘閣先生、望仙亭之南、有小窟、奉佛

像扁曰古佛龕、北麓崛起為峯、扁曰晴望、即天晴望
海之所遠、野千里、全在眼前、清安寺有玉皇閣、西南
峰有壁、立萬仞之岩、八小虹門、中有塔、塔有扁曰白
雲、閣歷五十餘級、折旋而上、塔之外、刻大屏石三字、
觀音閣也、抱岩迴廊、石後呀然相開、壁面刻桃花洞、
東壁大書北鎮名山、俯視塵寰、雲海茫茫、如憑虛御
風、玉泉山距洞十里、岩路峻險、山中有寺、寺後石壁
千丈、左刻閔帝像、右刻普淨禪師像、又刻赤兔馬蓋
有閔公現靈、普淨指路之事、故地名相冢符、說此像也、
左壁下有湧泉、色青紺、味清冽、所謂聖水盃也、右壁

下又有湧泉、深數十丈、所謂龍潭也、上百餘層、有石窟、越峰有玉皇閣、最上峰有朝陽寺、眼界極敞豁也、

留柙錄

月沙李相國自燕返、諸公咸集、願聞沿路吟咏、時李體素春英、卧聽之、至春生天外、樹日落馬前、山之句、灑然起坐曰、聖微可與言詩、今於遠野、苦吟之際、尤歎其真境警語、

世儕請太宗詩一聯、未見其全篇、而風馳大漠、山河鼓、日出扶桑、宇宙燈、氣像雄渾、而猶未若宋太祖日出、詩曰、未離海底千山暗、纔到天中萬國明、這是五

星聚奎之前已終文明之兆、

我東士大夫、夷中國而耻之、與漢語而耻之、夫漢語者、漢唐宋明以來中國之正音也、異於清語何耻之有、邇勉奉使之際、文書之去來、事情之虛實、徒仰任譯之口計、之踈漏、莫此為甚、每有事焉、任譯囑道官、道官囑囑四譯、提督提督於禮部堂官、等威截嚴、非可以干託也、事不諧則使臣疑怒於任譯、任譯怨其難明、於是牙上下情志不相穿、而督責益急、則通官之採縱益肆、不虞之銀兩聞焉、銀一開而事愈阻、若有微細之葛藤、則任譯適官、遑遑奔走、推胸叩心、

德者有天下大機關者然使臣深望館中、點點相視、
憂悻萬端、茲曷故焉、士大夫安尊自便、言語不通之
過也、嗚呼、安不思危、古人之戒也、若有干戈創攘、冠
蓋終輝、則債事之責、誰任其咎、昔唐城君誦秀純、見
銀八百、圍城使事、歎曰、解一朝之事、遺百世之憂、可
見古人之深憂、永歎也、中國有二大患、胡也、河也、虜
據上流、勢如建瓴、自三代以後、至于今、堪凌猾、復周
之穰、執秦之胡、杖漢之匈奴、晉唐之契丹、宋明之遼、
全此萬世之患也、昔伯繇才力出人、故欲除中國萬
世之患、乃疏幽冀、鑿恒岱、引九州之水、倒流沙漠、使

中國反據上流、以制胡虜、當堯之時、試可乃已者、此也、及其九載、積用不成、舜殛鯀于羽山、世傳鯀化為黃熊、入于淵、曲學之士、千載之下、但討鯀之罪、曰、抑獨何心、淫洪水、使中國有懷襄之患、此不知胡河之患也、若使鯀成功、則一舉而無胡河之患、中國萬世永賴、功不在禹下矣、然而天下地勢、西北高、東南卑、且水性潤下、不能逆行、而鯀自恃已見方命圮族、此所謂悖道而止身者也、吁、可惜也、

長城為中國之藩籬、以防胡患、中國陽胡虜陰也、天地亦有運數、陰盛陽衰、則藩籬忘所恃、而有毀閉、細

敵之變矣、始知日屆亭午、則雖土階三等、東漸西被、
朔南暨聲教、訖于四海、固矣、論於折柳、樊園、昔趙
李牧大破凶奴、十餘萬騎、滅襁褓、破林胡、築長城、自
代并陰山下、至高閼為塞、而置云中、鴈門、代郡、拳滅
義渠、始於隴西北地、上郡、築長城以拒胡、燕破東胡、
却地千里、築長城、自造陽、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
遼東郡、及秦并吞六國、使蒙恬築長城、起臨洮、至遼
東、延袤萬里、是所謂萬里長城也、蒙恬之築城也、因
地用制、險塞、塹山填谷、萬餘里云、未知包燕趙故城、
而築之否也、自角山至渤海、數十里、即 皇明中山

王徐遠之所築而東人一入山海關輒曰吾見萬里
長城非也索駝蒙古產也無大小色皆淡白微黃而
毛淺目小頭類馬而小尾類牛而短行必縮其頭而
仰其首膝二節而蹄西踏形似水鳥而聲如鴉啼凡
載物背生面因探叱一聲跪受載物運動甚速鈍余
見細目唐哥舒翰在西河乘白索晚五百里委事長
安又晉符彥卿破契丹鐵鶴軍契丹主德光獲一索
駝乘之而走余問蒙古人答曰有急事則銜木於馳
口策之則日馳四五百里云麗太祖時契丹送索駝
四十頭繫於橋下十日又餓死此日食益教斗也藹

十束、圓圍、實諭、實難、豢也、雖欲載物而行、屋制門戶、
挾窄、難、出入、實、無用也、以難豢之物、入、無用之國、
宜、牙、餓、而、死、也、至今、私、京、有、素、肥、橋、
象、出、於、桂、林、象、郡、設、機、捕、之、讀、皇、帝、詔、書、諭、以、不、殺、
則、輒、服、聽、即、地、釋、械、亦、可、以、馴、其、長、二、丈、高、亦、如、之、
蠢、然、而、動、望、之、如、巨、屋、鼻、長、至、地、兩、牙、拖、橫、于、外、下、
唇、如、單、喙、之、尖、毛、灰、色、乍、見、若、魚、毛、股、三、節、足、五、趾、
趾、各、有、蹄、而、圓、移、步、甚、緩、駿、馬、快、走、然、後、可、及、耳、大、
如、箕、向、下、而、垂、目、甚、橫、細、尾、甚、短、小、飼、以、菜、草、以、鼻、
捲、入、于、口、雖、一、箇、之、微、能、拾、而、啖、之、蓋、其、鼻、端、有、夾、

肉如鑄、象力全在鼻、卧而欲起、則以鼻拄于地、然後能起、雖斥豹之屬、以鼻一揮、則斃、其飲水、亦以鼻吸之、捲曲而注、諸口、其聲如傾盆灌之、將繡鞋、則叩膝而警、輒屈其節、為凹、人由而升降、將駕轎、則跪而貼地、性甚順、雖小兒、可以御之、象園在宣武門北、遼街、衍、凡數十頭、各一間、皇帝勅駕、及大朝會、繡鞋、以先南簿、且駕黃屋轎、象奴坐其頂、若嬰兒、或迂行、則以鐵鈎鈎之、象瞬目、從之、其血出處、見星、瘡合、世傳象見天子、則屈而膝、見諸侯、王、則屈一膝、云、我、世祖大王、以首陽大君、奉使入燕、八象皆拜跪、亦可異。

也、昆陽之戰、交趾之後、皆割而騎之、蓋其性善解人
意故也、然象以數中之巨物、而有二畏焉、一畏獅、二
畏鼠、犬獅子一吼、百獸腦裂、其極固可畏也、鼠比於
象如蠅之於驢、鷄之於鵬、何為而畏也、甚至於聞鼠
聲、則象牙自坏、亦甚怪哉、鼠畏貓、貓畏犬、犬畏虎、虎
畏象、象畏鼠、五畜相逢、莫敢先動云、
鸚鵡有紅綠玄白諸種、犬如小鵝、尾亦如之、凡鳥皆
三趾前向、一趾向後、而此鳥却二前二後、又背項翎
領、嘴頸尾之間、五彩俱全、蓋鳥之慧黠者、而能解人
語、又解人意、人家簾櫺之間、比比別之、出隴山者佳、

孔雀出南交諸郡、五色玲瓏、體艷尾長、我國之用於
笠餅者、皆假造染色者也、昔隋煬帝幸江都、用麝香
鋪八十里、御路到天下之麝香、屋鋪四十里、乃以孔
雀羽承以收之、復鋪前站四十里、蓋麝香見孔雀羽、
則一塵之微、皆粘上、無餘、有一譯談此法、求望真品、
孔雀羽、中國人乃驚歎其博物、孔雀不食他物、唯食
絡蜘蛛、我國雁村黃公、位至首相、家甚清貧、夫人歎
曰、犬豕捐籠之後、家屬無食、將何以料生、雁村笑曰、
孔雀喫絡蜘蛛、可活耶、公卒後、孔雀一雙、自中國來、
不食欲死、上問于雁村家、夫人以其語對之、上歎其

清貧、優恤其家。

猿蜀虛也、其形似人而較小、善效人諸技、弄猿者弄
與熊兒、漢羊勃勃之屬、而弄之、余兒時、見我國亦有
弄猿者、為其作梗、難割、禁之云耳。

諸國

蒙古、一名韃靼、居沙漠、天下莫強之國也、四十八部
王、歲入朝貢、國俗、無貴賤、皆衣黃衣、與皇帝著也、乾
隆聞黃花詔、愈加羈縻之。

回子、亦稱回回國、在海中、五閱月始抵、中國康熙時、
逆命、遂發兵討之、擒其王、俘于京師、絀其七、後宮、其

人顰面深目、勒鬚髻、髮、衣帽如清人、女子服斑斕衣、
辮髮下垂、道光時又叛、送揚過春討平之、

鄂羅斯亦名大鼻撻子、國在黑龍江北、距中國二萬餘
里、十年一至、留館進易、不朝不貢、其人黑面高鼻、性
悍、

暹羅或稱赤眉遺種、國在占城極南、洋海八千里、至
廣東下陸七千里、至燕京五斗一朝貢、其人皆剃頭、
體矮、貌癯、江南不寒、冬著單衣、貢物則龍涎香、沉香、
白檀香、降真香、金剛鑽、冰片、樟腦、大楓子、豆蔻、草撥、
桂皮、翠鳥皮、孔雀尾、象牙、犀角、西洋毯、紅布、烏木、蘇

本等種一統志云暹羅俗尚侵掠婦人志量出男子
國中有刑法輕重錢穀出入皆與之決議
安南古南交之地秦置象郡漢置交趾距燕京一萬
一千一百餘里歷代篡奪相繼乾隆時廣南人阮惠
自立為王遂封安南王

真臘地方七千餘里在占城之南國王三日一視朝
坐五香七寶床上施寶帳朝霞吉貝璫絡腰腹下垂
至脰頸戴金寶花冠被珍珠纓絡足着羊履耳懸金
鐺其臣朝於王三稽首五呼上階則跪兩手抱膝遠
王環坐議政事國城七十里殿宇三十餘所頰壯麗

俗尚華侈、田產富饒、男女薙髮、七滿十歲即嫁、中國人稱富貴真臘國、

襄耐國、即安南附庸也、其君長阮福映、攻滅安南、上表請錫新封、願以南越名國、部臣議駁、以越字冠于上、封為越南國王、

琉球國在東海中、與我國毗羅最近、國中多寶物、世傳琉球太子漂到耽羅、耽羅人貪其寶貨、沉殺之、耽羅人若漂到琉球、則必殺之、故耽羅漂人、必備地色、人以圖免、

思真國、在寧古塔東北、數千里、冰海之外、海水五年

一水不相通涉其人通身蒙獸皮但出頭面髮鬣如羊喫生魚肉乾隆時思真人忽渡海出陸乾隆招致言語莫通陳百物於前觀其所欲卒無所願見一女孺欣然接抱遂擇配聰慧女子且令伶例五人從衛領還本國給五穀種及耕具教之農後五年與其女子復渡來海至謝恩持大珠如壽者數枚貂皮長丈餘者貢之女言大海中魚長三丈小或丈餘唯獺禽獸食生魚蟹珠貝溘海死怪不測

浮提國在海外其人皆飛仙好游行天下至其地能解方言欲還國則一呼吸可至矣萬曆末葉御史永

威、控江右、有一羣狂客、能言黃白事、極飲娛樂、市物
其侈、多取珠玉、綺繒、價之過于直、及暮、忽不見、比早
復來、人請大搜索、業不許、第召至前、能為江右土語、
自言、浮提人、手持一石、似水晶、可七尺許、置案上下
前後物物映其中、又持一金、縷小函、中有經卷、寫楮
綠字、如銀、若讀、覽畢、則字飛、請以此二物為獻、業曰
汝等必異人、所獻吾不受、可速出境、業感、吾民皆叩
頭而去、乾隆末、不知何國人、三百名、皆赤髮、眼光閃
爍、如火、衣服異常、行步便捷、從南方來、郡縣皆不能
覓、至燕京、詣禮部、請朝、現時侍衛森列、其中十三歲

兒最聰慧先拜和神大臣阿爾叱之對曰將以問陸
見之程帝不悅逐出門外仍不知去處或疑譯捉人
耶、

元諸國風謠地界隨所聞若干抄錄而亦難殫記今
中國地方西北至甘肅西南至緬甸南極靈貴東有
允喇船廠所稱西域吐蕃突厥之地盡入版圖自
開拓新疆之後幅員之大亘古未有朝貢之國亦倍
前代占城牙蘭瓜哇琉球安南暹羅真獺渤泥蘇祿
打回安定哈密等國其最著者也有歲一至間歲一
至三歲五歲十歲一至亦有一世一至者

編者略歷

• 林基中

東國大學校 文科大学 國文科 教授

韓國文學研究所 所長

『朝鮮朝의 歌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古典詩歌의 實證的 研究』, 『우리의 옛노래』,

『우리 歲時風俗의 노래』, 『高麗歌謠의 文學社會學』,

『佛敎歌辭1-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景幾体歌 研究』, 『韓國歌辭文學 研究史』,

『歷代歌辭文學全集1-50』, 『새로 읽는 鄉歌文學』,

『韓國文學의 이삭』, 『천재적인 바보』,

『佛敎歌辭原典研究』, 『佛敎歌辭研究』,

『燕行歌辭研究(近刊)』, 『燕行錄研究(近刊)』 등의 책을 펴냄.

燕行錄全集 98

2001年 10月 20日 初版 印刷

2001年 10月 25日 初版 發行

編者: 林基中

發行人: 宋錫球

發行處: 東國大學校 出版部



100-715 서울特別市 中区 筆洞 3街 26

Http ://home.dgu.ac.kr/~book/index.html

E-mail:book@dongguk.edu

Tel : 2260-3483~4

FAX : 2268-7851

出版登錄 第2-163号 (1973. 6. 28)

組版·印刷/龍知印刷(株) 718-3111~19

價格: 1 帙 (100卷) 4,000,000원

ISBN 89-7801-208-6 93810

ISBN 89-7801-110-1 93810(세트)

